

2012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차 통상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2. 2. 9 (목), 14:00~18: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7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1	양산 통도사 은제도금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공개
2	문경 봉암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
3	속초 신흥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
4	경산 경흥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
5	서천 봉서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
6	고창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
7	익산 미륵사지 금동향로	"
8	불조삼경	"
9	불설대보부모은중경판	"
10	양회산법	"
11	김응남 호성공신 교서 및 관련 고문서	"
12	양산 신흥사 대광전 벽화	"
13	포항 중성리 신라비	"
14	이순신 관련 고문서	"
	<국가지정문화재 국외반출>	
1	국보 제188호 ‘천마총 금관’ 등 국가지정문화재 국외반출 허가	공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1	2012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 사업 관련 현상변경 허가	공개
2	보물 제1721호 ‘속초 신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현상변경 허가	"
【검토사항】 8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1	서산 개심사 오방오제위도 및 사직사자도	공개
2	서산 개심사 제석·범천도 및 팔금강·사위보살도	"
3	부산 금정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
4	청주 용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
5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	"
6	묘법연화경 권2·4·5·6	"
7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명칭 변경>	
1	보물 제370호 ‘울산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공개

【심의사항】

I.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안건번호 동산 2012-01-001

1. 양산 통도사 은제도금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梁山 通度寺 銀製鍍金阿彌陀如來三尊像 및 腹藏遺物)

가. 심의사항

“양산 통도사 은제도금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불교문화재 일제조사(경남 동부지역)를 통해 지정 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조사('11.08.16)를 실시한 결과,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었음.
- 현지조사자 3인이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문화재로 본 위원회 2011년도 제5차 회의('11.10.13) 검토에서 현품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보류된 후 2011년도 제6차 회의('11.12.13)에서 현품이 검토되고, 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 30일간 지정 예고('11.12.23~'12.01.22)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양산 통도사 은제도금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梁山 通度寺 銀製鍍金阿彌陀如來三尊像 및 腹藏遺物)
- 소유자(관리자) : 통도사
- 소재지 :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 통도사
- 수 량 : 불상 1구, 복장유물 30건 49점

- 규 격 : 전체 높이 11.2cm, 최대 폭 11.4cm
 아미타여래좌상 상 높이 6.5cm 무릎 폭 4.4cm
 대세지보살입상(향좌) 상 높이 8.2cm 어깨 폭 2.2cm
 관음보살입상(향우) 상 높이 8.2cm 어깨 폭 2.3cm
- 재 질 : 은제도금
- 제작연대 : 1450년(세종 32)
- 제작자 : 해료(海了)

라. 내용 및 특징

통도사정보박물관에는 은제도금아미타여래삼존상과 복장유물 및 불감이 함께 일괄 유물로 소장하고 있다. 불감은 불상을 모셔두기 위해 후대(조선 말~근대)에 조성한 것이다. 통도사에서는 이 불상이 금강산에서 전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8년 1차 조사 때에 복장발원문만 꺼내어 공개되었고, 2004년 2차 조사 때에는 본존대좌의 아래쪽에 위치한 복장공에서 30여 건의 복장물이 추가로 조사되었다. 복장발원문을 통해 불상은 “景泰元年”인 1450년에 제작되었으며, 상의 제작자는 “造土海了”임을 알 수 있다.

은제도금아미타여래삼존상은 가운데 아미타불좌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위치한 협시보살상이 각각 연화대좌 위에 서 있다. 좌협시 보살상의 보관에는 불좌상이, 우협시 보살상의 보관에는 정병이 표현되어 있어 각각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임을 알 수 있다. 특이하게 보살은 양손으로 棒 모양의 물건을 두 손으로 잡고 있는데, 경권으로 추정된다. 대좌는 상대·중대·하대로 이루어진 삼단 연화대좌이다. 상대와 중대는 8판의 연화가 양련과 복련 형태로 장식되었고, 중대는 8각 기둥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하대와 중대가 만나는 양 측면으로부터 각각 한 줄기씩의 연꽃 줄기가 튀어나와 작은 양련대좌를 형성하고 있다.

본존불인 아미타여래좌상은 편단우견의 대의를 착용하고 연화대좌 위에 결가부좌하고 있는 형태이다. 왼손은 오른발 위에 약간 공간을 띄운 채 손바닥을 위쪽으로 향하여 수평으로 두었는데 엄지와 장지를 가까이 대고 있고, 오른손은 무릎 아래로 내려서 대좌 윗면까지 닿는 축지인을 결하고 있다. 상호는 가름한 편으로 육계가 거의 생략되어 있으며 나발의 머리 위에 큰 정상계주가 위치하고 있다. 편단우견의 대의자락은 가슴을 사선으로 지나는데 오른쪽 가슴 위에 안에서 접혀져 나온 승기지 자락이 살짝 늘어져 있다. 좌우 협시보살상은 보관에 표현된 불좌상과 정병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형상이 거의 유사하다. 보살상의 얼굴은 둥근 편으로 불과 턱에 살집이 있어 원만하게 표현하였다. 보관은 끝이 구부러진 당초 줄기를 대칭되게 세워 수목형을 하고 있고, 상반신은 나신이다. 보살상의 영락장

식은 가슴 부위 장식과 하반신 장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복잡하고 화려하다. 가슴에는 U형으로 늘어진 영락에서 세로로 떨어진 3줄의 장식모양이며, 허리와 무릎에도 희미하게 영락장식이 남아있다. 천의는 S자형을 그리며 흘러내리고, 하의 옷주름은 다리 윤곽을 따라 U형으로 표현하고 있다.

통도사정보박물관 소장 은제도금아미타여래삼존상은 전체적으로 통일신라 이후 지속되어 온 고전적인 불상 양식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하나의 대좌에 삼존을 배치하는 방식, 끝이 뾰족한 여래의 육계, 협시보살의 이색적인 보관 형태, 봉 형태의 지물 등 세부적인 표현에서 새로운 요소들이 나타난다. 재질면에서도 청동이 아닌 은을 사용하고 있다. 유사한 형식의 불상으로는 미국 세클러박물관 소장의 은제삼존불좌상(15세기)과 금강산 향로봉 출토 금동아미타삼존불좌상(1429년)과 내강리 출토 금동아미타삼존불좌상(1453년) 등이 있다. 또한 청동이 아니라 은과 백동을 사용하는 방식도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나타나는 경향이다.

이처럼 통도사정보박물관 소장 은제도금아미타여래삼존상은 14세기 말~15세기 초에 새로이 유입된 중국화된 티베트 양식을 중심으로 고려시대 이래의 여러 전통적인 요소들이 융합하여 탄생한 새로운 양식을 간직하고 있다.

○ 명문

① 願成彌陀三尊同發願文, 1450년, 종이, 34.2×36.4, 1매

願成彌陀三尊同發願 願我生生處 常於般若不退轉 如○○師勇孟志 如彼舍那大覺果 如彼○○大智惠 如彼普賢廣大行 如彼地藏無過身 如彼觀音三十應 十方世界無不現 普願○生入無爲 聞我名者○三途 見我形者得解脫 如是教化恒沙劫 畢竟無佛及衆○ 願諸天龍E八部神 爲我擁護不難身 於諸難處無諸難 如是大願能成龍 發願已皎命三禮寶 金哲 中敏 訥音 召吏 八月 者斤 老見 延之 元敬 銀金 春非 無通 寶強 牧舟 者土 成舟 思達 明達 于強 …… 自田 善敬 銀德 內口伊 小斤太 文子 得敬 姜○吉 終乙 訥斤伊 崔今守 巾藏 甘音伊 金松 流伊藏 金○ 金逸 古邑耶只 崔仁彦 …… 崔仁德 達正 志一 今月 金難 金彦 豆打非 義乳 義由 徐加求之 ○伊藏 內口E惠只 金○龍 加口加伊 梁用 高○○ 梁氏 眞○ …○○ 鄭仇金 洪禪 太石蘭 銀珠 洪道 行正 李氏 三月 白德只 處義 朴乙生 李尙 全吉 義修 石山 者老 坦溪 長枝 亡龍 千龍奉 ○非 …古○ 金…太 …… 知伊 內口土 僧加 心方 金○ 現龍 金德 金二龍 難金 柳氏 良衣○伊 珍衣○ 加口加伊 加阿之 金苐 甫泰 信元 衆伊 良衣伊藏 金他乃 有子 柳中 貴同 者斤召吏 住○ 徐繼分 金眞梅 善

妃」李夫斤失」梁罔」吳氏」万花」孝道」金思量」成子」万德只」龍世」權守」朴
 今音勻」卜眞」陳○」○德只」月梅」金仇知○妻」李哲」心○」召○」○得守」者
 斤伊」梁現三」長每邑金」宋竹」金氏」仇知金」李官」朴正龍」將美」梁長命氏」
 金元界」永德」梁禹之」金德」巾之」芍若」金臣業」孫德」申万」芍香」洪守謙」
 者斤」金夫」徐延」毛得只」賴太」有知」同金」幼正○」成夫○」金呂溫」金氏」
 惠智」牧舟」寶紙」全氏」金剛」春敬」性」永春」梁氏」梁末同」○春」○惠」哲
 牛」金兩」志澄」金奉」金同」心方」信義」朴習」○頌」道禪」性明」六明」尙
 明」六和」六罔」春金」琴氏」大敬」信成」德之」中敬」金氏」○山」○住」夫
 存」毛伊乎」金氏」金正善之」衆伊」宋以」於乙火伊」長氏」凡智○」黃氏」玄
 三」德中」形氏」奴甲加」形玉龍夫妻」尹漢」趙氏」性行」處」加○」豆○」迷
 同」哲山」道者」山非」崔中海」本致」金破吐」丹正」長今音同」觀音」崔之」白
 德」曹以奉」敬存」義敬」希顏」四德」敬生」金儲」柳和」柳承吉」四寶」○權」
 淮○」德之」○山」末生」○海」者斤」砦文」所進」金巨亡彦」者斤召吏」金已」
 卽生」○○」定峯」明菴」○○」道菴」正菴」志修」海胡」俊菴」祖敏」賴性」性
 惠」義尙」允義」德敬」智岑」罔然」義○」學智」正環」○惠」性涼」性照」洪
 道」義圓」信正」學存」壬環」學惠」罔玉」義明」洪惠」性照」處峯」海惠」性
 月」壬敏」信義」尙敏」學眉」…」…」罔憚」洪乙」學○」○一」石三」信心」洪
 樞」信觀」性了」惠明」海惠」義悟」元玉」海彷彿」覺志」尙敏」義見」竹林」一
 明」性明」法正○」…」…」性了」性雲」省罔」洪俊」惠○」得尙」信海」性海」
 金豆乙」者斤召吏」卜眞」月海」吏」小斤伊」繼南」毛邑非」…」…」…」○○」
 李万」○金」正達」豆乙彦」尙○京」寶排」个罔」乙大」爲方」金天」召吏」吉
 通」達通」心方」李漢兩」正月」崔大介」成美」正月」仇哲」○惠敬夫妻」○○○
 甲」李仁桂」內」藏」尹通」李仁」朴陽」三德只」崔金守」鄭氏○藏」○○」流○
 藏」…」…生」如○○○」金藏」加乙个」化士義月惠月」石窓」**幹善道士超然**」**信
 頓**」**造士海了**」**景泰元年庚午**」**五月日畢**」**共登蓮願往**」生」

② 복장유물 일괄 腹藏遺物 一括

1450년 추정, 30건 49점, 통도사성보박물관

위치	수습순서	내용물	수량	크기(mm)	재질
대좌(中臺)	1	은제원관	1	∅=22, t=0.7	銀
	2	원형직물편	10매	∅=22, t=층5	비단

	3	腹藏記	1	34.2×36.4	종이
대좌 (上臺)	4	녹색직물편	1	계측불가	비단
	5	실뭉치	1	24×22	비단
	6	녹색직물편	1	40×65	비단
		남색직물편	1	70×70	비단
	7	황색직물편	1	30×35	비단
	8	식물뿌리(?)	4편	16×12/13×12 18×8/13×5	木
	9	수정원판	1	∅=17, t=6	수정
	10	수정구슬	1	∅=14	수정
佛身 (下體)	11	진주	1과	∅=3	진주
	12	실뭉치	1	30×40	비단
	13	종이뭉치	3		종이·木
	14	香油	4편	L=8.5,14,16,20	木
	15	진주와 사리	2과	진주∅=1.5 사리∅=3	진주·사리
	16	금은제원판	1	∅=9.2, t=0.5	금은
	17	금동팔화문판	1	∅=12, t=0.4	금동
佛身 (上體)	18	종이뭉치	1	16×11	종이
	19	종이뭉치	1	12×8	종이
	20	종이뭉치	1	19×8	종이
	21	종이뭉치	1	13×11	종이
	22	종이뭉치	1	8×5.7	종이
	23	종이뭉치	1	10	종이
	24	종이뭉치	1	20	종이
	25	종이뭉치	1	4×2	종이
	26	종이뭉치	1	12×9.6	종이
	27	종이뭉치	1	10×5.8	종이
	28	종이뭉치	1	11×8	종이
	29	직물뭉치	1	17×7	비단
	30	금동원통	1	5×3	금동

마.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전체 높이 11.2cm의 소형 은제아미타여래삼존상은 본존불의 크기가 6.5cm, 좌우 협시 보살입상의 높이가 8.2cm와 8.2cm로 소형의 상이다. 본존불의 오른손은 향

마촉지인을 결하고 있다. 부처의 왼쪽 협시보살상의 보관에는 아미타불이 표현된 관음보살상이고 오른쪽 협시보살상의 보관에는 정병이 있어 세지보살로 확인된다. 따라서 본존불은 도상적으로 아미타불로 볼 수 있다. 두 보살상이 들고 있는 긴 막대 같은 것은 보살상의 지물로는 이례적이거나 아마도 두루마리 경전이 아닐까 한다. 이 삼존상의 본존불에서는 귀중한 발원문이 발견되었는데, 그 내용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주자 명단 끝에 景泰元年 庚午 5월 즉 1450년(세종 32)에 조성되었고 제작자는 造士海了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상은 개금을 두껍게 하여 세부표현이 잘 보이지 않으나 보살의 관이나 영락장식 그리고 대좌표현의 장식이 정교하다. 특히 부처의 머리 정상에 정상 계주가 있는 것은 이 상이 고려를 통해서 들어온 원 불상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상들의 양식은 바로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의 특징을 보여준다. 국가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 (지정 가치 있음)

조성연대가 확실한 15세기 은제삼존불상으로 조선 초기 불교조각사 연구에 기준이 될 수 있는 작품이므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은제아미타여래삼존상은 전체적인 특징과 구조법 등에서 조선시대 초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아미타여래좌상 왼쪽 어깨 위의 옷주름 장식에 보이는 조선 초기의 특징과 양협시보살의 보관을 장엄한 화형 장식에 보이는 여말선초의 모티프, 정상계주에서 확인되는 藏傳 불교미술의 특징, 대좌에 보이는 연주문 장식 등은 고려 말 조선 초에 조성된 불상의 전형적인 특징들이다. 한편 불상 안쪽에 보이는 매끈하지 않고 거칠게 표현된 구조 흔적도 이 시기 구조의 특징이다.

불상에서 발견된 1450년 명 彌陀三尊發願文에서는 발원문 앞부분에 후대에 많은 조성기에서 인용되는 懶翁선사(1262~1342)의 원문이 쓰여 있으며, 제일 뒷부분에는 조각승(造士) 海了와 조성 시기가 기록되어 있어, 불상의 조성 내용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해 준다.

한편 과학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불상 조성에 사용된 재질이 동이 아니라 은이라는 점도 주목되는데, 불상재로서 은이 사용되는 시기 역시 여말선초에 해당된다.

불감은 은제아미타여래삼존상, 복장 일괄과 달리 후대에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지정 가치가 미흡하다.

그러나 은제아미타여래삼존상은 조성 내용을 알려 주는 발원문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 불상 조성에 참여한 많은 발원자의 이름을 통하여 이 불상이 여말선초에 유행했던 彌陀香徒신앙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작은 크기지만 관음보살 보관에 새겨진 화불, 대세지보살 보관에 새겨진 보병, 아미타여래좌상의 오른쪽 발가락과 왼쪽 젖꼭지 표현, 보살상 양 무릎 위의 꽃 장식 등을 매우 섬세하게 표현한 점 등은 이 불상이 불교사적으로나 조각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지를 잘 알려 준다.

따라서 통도사 은제아미타여래삼존상과 복장 일괄은 국가지정문화재로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이 삼존상은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에 의하면 景泰元年 庚午(1450, 세종 32)에 아미타삼존상으로 조성된 것이다. 육각연화대좌 위에 향마촉지인을 짓고 결가부좌한 아미타불상을 중심으로 연화좌 위에 선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상을 좌우 협시로 두었다. 본존상은 아미타불상으로는 드물게 향마촉지인을 결하고 있으며, 관음·대세지보살상 역시 이들 도상에서 볼 수 없는 經卷을 지물로 들고 있어 주목된다.

불상에서 보이는 형식과 양식은 금강산 일대에서 발견된 여러 구의 불상과 양식상 공통점을 보인다. 즉 팽이 형으로 솟은 육계 위에 연봉형의 큼직한 정상계주, 오밀조밀한 이목구비, 단엄한 얼굴표정, 오른 팔뚝에 조그맣게 자리 잡은 〇형 주름, 작은 체구지만 당당하고 육감적으로 표현한 가슴, 두터운 범의에 표현된 탄력 넘치고 골 깊은 주름 등이 특징이다. 이러한 양식적 특징은 원·명대 라마양식 불상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것으로, 여말선초로 추정되는 금동여래좌상(소재 불명)이나 景泰 2年(1451년, 문종 원년)銘 금동아미타삼존좌상(금강산 은정골 출토) 등 고려 말부터 조선 초에 걸쳐 금강산 일대에서 조성된 소형 금동불상들과 양식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아미타여래삼존상은 조성발원문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1450년에 조성된 작품임에 틀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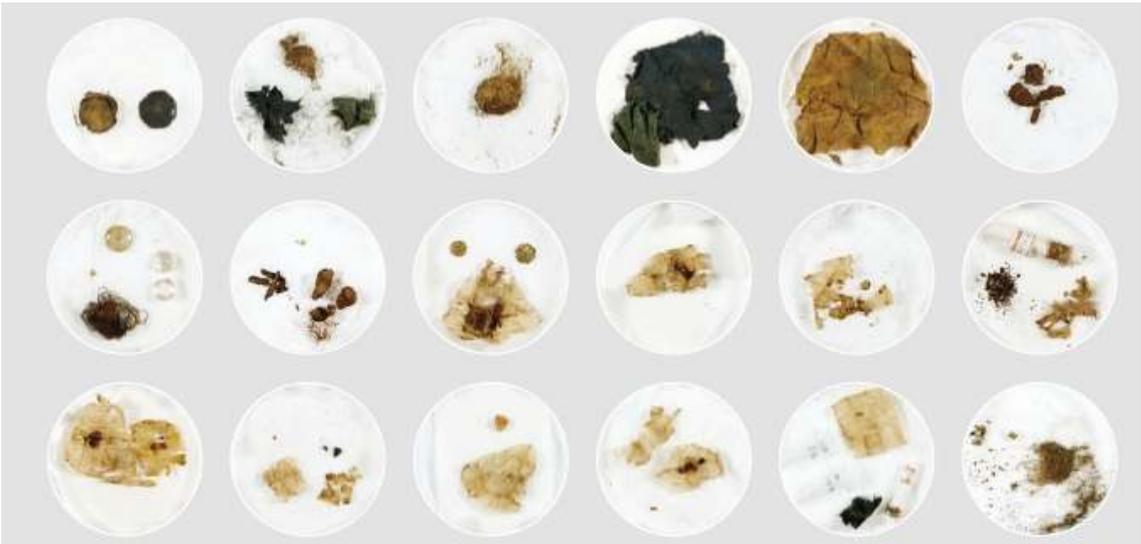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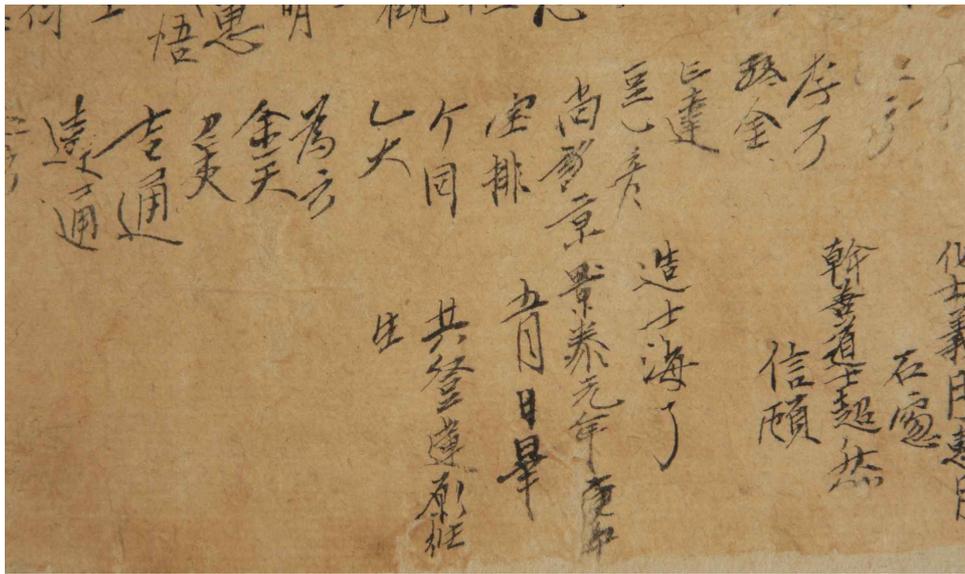
이 불상은 고려 말 조선 초 왕실발원으로 금강산 일대에서 많이 만들어진 불상 중 하나로 추정된다. 이 불상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당당하면서도 품격 높은 예술성, 그리고 종교적 이상성이 잘 어우러진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여말선초 외래양식의 영향을 받은 작품 중에서 제작시기와 제작자를 분명히 알 수 있어, 이 시기 아미타여래삼존도상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므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

바.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보물로 지정함.
- 복장 유물 중 사리(1점은) 제외



양산 통도사 은제도금아미타여래삼존상, 1450년, 은제도금
① 아미타여래좌상 상높이 11.2 무릎 폭 11.4 ② 대세지보살입상(향좌) 상 높이 8.2 어깨폭 2.2 ③ 관음보살입상(향우) 상 높이 8.2 어깨폭 2.3



양산 통도사 은제도금아미타여래삼존상 복장유물

2. 문경 봉암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聞慶 鳳巖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및 腹藏遺物)

가. 심의사항

“문경 봉암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문경 봉암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에 대한 국가 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09.08.31)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1.07.22)를 실시하였음.
- 현지조사자 3인 이상이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문화재로 본 위원회 2011년도 제6차 회의('11.12.13)에서 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 30일간 지정 예고('11.12.23~'12.01.22)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문경 봉암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聞慶 鳳巖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및 腹藏遺物)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봉암사
- 소재지 :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 485 봉암사
- 수 량 : 불상 1구, 복장유물 14건 26점
- 규 격 : 높이 51.5cm, 무릎 폭 36cm
- 재 질 : 목조
- 형 식 : 아미타여래 독존형식
- 제작연대 : 1586년(선조 19)
- 작 자 : 나운(蘿雲), 법정(法正)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봉암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현존 작품이 많지 않은 16세기 후반의 기년 불상으로서 조성을 담당했던 蘿雲비구, 法正비구의 이름을 전하고 있으며, 조성배경으로 공회빈 윤씨(덕빈윤씨)와 같은 왕실의 인물을 추정할 수 있는 점 등, 조선시대 불교조각사 연구에 중요한 작품이므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봉암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은 복장 유물을 동반하고 있는 조선시대 16세기 불상으로서 조선시대 조각사 연구의 중요한 기준작이다. 즉 복장유물인 「阿彌陀佛坐像腹藏發願文」에 의하면, 이 불상은 曦陽山 鳳巖寺 禪堂 香爐殿에 彌陀八大菩薩 1幀과 彌陀兩大菩薩 2幀과 함께 조선시대 선조 19년(1586)에 봉안되었다. 발원문에 보이는 함께 봉안되었던 불화는 목조아미타불상 후벽을 장엄했던 후불탱화로 추정된다.

목조아미타불좌상은 전체적인 비례나 각 부분의 특징 등에서 조선시대 16세기 불상의 전형적인 모습을 잘 보여 주며, 상당히 수준 높은 작품이라 하겠다. 불상에 보이는 수준 높은 작품은 「阿彌陀佛坐像腹藏發願文」에 기록된 順懷世子の妃였던 덕빈이나 덕빈과 관련있던 비구니 박씨, 윤씨와 연관될 개연성이 있다. 목조아미타불좌상은 복장유물을 통하여 宣祖 19년(1586)에 조성되어 孝宗 1년(1650)과 光武 8년(1904) 등 몇 차례에 걸쳐 개금되었다. 즉 불상의 유래나 전승 과정이 복장 기록에 구체적으로 전해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불상 조성에 관여했던 화원인 蘿雲비구와 法正比丘의 이름이 확인된다는 점과 조선 전기 불상 복장의 양상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복장유물이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상기한 몇가지 점에서 봉암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은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이 불상은 양식적 특징상 조선 전기 15세기 불상의 양식을 계승하고 있으면서도 16세기에 등장하는 새로운 요소도 간직하고 있다. 즉 이 불상에서 보이는 머리 중앙의 큼직한 반달형의 육계라든지, 날카롭게 뻗친 나발, 그리고 양감이 넘치는 귀엽고 부드러운 상호의 표현, 왼쪽 팔꿈치의 약화된 Ω형태의 주름 표현, 양 무릎 위에 표현된 약하게 돌출한 주름 등은 제주 서산사 목조보살좌상

(1534년)이라든가, 봉화 청량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1578년), 경주 왕룡사원 소조약사여래좌상(1579년), 그리고 16세기 중엽 경으로 추정되는 대승사 윤필암 목조아미타불상 등 16세기 조성된 불상들과 양식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불상은 조성발원문에 등장하는 1586년의 시기와 양식적으로 일치하며, 몇 구 傳하지 않는 16세기 불교조각 자료로써 소중하다.

더욱이 불상에서 발견된 造成發願文을 통해 1586년이라는 분명한 제작시기, 제작주체뿐만 아니라 蘿雲과 法正이라는 이 시기 새로운 조각승도 알 수 있고, 1586년 조성된 이래 1650년과 1904년 두 차례에 걸쳐 중수된 기록을 담고 있어 불상의 가치를 한층 더해준다. 특히 발원문 중에서 등장하는 德嬪尹氏가 發願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왕실불상 연구에도 귀중한 사례로 평가된다. 복장 유물과 함께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불상과 일괄하여 국가문화재로 지정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보물로 지정함.

조사보고서

□

○ 내용 및 특징

(1) 아미타여래좌상의 현상과 특징

봉암사는 신라하대 헌강왕 5년(879) 지증대사 道憲(824~882)이 개창한 曦陽山 선문의 본산으로 경문왕의 누이였던 단의장옹주 등의 후원을 받으며 번영하였으나 나말여초의 혼란기에 폐사되었다. 이후 고려 태조 18년(935)에 정진대사 兢讓(878~956)이 대대적으로 중창하여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현재에 이르도록 우리나라 선종불교의 중심사원으로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봉암사 아미타여래좌상은 높이 51.5cm로 비교적 크기가 작은 편인데, 복장에서

나온 조성발원문을 통해 선조 19년(1586)에 蘿雲비구, 法正비구의 두 화원에 의해 조성된 불상임을 알 수 있어 임진왜란 직전 16세기 후반의 불교조각과 조각승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다. 이 불상의 복장에서는 조성발원문 외에도, 개금 발원문(1650년), 立志發願文(1904년)과 같은 발원문들, 사경·다라니의 전적류, 오보병, 보자기, 실몽치, 삼각·원·반월경 등의 후령통 납입유물 등이 발견되어 이 불상의 조성 및 중수의 배경을 추정하는데 참고가 된다.

조성발원문에는 당시 이 불상과 함께 ‘아미타팔보살’와 ‘미타양대보살’의 불화를 조성하여 ‘봉암사 禪堂 香爐殿’에 봉안했다는 기록이 있어 당시의 불사 규모와 정황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발원문에 보이는 왕실축원의 내용 가운데 주상전하(선조)와 왕비전하(의인왕후)의 다음에 ‘德嬪邸下’를 언급하고 있는 점은 흥미롭다. 덕빈전하는 명종의 외아들로 열세살의 어린 나이에 죽은 順懷世子(1551~1563)의 빈이었던, 공조참판 尹玉(1511-1584)의 딸, 恭懷嬪 윤씨로 생각된다. 또한 불상과 불화의 조성시기가 1584년에 죽은 윤옥의 大喪을 맞은 해라는 점도 주목된다.

아미타여래좌상을 살펴보면, 어깨가 좁은 아담한 佛身에 머리 중앙에는 커다란 반달형의 중계주와 정상에 동그란 정상계주가 표현되었으며, 나발은 원추형의 뿔처럼 삐죽삐죽 뻗어있다. 이와 같은 머리 모양은 경주 왕룡사원 소조약사여래좌상(1579년)과 유사한 것으로서 조선 전기 16세기에 유행한 표현으로 생각된다. 콧날이 오뚝하고 양 뺨이 통통한 佛顔은 온화하고 자비로운 相好를 보인다. 大衣는 통견식으로 입었고 그 위에 다시 한 벌을 덧입었으며(이 착의에 대해서 울타라승 위에 대의를 입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편삼을 입은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옷주름의 표현은 비교적 간결하며 양쪽 무릎에 살짝 융기된 한 가닥의 옷주름이 표현된 점은 조선 전기에서 16세기에 이르는 시기의 불상들에서 보이는 특징이다. 두 손은 別材로 만들어 손목에 끼워 넣었는데, 양손의 검지와 무명지를 약간 구부려 說法印을 나타내고 있다. 불상의 저부에는 방형의 복장공이 뚫려있으며 복장공에 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는 이 구멍을 막는 봉합목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지금은 종이로 막혀있다.

(2) 발원문

① 조성발원문(1586년)

伏願

彌陁大聖白玉明毫光流處處無不攝生紫金巖相影化重重有」
 緣皆度尋○○接引應念拔苦是以弟子等敬請良工眞天下之妙筆」
 希人間之奇手像佛彌陁一軀畫成彌陁八菩薩一幀彌陁兩大」
 菩薩二幀安于曦陽山鳳巖寺禪堂香爐殿禮敬者皆家樂」

歸依者俱獲吉祥丙戌正月十八日特占善慶之吉日敬設點眼之法會於」
○○八十種隨形之妙好燦若蓮芳四十八廣大之深願皎如秋月伏願先亡父母」
師尊列名靈駕百層樓閣之中常見彌陀而遊戲九品蓮花之上恒伴菩薩」
而逍遙亦願各「隨喜弟子等增五福於現在圓三覺於未來信根堅固生」
常踐於淨土種智圓明「不離於彌陀彌陀爲師菩薩爲友然後願」
蠢四生貪嗔愛欲之濁浪茫「九類盡入彌陀大願之清波稽首再拜至願」
萬曆十四年大歲丙戌正月十八日發願文」

承功德伏願」

主上殿下聖壽無疆」

王妃殿下壽無疆」

德嬪邸下壽千秋」

比丘尼朴氏」

尹氏」

畫員 蘿雲比丘」

法正比丘」

證明 德普比丘」

別座 戒淳比丘」

供養主 性敏比丘」

幹善 信寬比丘」

佛像大施主 朴希宗兩主」

後佛大施主 牛根兩主」

瓦 兩主

大施主 里面

大施主 崔閏伊」

吳介屎」

白順亨 兩主」

李命長 兩主」

金椽伊 兩主」

金弼伊 兩主」

朴氏今伊」

錢氏內+ㄋ以」

內+ㄋ山」

金毛作 兩主」

良女片今」

鄭彥國」

洪億岭」 太英」

白叔只」

白仁壽」

神拏」

羅云」

一學」

許叱文乙伊」

丕介屎」

左是」

② 개금발원문(1650년)

崇禎紀元後庚寅十月日」

改金大施主山人明安」

施主嘉善大夫朴順生」

施主 朴淳」

證明 瑞訓」

持殿 綻蓮」

畫員 清允」

供養主 大元」

處豈」

別座 管草」

化主 裕察諸人亦」

來往 快然 負木 坦熏」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皆共成佛道」

③ 立志發願文(1904년)

稽首十方調御師 演揚清淨微妙法」

三乘四果解脫僧 不捨慈悲哀攝受」
三寶弟子比丘沼善等常願今此改金」
佛像因緣不墮三途超生淨土見 佛聞法」
頓悟無生再還娑婆廣度衆生以報諸」
佛莫大之恩然後願憑此功德 皇風永」
扇帝道遐昌 佛日永明法輪常轉」
伽藍土祇護國安民負識含靈同登覺」
岸」

大韓光武八年甲辰夏四月十一日改金于清華」
山圓寂寺」

化主 比丘 石橋沼善
相虛尙曄

證明比丘 雪巖尙宜」
永明慧日」

沙彌 體律」

金魚比丘 鏡月亘曄」
炳奎」

誦呪比丘 玄奇 奉政」

都監比丘 法天」

別座比丘 法信」

供司比丘 圓照」

淨桶清信士 天然」

持殿比丘 包空法林」

施主比丘楞庵 永規」

清信女普惠性金氏」

道玄」

奉爐 圓白」

大安」

圓宗」

奉茶 圓昊」

童子 海崑」

庵主 法悟」

道藏山 涑源庵 佛像改金騰錄」

(3) 복장유물 목록

- 腹藏發願文, 1586년, 34.5×67.0cm, 모시에 墨書.
- 改金發願文, 1650년, 71.8×28.2cm. 한지에 朱書.
- 立志發願文, 1904년, 71.8×28.2cm. 한지에 朱書.
- 腹藏發願文, 조선시대, 내용확인 불가.
- 橡紙銀泥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여말선초, 2장.
- 木版本五輪種子陀羅尼, 조선시대, 1장.
- 筆寫陀羅尼, 조선시대, 3장
- 五寶瓶, 조선시대, 5점.

中央-黃色(23.4x25.5): 牛黃, 琥珀, 黃芥, 乳香, 麻子, 附子.

東-靑色(22.0x30.0): 靑木香, 人蔘, 大麥, 生金, 蒔蘿, 大黃.

南-朱色(22.2x24.5): 甘草, 眞珠, 紫芥, 稷, 雄黃, 雌黃, 丁香.

西-白色(27.5x32.8): 沈香, 小黃, 白芥, 生銀, 桂皮, 藿香, 楮.

北-黑色(17.0x25.7): 沈香, 阿梨, 瑠璃, 蔓菁, 泉豆.

- 보자기, 조선시대, 5점, 실패와 실뭉치를 싸서 넣음.
- 황초포자, 조선시대, 1장, 35.5×45.0cm, 비단, '南'이란 묵서.
- 보자기와 五方鏡, 조선시대, 圓鏡, 三角鏡, 半圓鏡을 보자기에 싼 것.
- 八葉文, 조선시대, 1개, 28.5×28.1cm, 楮紙.
- 便紙, 조선시대, 1매, 25.8×35.4cm.
- 실뭉치, 조선시대, 2개.



○ 현상 및 특징

1. 목조아미타불좌상

禪門九山 중 曦陽山派의 중심 사찰인 봉암사는 『朝鮮寺刹全書』에 수록된 「鳳巖寺史蹟」에 의하면, 소실된 사찰을 조선시대 1572년에 信和가 중건하였으며, 1907년에도 가람이 소실되어 1915년에 尹世煜에 의해 寮舍가 새로 건립되었다고 한다.

봉암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은 대좌는 결실되었으나 佛身은 온전한 상태이다. 이 불상은 비록 51.5cm의 작은 크기지만, 전체적으로 조각 수준이 높고, 복장유물을 동반하고 있어서 불상의 존격과 조성 연대가 분명한 작품이다. 즉 조선시대 1586년에 조성된 아미타불좌상이다. 아마 「봉암사사적」에 기록된 바와 같이 1572년의 사

찰 중건 후에 전각에 모시기 위하여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복장유물 중 「阿彌陀佛坐像腹藏發願文」에는 이 불상을 어느 전각에 봉안하였는지에 대하여 기록하지 않았으나 불상의 크기 등을 고려하면, 보물 제1574호인 봉암사 극락전의 주존불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복장 유물을 넣었던 불상 속 가슴 부위에는 여러 개의 목재가 확인되는데, 육안으로 보아 불상에 사용된 나무와 재질이 달라서 후대에 수리 등 어떤 목적에서 넣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부분은 과학적인 조사가 요구된다.

아미타불상은 통견형식의 착의법에 결가부좌하고 있다. 수인을 보면, 오른손은 중지와 약지를 약간 구부린 상태로 가슴까지 들어 올렸으며, 왼손도 중지와 약지를 약간 구부린 상태로 앞으로 내민 모습의 설법인을 결하였다. 전체적인 비례를 보면, 상호나 상체가 약간 긴 듯하지만 무릎의 폭과 깊이와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 단아하고 안정된 모습이다. 측면에서 보면, 턱을 앞으로 약간 끌어당긴 것을 제외하면, 꼳꼳하게 수직으로 선 상체와 안정감 있는 하체를 볼 수 있다. 17세기 이후의 불상이 고개를 숙이거나 상체를 구부린 모습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준다.

조각의 깊이는 상체나 하체가 비슷하여 17세기 이후에 조성된 불상에 비해 다소 밋밋한 느낌이 나지만, 신체의 윤곽선이 잘 드러나게 자연스럽게 처리되었다. 아마 불상의 크기에 따른 조각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아마 이 크기의 불상을 17세기 이후의 불상과 같이 입체적으로 처리하였다면 오히려 부자연스러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불상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호는 전체적인 길이에 비해 이마가 짧은 편이지만 원만한 모습이다. 양 볼에는 살이 오른 모습이다. 하나하나 만들어 붙인 나발은 불상에 비해 큰 편이며 삼각형태를 갖추고 있다. 또한 보주 형태의 정상 계주와 비교적 큰 편인 반월형의 중앙 계주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이미 1474년에 조성된 경주 왕룡사원의 목조 아미타불좌상(보물 제1615호)에서 확인된다. 중앙 계주가 보주 형태가 아닌 원통형태로 바뀌는 것이 17세기 이후이기 때문에 불상의 하한 연대가 16세기 후반임을 추측하게 한다. 목에는 삼도가 표현되어 있다.

따로 조각하여 끼운 양손의 손바닥에는 음각으로 손금이 새겨져 있으며, 손가락 끝은 짧고 뭉툭하게 처리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결가부좌하고 있는 오른발의 발가락에서도 확인된다. 왼발은 옷자락 속에 감추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

하체를 덮고 있는 범의는 다리의 굴곡을 따라 유기적으로 잘 처리되었다. 특히 양쪽 다리의 장단지 부분은 옷으로 덮고 있는 상황이지만, 육안으로 보아 그 모습을 추측할 수 있을 만큼 사실적으로 처리되었다. 정면의 옷주름은 좌우대칭 형식

으로 처리되었으며, 고려시대 후기부터 보이던 양 발 사이에 S자형의 옷주름 처리가 많이 흐트러진 모습이다. 고려 후기부터 내려오던 전통적인 옷주름 표현 방식의 또다른 흐트러진 모습은 왼팔의 상박부 측면에서도 확인된다. 즉 'ㄴ' 식으로 처리되던 고려 후기의 전통이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흐트러진 상태다. 한편 결가부좌한 양쪽 허벅지 윗부분의 접힌 옷자락을 약간 도드라지게 처리한 방식은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국보 제282호, 1458년)과 강원 오대산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국보 제221호, 1466년), 왕릉사원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등 조선 전기에서 많이 보이는 특징이다.

봉암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은 전체적인 비례, 나발과 계주의 처리 방식, 법의의 처리 방식 등 양식적으로 조선시대 16세기 후반의 특징으로 잘 갖추고 있다. 특히 불상의 복장에서 나온 「阿彌陀佛坐像腹藏發願文」은 불상의 조성 시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 불상이 1586년에 조성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불상은 작례가 많지 않은 16세기 불상의 기준작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2. 복장유물

복장유물은 모두 1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阿彌陀佛坐像腹藏發願文 寫本(宣祖 19년, 1586)

1枚, 34.5×67.0cm, 모시

年紀：萬曆十四年太歲丙戌(1586)正月十八日發願

발원문 앞 부분은 훼손되어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彌陀 1軀, 彌陀八大菩薩 1幀, 彌陀兩大菩薩 2幀을 曦陽山 鳳巖寺 禪堂 香爐殿에 안치하고 點眼法會하였다. 佛像大施主는 朴希宗, 後佛大施主는 牛根 등이며, 畫員은 蘿雲比丘, 證明은 德普比丘, 別座는 戒淳比丘 등이다. 萬曆十四年太歲丙戌正月十八日에 發願하였다"

발원문에는 '德嬪邸下壽千秋'라고 기록되었고 그 옆에는 비구니 '朴氏, 尹氏'라는 기록이 보인다. 덕빈은 尹玉의 딸로서 順懷世子の 妃이었으나, 순회세자가 요절하자 평생 궁에서 홀로 지낸 인물이다. 비구니 박씨와 윤씨는 덕빈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불상이 조선 궁실과 연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② 阿彌陀佛坐像腹藏改金發願文 寫本(孝宗 1년, 1650)

1枚, 71.8×28.2cm.

年紀：崇禎紀元後庚寅(1650)十月日改金.

朱筆로 필사된 改金發願文이다. 당시 시주는 山人 明安, 嘉善 朴順生, 朴淳

등이며, 證明은 瑞訓, 持殿은 綻蓮, 畫員 淸允 등이다.

③ 阿彌陀佛坐像腹藏立志發願文 寫本(光武 8년, 1904)

1枚, 71.8×28.2cm.

年紀：大韓光武八年甲辰(1904)夏四月十一日改金.

朱書로 쓰여졌으며, 聞慶의 淸華山 圓寂寺의 비구 沼善 등이 三途에 떨어지지 않고 淨土에 태어나 불법을 들어 돈오하여 사바세계에 다시 오지 않고 중생을 널리 제도함으로써 諸佛에 보답하고자 하는 개금의 동기를 기록되어 있다. 持殿은 法林, 化主는 沼善, 시주는 永規, 證明은 尙宜, 金魚는 巨擘 등이다. 말미에는 道藏山 涿源庵 佛像 改金 謄錄이라 기록되어 있다.

④ 阿彌陀佛坐像腹藏發願文 寫本(조선시대)

1枚.

훼손이 심하여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다. 판독한 글자 중에는 改金 畫員이라는 글자가 확인되어 改金할 때의 발원문으로 보인다.

⑤ 椽紙銀字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寫本(고려 말 조선 초)

2張(落張), 破本, 31.2cm. 上下單邊, 匡郭上下: 20.1cm, 有界, 6行18字

크기는 한 장은 31.2×56.8cm이며, 다른 한 장은 31.2×109.2cm이다. 경문에

“釋迦牟尼天人師(中略)曾於無量劫苦行(中略)今現在王舍大城과 波斯匿王於其夜(中略)王宮中聞有女人高聲(中略)願大王聽我所說我年十四嫡於夫家經三十年三十子”란 구절이 있어서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의 일부분으로 추정된다. 계선은 금으로 구획했고, 경문은 은자이다.

⑥ 阿彌陀佛坐像腹藏陀羅尼 木版本(조선시대)

1枚, 27.8×48.7cm

四周單邊, 匡郭:18.5×35cm, 有界, 17行 字數不同.

五輪種子陀羅尼이다. 주색으로 인쇄한 목판본이다. 우측 난 외에 板施竺澤이라 새겨져 있다.

⑦ 阿彌陀佛坐像陀羅尼 寫本(조선시대)

3枚

1) 주색으로 필사된 梵字 다라니(20.1×46.7cm)

2) 주색으로 필사된 梵字 다라니(18.9×24.0cm): 문중에 文殊定業呪란 문구가 있다.

3) 주색으로 필사된 梵字 다라니(19.6×23.8cm)

⑧ 阿彌陀佛坐像腹藏五方瓶(조선시대)

5瓶, 작은 비단 조각 속에 아래의 물품을各色 종이에 싸서 넣었다.

1) 17.0×25.7cm, 黑: 蔓菁, 阿梨, 泉豆, 瑠璃, 沈香.

2) 22.2×24.5cm, 朱: 眞珠, 紫芥, 稷, 雄黃, 甘草, 丁香, 雌黃.

- 3) 23.4×25.5cm, 黃: 麻子, 附子, 牛黃, 黃芥, 琥珀, 乳香.
- 4) 22.0×30.0cm, 綠: 人蔘, 青木香, 生金, 大麥, 大黃, 蒔蘿.
- 5) 27.5×32.8cm, 白: 小黃, 白芥, 稻, 生銀, 藿香, 桂皮, 沈香.
- ⑨ 阿彌陀佛坐像腹藏五方瓶(조선시대)
5瓶, 비단에 각각 아래의 물품을 싸서 넣었다.
- 1) 17.0×26.2cm, 黑: 갈색 실패.
 - 2) 14.7×29.8cm, 靑: 실패와 실.
 - 3) 24.3×25.0cm, 朱
 - 4) 13.5×22.8cm, 綠: 갈색 실타래.
 - 5) 7.1×18.5cm, 朱: 갈색 작은 실타래.
- ⑩ 阿彌陀佛坐像 황초포자(조선시대)
1枚, 35.5×45.0cm, 비단, '南'이란 목서가 있다.
- ⑪ 阿彌陀佛坐像五方鏡(조선시대)
3枚, 壯紙에 箔을 입힌 거울을 백색 비단에 싼 것이다.
- 1) 圓鏡: 徑 3.2cm
 - 2) 三角鏡: 底 3cm
 - 3) 半圓鏡: 2.1×3.3cm
- ⑫ 阿彌陀佛坐像腹藏八葉文[추정](조선시대)
1조: 28.5×28.1cm, 楮紙
복장물을 싼던 八葉文으로 추정되며, 해체 시 손상되었으나 범자 일부는 남아 있다.
- ⑬ 阿彌陀佛坐像腹便紙 寫本(조선시대)
1枚, 25.8×35.4cm.
吳部?宅에 보낸 편지인데, 원래 복장유물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어떤 경로로 납입되었는지 알 수 없다.
- ⑭ 阿彌陀佛坐像 실뭉치(조선시대)
2塊, 각각 7cm, 1.3cm.
- ⑮ 阿彌陀佛坐像腹藏공막이(조선시대)
1枚, 17.1×19.1 cm, 楮紙, 불상 복장공을 막은 종이다.



○ 내용 및 특징

봉암사는 구산선문 중 하나인 曦陽山門의 宗刹로서, 879년(헌강왕 5) 당나라로

부터 귀국한 智證大師 智誥이 창건하고, 935년(태조 18) 靜眞大師 兢讓이 중창하였다. 조선 1431년(세종 13)에 己和가 중수하였고, 1674년(현종 15) 화재로 소실된 뒤 信和가 중건하였다. 1907년에도 가람이 소실되어 1915년에 世旭이 다시 퇴락한 당우를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禪刹이다.

봉암사 아미타불좌상은 높이 51.5cm, 무릎 폭 36cm의 작은 규모의 불상이다. 최근 불상의 복장에서 조성발원문과 개금발원문, 상지은니사경, 오보병 등 多種의 복장유물이 발견되었다. 이 불상은 발원문을 통해 萬曆 14년(1586, 선조 19)에 良工을 초청하여 완성한 아미타불상임을 알 수 있다. 불상 조성은 나운과 법정이 하였다. 또한 발원문에는 妙筆을 요청하여 阿彌陀八大菩薩圖 1幀, 阿彌陀兩大菩薩圖 2幀도 함께 조성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 당시의 불사현황을 살필 수 있다. 특히 발원문에서 상투적으로 등장하는 王室三殿下의 祝願에서 世子邸下가 빠지고, 이를 대신하여 德嬪尹氏가 등장하고 있는데, 아마도 德嬪尹氏가 이 불상을 조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덕빈은 尹玉의 딸로써 順懷世子の 妃이었으나, 순회세자의 요절로 말미암아 평생 궁에서 홀로 지낸 인물이다.

머리에는 크고 날카롭게 뺨친 나발을 부착하였으며, 나발 사이에는 큼직한 반달형의 중앙계주와 구형의 정상계주를 표현하였다. 얼굴은 둥글고 살집이 전체적으로 복스럽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보여준다. 어깨는 좁고 무릎은 넓어 다소 왜소한 느낌이 드는 佛身에는 불의를 이중으로 걸쳐 입었으며, 부드럽고 간결한 선으로 주름을 표현하였다. 가슴에는 수평으로 처리한 衲의 끝단이 표현되었다. 특히 왼쪽 어깨를 따라 나팔모양으로 늘어뜨리고 그 끝을 ㄱ형태로 마무리한 주름의 표현은 15세기 불상들에 비해 많이 약화된 모습이며, 양 무릎 위쪽에 표현된 돌출 주름 역시 조선 전기 불상의 여운을 간직하고 있는 모습이다. 길상좌로 앉은 무릎은 둥글게 처리하였고, 무릎 앞쪽으로는 주름을 비스듬히 부드럽게 처리하였다. 수인은 엄지와 중지를 닿을 듯 말 듯 처리한 下品中生印이다.

○ 복장유물

아미타불상의 복장에서는 여러 가지 복장유물이 발견되었다. 크게 발원문류, 후령통 납입유물, 전적류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발원문은 불상의 조성내력을 기록한 조성원문과 중수내력을 기록한 개금발원문(1650년), 입지발원문(1904년), 그리고 보존상태가 매우 불량한 발원문 1점 등 모두 4점이 발견되었다.

사각 한지의 표면에 납입물목을 적어 오방색 비단으로 만든 오보병 내에 납입하였다. 東의 靑色寶瓶에는 生銀, 靑木香, 大黃, 人參, 蔘蘿, 大麥을 납입하였다. 西의 白色寶瓶에는 稻, 生銀, 桂皮, 藿香, 沈香, 白芥, 小黃을 납입하였다. 南의 赤色寶瓶에는 稷, 甘草, 紫芥, 雄黃, 雌黃, 丁香, 珍珠를 납입하였다. 北의 黑色寶瓶에는

阿梨, 蔓菁, 沈香, 瑠璃, 泉豆를 납입하였다. 중앙의 黃色寶瓶에는 附子, 乳香, 琥珀, 麻子, 牛黃, 黃芥를 납입하였다. 복장물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종이에 적어 이를 대신한 예는 조선 후기 불상에서 더러 확인되는데, 경제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못할 때 방편으로 사용했던 방식으로 보인다.

이외 銀箔을 입힌 삼각경, 원경, 반월경과 이를 감싼 백색 비단보자기, 실몽치를 쓴 비단보자기 5점 등이 발견되었다.

○ 복장유물 목록

No	명칭	재질	수량	년대	크기 (cm)	비고
1	造成願文	종이	1	1586년	34.5×67.0	*萬曆十四年太歲丙戌正月十八日發願
2	改金發願文	종이	1	1650년	71.8×28.2	*崇禎紀元後庚寅十月日改金
3	立志發願文	종이	1	1904년	28.2×71.8	*大韓光武八年甲申夏四月十一日改金
4	改金發願文	종이	1	-	측정불가	*발원문 몽치
5	五寶瓶	비단	5	조선시대	靑: 22.0×30.0 白: 27.5×32.8 朱: 22.2×24.5 黑: 17.0×25.7 黃: 23.4×25.5	*물목을 한지에 묵서하여 각각의 보병에 납입함.
6	보자기	비단	5	조선시대	①17.0×26.2 ②14.7×29.8 ③24.3×25.0 ④13.5×22.8 ⑤7.1×18.5	*실패가 있는 실몽치 2개와 1개의 실몽치를 납입함.
7	황초폭자	비단	1	조선시대	35.5×45.0	*'南'이란 묵서가 있음
8	보자기	비단	1	조선시대	-	*종이에 은박을 입힌 삼각경, 반월경, 원경을 감싼 보자기임.
9	팔엽문	종이	1	조선시대	28.5×28.1	
10	실몽치		2			
11	橡紙銀泥 佛說長壽滅罪護罪 童子陀羅尼經	종이	2장	여말선초	①31.2×56.8 ②31.2×109.2	
12	陀羅尼	종이	1	조선시대	27.8×48.7	
13	筆寫陀羅尼	종이	3	조선시대	①20.1×46.7 ②18.9×24.0 ③19.6×23.8	
14	便紙	종이	1	조선시대	25.8×35.4	

○ 조성발원문(1586)

伏願

彌陀大聖白玉明毫光流處處無不攝生紫金巖相影化重重有」
緣皆度尋○○接引應念拔苦是以弟子等敬請良工眞天下之妙筆」
希人間之奇手像佛彌陀一軀畫成彌陀八菩薩一幀彌陀兩大」
菩薩二幀安于曦陽山鳳巖寺禪堂香爐殿禮敬者皆家樂」
歸依者俱獲吉祥丙戌正月十八日特占善慶之吉日敬設點眼之法會於」
○○八十種隨形之妙好燦若蓮芳四十八廣大之深願皎如秋月伏願先亡父母」
師尊列名靈駕百層樓閣之中常見彌陀而遊戲九品蓮花之上恒伴菩薩」
而逍遙亦願各〃隨喜弟子等增五福於現在圓三覺於未來信根堅固生〃」
常踐於淨土種智圓明〃不離於彌陀彌陀爲師菩薩爲友然後願」
蠢四生貪嗔愛欲之濁浪茫〃九類盡入彌陀大願之清波稽首再拜至願」
萬曆十四年大歲丙戌正月十八日發願文」

承功德伏願」

主上殿下聖壽無疆」

王妃殿下壽無疆」

德嬪邸下壽千秋」

比丘尼朴氏」

尹氏」

畫員 蘿雲比丘」

法正比丘」

證明 德普比丘」

別座 戒淳比丘」

供養主 性敏比丘」

幹善 信寬比丘」

중단

佛像大施主 朴希宗兩主」

後佛大施主 牛根兩主」

瓦 兩主

大施主 里面

大施主 崔閏伊」

吳介屎」

白順亨 兩主」

李命長 兩主」

金椽伊 兩主」

金弼伊 兩主」

朴氏今伊」

錢氏內+ㄱ以」

內+ㄱ山」

金毛作 兩主」

하단

良女片今」

鄭彦國」

洪億齡」 太英」

白叔只」

白仁壽」

神捧」

羅云」

一學」

許叱文乙伊」

玆介屎」

左是」

○ 개금발원문(1650년)

崇禎紀元後庚寅十月日」

改金大施主山人明安」

施主嘉善大夫朴順生」

施主 朴淳」

證明 瑞訓」

持殿 綻蓮」

畫員 清允」

供養主 大元」

處豈」

別座 管草」
化主 裕察諸人亦」
來往 快然 負木 坦熏」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皆共成佛道」

○ 立志發願文(1904년)

稽首十方調御師 演揚清淨微妙法」
三乘四果解脫僧 不捨慈悲哀攝受」
三寶弟子比丘沼善等常願今此改金」
佛像因緣不墮三途超生淨土見 佛聞法」
頓悟無生再還娑婆廣度衆生以報諸」
佛莫大之恩然後願憑此功德 皇風永」
扇帝道遐昌 佛日永明法輪常轉」
伽藍土祇護國安民負識含靈同登覺」
岸」
大韓光武八年甲辰夏四月十一日改金于清華」
山圓寂寺」
化主 比丘 石橋沼善
 相虛尙擘
證明比丘 雪巖尙宜」
 永明慧日」
 沙彌 體律」
金魚比丘 鏡月亘擘」
 炳奎」
誦呪比丘 玄奇 奉政」
都監比丘 法天」
別座比丘 法信」
供司比丘 圓照」
淨桶清信士 天然」

하단

持殿比丘 包空法林」

施主比丘楞庵 永規」
 淸信女普惠性金氏」
 道玄」
 奉爐 圓白」
 大安」
 圓宗」
 奉茶 圓昊」
 童子 海崑」
 庵主 法悟」
 道藏山 淡源庵 佛像改金騰錄」



○ 내용 및 특징

아미타불좌상의 복장유물은 아래와 같다.

〈문경 봉암사 아미타불좌상의 복장유물〉

차례	명칭	연대	수량	재질	크기(cm)	특징 및 비고
1	發願文 ¹⁾	1586	1	모시	35.5 × 64.5	萬曆十四年大歲丙戌(선조19,1586)正月十八日發願文
2	改金發願文 ²⁾	1650	1	저지	71.8 × 28.2	崇禎紀元後庚寅(孝宗1,1650)十月日改金
3	立志發願文 ³⁾	1904	1	저지	71.8 × 28.2	大韓光武八年甲辰(光武8,1904)夏四月十一日改金
4	[發願文] ⁴⁾	[조선]	1	저지		
5	椽紙銀泥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⁵⁾	[麗末鮮初]	1	저지	31.2	上下單邊. 匡郭上下: 20.1cm. 1行18字
6	陀羅尼 ⁶⁾	[조선]	1	저지	27.8 × 48.7	四周單邊. 匡郭: 18.5 × 35cm. 有界. 17行字數不同.
7	陀羅尼 ⁷⁾	[조선]	3	저지	각주참조	
8	五寶瓶 ⁸⁾	[조선]	5		각주참조	
9	五寶瓶 ⁹⁾	[조선]	5		각주참조	

10	黃絹幅子	[조선]	1	비단	35.5 × 45.0	‘南’(墨書)
11	五方鏡 ¹⁰⁾	[조선]	3		각주참조	
12	[八葉文] ¹¹⁾	[조선]	1	저지	28.5 × 28.1	
13	便紙 ¹²⁾	[조선]	1	저지	25.8 × 35.4	
14	실몽치	[조선]	2		지름: 7.0 지름: 1.3	
15	공막이 ¹³⁾	[조선]	1	저지	17.1 × 19.1	

- 1) 선조 19(1586)년 정월 18일에 彌陀 1軀, 彌陀八大菩薩 1幀, 彌陀兩大菩薩 2幀 등을 曷陽山 鳳巖寺 禪堂 香爐殿에 봉안하고 點眼法會를 열었다는 내용과 함께 당시 佛像 大施主는 朴希宗부부, 畫員은 蘿雲比丘, 證明은 德普比丘, 別座는 戒淳比丘, 幹善은 信寬比丘 등이 맡았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 2) 朱書로 된 개금발원문이다. 당시 대시주는 山人 明安, 시주는 嘉善大夫 朴順生과 朴淳. 證明은 瑞訓, 持殿은 綻蓮, 畫員은 淸允 등이 맡았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또 “이 공덕으로 (자신들이) 함께 불도를 이루기를 원한다.”는 글로 끝을 맺고 있다.
- 3) 朱書로 된 입지발원문이다. 淸華山 圓寂寺의 비구 沼善 등이 개금불상의 인연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기록해 두었다. 당시 持殿은 法林, 化主는 沼善, 시주는 永規, 證明은 尙宜, 金魚는 巨擘, 都監은 法天, 別座는 法信 등이었다. 道藏山 源源庵 佛像 改金 騰錄이라는 글로 끝을 맺고 있다.
- 4) 改金할 때의 발원문으로 추정됨.
- 5) 금니로 구획하고, 은니로 사성한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의 가운데 부분이다. 한 장은 31.2 × 56.8 cm, 다른 한 장은 31.2 × 109.2 cm이다.
- 6) 주색으로 인쇄한 목판본 다리니이며, 우측 난외에는 板施竺澤이라 새겨져 있다. 한자와 범어가 함께 사용된 다리니로 五輪種子, 眞心種子 등의 한자가 있다.
- 7) ① 20.1 × 46.7 cm. 朱書로 된 梵字 다리니.
② 18.9 × 24.0 cm. 朱書로 된 梵字 다리니(文殊定業呪라는 제명이 있음).
③ 19.6 × 23.8 cm. 朱書로 된 梵字 다리니.
- 8) 5寶瓶 : 오색의 비단 조각에 각각 아래와 같이 여러 물품이 포장되어 있다.
① 17.0 × 25.7 cm. 黑: 蔓菁, 阿梨, 粿豆, 瑠璃, 沈香.
② 22.2 × 24.5 cm. 朱: 眞珠, 紫芥, 稷, 雄黃, 甘草, 丁香, 雌黃.
③ 23.4 × 25.5 cm. 黃: 麻子, 附子, 牛黃, 黃芥, 琥珀, 乳香.
④ 22.0 × 30.0 cm. 綠: 人蔘, 青木香, 生金, 大麥, 大黃, 蔞蘿.
⑤ 27.5 × 32.8 cm. 白: 小黃, 白芥, 稻, 生銀, 藿香, 桂皮, 沈香.
- 9) 5寶瓶 : 오색의 비단 조각에 각각 아래와 같이 여러 물품이 포장되어 있다.
① 17.0 × 26.2 cm. 黑: 갈색 실패.
② 14.7 × 29.8 cm. 靑: 실패와 실.
③ 24.3 × 25.0 cm. 朱
④ 13.5 × 22.8 cm. 綠: 갈색 실타래.
⑤ 7.1 × 18.5 cm. 朱: 갈색 작은 실타래.
- 10) ① 圓鏡: 徑 3.2 cm.
② 三角鏡: 底 3 cm.
③ 半圓鏡: 2.1 × 3.3 cm.

11) 복장물을 찢던 八葉文으로 추정됨(범자 일부는 남아있음).

12) 吳部○宅에 보낸 편지.

13) 불상의 복장공을 막은 종이.

3. 속초 신흥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束草 新興寺 木造地藏菩薩三尊像)

가. 심의사항

“속초 신흥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원도지사로부터 “속초 신흥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1.03.04)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1.04.21)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은 현지조사자 3인 이상이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문화재로 본 위원회 2011년도 제6차 회의('11.12.13)에서 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 30일간 지정 예고('11.12.23~'12.01.22)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속초 신흥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束草 新興寺 木造地藏菩薩三尊像)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 신흥사
- 수 량 : 3구
- 규 격 : 지장보살좌상 높이 99cm, 무릎 폭 75cm
도명존자입상 높이 140cm
무독귀왕입상 높이 156cm
- 재 질 : 목조
- 형 식 : 지장보살삼존형식
- 제작연대 : 1651년(효종 2)

○ 작 자

조성화원 : 무염(無染), 도우(道祐), 해심(海心), 덕명(德明), 처상(處常),
성잠(性岑), 원철(元哲), 도규(道珪), 민기(敏奇), 의신(義信),
영택(靈澤), 처인(處仁), 일상(日祥)

화성화원 : 성륜(性倫), 봉휘(峯徽), 신욱(信旭), 현담(玄淡), 득천(得天)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신흥사 명부전의 목조지장보살좌상은 복장 축원문의 ‘順治八年八月十九日 (중간 생략) 造成畫員秩 無染’이라는 기록을 통하여 조선시대 효종 2년(1651)에 무염의 책임 하에 조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首 조각승의 위치에서 무염이 조성한 작품 중에서 가장 연대가 올라가는 것은 1635년에 전라남도 영광의 불갑사 목조석가여래삼존불좌상(보물 제1377호)이다. 조각승 무염의 주 활동 무대가 전라도이지만, 이 작품을 통하여 당시 조각승들의 활동 영역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지장보살삼존상은 도명존자상의 일부분을 제외하면, 개금 상태나 채색된 안료 등의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이들 상들은 전체적으로 안정된 비례와 단아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 특히 지장보살상의 상호는 무염과 조각승들이 구사했던 특징이 잘 나타난다. 보살상의 둥근 어깨와 사실적인 옷주름 처리, 실존 인물과 같은 도명존자상의 모습, 17세기 금관조복을 착용한 문인을 연상하게 하는 무독귀왕상 등은 수준 높은 무염과 조각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특히 지장보살삼존상은 조성 시기와 목적, 시주자, 증명법사, 조각승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복장 축원문을 동반하고 있어서 조선시대 조각사 연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즉 명부전의 여러 존상을 조성하기 위하여 여러 부부가 각각 비용을 분담하였거나, 오대산부터 천관산에 이르기까지 명산대찰의 스님들이 증명법사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비록 지장보살좌상의 양식은 전형적인 조각승 무염의 작품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무염과 관련되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 신흥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은 조선시대 17세기를 대표할 만한 조각 수준을 보여 주고, 이들 삼존상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전해주는 복장 유물을 동반하고 있어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인 가치 면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이 삼존불상은 복장에서 발견된 축원문을 통해 1651년이라는 정확한 조성시기

와 제작자, 그리고 제작에 참여한 제작주체를 분명히 하고 있어 17세기 중엽 경 불교조각사 연구에 기준이 되는 자료이다. 특히 불상제작에 있어 造成畫員과 畫成畫員, 즉 불상의 제작과 개금·개채를 분리해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당시 불상의 제작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불상을 조성한 무염은 대화사 현진, 청헌 등과 함께 17세기 전·중엽 경을 대표하는 조각승이고, 이 작품은 조각승 무염의 작품세계와 그의 조각경향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계승되어 가는지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전체적으로 이 삼존상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무릎, 당당한 어깨, 알맞은 허리 등 안정된 비례와 조화로운 형태미를 갖추고 있다. 불신과 불의가 긴밀하게 밀착·연결되어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형태미를 보여 준다. 또한 상체는 부드러운 선묘로, 하체는 강직한 선묘로 처리하여 예배자로 하여금 종교적 긴장감을 차츰 고조시키는 효과를 주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이 삼존상은 무염의 조각적 역량이 가장 잘 담겨 있는 작품이자 높은 조각적, 종교적 완성도를 보여주는 대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시왕권속들이 모두 도난당하여 완전한 구성체계는 갖추지 못했지만, 높은 종교적 감성과 조각적 완성도를 간직하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속초 신흥사 명부전의 지장삼존상을 제작한 조각승 無染은 1635년 영광 불갑사 목조삼불좌상(보물 제1377호)을 비롯하여 1650년대 까지 꾸준히 작품을 남긴 이 시기의 대표적인 조각승이다. 특히 1650년대에는 대전 비래사(1650년), 속초 신흥사(1651년), 완주 정수사 극락전(1652년), 고창 문수사(1653년), 영광 불갑사(1654년) 등 해마다 작품을 남겨 무염의 전성기였음을 알 수 있다.

무염이 30년대에 제작한 불상들과 비교하여 신흥사 지장삼존은 어깨가 넓어 안정감 있는 신체 비례와 조각의 두께감에서 당당함이 잘 표출되었으며 보다 부드러우면서도 권속들의 온화한 미소에서 명부전의 분위기를 잘 살리고 있다. 즉 이 지장삼존상은 전체적인 도상이나 양식은 시대 양식을 따르면서도 무염만의 특징이 잘 드러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신흥사 명부전에는 원래 모든 권속들이 함께 조성되었지만 현재는 지장과 도명존자, 무독귀왕 등 지장삼존상만 봉안되어 있어 완전하게 남아 있는 작품은 아니다. 그러나 정확한 제작연대와 17세기 중엽 이후 많은 조각승들에게 영향을 미친 무염의 개성이 잘 반영된 불상의 우수성, 시대성이 반영된 기준작으로서의 학술적 가치를 지닌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보물로 지정함.

조사보고서



○ 내용 및 특징

신홍사 명부전 안에 봉안되어 있는 목조지장보살삼존상은 지장보살좌상을 중심으로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이 좌우에서 시립하고 있다. 2002년 문화재청과 조계종 유적조사단의 사찰문화재 일제조사 때에 발견된 복장발원문에 의해 정확한 조성시기와 조각승의 이름이 확인되었다. 당시 목조지장보살삼존상에는 복장조성기, 권선문첩, 다라니 53장, 후령통, 奉祝文, 실타래가, 도명존자에는 복장조성기, 다라니 14장, 후령통 등이 봉납되어 있었다.

조성기에 의하면, 신홍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은 조선시대 1651년 8월 19일에 무염, 도우, 해심 등 13명의 조각승에 의해 함께 조성되었다. 복장발원문에 造成畫員秩과 畫成畫員秩을 구분하여 적고 있어 불상과 함께 불화도 조성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1954년 미군에 의해 촬영된 사진에 보면 명부전에 시왕상과 함께 시왕도가 있는데, 이후 어느 시기에 이들 상과 그림이 분실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명부전의 높은 수미단 위에 봉안되어 있는 목조지장보살삼존상은 삼존상 위의 단집과 함께 조선 후기의 불상 봉안 형식을 잘 보여 준다. 좌협시상인 좌협시인 도명존자의 뒷부분이 약간 훼손된 것을 제외하면, 개금 상태 등 상당히 보존이 잘된 편이다.

지장보살좌상은 통견형식의 착의와 결가부좌한 자세로, 전체적으로 안정된 자세와 구도를 갖추고 있는 단아한 모습이다. 승려형 머리에 이마가 넓고 평평하며, 미간 아래에서 바로 뺨어 내린 곧은 코를 갖추고 있다. 둥근 어깨, 양 무릎 사이가 넓고 두께가 두꺼운 하체, 그리고 그 위에는 옷주름이 좌우대칭에 가까운 가사가 걸쳐져 있다. 오른손은 어깨까지 올려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으며, 왼손은 결가부좌한 오른발 위에 두고 역시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다. 지장보살상 왼쪽에는 도명존자가 합장을 하고 서있으며, 오른쪽에 무독귀왕이 역시 합장하고 있다. 두 상 모두 소매가 넓고 긴데, 특히 무독귀왕의 복장은 1954년 사진 속 시왕과 일치한다.

불상 조성 당시에 무염을 포함하여 13명의 조각승이 참여한 것은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을 포함한 지장삼존 3구를 비롯하여 시왕, 판관, 사자, 동자, 장군 등 20여구에 달하는 존상을 동시에 조성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무염을 중심으로 한 이들 조각승 집단은 극락보전 안의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을 조성한 조각승 명단과도 일치하여, 이들은 명부전 안의 20여구 존상뿐만 아니라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도 함께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무염이 首 조각승으로 조성한 작품 중 현전하는 가장 이른 예는 1635년 영광 불갑사 대웅전의 삼세불상이다. 그런데 1635년 불갑사의 불상과 1651년 신흥사의 지장보살상은 형식이나 양식적인 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1635년 불갑사 불상은 어깨가 넓고 상체가 긴장하지만 그에 반해 양 무릎 사이의 폭이 좁고 두께도 얇다. 반면 신흥사 지장보살의 경우 상대적으로 양 무릎 사이의 폭이 넓고 두께도 두꺼워진 모습이어서 안정감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1635년 이미 首 조각승으로 불사에 참여하던 무염이 1651년 신흥사 불사 당시에는 노령이었을 것이고, 이런 이유로 그의 제자인 도우나 해심이 중심이 되어 신흥사 불사를 행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1654년 같은 영광 불갑사의 지장보살상의 경우 무염은 養師로 물러났고 실질적인 조각 작업은 ‘首 해심’이 주도했는데, 신흥사 지장보살좌상과 흡사한 모습이다. 이처럼 1651년 신흥사 지장보살좌상이 1635년 불갑사의 삼세불과는 다르고 1654년 불갑사 지장보살상과 유사한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과 관련된다.

(1) 地藏菩薩坐像

지장보살좌상은 높이 99cm, 무릎 폭 75cm의 크기로, 전체적으로 안정된 비례에 단아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 민머리에 인자한 눈, 뺨어 내린 코, 약간 긴장된 모습의 입 등 원만한 상호를 갖추고 있다. 통견 형식으로 착용한 범의와 가슴 밑까지 수평으로 올라온 내의, 두 발을 덮은 대의의 옷주름 표현이 자연스럽다. 오른손을 들고 왼손은 결가부좌한 무릎 위에 내려놓고 엄지와 중지를 맞댄 수인을 맺고 있다. 양 어깨는 양감이 풍부한 곡선으로 처리되어 중생을 구제하는 지장보살상의 모습을 적절하게 표현하였다.

(2) 道明尊者立像

지장보살상의 좌측(向右)에 봉안된 도명존자는 민머리에 두 손을 합장한 채 시립하고 있다. 민머리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모습은 실존 인물이었던 도명존자라기보다 조선 후기 승려들의 실제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듯하다. 범의는 絹本眞彩로 처리되었으며 적색 가사 안에 청색 大衣를 입고 있다. 옷자락에는 보상화 덩굴무늬를 여러 가지 색깔로 섬세하게 묘사하였으며, 가사에는 금니 문양이 시문되었다.

(3) 無毒鬼王立像

지장보살의 우측(向左)에 봉안된 무독귀왕도 원만한 상호를 갖추고 있다. 머리에 金冠[梁冠]을 쓰고, 두 손을 합장한 채 서 있다. 무독귀왕은 조선시대 17세기의 金冠朝服을 착용한 문인상들과 비교된다. 신체에 비하여 두상의 비례가 다소 커 보이지만 같은 시대에 조성된 다른 예들에 비해서 보다 안정된 느낌이다.

(4) 服藏遺物

신흥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삼존상의 복장유물은 2002년에 문화재청과 조계종 유적조사단이 실시한 강원도지역 사찰문화재 일제조사 때에 확인되었다. 지장보살상에서는 복장조성기, 축원문, 권선문첩, 다리니, 후령통, 봉축문, 실타래 등이 발견되었다. 축원문에 1651년(순치 8년, 효종 2년) 무염 스님이 책임자로 하여 13명의 조각승이 지장보살좌상과 도명존자상, 무독귀왕상, 시왕, 판관, 사자, 동자, 장군 등 20여구의 조성에 참여하였음이 기록되어 있다. 도명존자상에서도 복장조성기와 다리니, 후령통 등이 발견되었다. 목조지장보살좌상의 복장 축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祝願文】

順治八年辛卯八月十九日 腹藏安莊卍祝願 朝鮮國王李壽萬歲
王妃殿下張氏壽萬歲 大王大妃殿下趙氏壽萬歲 世子邸下李壽萬歲
國泰民安法輪轉 諸宮宗室各安寧 文武百僚忠輔禮 本道監司柳景緝盡忠良
本府府使宋國準壽命長 各各隨喜施主壽命長 各各先亡往西方 見佛聞法悟無生
黃金大施主姜勝先 兩主 佛像大施主趙愛男 兩主 佛像大施主鄭金伊同 兩主
黃金大施主金順日 兩主 供養大施主李忞連 兩主 貼金大施主河氏瓊玉 兩主
地藏大聖造成大施主 鄭豆應巾 兩主 金祿立 兩主 道明尊者造成大施主
金千同 兩主 預不谷 比丘 無毒鬼王造成大施主 南千壽 兩主 南聖云 保体
第一秦廣大王造成大施主 槩奉○ 兩主 槩奉男 兩主
第二初江大王造成大施主 鄭武金 兩主 第三宋帝大王造成大施主
金氏莫年 保体 第四五官大王造成大施主 洪砬 兩主
第五閻羅大王造成大施主 蔡俊 申龍 第六變成大王造成大施主
李植樑 兩主 張氏乙生 保体 李承金 兩主 第七泰山大王造成大施主
姜連守 兩主 張氏礼香 兩主 姜豐業 保体 第八平等大王造成大施主
孫應春 兩主 孫愛天 兩主 孫起天 兩主 第九都市大王造成大施主
金伯男 兩主 金大允 兩主 洪氏白花 兩主 全氏桂梅 兩主
第十五道轉輪大王造成大施主 金應善 兩主 金貴漢 兩主
李泰英 兩主 泰山大王造成大施主 判官王造成大施主 崔永祿 兩主

善簿童子大施主 朴世俊 保休 左右使者造成大施主 鄭金伊山 兩主
 地藏王造成施主 比丘 法明 各各隨喜施主壽命長 本寺秩 首僧法明
 禪德道悟 慈信 天鑑 性珠 眞湜 眞認 眞楚 王淳 惠元 六和
 六軒 省浩 道行 珎清 六坦 碧崇 居士 金慶福 兩主 金慶祚 兩主
 鄭成一 保休 證明金剛山法祖 十王助祿兼證明登徽 楓岳山雙彥
 五臺山積稟 宝盖山明照道一 妙香山義淳 智異山覺性 天冠山戒牛
 太白山楚日 五峯山道源 造成畫員秩 無染 道祐 海心 德明 處常
 性岑 元哲 道珪 敏奇 義信 靈澤 處仁 日祥 畫成畫員秩 性倫
 峯徽 信旭 玄淡 得天 持殿清印智軒 化主兼別座蓮玉 化主守潭
 化主珎文 化主汝蓮 助緣能溶 色掌善謙 尙文 大化主靈瑞



○ 내용 및 특징

1954년 미군이 촬영한 신흥사 명부전 내부 사진에는 원래 지장보살상을 主尊으로 좌우에 도명존자와 무독귀왕, 그리고 10대왕과 권속들이 모셔져 있었으나, 시왕상 및 권속들은 이후 어느 시점에가 도난당하고 현재는 지장보살삼존상만이 봉안되어있다.

2002년 문화재청과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현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한 불교문화재일제조사 과정에서 지장보살삼존상에 대한 복장조사가 이루어졌고, 복장 내에서 「祝願文」이 발견되었다. 발견된 「복장안장엄축원문」에 따르면 이 삼존상은 순치 8년 辛卯(1651, 효종 2) 8월 19일에 복장이 안장되었다. 복장안장 의식이 곧 불상조각의 완성 후 개금과 점안을 포함한 마무리 의식으로 여겨지므로 낙성시기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것은 극락보전에 모셔진 아미타불상의 바닥 면에 적힌 묵서명을 통해서 입증된다. 즉, 불상의 바닥 면에는 墨書로 “香山普賢寺 造佛次雪岳山 新興寺佛像造成也”와 위치를 달리하여 “順治八年辛卯八月日化主靈瑞 畫員無染勤封”이라 적고 있기 때문에 이때 아미타삼존불과 마찬가지로 지장삼존상도 같이 낙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지장보살상의 복장유물도 아미타불상의 복장유물과 마찬가지로 조사 후 재복장하였다고 한다.

발견된 복장안장축원문에 따르면 이 삼존상은 風岳山の 雙彥, 楓岳山の 積稟, 宝盖山の 明照 道日, 妙香山の 義淳, 智異山の 覺性, 天冠山の 戒牛, 太白山의 楚日, 五峯山の 道源 등 전국 명산대찰의 고승들의 증명 아래, 전라도 일원에서 이름을 크게 떨쳤던 無染派 조각승들이 대거 참여하여 조성하였다. 특히 불상 조성에 造成畫員과 畫成畫員으로 나누어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아

마도 조성화원은 불상을 직접 조각한 조각승으로 생각되고, 화성화원은 개금이나 채색을 담당한 화원으로 이해된다. 조성화원은 無染, 道祐, 海心, 德明, 處常, 性岑, 元哲, 道珪, 敏奇, 義信, 靈澤, 處仁, 日祥이며, 화성화원은 性倫, 峯徽, 信旭, 玄淡, 得天이다.

본존 지장보살상은 높은 수미단 위에 다시 부정형의 팔각연화좌를 놓고 그 위에 결가부좌하였다. 머리는 푸른색으로 채색한 僧形의 민머리이다. 이마는 넓고 편평하며 양미간에는 백호를 박아 넣었다. 부드럽게 솟은 눈썹 골 위로 눈썹 선을 그려 넣었고, 활처럼 휘어진 눈썹 선은 우뚝 솟은 콧날로 부드럽게 연결되고 있다. 코는 코뿌리에서 갑자기 솟은 돌출코로 특징이 있으며, 콧날은 길고 부드러워 복스럽다. 이러한 돌출코는 17세기 불상에서 더러 확인되나, 무염의 조각에서는 1650년 경의 불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두툼하게 솟은 눈두덩 사이로 그윽하게 잠긴 듯 표현한 눈매는 지옥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깊이 사유하는 지장보살의 성격에 잘 부합한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복스러운 얼굴은 같은 해 만들어진 극락보전의 아미타불상의 상호와 상통한다. 이 상에서 보이는 양감은 선운사 비로자나삼불상(1635년)이나 불갑사 석가여래삼불상 등 무염의 전반기 작품들 보다 더욱더 양감이 강조되고 중후해진 느낌이며, 이와 함께 날렵하게 솟은 돌출코는 무염의 후반기 조각경향을 특징짓는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된다.

목에는 삼도의 표현이 뚜렷하고, 착의는 이중착의법으로 가슴에는 수평의 군의를 입었고, 그 아래로 볼록 나온 배의 곡선이 드러난다. 佛身에 걸친 佛衣는 그다지 두텁지 않아 신체와 긴밀하게 밀착되어 있다. 섬세하게 조각된 손은 중지와 약지를 자연스럽게 구부려 엄지와 맞댄 설법인을 짓고 있다.

주름의 표현은 상체는 최대한 간결하게, 하체는 세밀하고 복잡하게 처리하여 강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즉 상체는 왼쪽 어깨에 표현된 몇 가닥의 주름과 바람에 펄럭이듯 한 차례 반전시킨 못깃 주름 등 특징 있는 주름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름은 생략하였지만, 무릎 앞으로 펼쳐진 주름은 단순한 호선주름을 부채살 모양으로 속도감 있게 펼쳐 강한 대비를 이루게 하였다. 이러한 무릎 앞쪽으로 표현된 세밀한 수평의 융기선 주름은 17세기 전반의 단순 3단의 층단 주름에서 좀더 복잡하게 변화된 것으로 1650년을 전후한 시기에 제작된 무염과 조각에서 자주 보이는 특징이다.

좌협시 도명존자는 자세, 착의형식 등 세부표현에서 본존불과 차이 있을 뿐 거의 같은 모습이다. 민머리의 도명존자는 청색의 장삼 위에 붉은색 가사를 편단우견으로 걸쳐 입고 합장하였다. 무독귀왕은 원유관과 붉은색 관복을 착용하고 두 손을 가슴에 모아 합장하였는데, 지장보살이나 도명존자의 얼굴에 비해 양감이 많이 절제된 가름한 형태이며, 콧날도 다소 뭉툭해지는 등 변화가 감지된다.

【祝願文】

順治八年辛卯八月十九日」 腹藏安莊叩祝願」 朝鮮國王李壽萬歲」
王妃殿下張氏壽萬歲」 大王大妃殿下趙氏壽萬歲」 世子邸下李壽萬歲」
國泰民安法輪轉」 諸宮宗室各安寧」 文武百僚忠輔禮」 本道監司柳景緝盡忠良

」
本府府使宋國準壽命長」 各各隨喜施主壽命長」 各各先亡往西方」 見佛聞法悟無生」
黃金大施主姜勝先 兩主」 佛像大施主趙愛男 兩主」 佛像大施主鄭金伊同 兩主」
黃金大施主金順日 兩主」 供養大施主李杰連 兩主」 貼金大施主河氏瓊玉 兩主」
地藏大聖造成大施主」 鄭豆應巾 兩主」 金祿立 兩主」 道明尊者造成大施主」
金千同 兩主」 預裕 比丘」 無毒鬼王造成大施主」 南千壽 兩主」 南聖云 保体

」
第一秦廣大王造成大施主」 槩奉○ 兩主」 槩奉男 兩主」
第二初江大王造成大施主」 鄭武金 兩主」 第三宋帝大王造成大施主」
金氏莫年 保体」 第四五官大王造成大施主」 洪砬 兩主」
第五閻羅大王造成大施主」 蔡俊 申龍」 第六變成大王造成大施主」
李植樑 兩主」 張氏乙生 保体」 李承金 兩主」 第七泰山大王造成大施主」
姜連守 兩主」 張氏礼香 兩主」 姜豐業 保体」 第八平等大王造成大施主」
孫應春 兩主」 孫愛天 兩主」 孫起天 兩主」 第九都市大王造成大施主」
金伯男 兩主」 金大允 兩主」 洪氏白花 兩主」 全氏桂梅 兩主」
第十五道轉輪大王造成大施主」 金應善 兩主」 金貴漢 兩主」
李泰英 兩主」 泰山大王造成大施主」 判官王造成大施主」 崔永祿 兩主」
善簿童子大施主」 朴世俊 保体」 左右使者造成大施主」 鄭金伊山 兩主」
地藏王造成施主」 比丘 法明」 各各隨喜施主壽命長」 本寺秩」 首僧法明」
禪德道悟」 慈信」 天鑑」 性珠」 眞湜」 眞認」 眞楚」 王淳」 惠元」
六和」

六軒」 省浩」 道行」 珎清」 六坦」 碧崇」 居士 金慶福 兩主」 金慶祚
兩主」

鄭成一 保体」 證明金剛山法祖」 十王助祿兼證明登徽」 楓岳山雙彦」
五臺山積稟」 宝盖山明照道一」 妙香山義淳」 智異山覺性」 天冠山戒牛」
太白山楚日」 五峯山道源」 造成畫員秩」 無染」 道祐」 海心」 德明」
處常」

性岑」 元哲」 道珪」 敏奇」 義信」 靈澤」 處仁」 日祥」 畫成畫員秩」
性倫」

峯徽」 信旭」 玄淡」 得天」 持殿清印智軒」 化主兼別座蓮玉」 化主守潭」
化主玠文」 化主汝蓮」 助緣能溶」 色掌善謙」 尙文」 大化主靈瑞

□

○ 현상 및 특징

신홍사 명부전에는 본존인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왼쪽 도명존자, 오른쪽 무독귀왕으로 구성된 지장삼존상이 봉안되어 있다. 지장보살좌상은 방형에 가까운 얼굴에 입술의 양 끝을 살짝 올린 모습 그리고 넓은 주름에 무릎에는 수평의 조밀한 옷주름까지 극락전의 아미타불상과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 오른손은 가슴 부위로 올려 엄지와 중지를 맞대었으며 왼손은 무릎 위에 올린 다음 손바닥을 위로 향하여 같은 수인을 결하였다. 어깨는 넓으며 조각의 두께가 두꺼워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는 비례를 보인다. 민머리의 도명존자와 관을 쓴 무독귀왕 역시 비슷한 모습이지만 입상에 합장을 하였으며 좀 더 길죽한 얼굴에 인자함이 돋보인다. 또한 채색 때문인지 지장보살상 보다는 세속적인 얼굴 모습이다.

불상에서는 2002년 복장물이 발견되었는데, 복장조성기를 비롯하여 권선문첩, 다라니, 후령통, 봉축문, 신타래 등이 지장상에서 발견되었다. 도명존자에서도 다라니와 후령통 등이 나왔다. 지장보살상의 조성기에는 “順治八年辛卯八月十九日……造成畫員秩 無染 道祐 海心…” 등 제작연대와 상을 만든 장인, 각 상들에 시주한 재가신도들의 이름들이 각각 쓰여 있다. 이를 통해 1651년 8월 19일에 제작되었으며 조성화원은 無染, 道祐, 海心 등 13명으로 극락전의 아미타삼존불상과 함께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명부전에는 현재 지장삼존상만 남아 있지만 원래는 시왕상이 그 옆에 있었으며 시왕도도 함께 봉안되었으나 언젠가 없어졌음을 1954년 미군이 촬영한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다. 사진에는 시왕상 5구와 시왕도 3점이 남아 있으며 17세기의 전형적인 시왕상의 모습도 확인된다. 그러나 지장보살상에서 나온 축원문에는 지장과 무독귀왕, 도명존자의 삼존상과 시왕 그리고 판관, 사자, 동자, 장군 등의 시주자 이름들이 보여 모든 권속들이 일괄로 조성되었음도 확인된다.

상을 만든 무렵은 1630년대부터 50년대 까지 많은 작품을 남기고 있다. 특히 지장보살상으로는 순치 8년(1651) 신홍사 지장상과 권속들을 조성 한 뒤 순치 11년(1656) 영광 불갑사 지장삼존상과 시왕상을 제작하였다. 그러나 두 작품은 얼굴이나 신체 비례라든지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의 표현에서 약간의 차이점도 보인다.

4. 경산 경흥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慶山 慶興寺 木造釋迦如來三尊坐像)

가. 심의사항

“경산 경흥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경산 경흥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09.07.10)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1.07.13)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은 현지조사자 3인 이상이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문화재로 본 위원회 2011년도 제6차 회의('11.12.13)에서 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 30일간 지정 예고('11.12.23~'12.01.22)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46호(1990.08.07. 지정)
- 명 칭 : 경산 경흥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慶山 慶興寺 木造釋迦如來三尊坐像)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경흥사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산전리 806 경흥사
- 수 량 : 3구
- 규 격 : 석가여래 높이 146cm, 무릎 폭 98.3cm
좌협시보살상 높이 135cm, 무릎 폭 86.2cm
우협시보살상 높이 133.5cm, 무릎 폭 86.5cm
- 재 질 : 목조
- 형 식 : 석가여래 삼존형식
- 제작연대 : 1644년(인조 22)

- 작 자 : 증명(證明) 쌍신(雙信), 화원(畫員) 청허(淸虛) 부화원(副畫員) 영색(英蹟), 현욱(玄旭), 정혜(淨惠), 신웅(信雄), 나흠(懶欽), 영이(英伊)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이 목조삼존불좌상은 본존이 146cm이고 좌우협시보살상은 135cm와 133.5cm로 본존보다는 약간 작은 편이나 16세기 전반의 상으로 보면 비교적 큰 편에 속한다. 불상들의 얼굴은 네모난 편이나 아랫부분이 이마 쪽보다 약간 좁은 편이다. 이 삼존불상의 개금불사 때에 복장 발원문이 발견되어 順治 1년 甲申 즉 1644년(인조 22)에 수화원 淸虛비구와 부화원 英蹟비구에 의해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협시 보살의 대좌에서도 같은 해인 1644년 2월에 시작하여 5월에 완성되었음을 알려주는 묵서명이 발견 되었다. 조각승 청허의 활동 시기는 1605년에 수화승 元悟 밑에서 김해 선지사의 목조아미타 불상을 제작하였으며 1914년에는 수화승 覺敏과 함께 순천 송광사 대웅전 삼존불상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비로소 1640년에는 수화승으로 덕유산 연수사에서 목조아미타불을 제작하였는데 이상은 현재 거창 심우사에 봉안되어 있다. 경홍사의 상에서 보이는 청허의 양식은 상들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고 범의의 표현은 굵은 옷자락 표현을 대담하고 깊게 조각하였다. 청허가 경홍사 삼존불좌상을 제작할 즈음에는 조각승으로서 활동한 경력도 많이 쌓여서 청허 조각이 완숙된 경지에 이른 불상 양식을 잘 보여주는 예로 생각된다. 한편 같이 조각에 참여한 英蹟은 1626년 조각승 현진과 함께 범주사 소조삼신불을, 1639년에는 청헌과 함께 쌍계사 목조삼불상을 조성하였다. 이 조각승들은 그 당시의 조선 후기 불상 양식의 성립에 큰 역할을 한 조각가들로 이 경홍사의 불상은 조선 후기 불상양식이 정형화 되어가는 시기의 대표작으로 볼 수 있다.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 (지정 가치 있음)

경홍사 목조삼존불좌상은 조선시대 17세기에 활동한 조각승 청허에 의해 1644년에 조성되었다. 이들 불상은 청허의 작품 중에서 가장 원숙기에 조성된 것으로서, 조선 후기 불교조각사의 기준작으로서 가치가 충분하다고 하겠다. 불상과 보살상의 이마가 넓고 반듯하게 처리된 것이나 눈썹과 눈을 옆으로 가늘고 길게 표현한 것은 청허 작품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목조삼존불좌상 중에서 주존인 불좌상은 높이가 146cm로서 대형에 속하며, 전

체적인 비례가 적절하고 조각 수준도 우수하다. 보살상의 엄지와 중지로 보주를 잡고 있거나, 결가부좌한 하체가 어느 정도의 높이를 유지하는 등 17세기 중반의 특징을 잘 갖추고 있어서 복장기에 기록된 1644년 작인 것을 양식적, 도상적으로 뒷받침해 준다.

복장기에는 구체적인 불상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전라도 금산사의 화원인 청허를 초청하여 불상을 조성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서 당시 조각승들의 교류 활동을 추측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17세기 전반에 활동했던 청허의 불상 조각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조각승 청헌과의 불분명한 관련성 등을 재검토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 (지정 가치 있음)

이 삼존상은 석가여래좌상에서 발견된 복장발원문과 대좌 묵서명을 통해 사찰의 창건연기는 물론 1644년이라는 정확한 불상의 조성시기와 명확한 조성주체, 불상을 제작한 제작자 등을 알 수 있어 17세기 불상연구의 기준이 되는 자료이다. 특히 이 불상을 통해 17세기 대표적인 조각승인 靑虛가 전라도 금산사를 근거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는 17세기 초반부터 중반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걸쳐 크게 활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각적인 경향에서도 양감이 절제된 단엄하면서도 고요한 상호, 당당한 신체비례, 강직한 직선 위주의 선묘, 주름 표현 등에서 1640년대 靑憲이나 청허의 작품과 양식적으로 상통하고 있다.

이 삼존상은 17세기 중엽 경의 양식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고, 조각적, 종교적 완성도도 비교적 높을 뿐만 아니라 조각승 청허의 조각세계를 연대적으로 이해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보물로 지정함.

조사보고서

□

이 목조삼존불좌상은 본존이 146cm이고 좌우협시보살상은 135cm와 133.5cm로 본존보다는 약간 작은 편이나 16세기 전반의 상으로 보면 비교적 큰 편에 속한다. 불상들의 얼굴은 네모난 편이나 아랫 부분이 이마 쪽보다 약간 좁은 편이다. 이 삼존불상의 개금불사 때에 복장 발원문이 발견되어 順治 1년 甲申 즉 1644년에 (인조 22) 수화원 淸虛비구와 부화원 英蹟비구에 의해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협시 보살의 대좌에서도 같은 해인 1644년 2월에 시작하여 5월에 완성되었음을 알려주는 묵서명이 발견 되었다. 조각승 청허의 활동 시기는 1605년에 수화승 元悟 밑에서 김해 선지사의 목조아미타 불상을 제작하였으며 1914년에는 수화승 覺敏과 함께 순천 송광사 대웅전 삼존불상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비로소 1640년에는 수화승으로 덕유산 연수사에서 목조아미타불을 제작하였는데 이상은 현재 거창 심우사에 봉안되어 있다. 경흥사의 상에서 보이는 청허의 양식은 상들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고 법의의 표현은 굵은 옷자락 표현을 대담하고 깊게 조각하였다. 청허가 경흥사 삼존불좌상을 제작할 즈음에는 조각승으로서 활동한 경력도 많이 쌓여서 청허 조각이 완숙된 경지에 이른 불상 양식을 잘 보여주는 예로 생각된다. 한편 같이 조각에 참여한 英蹟은 1626년 조각승 현진과 함께 범주사 소조삼신불을, 1639년에는 청헌과 함께 쌍계사 목조삼불상을 조성하였다. 이 조각승들은 그 당시의 조선 후기 불상 양식의 성립에 큰 역할을 한 조각가들로 이 경흥사의 불상은 조선 후기 불상양식이 정형화 되어가는 시기의 대표작으로 볼 수 있다.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

○ 현상 및 특징

1989년, 경흥사 대웅전을 해체 복원하는 과정에서 목조삼존불좌상 중 주존 불좌상에서 복장기가 발견되었다. 복장기는 다시 불상 속에 넣어 실물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의 복장기 사진과 복장기의 내용을 필사했던 徐思選(1579~1651)의 『東臯先生文集』(동고는 서사선의 호)에 수록된 [慶興寺佛像造成記]에 의하면 조각승 淸虛에 의해 조선시대 인조 22년(1644)에 조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최근 조사에서 우협시보살의 대좌에서도 順治 1년(1644)의 묵서명이 확인되어 이들 불상이 대좌와 함께 조선시대 1644년에 조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목조삼존불좌상은 손상되었거나 보수된 곳이 없이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다만 각 존상의 대좌는 상대 위에 설치되었던 난간 부분이 없어졌고, 대좌 다리의 일부가 보수되었다.

주존인 목조불좌상은 변형된 편단우견식으로 법의를 입고 있으며, 결가부좌하고

있다. 대의는 왼팔과 왼쪽 어깨를 덮고 목 뒤를 감은 다음, 오른쪽 어깨를 덮고서 S자를 그리면서 내려와 오른쪽 팔꿈치 밑으로 들어간다. 오른손은 축지인을 곁하고 왼손은 설법인을 취하고 있다. 왼손은 따로 조각하여 끼웠다. 상체와 하체의 비례는 적절하다. 육계는 낮고 편평하며, 중앙계주와 정상계주가 있다. 얼굴은 방형으로서 약간 숙인 모습이다. 상호의 이마 부분에 보이는 넓고 평판적인 느낌과 옆으로 길게 처리된 눈썹과 눈 등은 청허 작품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하체도 어느 정도의 폭과 높이를 지니고 있어서 안정감을 준다. 상체가 하체에 비해 보다 입체적으로 조각되었고, 상체는 약간 앞으로 숙인 모습이다. 전체적으로 옷주름 처리는 단순하며, 1線 위주의 기법으로 처리하였다. 가슴 아래 裙衣를 고정하기 위해 가로지른 띠 밑에는 간략한 음각선 2개로 주름을 표현하였다. 이는 1616년에 조성된 천곡사 불상에서도 확인된다. 대좌는 편팔각형으로 상대와 중대, 하대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중대는 꽃으로 장엄되었다. 불상의 존격은 석가모니불로 추정된다.

좌협시인 목조보살좌상은 불상보다는 약간 작으나 상호가 원만하고 전체적인 비례도 적절하다. 반듯하고 넓은 이마와 가늘고 긴 눈썹과 눈 등은 청허의 작품이다. 얼굴과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인 모습은 주존과 같다. 중앙의 머리카락은 상투로 틀어 올렸으며, 좌우의 것은 땅아서 어깨 위로 내려 뜨렸다. 변형된 편단우견식으로 법의를 착용하고 결가부좌하고 있다. 보관이나 대좌 역시 보살상이 조성되던 당시의 것으로 보인다. 보관에는 꽃과 봉황 장식, 梵字 장식, 화염과 구름 장식 등이 달려 있다. 보살상의 상호나 조형적인 특징은 주존과 비슷하다. 그러나 주존이 1線 위주로 처리되었다면, 좌협시 보살상은 3선 위주의 선조를 구사한 것이 특징이다. 3선의 처리 방식은 비슷한 작품을 지녔던 조각승 淸憲이 1643년에 조성한 진주 凝石寺 대웅전 목조삼세불상에서도 확인된다. 보살상의 오른손 엄지와 중지 사이에는 보주가 조각되어 있다. 이는 17세기 이후에 보이는 보살상의 특징이다. 양손은 따로 제작하여 끼웠는데, 손목에는 팔찌가 각각 조각되어 있다. 보살상은 주존의 존격을 통하여 문수보살상으로 추정된다.

우협시인 목조보살좌상은 좌협시 보살상보다 약간 작으나 육안으로 구별되진 않는다. 상호가 원만하고 전체적인 비례도 적절하다. 이마가 넓고 반듯하며, 눈썹과 눈을 옆으로 길게 처리한 것은 청허의 작품이다. 우협시 보살상의 보관과 대좌도 조성 당시의 것으로 추정된다. 대좌 형식은 주존의 것과 같다. 변형된 편단우견식으로 법의를 착용하고 결가부좌하고 있다. 얼굴과 상체를 앞으로 약간 숙인 것도 주존과 같다. 어깨가 주존과 좌협시보살보다 처져 있어서 보다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수인은 좌협시보살상과 반대로 되어 있다. 역시 왼손 엄지와 중지로 보주를 잡고 있다. 양손은 따로 제작하여 끼웠는데, 손목에는 팔찌가 각각 조각되어 있다. 보관에는 범자 장식이 없고 봉황과 꽃 장식만 있다. 보관에 보이는 꽃 모양은 대

좌에서도 같은 것이 확인된다. 보살상은 3존 중에서 가장 얇게 조각되어 입체감이 떨어진다. 보살상은 보현보살상으로 추정된다. 대좌는 조선시대 후기에 유행했던 편팔각형의 평면에, 상대와 중대, 하대로 구성되어 있다. 중대의 정면과 좌우면에는 꽃이 각각 조각되어 있다.

17세기 전반 국난이 끝난 뒤인 인조 13년(1635)에 경흥사를 조성하기 시작하여 3년만인 인조 15년(1637)에 완공하였다. 어떤 이유에서 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시간이 흐른 인조 22년(1644)에 불상을 조성하고 복장물을 넣었다. 불상 조성을 위하여 전라도 金山寺에서 화원(조각승) 청허를 모셔 왔다. 청허는 이 불상을 3개월 만에 완성하였다. 우협시보살상의 대좌 아래 묵서명에 의하면, 불상의 조성은 1644년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조각승 청허는 이 불상 외에도 1605년에는 익산 관음사 목조관음보살입상 등을 조성하였는데, 경흥사 목조삼존불좌상은 1644년의 작품으로 청허의 원숙기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慶興寺 木造三尊佛坐像 腹藏記]

歲在乙亥有僧海雲與義瓊惠寬學眞登卜施于動學山之南麓謀健新刹海雲斫聚禪僧兩堂之材未及赴役兩身病義瓊惠寬學眞登召匠創建義淡燔瓦盖之越三年丁丑眞寬爲法堂化主營建數年盖瓦修粧既畢法尙爲丹青及繪佛化主數年之間丹○照躍法界儼然號曰慶興寺衆衲推靈主爲佛像化主諸處勸善三年之內凡具已備邀請全羅道金山寺畫員始役于草庵證師名雙信畫員名清虛三闕月而佛像已成奉安于法堂衆僧瞻拜歡聲雷動共命鳥三乙鳥爭飛於蓮花臺上嗚呼千萬古草莽空山今乃爲一境大鹿宮此非有數存焉拾其間耶於千萬年能不變谷不遷佛像其永無疆則普施衆生亦將福田無窮矣甲申五月二十二日前參奉徐思選誌

□

○ 내용 및 특징

경흥사는 신라 무열왕대 慧空이 창건하였다고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고고학적, 미술사적 자료나 문헌은 없다. 1989년 삼존상의 개금불사 시 불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에 따르면, 사찰의 개략적인 연혁과 주불전에 봉안된 불상의 조성내력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사찰의 건립은 1635년 海雲이 義瓊, 惠寬 學眞 등과 함께 동학산 남쪽에 새 사찰을 건립하기를 발원하고, 3년이 지난 1637년에 이르러 盖瓦와 修粧, 丹青 등이 마무리 되고 사찰이름을 慶興寺라고 한 것이 실제

적인 창건 시기가 아닐까 한다.

또한 삼존불상은 靈主가 화주가 되어 全羅道 金山寺의 畫員 雙信과 淸虛를 초청하여 雙信을 證師로, 淸虛를 首畫員으로 하여 1644년 2月 晦日에 조성공사가 시작되어 5월 22일에 완성하였다. 이는 복장 발원문과 대좌 묵서명을 통해 알 수 있다.

경흥사 대웅전의 주불로 봉안되어 있는 삼존상은 降魔觸地印의 불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보관을 쓴 菩薩이 협시하고 있는 전형적인 석가여래삼존형식이다. 통상 석가여래의 협시보살은 문수, 보현보살로 알려져 있으나, 이 시기 범어사 석가여래삼존상처럼 제화갈라와 미륵보살을 협시로 하여 三世佛을 이루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명문이 나오지 않는 이상 선불리 존명을 부여할 수 없다.

삼존상은 꽃무늬가 화려하게 투각된 八角臺座 위에 결가부좌하였다. 본존 석가여래는 항마촉지인을 결하였고, 착의는 오른쪽 어깨를 살짝 덮은 변형의 우견편단식이다. 둥글게 처리한 머리에는 따로 만든 나발을 촘촘히 부착하고, 머리의 중앙과 정상에는 반달모양의 중앙계주와 원통형의 정상계주를 나타내었다. 육계의 경계는 불분명하다. 방형의 얼굴은 양감이 적절하며, 이마는 넓고 편평하며 이목구비도 뚜렷하다. 고요히 뜬 시선은 사바세계를 굽어 살피듯 자비롭고, 입가의 절제된 미소는 단엄하면서도 차분한 인상을 준다.

대의에 표현된 주름은 간결하고 힘 있는 직선의 선묘 위주로 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곡선의 선묘로 변화를 주었다. 당당한 가슴에는 화형으로 맵시 있게 접은 裙衣의 끝단이 표현되었고, 그 아래로 군의를 묶은 띠 자락의 여운을 남겨놓았다. 결가부좌한 무릎은 거의 수직에 가깝게 처리하였고, 오른쪽 발 아래로 부메랑처럼 드리운 넓은 띠 주름을 중심으로, 좌우 수평 2단 주름으로 처리하였다. 신체에 비해 머리는 다소 크지만, 어깨 폭과 무릎의 폭과 높이가 적절하여 안정적인 형태감을 준다.

이 불상에서 보이는 머리가 다소 크고, 당당함이 넘쳐나는 신체 비례나 형태, 강약의 변화가 거의 없는 강직한 직선 위주의 선묘 등에서 구례 화엄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좌상이나 하동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좌상, 진주 응석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등 靑憲이나 靑虛의 작품과 유사한 양식적 특징을 보인다.

좌우 협시보살상도 선정에 잠긴 듯 고요한 인상을 주며, 본존불과 달리 天衣는 이중착의로 걸치고, 수인은 양손을 下品中生印처럼 엄지와 중지를 맞대어 대칭적으로 하여 결가부좌하였다. 보관은 화염, 구름, 봉황, 꽃무늬를 따로 제작하여 화형으로 능을 준 母板에 부착하여 장엄하였다. 머리는 2갈래의 상투로 단정하게 빗아 올렸으며, 양 어깨에 드리워진 보발은 2개의 고리모양으로 엮고 다시 세 갈래로 흘러내렸다. 귀에는 화형의 귀고리와, 손목에는 여의두 모양으로 머리를

맞댄 팔찌를 착용하였다. 세부적 표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형태나 비례, 주름의 표현, 양감 등은 본존불과 거의 같다.

[대좌목서명]

順治一年甲申始 役二月每日造作 五月廿二日畢役

[발원문]

歲在乙亥有僧海雲與義瓊惠寬學眞等卜地于
動鶴山之南麓謀建新刹海雲所聚禪僧兩堂之材
未及赴役而身病義瓊惠寬學眞等召匠創建義
淡燔瓦盖之越三年丁丑眞寬爲法堂化主營建數年盖
瓦修粧既畢法尙爲丹青及繪佛化主數年之間丹
獲照耀法界儼然號曰慶興寺衆衲推靈主爲佛像
化主請處勸善三年之內凡具已備邀請全羅道
金山寺畫員始役于草庵證師名雙信畫員名
清虛三關月而佛像已成奉安于法堂衆僧瞻拜
歡聲雷動共命鳥三足鳥爭飛於蓮花臺上嗚呼
千萬古草莽空山今乃爲一境大梵宮此非有數存
焉於其間耶於千萬年陵不變谷不遷佛像其永
無疆則普施衆生亦將福田無窮矣甲申五月二十二日
前參奉徐思選誌
主佛大施主李榮主兩主左補處大施主李彥良兩主右
補處大施主吳命守兩主二青大施主禦侮將軍金國明兩主
黃金大施主眞寬比丘淨齋末布施兼大施主安夢山兩主
供養布施茶禮兼大施主安旺男兩主開眼大施主曹成龍兩主
米茶禮大施主陳淵龍兩主食罪清蜜大施主仇彥
忠兩主清蜜灯燭兼大施主李彥好兩主布施茶禮大施
主李丙同兩主釘子大施主朴難好兩主腹藏大施主朴好己
兩主腹藏大施主金汝哲兩主大施主李順兩主大施主徐
永和兩主大施主趙春發兩主大施主玉守兩主大施主
河龍華兩主大施主陳石音福兩主大施主孫千萬兩主
大施主金蕃生兩主大施主甘守兩主施主柳日兩主施主
李春福兩主施主金松立兩主施主申莫同兩主施主雲峯

兩主」

施主丁崇夫兩主施主李吾左末兩主施主鄭金同兩主施主李」

義善兩主施主金介屎兩主施主金介夫兩主施主朴?信」

兩主施主金文鶴兩主施主安精信兩主施主孝善兩主」

洪泗龍兩主金祿守兩主施主愛龍兩主施主李同兩主施主」

施主陳滄山兩主申榮海兩主朴命吉兩主曹慶主兩主」

2

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我等與衆生當極樂國同見」

無量壽皆共成佛道」

寺內秩」

義瓊比丘」勝禪比丘」眞寬比丘」惠寬比丘」文信比丘」元學比丘」性覺比丘」義環

比丘」宝岡比丘」坦英比丘」法藏比丘」双益比丘」彦謙比丘」處玉比丘」彦奇比

丘」印潭比丘」善道比丘」忠湜比丘」玄己比丘」幸玄比丘」天海比丘」

衍清比丘」衍均比丘」弘戒比丘」覺?比丘」懷淨比丘」印?比丘」幸修比丘」懷濟比

丘」印海比丘」淨岑比丘」僅淨比丘」懷印比丘」衍贊比丘」懷獻比丘」一和比丘」

處日比丘」坦能比丘」清元比丘」懷訥比丘」戒默比丘」法尚比丘」道淳比丘」懷惠

比丘」

衍雄比丘」覺惠比丘」法心比丘」德獻比丘」熙淨比丘」信弘比丘」覺惠比丘」懷益

比丘」

緣化秩」

證明 雙信比丘 畫員 清虛比丘 副畫員 英曠比丘」

持殿 雲雨比丘」

玄旭比丘 淨惠比丘 信雄比丘 懶欽比丘 英伊」

供養主 處玉比丘 懷哲比丘 來往衍行比丘 聖俊」

聖悅比丘 彦性比丘 衍聰挺敏 保休」

別座 忠信比丘」

幹善道人 靈圭比丘」

3.

崇禎二年丁丑六月日慶興寺新創記」

供養大施主趙夢仙兩主」

布施大施主張雲善兩主」

李敬日兩主」

金春生」

劉希世兩主」

韓豆音」
朴得敏伏爲」
亡父朴青山靈駕」
孫千萬」
金業伊」
滄德保体」
韓從男」
李奉尙」
金芻伊兩主」
申英海」
鐵物大施主吳福伊兩主」
李英泉」
金苐叱金」
末醬大施主李順伊兩主」
供養施主 惠寬比丘」
本師運力秩」
義瓊比丘」文熙比丘」竺岑比丘」智明比丘」敬峇比丘」元學比丘」僅還比丘」法藏比丘」幸修比丘」彥兼比丘」釋明比丘」太均比丘」克雲比丘」學能比丘」僅淡比丘」印淡比丘」彥哲比丘」處敏比丘」裕識比丘」釋明比丘」
學?比丘」戒眞比丘」應湖比丘」哲雲比丘」釋還比丘」慧日比丘」忠信比丘」卓淳比丘」敏學比丘」神明比丘」性慳比丘」懶嚴比丘」彥性比丘」克動比丘」處玉比丘」處日比丘」淨應比丘」學玄比丘」弘戒比丘」淨行比丘」學宗比丘」裕印比丘」
木手秩」
尙允比丘」三應比丘」法澄比丘」三俊比丘」
工和比丘」慧天比丘」慧澄比丘」竺玄比丘」妙雲比丘」懷淨比丘」海元比丘」天玉比丘」

緣化秩」
別座慧寬比丘」
供養主處性比丘」
覺湖比丘」
智男比丘」

應丹比丘」

成造化主眞寬比丘」

盖瓦化主覺慧比丘」

建陽二年丁酉三月日三創時膽書」

5. 서천 봉서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舒川 鳳棲寺 木造阿彌陀如來三尊坐像)

가. 심의사항

“서천 봉서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서천 봉서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0.07.09)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1.08.31)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은 현지조사자 3인 이상이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문화재로 본 위원회 2011년도 제6차 회의('11.12.13)에서 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 30일간 지정 예고('11.12.23~'12.01.22)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문화재자료 제334호(1994.11.04. 지정)
- 명 칭 : 서천 봉서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舒川 鳳棲寺 木造阿彌陀三尊坐像)
- 소유자(관리자) : 봉서사
- 소재지 :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호암리 159 봉서사
- 수 량 : 3구
- 규 격 : (1)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높이 103cm, 무릎 폭 72cm
(2) 목조관세음보살좌상: 높이 101.5cm, 무릎 폭 66cm
(3) 목조대세지보살좌상: 높이 102.5cm, 무릎 폭 65.3cm
- 재 질 : 목조
- 제작연대 : 1619년(광해군 11)

○ 작자 : 수연(守衍), 성옥(性玉), 영초(靈招)(또는 영철靈哲), 응인(應仁), 보희(寶熙)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충청남도 서천 봉서사 극락전의 목조 아미타삼존불좌상은 세상의 크기가 모두 100cm가 넘는 목조상으로 이제까지 알려져 있었으나 이번 지정조사 과정에서 소조상이 아니라 목조상으로 판명되었다. 세상 중에서 모두 비슷한 내용의 복장 발원문이 나왔는데 萬曆 46년(1618, 광해군 10) 8월에 시작하여 그 다음해 정월, 즉 1619년에 완성한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시주사들의 이름 뒤에 증명과 조각을 둘 다 守衍비구가 하고 性玉, 靈招(또는 靈哲), 應仁, 寶熙 등 5인의 조각승들이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 수연은 현진, 무염과 더불어 17세기 전반기에 활동한 대표적인 조각승의 하나로 현재 남아있는 수연의 불상 중에서는 이 봉서사 상은 가장 이른 시기의 상이다.

삼존불은 아미타여래를 본존으로 취하는 삼존형식 가운데, 가장 고전적인 관음과 대세지보살을 좌우 협시로 하는 삼존상이다. 삼존불의 표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몸체에 비해서 얼굴의 크기가 유난히 작은 것이다. 따라서 상의 체구가 장대하게 보이고 옷 주름 표현 역시 굵고 단순하여 상의 입체감을 강조하여 준다. 이 상이 조성된 1618년은 아직도 조선 후기 불상의 양식이 형성되어 가는 시기로 조각가의 활달한 조각 수법과 형식화되지 않은 개성 있는 수법이 돋보인다. 이후 수연은 1623년 강화 전등사 대웅전의 목조삼불좌상과 1634년 전라북도 옥구 보천사에 목조지장보살상과 시왕상 등을 남기고 있으며, 현재 예산 수덕사에 봉안된 목조삼불좌상도 원래는 전라북도 남원 풍곡사에서 1639년 수연이 수화승으로 제작한 상이다. 이 봉서사 불상의 복장물에서도 간기가 있는 15세기, 16세기의 중요한 경전이 발견되었으나 을 초(2011년) 개금시 재복장하였다고 한다. 현존하는 수연의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이자 17세기 불상 양식의 성립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므로 국가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 (지정 가치 있음)

봉서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은 복장발원문에 의하여, 조선시대 1619년에 수연(守衍), 성옥(性玉), 영철(靈哲), 응인(應仁), 보희(寶熙) 등에 의하여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삼존불좌상은 조선시대 17세기 중후반에 활동했던 영철이나 운혜(雲惠)에게 영향을 주었던 수연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며, 지금까지

알려진 수연의 작품 중에서 가장 연대가 올라간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지닌다.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은 보존 상태가 양호한 온전한 상태이다. 다소 상체가 큰 감이 없지는 않으나 오히려 이러한 점이 장중한 느낌의 종교성을 보다 잘 표현해 준다고 하겠다. 원만한 상호와 범의 자락의 유려한 처리 방식에서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특징을 확인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조선 후기 불상이 정형화되는 17세기 중반 이후의 전조적인 특징도 나타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즉 조선 후기 불상의 성립에 있어서 과도기적인 양상을 이 불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호의 모습이나 전체적인 비례에서 삼존이 비슷하지만, 부분적으로는 변화를 주고 있어서 섬세한 표현 의식도 읽을 수 있다. 목조관세음보살좌상과 목조대세지보살좌상에 보이는 X자 형식의 가슴결이 장식은 조각승의 창의력이 돋보이는 표현이다. 이러한 점은 조선시대 불상의 다양성을 보다 풍부하게 해 준다고 하겠다.

상기한 몇 가지 점에서 봉서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은 조선시대 불교조각사 연구의 기준작이 될 뿐만아니라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이 삼존상은 아미타여래를 본존으로 관음, 대세지보살이 협시하는 아미타삼존 형식을 취하고 있는 조선 후기 예 중에서 이른 시기에 해당한다. 또한 삼존상에서 발견된 發願文을 통해 1619년이라는 정확한 조성시기와 조성주체, 시주자 등 조성과 관련된 기록이 전하고 있어 이 시기 불상연구에 기준자료를 제공한다.

이 불상을 만든 守衍은 17세기 전반기에서 중반기에 걸쳐 활동한 조각승인데, 그는 1615년 김제 금산사 독성상을 태전을 도와 제작하였고, 1622년에는 현진을 도와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상을 제작하였다. 이후 강화 전등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1623년)과 익산 송림사 영원전 지장시왕상(1624년), 그리고 예산 수덕사 대웅전 석가여래삼불상(1639년)을 수조각승으로 참여하여 제작하였다. 이들 중에서 이 작품은 현재 남아 있는 그의 작품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이자 그의 초기의 조각적 경향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작품이어서 중요하다. 즉, 턱이 짧은 넓직한 얼굴에 도톰하게 자리 잡은 넓은 코, 여기에 짧은 인중과 두툼한 턱으로 중후하면서도 개성이 넘치는 얼굴, 넓고 두툼한 가슴과 긴 허리에서 오는 중량감 넘치는 형태, 강직한 선 위주로 표현한 도식화된 주름이나 왼쪽 어깨나 무릎 아래로 펼쳐진 독특한 형태의 주름표현

등에서 그의 조각적 경향이 잘 나타나 있다.

이 삼존상은 17세기 전반기에 추구했던 대중적 평담미와 수연이 추구한 중량감 있는 형태미를 잘 보여주고 있는 불상으로 평가되므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보물로 지정함.

조사보고서

□

충청남도 서천 봉서사 극락전의 목조 아미타삼존불좌상은 세 상의 크기가 모두 100cm가 넘는 목조상으로 이제까지 알려져 있었으나 이번 지정조사 과정에서 소조상이 아니라 목조상으로 판명되었다. 세 상 중에서 모두 비슷한 내용의 복장 발원문이 나왔는데 萬曆 46년(1618, 광해군 10) 8월에 시작하여 그 다음해 정월, 즉 1619년에 완성한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시주사들의 이름 뒤에 증명과 조각을 들다 守衍비구가 하고 性玉, 靈招(또는 靈哲), 應仁, 寶熙 등 5인의 조각승들이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 수연은 현진, 무염과 더불어 17세기 전반기에 활동한 대표적인 조각승의 하나로 현재 남아있는 수연의 불상 중에서는 이 봉서사 상은 가장 이른 시기의 상이다.

삼존불은 아미타여래를 본존으로 취하는 삼존형식 가운데, 가장 고전적인 관음과 대세지보살을 좌우 협시로 하는 삼존상이다. 삼존불의 표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몸체에 비해서 얼굴의 크기가 유난히 작은 것이다. 따라서 상의 체구가 장대하게 보이고 옷 주름 표현 역시 굵고 단순하여 상의 입체감을 강조하여 준다. 이 상이 조성된 1618년은 아직도 조선 후기 불상의 양식이 형성되어 가는 시기로 조각가의 활달한 조각 수법과 형식화되지 않은 개성 있는 수법이 돋보인다. 이후 수연은 1623년 강화 전등사 대웅전의 목조삼불좌상과 1634년 전라북도 옥구 보천사에 목조지장보살상과 시왕상 등을 남기고 있으며, 현재 예산 수덕사에 봉안된 목조 삼불좌상도 원래는 전라북도 남원 풍곡사에서 1639년 수연이 수화승으로 제작한 상이다. 이 봉서사 불상의 복장물에서도 간기가 있는 15세기, 16세기의 중요한 경전이 발견되었으나 을 초(2011년) 개금 시 재복장하였다고 한다. 현존하는 수연의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이자 17세기 불상 양식의 성립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므로 국가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 현상 및 특징

19세기 중반에 건축된 봉서사 극락전에는 목조아미타불좌상과 목조관세음보살좌상, 목조대세지보살좌상이 봉안되어 있다. 2003년에 개금할 때 발견된 복장발원문에 의하면, 이들 삼존상은 조선시대 1618년 8월에 조성하기 시작하여 다음해인 1619년 1월에 완성되었다고 한다. 복장발원문은 삼존상에서 각각 1장씩 발견되었으며, 원문 형식은 거의 같다. 발원문에 나타난 불상 조성에 참여한 조각승은 수연(守衍), 성옥(性玉), 영철(靈哲), 응인(應仁), 보희(寶熙) 등이다. 즉 수연의 지도 하에 여러 조각승들이 조성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수연은 봉서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을 만든 후, 1623년에는 강화도 전등사 대웅전의 목조삼세불좌상을, 1634년에 전라북도 옥구 보천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현재 익산 송림사 봉안)을, 1639년에 전라북도 남원 풍국사 목조삼세불상(현재 예산 수덕사 대웅전 봉안)을 조성하였다. 성옥은 수연과 함께 봉서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외에 강화도 전등사 대웅전의 목조삼세불좌상도 조성하였다. 영철은 수연과 함께 봉서사 불상 외에 풍국사 불상을 조성하였다.

목조아미타불좌상은 통견식으로 착의를 하고, 엄지와 검지를 맞댄 모습의 설법인을 결한 채 결가부좌하고 있다. 상체를 지나치게 크게 조성함으로써 상체에 비해 상호와 하체가 빈약한 편이다. 불좌상은 정상계주와 중앙계주를 갖춘 나발의 두발과 넓고 편평한 느낌의 상호를 갖추고 있다. 살짝 뜬 두 눈은 좌우로 길게 표현되었고, 코는 짧고 콧매가 예리하며, 입은 다물고 있어서 엄정한 모습이다. 양 볼 좌우측 아래(귀 밑 부분)에 살이 올라 있어서 장대한 상체와 함께 불상에 무게감을 더해 준다. 어깨는 넓고, 가슴은 편평하며, 허리는 길다. 결가부좌한 하체는 양 무릎의 폭이 좁고 그다지 높은 편도 아니다. 하체의 왼쪽 다리 위로 흘러내린 법의의 모습은 고려시대부터 그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던 것으로, 폭이 넓고 둥글게 처리한 모습에서 조선시대 17세기의 특징이 확인된다. 또한 양 쪽 무릎 끝 부분에 접힌 법의 주름을 살짝 세운 모습이 특징적인데, 이러한 모습은 조선시대 1586년에 발원된 문경 봉암사 목조아미타불좌상에서도 확인된다.

목조관세음보살좌상은 통견식의 착의법에 결가부좌를 하고 있다. 목조관세음보살좌상은 신체 비례, 상호, 수인, 착의법 등의 표현에서 주존인 목조아미타불좌상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결가부좌한 다리 사이를 덮고 있는 옷주름이나 왼쪽 무릎 위로 흘러내린 고려적인 전통의 법의 자락의 표현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나타난다. 특히 왼쪽 무릎 위를 덮고 흘러내린 법의자락은 주존의 것보다 변화된 모습이다.

보살상은 높게 상투를 틀고 있으며, 보발은 귀 뒤로 내린 다음, 살짝 묶어 다시 가닥을 지어 어깨까지 흘러 내렸다. 귀에는 화형 귀걸이를 하고 있다. 한편 가슴 앞에 표현된 X자형 장식은 보기 드문 예로서, 보살상의 일반적인 가슴장식과는 구분된다.

목조대세지보살좌상도 통견식의 착의법에 결가부좌하고 있다. 신체 비례와 상호, 수인, 착의법 등의 표현에서 목조관세음보살좌상과 거의 동일하나 수인은 좌우가 바뀐 모습이다. 결가부좌한 다리 사이를 덮고 있는 옷주름과 왼쪽 무릎 위로 흘러 내린 고려적인 전통의 법의 자락의 표현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나타난다. 특히 왼쪽 무릎 위를 덮고 있는 법의자락은 목조아미타불좌상과 목조관세음보살좌상이 왼발 정강이 부분을 덮고 흘러내린 것과 달리 무릎 위에서 간략하게 처리된 것이 특징이다. 보살상은 높게 상투를 틀고 있으며, 보발은 귀 뒤로 내린 다음, 살짝 묶어 다시 가닥을 지어 어깨까지 흘러 내렸다. 귀에는 화형 귀걸이를 하고 있다. 한편 가슴 앞에 표현된 X자형 장식은 보기 드문 예로서, 보살상의 일반적인 가슴장식과는 구분된다.

[복장발원문]

1619년, 종이, 43.5×58.8, 3매

① 관세음보살상 발원문

願我永離三惡道 願我速斷貪嗔癡 願我常聞佛法僧 願我勤修戒定慧 願我恒隨諸佛學
願我不退菩提心 願我決定生安養 願我速見阿彌陀 願我分身徧塵刹 願我廣度諸衆生
發願已歸命禮三寶 施主秩 佛像大施主比丘太雄 體木大施主金恂一兩主 黃金大施主
宣德希兩主 供養大施主宋於石兩主 布施大施主金希春兩主 褰布大施主崔青山兩主
喉鈴筒大施主全氏兩主 施主鄭斤石兩主 施主挨德保体 施主朴四文兩主 施主介保体
施主太浩比丘 施主天心比丘 施主勝攢比丘 施主罔天比丘 證明守衍 持殿曇秀 畫員
守衍 性玉 靈哲 應仁 宝熙 時 〃 供給飯頭弘敏比丘 時 〃 供敬熟頭道全比丘 永男保体
福男保体 大化主兼大施主玉岑比丘 玉了比丘 三剛能照 萬曆四十六年八月始 己未年
正月畢

② 대세지보살상 발원문

願我永離三惡道 願我速斷貪嗔癡 願我常聞佛法僧 願我勤修戒定慧 願我恒隨諸佛學
願我不退菩提心 願我決定生安養 願我速見阿彌陀 願我分身徧塵刹 願我廣度諸衆生
發願已歸命禮寶三 施主秩 佛像大施主比丘太雄 體木大施主金恂一 黃金大施主宣德
熙 布施大施主金希春 供養大施主宋於石 褰布大施主崔青山 喉鈴筒施主全氏 施主鄭

斤石 施主挨德 施主朴四文 施主太浩 施主_ㄱ介 施主天心 施主勝攢 玉了 罔天 三剛
能照 緣化秩 證明守衍 持殿曇秀 畫員守衍 性玉 令招 應仁 宝熙 飯頭弘敏 熟頭道
全 永男 福男 大化師兼大施主玉岑 匙筋食器施主崔昶福兩主 萬曆四十六年戊午八月
日 爲始己未正月日終畢

③ 아미타불상 발원문

願我永離三惡途 願我速斷貪嗔癡願我常聞佛法僧 願我勤修戒定慧 願我恒修諸佛學
願我不退菩提心 願我決定生安養 願我速見阿彌陀 願我分身徧塵刹 願我廣度諸衆生
發願已故禮三宝 施主秩 佛像大施主比丘大雄 體木大施主金恂一 黃金大施主宣德熙
布施大施主金希春 供養大施主宋於石 褰布大施主崔青山 喉鈴筒施主全氏 施主鄭斤
石兩主 施主挨德 施主朴四文 施主太浩 施主_ㄱ介 施主天心 施主勝攢 玉了 罔天 三
剛能照 匙筋食器施主崔昶福兩主 緣化秩」證明守衍 持殿曇秀 畫員守衍 性玉 靈招
應仁 宝熙 飯頭弘敏 熟頭道全 永男 卜男 大化師兼大施主雲勸玉岑 萬曆四十六年
戊午八月日爲始 己未正月日終畢



○ 내용 및 특징

서천 봉서사 극락전의 주존불로 봉안되어 있는 삼존상은 관음과 대세지보살상
을 협시로 하는 전형적인 아미타여래삼존좌상이다. 이 삼존상은 기존에 소조로 만
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올 해(2011) 이루어진 개금공사에 참여했던 개금
공의 증언과 무게나 두들김에 대한 소리 반응으로 볼 때 목조불상이 분명하다.

불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에 따르면,¹⁴⁾ 이 삼존상은 萬曆 46年 戊午
(1618) 8월에 造成役事를 시작하여 다음해 己未(1619) 正月에 완성된 것이다. 불
상 대시주 大雄스님을 비롯한 體木大施主 金恂日 등 僧俗이 합심하여 불상 조성
에 필요한 물목들을 시주하고, 守衍, 性玉, 靈招(또는 靈哲), 應仁, 宝熙 등 17세기
전반기에 활동한 조각승들이 불상을 제작하였다. 首彫刻僧인 수연은 불상이 잘 이
루어졌는지 최종 감수하는 證明 역할까지도 맡고 있어 그의 위상을 짐작하게 한다.

본존불의 머리는 육계의 경계가 불분명하며, 높이가 낮아 빈약해 보인다. 머리
의 중앙과 정상에는 각각 구형과 반월형의 계주를 표현하였다. 이마는 넓고 반반
하며 양 미간에는 백호를 도드라지게 나타내었다. 반개한 긴 눈은 선정에 잠긴 듯
고요하며, 콧날은 짧고 콧방울은 넓게 자리 잡았으며 인중은 짧고 입술은 얇다.

14) 현재 이 복장발원문과 함께 발견된 전적, 후령통 등 복장유물은 2011년 봄에 시행된 개금불사 때 재복장하였다고
한다.

상하 폭이 좁은 방형의 얼굴은 턱이 짧고 양악의 살집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중후한 느낌을 준다. 이렇듯 이 불상의 중후함과 개성이 넘치는 얼굴모습은 익산 승림사 영원전 지장보살상이나 서울 지장암 비로자나불상이나 수덕사 대웅전 불상 등 그가 직간접적으로 간여했던 작품들과 유사점이 있다. 다만, 이 불상에서 볼 수 있는 살집이 지나치게 강조된 짧은 턱을 통해 수연의 초기 작품의 경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당당하고 위엄이 느껴지는 불신에는 범의를 이중으로 걸쳤는데, 오른쪽 어깨에 걸친 대의자락을 새의 날개처럼 도식적으로 처리하여 강한 인상을 준다. 수인은 엄지와 중지를 살며시 맞댄 下品中生印을 결하고 있다. 넓게 연 가슴에는 사선으로 한번 접은 균의자락을 표현하였고, 무릎 아래로는 긴 대롱 모양의 띠 주름을 중심으로 첩첩이 주름을 겹쳐 부채살처럼 활짝 펼친 것이나, 왼쪽 무릎 앞쪽을 다 덮을 만큼 큼직한 소맷자락은 대단히 특징이 있다.

좌우협시 보살인 관음과 대세지보살상은 최근에 새로 제작된 보관을 썼다. 두 보살상의 머리는 상투 모양으로 뿔아 올렸고, 구렛나루를 타고 내린 머리카락은 귓불을 가로질러 어깨 위에서 타래 모양을 형성하며 길게 드리워졌다. 또한 귀불에는 화형의 귀고리를, 가슴에는 X형으로 교차한 영락장식을 착용하였다. 이외 상호의 표현이나 착의형식 등은 본존불과 차이가 없으나, 대세지보살상의 경우 왼쪽 팔꿈치 부근에 치우쳐 표현한 요형 주름이나 무릎 아래로 짙막하게 드리운 소맷자락은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이 불상은 전반적으로 빈약한 머리, 중후한 얼굴에 짧은 턱, 넓고 당당한 가슴, 두텁고 긴 허리, 깊고 넓은 무릎을 가지고 있어 건장하고 안정감 있는 조형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조형감은 조각승 수연이 즐겨 구사한 조각적 특징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살집이 강조된 중후하면서도 순박한 상호, 왼쪽 팔꿈치 부근이나 무릎 주름의 표현 등은 구례 천은사 보살좌상, 진주 월명암 아미타불상 등 현진이 조성한 불상들과 친연성이 있어 다른 조각 유파와의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하겠다.

「아미타불상 발원문」

發願文

願我永離三惡途 願我速斷貪嗔癡」

願我常聞佛法僧 願我勤修戒定慧」

願我恒修諸佛學 願我不退菩提心」

願我決定生安養 願我速見阿彌陀」

願我分身遍塵刹 願我廣度諸衆生」

發願已歸命禮三寶」

상단

施主秩」

佛像大施主 比丘太雄」

體木大施主 金恂日」

黃金大施主 宣德熙」

布施大施主 金希春」

匙 供養大施主 宋於石」

筓 囊布大施主 崔青山」

食 喉鈴筒施主 金氏」

器 施主 鄭斤石兩主」

施 施主 挨德」

主 施主 朴四文」

崔 施主 太浩」

韶 施主 白+ㄱ介」

福 施主 天心」

兩 施主 勝攢」

主 玉了

罔天」

三綱 能照」

하단

緣化秩

證明 守衍」

持殿 曇秀」

畫員 守衍」

性玉」

靈招」

應仁」

宝熙」

飯頭 弘敏」

熟頭 道全」

永男」

卜男」

大化主兼大施主 雲勸玉岑比丘」

萬曆四十六年八月日爲始」

己未正月日終畢」

「관음보살좌상 발원문」

發願文

願我永離三惡道 願我速斷貪嗔癡」

願我常聞佛法僧 願我勤修戒定慧」

願我恒隨諸佛學 願我不退菩提心」

願我決定生安養 願我速見阿彌陀」

願我分身遍塵刹 願我廣度諸衆生」

發願已歸命禮三寶」

상단

施主秩」

佛像大施主 比丘太雄」

體木大施主 金恂日兩主」

黃金大施主 宣德希兩主」

供養大施主 宋於石兩主」

布施大施主 金希春兩主」

囊布大施主 崔青山兩主」

喉鈴筒大施主 金氏兩主」

施主 鄭斤石兩主」

施主 挨德兩主」

施主 朴四文兩主」

施主 白+ㄱ介保体」

施主 太浩比丘」

施主 天心比丘」

施主 勝攢比丘」

施主 罔天比丘」

하단

證明 守衍」

持殿 曇秀」

畫員 守衍」

性玉」

靈哲」

應仁」

宝熙」

時 〃 供給飯頭 弘敏比丘」

時 〃 供敬蒸頭 道全比丘」

永男保体」

福男保体」

大化主兼大施主 玉岑比丘」

玉了比丘」

三綱 能照」

萬曆四十六年八月始」

己未年正月畢」

「대세지 보살상 발원문」

發願文

願我永離三惡道 願我速斷貪嗔癡」

願我常聞佛法僧 願我勤修戒定慧」

願我恒隨諸佛學 願我不退菩提心」

願我決定生安養 願我速見阿彌陀」

願我分身遍塵刹 願我廣度諸衆生」

發願已歸命禮寶(下)三(上)」

施主秩」

佛像大施主 比丘太雄」

體木大施主 金恂一」

黃金大施主 宣德熙」

布施大施主 金希春」

供養大施主 宋於石」

囊布大施主 崔青山」

喉鈴筒施主 金氏」

施主 鄭斤石」

施主 挨德」

施主 朴四文」

施主 太浩」

施主 白+ㄱ介」

施主 天心」

施主 勝攢」

玉了」

問天」

三綱 能照」

하단

緣化秩」

證明 守衍」

持殿 曇秀」

畫員 守衍」

性玉」

令招」

應仁」

宝熙」

飯頭 弘敏」

熟頭 道全」

永男」

福男」

大化主兼大施主 玉岑」

匙筋食器施主 崔昶福 兩主」

萬曆 四十六年 戊午八人始日日」

爲始己未 正月終畢」

6. 고창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高敞 禪雲寺 塑造毘盧遮那三佛坐像)

가. 심의사항

“고창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라북도지사로부터 “고창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0.01.11)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1.07.26)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은 현지조사자 3인 이상이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문화재로 본 위원회 2011년도 제6차 회의('11.12.13)에서 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 30일간 지정 예고('11.12.23~'12.01.22)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고창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高敞 禪雲寺 塑造毘盧遮那三佛坐像)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
- 소재지 :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500 선운사
- 수 량 : 3구
- 규 격 : 1) 소조비로자나불좌상: 높이 307cm, 무릎 폭 194cm
2) 소조약사불좌상: 높이 265cm, 무릎 폭 159cm
3) 소조아미타불좌상: 높이 265cm, 무릎 폭 160cm
- 재 질 : 비로자나삼불형식
- 제작연대 : 1633년(인조 11)

- 작 자 : ①무염(無染), 천언(天彦), 도우(道祐), 성수(性修), 성율(性律), 쌍조(雙照), 해심(海心), 성관(性寬), 대우(大祐), 신견(信堅), 애생(愛生), 순일(淳日)
- ②법해,(法海) 무염(無染), 도우(道祐), 성수(性修), 신회(信懷), 해심(海心), 운일(雲日), 성관(性寬), 설근(雪僅), 신견(信堅), 옥행(玉行), 쌍용(雙隆)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전라북도 고창 선운사에는 많은 중요한 문화재가 남아 있는데 그 중에 대웅전에 있는 비로자나 삼불좌상은 본존의 크기가 3m가 넘으며 좌우의 약사불과 아미타불은 265cm로 국내 현존하는 최대 불상 중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세 불상은 몸체가 유난히 길죽하여 시원스러우면서도 균형감이 돋보이고 또 부드러운 얼굴표정과 우아한 자태를 보여준다. 중앙의 비로자나불상의 木造座臺 안쪽으로 긴 조성 목서기가 있는데 崇禎 6년, 癸酉년(인조 11, 1633) 2월에 불사를 시작하여 7월에 세 상을 완성하였으며 대표 화원이 無染비구이며 天彦, 道祐, 性修, 性律 비구 등 10여 명의 조각승들이 함께 작업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듬해 봄 옷칠을 하고 금을 입히고 4월에 법당에 봉안하였다고 한다. 전라북도 김제의 歸信寺에는 이 선운사의 비로자나삼불좌상과 매우 유사한 소조삼불좌상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두 사찰의 불상조성에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었음이 짐작된다.

선운사상 보다 2년 후인 1635년에 무염이 제작한 전라남도 영광 불갑사의 목조 비로자나삼불좌상은 신체비례나 얼굴 표정에서 좀더 전형적이 조선시대의 불상양식을 따라가는 변화가 보이기 시작한다. 무염의 불상 중에서 가장 이를 뿐 아니라 17세기 전반에 제작된 불상 중에서도 이 선운사 비로자나 삼불좌상은 정확한 연대를 가지고 있는 걸작품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기존에 이 세상의 대좌에 기록된 목서명 중 “毘盧遮那 藥師如來 阿彌陀佛 木三尊”의 ‘木’을 ‘木’으로 읽어 목불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木’은 ‘等’의 이체자로 보이기 때문에 木佛을 만들었다고 볼 수 없다.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바로는 나무로 윤곽을 만든 뒤 흙으로 성형한 소조불로 추정된다. 세 불상과 함께 목서명이 기록된 대좌도 함께 보물로 지정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

○ (지정 가치 있음)

선운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소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은 대좌를 갖춘 대형의 불상들이다. 불상의 규모가 큰 것은 물론, 보존 상태도 매우 양호하다. 길쭉하고 편평한 상체에 비해 하체가 빈약해 보인다거나 중존인 소조비로자나불좌

상의 양쪽 어깨를 가슴 쪽으로 끌어 당겨 〰 식의 평면 구조를 이룬 모습은 17세기 전반 불상에 보이는 전형적인 특징이다. 또한 이들 불상은 양난 이후에 소실되거나 훼손된 사찰을 중수하는 과정에서 대형의 목심소조불상들이 전국적으로 조성되는데, 이러한 시대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소조비로자나불좌상의 대좌 밑에는 불상 조성과 관련된 목서가 쓰여 있다. 목서 내용에 따르면, 이들 불상은 조선시대 인조 11년(1633)에 법해와 무염 등의 조각승에 의해 조성되었으며, 이듬해에 화공 을영에 의해 개금되었다고 한다. 조각승과 관련하여 법해보다 무염의 이름이 중복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이 불상 조성을 주도했던 조각승은 무염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불상의 상호의 양쪽 볼에 살이 오른 듯한 표현 방식이나 결가부좌한 양쪽 다리 사이에 보이는 옷주름의 처리 방식에서 이후 무염에 의해 조성된 여러 불상(예를 들어 원래 안심사에 봉안되었던 것을 대전의 飛來寺 대적광전에 소장되어 있는 1650년명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등)의 전조적인 특징이 엿보인다. 따라서 무염이 수화승으로서 조성한 그의 초기작 중에 하나라고 판단된다.

중존 소조비로자나불좌상과 좌협시 불상인 소조약사불좌상, 우협시 불상인 소조아미타불좌상은 각각 孔守龍과 尹弘立, 韓仁南에 의해 발원되었다. 세 사람이 하나의 전각 속에 봉안되는 불상들을 각각 나누어 후원했다는 것을 통하여 볼 때, 전란 후 경제 상황이 좋지 못했던 당시 사회상을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불교 교리나 사상과 관련하여 볼 때, 중앙에 비로자나불상을 봉안하고, 양쪽에 각각 동방의 약사불상, 서방의 아미타불상을 배치한 것은 삼세불 사상에 그 배경을 두고 있다. 선운사 삼존불상은 황삼세불의 사상과 신앙적인 배경 속에 조성된 것으로 당시 불교 신앙의 형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은 당시 최고의 조각승이었던 무염에 의해 조성된 1633년의 기년작으로서 불교조각사 연구에 있어서 기준작이 될 수 있다는 점, 대형의 존상임에도 불구하고 목서명을 지닌 대좌를 동반하고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는 점, 황삼세불상이라는 도상을 통하여 불교사상사 연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이 삼불상의 형태는 넓고 당당한 어깨, 긴 허리, 넓고 낮은 무릎으로 인하여

장대하고 웅장한 형태미를 보여준다. 이러한 장대하고 웅장한 형태미를 갖춘 대형 소조상들은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상, 귀신사 소조비로자나삼불상, 완주 송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상 등 17세기 전반기 각지의 대표적인 사찰에서 조성된다. 대형의 소조불상의 조성 목적은 이전 시대와 달리 새로워진 불교계의 위상을 한껏 드러내고, 전란으로 소실된 불상을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하는데 소조라는 재질이 적합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 비로자나삼불상은 양대 전란 이후 재건불사 과정과 당시 달라진 시대적 분위기를 직·간접적으로 대변해 주는 매우 귀중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또한 대좌의 밑면에 기록한 묵서명에서 불상의 조성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로자나, 약사, 아미타라는 삼불상의 존명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어 비로자나 삼불상의 도상연구에 기준이 된다. 그리고 1633년이라는 정확한 제작시기와 17세기 전반기의 대표적 조각승 무염과 그의 門下僧에 의해 제작되었다는 정확한 조성주체가 밝혀져 있고, 대형의 상임에도 불구하고 조각적·종교적 완성도가 높은 우수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보물로 지정함.

조사보고서

□

전라북도 고창 선운사에는 많은 중요한 문화재가 남아 있는데 그 중에 대웅전에 있는 비로자나 삼불좌상은 본존의 크기가 3m가 넘으며 좌우의 약사불과 아미타불은 265cm로 국내 현존하는 최대 불상 중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세 불상은 몸체가 유난히 길죽하여 시원스러우면서도 균형감이 돋보이고 또 부드러운 얼굴표정과 우아한 자태를 보여준다. 중앙의 비로자나불상의 木造座臺 안쪽으로 긴 조성묵서기가 있는데 崇禎 6년 癸酉年(인조 11, 1633) 2월에 불사를 시작하여 7월에 세 상을 완성하였으며 대표 화원이 無染비구이며 天彦, 道祐, 性修, 性律, 비구 등 10여 명의 조각승들이 함께 작업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듬해 봄 옷칠을 하고 금을 입히고 4월에 법당에 봉안하였다고 한다. 전라북도 김제의 歸信寺에는 이

선운사의 비로자나삼불좌상과 매우 유사한 소조 삼불좌상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두 사찰의 불상조성에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었음이 짐작된다.

선운사상 보다 2년 후인 1635년에 무염이 제작한 전라남도 영광 불갑사의 목조 비로자나 삼불좌상은 신체비례나 얼굴 표정에서 좀더 전형적이 조선시대의 불상 양식을 따라가는 변화가 보이기 시작한다. 무염의 불상 중에서 가장 이를 뿐 아니라 17세기 전반에 제작된 불상 중에서도 이 선운사 비로자나 삼불좌상은 정확한 연대를 가지고 있는 걸작품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기존에 이 세 상의 대좌에 기록된 묵서명 중 “毘盧遮那 藥師如來 阿彌陀佛 木三尊”의 ‘木’을 ‘木’으로 읽어 목불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木’은 ‘等’의 이체자로 보이기 때문에 木佛을 만들었다고 볼 수 없다.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바로는 나무로 윤곽을 만든 뒤 흙으로 성형한 소조불로 추정된다. 세 불상과 함께 묵서명이 기록된 대좌도 함께 보물로 지정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



○ 현상 및 특징

선운사 대웅전에 봉안된 소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은 중존 비로자나불상을 중심으로 좌측에 약사불상, 우측에 아미타불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상은 대좌를 동반하고 있는 온전한 상태의 존상들이다. 과학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불상들은 木心을 세우고 塹土를 바른 다음 천을 두껍게 덧씌워 금박을 입힌 상태이다.

비로자나삼존불좌상은 대형의 작품으로, 양난(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이후 훼손되었던 사찰을 중건하면서 대웅전에 봉안하기 위하여 인조 11년(1633)에 조성한 것이다. 불상 조성의 연대는 비로자나불상 대좌 밑에 쓰여진 묵서를 통하여 알 수 있다([묵서내용] 참조).

묵서 내용에는 불상의 존격과 조성시기, 조성에 걸린 시간, 발원자의 이름, 조각승과 옷칠한 승려의 이름 등이 있다. 즉 대웅전에 봉안된 불상들은 橫三世佛像인 中央世의 비로자나불좌상, 東方世의 약사불좌상, 西方世의 아미타불좌상이다. 이들 불상은 1633년 2월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여 7월에 點眼 완성되었다. 주목되는 것은 존상마다 각각의 발원자가 있다는 것인데, 비로자나불상은 孔守龍이, 약사불상은 尹弘立이, 아미타불상은 韓仁南이 발원하였다. 法海 비구와 無染 비구 등이 조각하였으며, 불상 완성 후 다음해 봄에 화공 을영(乙永)이 옷칠을 하였다.

중존인 소조비로자나불좌상은 통견식의 착의 형식에 결가부좌를 하고 있다. 비로자나불상의 대표적인 수인인 無上菩提印을 결하고 있다. 반원형태의 중앙계주와 마치 鉢을 얹어 놓은 듯한 정상계주를 갖추고 있다. 평판적인 느낌의 상호 속에서도 양 볼에 약간 살이 오른 모습이 옛 보인다. 이는 이후 조성되는 무염의 특징적

인 표현 방법의 하나이다. 허리와 얼굴이 긴 편이며 무릎의 높이는 낮은 편이다. 전체적으로 가슴의 넓이가 비해 두께가 얇아 편평한 느낌이다. 비로자나불좌상의 양쪽 어깨 부분을 앞으로 모아 \wedge 식의 평면 구조를 한다든가 명치 아래부분이 약간 돌출되게 표현된 것은 17세기 전반의 불상들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특징이다. 상체와 하체의 조각의 깊이가 비슷하며, 오른쪽 어깨를 덮은 대의의 처리가 과장된 듯하며, 왼쪽 무릎 윗부분의 옷주름은 다소 복잡한 느낌마저 준다. 반면 불상 뒷면의 옷주름은 정면과 상반되게 매우 간략화된 모습이다. 이 불상은 1624년에 조성된 김제의 귀신사 불상과 분위기가 비슷하지만, 얼굴이 좁고 긴 편인 것이 특징이다. 흔히 볼 수 있는 손금이 이 불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손톱 표현도 원통형의 손가락 끝부분을 음각선으로 간단하게 처리하였다. 결가부좌한 왼발은 법의 속에 감추어져 있으며, 오른 발은 반만 덮어 발꿈치 부분을 노출하였다.

양쪽 무릎 가장자리에는 법의가 꺾여 살짝 돌아 올라온 듯한 느낌을 주려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약사불상과 아미타불상에서도 확인된다.

좌협시 불상인 소조약사불좌상도 통견식의 착의형식에 결가부좌를 하고 있다. 전체적인 비례나 표현 형식은 중존과 같다. 다만 수인은 약사불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오른손에 藥壺가 올려져 있으며, 왼손은 가슴 쪽까지 들어 올려 엄지와 중지를 맞댄 설법인을 결하였다. 17세기 중반에 많이 보이던 엄지와 중지 사이에 놓인 보주를 이 불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전체적으로 편평해 보이는 불신은 중존과 같이 상체가 길고 무릎의 높이가 낮아 다소 빈약한 느낌이 든다. 옆에서 보면, 상체를 곳곳이 세운 다음 앞으로 약간 기울게 처리하였다. 그렇지만 중존 비로자나불상과 같이 \wedge 식으로 양쪽 어깨를 가슴 중앙으로 모우지는 않았다. 상체와 하체, 불상 측면과 뒷면의 조각의 깊이가 비슷하다. 노출된 왼쪽 팔꿈치에 보이는 근육에서 매우 사실성에 가깝게 조각하려 했던 노력의 흔적이 엿보인다. 중존과 차이는 가슴 중앙에서 레이스 장식과 같은 법의의 처리와 가로지른 띠 아래에 양옆에 각각 2개의 음각선으로 옷주름을 표현한 것이다. 발의 모습이나 손가락의 표현 방식 등은 중존과 같다.

우협시 불상인 소조아미타불좌상은 긴 상체에 비해 무릎의 높이가 낮은 점, 편평한 느낌의 불신, 좁고 긴 얼굴, 발이나 손의 표현 등 모든 면에서 앞의 두 불상과 유사하다. 다만 불신 정면에 보이는 상체와 하체의 조각의 깊이가 다른 두 불상에 비해 얕아서 더욱 편평하고 밋밋해 보이는 경향이 있다. 다만 측면과 뒷면의 조각은 좌협시 불상인 약사불상과 비슷하다. 따라서 정면보다 측면이나 뒷면의 조각이 보다 입체적이라고 볼 수 있다. 수인은 좌협시불상과 대칭되게 처리하였는데, 오른손을 가슴부분까지 들어올리고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으며, 왼손도 무릎 위에

올려 놓은 다음 엄지와 중지를 맞댄 설법인을 취하고 있다.

[목서 내용1]

次年 春鳥時 衆日記

崇禎六年癸酉 二月日始役爲定 毘盧佛 藥師如來 阿彌陀佛 木三尊 七月日白像初點眼爲止 明春甲戌之季 佛像三尊 烏黃金 乙永畢 其此四月廿二日 法堂安綏佛像 後人觀者 詳之如何哉 毘盧佛大施主孔守龍 藥師大施主尹弘立 彌陀大施主韓仁南 畫員秩法海比丘 首元畫員 無染比丘 證明 處明比丘 道祐比丘 持殿一淡比丘 性修比丘 信懷比丘 海心比丘 雲日比丘 性寬比丘 雲議比丘 信堅比丘 玉行比丘 雙隆比丘 大化士 法淨比丘 崇敦比丘 趙金仁

[목서 내용기2]

佛像上年始役衆日記

證明 處明 持殿 日曇 畫員秩 執元畫員 無染比丘 天彥比丘 道祐比丘 性修比丘 性律比丘 雙照比丘 海心比丘 性寬比丘 大祐比丘 信堅比丘 愛生 淳日



○ 내용 및 특징

고창 선운사 대웅전의 주존불로 봉안되어 있는 삼불좌상은, 지권인의 비로자나를 주존으로 좌우에 說法印을 지은 수인만을 대칭적으로 표현한 2구의 佛像이 협시하고 있는 독특한 구성의 삼존형식이다. 이 삼불상은 나무로 불상의 전체 윤곽을 이룬 뒤 흙으로 성형하여 완성한 목심 소조불상이다.

본존불상의 대좌 밑면에 불상의 造成來歷을 적은 목서명이 전하고 있어 불상 연구에 소중한 정보를 제공한다. 목서명에 따르면, 삼불상은 1633년 2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비로자나불, 약사여래, 아미타불 등 삼불을 조성하여 7월에 白像에 첫 점안을 한 뒤 일을 잠시 중단하고, 다음해(1634) 봄 삼존불상에 옷칠과 황금을 칠하고 4월 22일에 법당에 봉안하였다고 한다. 삼불상은 귀신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16나한상(1633년) 조성에도 證明을 맡은 處明이 다시 증명을 맡아 두 번의 과정을 거쳐 완성하였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참여한 화원은 無染, 天彥, 道祐, 性修, 性律, 雙照, 海心, 性寬, 大祐, 信堅, 愛生, 淳日이며, 두 번째 단계에서 참여한 화원은 法海, 無染, 道祐, 性修, 信懷, 海心, 雲日, 性寬, 雪僅, 信堅, 玉行, 雙隆인데, 이곳에는 1차 點眼때 참여하지 않은 화원들도 주목되지만, 무염이 1차 때는 執元畫員, 2차 때는 首元畫員으로 등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두 번째 단계의 공사에서 무염이 비록 법해의 뒤에 등장하지만, 그의 이름 위에 수원화원이라고 특기하고 있는 것은 이 불상을 그가 주도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법해는 이미 완

성된 불상의 개금공사에 잠깐 초빙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비록 짧은 단문의 목서명이지만 불상의 조성과정을 이해하는데 더 없이 유익한 자료이다.

삼불상의 구성형식은 비로자나불을 본존으로 좌우에 약사여래와 아미타여래를 배치한 이른바 삼신불과 공간적 삼세불 신앙을 조합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비로자나삼불형식은 석가여래 삼불형식과 더불어 임진왜란 이후 재건불사 과정에서 크게 유행하였는데, 전란으로 인하여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한 전각 내 다양한 사상과 신앙 형태를 담고 있는 三佛을 봉안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효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육계와 머리의 구분이 없는 머리에는 잘고 날카로운 나발을 촘촘히 부착하였고, 중앙과 정상에는 계주를 표현하였다. 이마는 반듯하고 넓으며 눈썹 사이에는 작게 도드라진 백호를 표현하였다. 행인형으로 부드럽게 부풀린 눈두덩 사이로 고요하게 선정에 잠긴 반개한 눈을 표현하였고, 눈초리는 짧게 처리하였다. 코는 오탁하며 입술은 작고 턱은 긴 편이다. 입 주위를 둥글게 파내어 깊이 있는 고요한 미소를 표현하였다. 길쭉한 형태의 얼굴은 관자놀이부터 분명한 곡률을 주었으며, 兩顎은 후덕하게, 입술 아래로는 주머니 모양으로 두툼하게 처리하여 자비로운 인상을 자아낸다.

비로자나불상의 수인은 주먹 쥔 오른손을 왼손으로 감싸 쥐고, 다시 치켜세운 오른손 검지를 왼손 검지로 지긋이 누르고 있는 독특한 형태의 지권인을 결하고 있다. 이러한 비로자나불상의 수인은 명대 비로자나불에서 나타나는 수인으로, 1624년에서 1633년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김제 귀신사 소조비로자나불상에서도 손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 거의 같은 모습이 등장한다. 좌우 협시불상은 손의 위치만 달리하여 엄지와 중지를 자연스럽게 맞댄 說法印을 결하고 있다.

변형의 편단우견으로 걸친 본존불의 옷 주름은 오른쪽 가슴 아래로 제비꼬리처럼 날카롭게 반전한 옷자락이나 왼쪽 팔뚝으로 단풍잎처럼 넘긴 옷자락이 특징적이다. 가슴에는 수평으로 걸친 裙衣가 표현되었으나, 묶은 띠자락의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다. 블록하게 내민 복부는 멋있게 처리하여 간결함을 더해 주고 있다. 불신에 표현된 주름은 가장자리를 중심으로 억양이 일정한 선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여 장대한 신체를 더욱 돋보이게 하며, 정면의 신체 곡선은 편평하지만, 측면의 윤곽선은 자연스럽다. 특히 양 어깨 끝에 표현된 짧은 삼각형의 주름과, 거의 수평에 가깝게 길게 처리한 무릎 주름은 17세기 전반기 불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이다.

좌협시 약사불상은 이중착의로 대의를 걸쳐 입었고, 크게 연 가슴에는 꽃잎형으로 묶은 군의가 표현되었다. 오른쪽 어깨를 덮은 대의자락에 2번 반전시켜 경직된 주름에 부드러운 활력을 불어 넣었다. 아래로 내린 오른손 바닥 위에는 약사불

의 상징 지물인 약호를 올려놓았고, 우협시 아미타불상은 약사불상과 달리 오른쪽 어깨를 덮지 않은 이중착의법으로 변화를 주었다. 이외 얼굴표현, 표정, 옷 주름의 표현, 비례, 형태, 선 등 세부표현에서 본존불과 거의 같은 양식적 특징을 보인다. 특히 삼불상의 相好에서 볼 수 있는 양감이 강조된 호남형의 얼굴은 조각승 무염이 잘 구사하던 표현방식으로, 이 삼불상은 무염의 초기 작품경향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불상으로 생각된다.

[대좌목록서 1]

佛像上年始役衆目」

證明 處明」

持殿 日曇」

畫員秩」

執元畫員 無染比丘」

天彦比丘」

道祐比丘」

性律比丘」

雙照比丘」

海心比丘」

性寬比丘」

大祐比丘」

信堅比丘」

愛生」

淳日」

[대좌목록서 2]

次年春鳥時」

衆日記」

崇禎六年季癸酉」

二月始役爲定毘」

盧佛藥師如來」

阿彌陀佛亦三尊七月」

日白像初點眼爲止」

明春甲戌之季佛像三」

尊烏黃金乙永畢其」

此四月廿二日法堂安移」

佛像後人觀者詳之」

如何哉」

毘盧佛大施主 孔守龍」

藥師大施主 尹弘立」

彌陀大施主 韓仁南」

畫員秩」

法海比丘」

首元畫員 無染比丘」

證明 處明比丘 道祐比丘」

性修比丘」

信懷比丘」

信懷比丘」

海心比丘」

雲日比丘」

性寬比丘」

雪僅比丘」

信堅比丘」

玉行比丘」

双隆比丘」

大化士 法淨比丘」

崇敦比丘」

趙金仁」

7. 익산 미륵사지 금동향로 (益山 彌勒寺止 金銅香爐)

가. 심의사항

“익산 미륵사지 금동향로”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익산 미륵사지 금동향로”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0.01.11)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1.07.08)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은 현지조사자 3인 이상이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문화재로 본 위원회 2011년도 제6차 회의('11.12.13)에서 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 30일간 지정 예고('11.12.23~'12.01.22)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익산 미륵사지 금동향로(益山 彌勒寺止 金銅香爐)
- 소유자(관리자) : 국유(익산 미륵사지유물전시관)
-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로 428(기양리 104-1)
익산 미륵사지유물전시관
- 수 량 : 1점
- 규 격 : 높이 30.0cm, 지름 29.7cm, 무게 7.15kg
- 재 질 : 금동
- 형 식 : 수각형 향로
- 제작연대 : 통일신라(8세기 중엽~8세기 말 경)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미륵사지 출토 금동 수각향로의 조형에 대해서는 국내의 자료가 전무하여 중국과 일본 수각 향로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다. 우선 중국 수각 향로 가운데 미륵사지 향로와 비교되는 唐代의 작품이 여러 점 확인된다. 그 중에서도 6개의 다리와 6獸面을 지닌 741년의 慶山寺址 출토의 향로가 미륵사지 향로의 조형과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이 향로는 미륵사지 향로와 달리 수각의 모습이 앞으로 길게 뻗으면서 굴곡을 이루었고 獸面의 모습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특히 다리 끝부분에 웅크린 듯 생동감있게 묘사된 든든한 발톱은 수각 향로의 이른 시기의 조형을 잘 보여준다. 아울러 입을 벌린 獸面に 연결된 고리도 크고 작은 원형 고리를 이중으로 연결하여 매우 복잡하게 구성된 점은 중국 수각 향로의 특징이 되고 있다. 이후에 만들어진 중국 수각향로는 다리의 수는 줄어들지만 짧아지면서 생동감을 잃게 되고 뚜껑의 보주 장식이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수면과 고리가 번잡해지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에 비해 미륵사지의 향로에서 볼 수 있는 운두 높은 뚜껑과 납작한 몸체와 같은 형태는 오히려 日本 火舎에서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어 흥미롭다. 일본 화사의 양식 변천을 참고해 보면 고식의 것이 다리의 수가 많은 것에서 점차 줄어들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수각의 형태도 크고 과장된 모습에서 猫脚形이라고 불리는 짧고 간략화된 형태로 변화된다. 그러나 미륵사지 향로의 다리는 4개로 줄어들었으며 늘씬한 형태라기보다 굵고 짧은 형태에 수각과 수면의 모습은 크고 웅건하면서 과장된 모습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수면과 고리의 모습은 오히려 682년에 제작된 感恩寺址 舍利外函에서 조형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으며 蓮瓣文과 배연공 역시 고식의 문양 구조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중국 慶山寺址 출토 향로가 반드시 741년에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하한 연대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미륵사지 향로가 반드시 741년보다 뒤늦게 만들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다. 이렇게 볼 때 미륵사지 향로는 당대에 만들어진 중국 수각 향로의 조형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고식의 연판 모습과 감은사지 사리감과 유사한 獸面과 고리에서 볼 수 있듯이 통일신라 초에 이루어진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반영하여 한국적으로 수용한 작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백제 금동향로와 동일한 금·구리 아말감 도금법을 사용한 점 역시 이 향로의 제작시기를 올려보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많은 자료와 세밀한 비교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 향로의 제작시기에 관해서는 불교미술과 함께 금속공예에 있어 완숙한 단계에 이르렀던 8세기 전반에서 중엽을 넘어서

지 않는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가능성을 제시해 본다. 미륵사지 발굴조사를 토대로 다른 동반 유물과의 비교를 통해 이 향로가 858년 이전에 埋納되었다는 견해는 이러한 편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준다.

미륵사지 출토의 금동화사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한번도 확인되지 않은 수각향로의 첫 발견 예라는 점에 의미가 깊다. 이 수각 향로는 唐代 중국 작품에 보이는 번잡하기까지 한 장식성과 구별되는 다분히 실용적으로 변모된 생략과 힘찬 동세, 그리고 단아함이 돋보인다. 그런 점에서 이 수각 향로는 비록 그 기원과 형식이 중국에서 유입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미 한국적 獸脚香爐로 정착을 이룬 한국적인 수각 향로라 할 수 있다. 오히려 일본의 수각 향로인 火舎는 이러한 미륵사지 수각 향로에서 그 기원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 작품은 출토 경위가 확실하며 완벽한 보존 상태를 지닌 작품인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첫 예가 되는 통일신라의 금동 수각향로라는 점에서 국보 백제 금동향로에 버금가는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이 향로는 하루 빨리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됨이 타당하리라 본다.

○ (지정 가치 있음)

미륵사지 금동향로는 여러 개의 짐승 다리를 가진 중국 수각향로의 계보로서 고려시대 이전의 다족수각향로의 예로는 유일하다. 중국에서 다족수각향로로서 연대가 확실한 것은 唐의 慶山寺址에서 출토된 741년의 다족수각향로가 있다. 이와 참고하여 8세기 중후반 이후로 비정하는 의견이 있으나, 향로 뚜껑의 꼭지와 어깨 부분에서 시문된 연판문은 삼국시대 백제 후기 연판문의 고식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 시대를 올려보는 의견도 있다. 그리고 하한연대는 동원 승방지 출토 대중(大中) 12년명 토기편으로 인하여 858년으로 보고 있다. 연대는 논외로 하더라도 미륵사지 금동향로는 출토지가 확실한 가장 이른 시기의 다족 수각형 금동향로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미륵사지 금동향로의 중요성은 향로의 형식뿐 아니라 제작기법에서도 파악된다. 금동향로의 뚜껑과 몸체 부분에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융기선이 시문되어 있다. 이와 같은 융기선은 미륵사지 서원 석탑의 해체조사 과정 중 心柱 중앙의 舍利孔에서 발견된 金銅舍利外壺에서도 확인된다. 금동향로나 금동사리외호에 시문된 이들 선은 장식 효과를 더하지만 실제로는 제작 과정에서 파생된 것들이다. 녹로성형이란 대략적인 형태를 주조한 연후에 거기에 온도처리를 더해 경화시킨 다음 녹로에 고정시켜 기벽을 얇게 깎아 그릇 형태를 정리하는 기법을 말한다. 녹로 성형의 과정 중 기벽을 깎는 과정에서 양·음각선들이 생기는 것이다. 녹로 성형을 하게 되면 금속기의 기벽이 얇아지고 뛰어난 광택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기법으로 만든 그릇들은 통일신라시대에 일본으로 수입되어 현재 일본 정창원에 다수 남아있다.

미륵사지 금동향로는 몸체와 뚜껑부분의 용기선으로 볼 때 비교적 두껍게 구조한 다음 이를 깎아낸 것으로 파악된다. 원래의 두께는 용기선의 높이일 것이다. 뚜껑의 꼭지 부분을 따로 접착하지 않고 이를 구조한 다음 깎은 것을 볼 때 녹로성형 기술이 상당히 성숙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이와 같은 형식의 다족수각향로가 실물로는 발견되지 않아 제작지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내기는 어려우나 연판문이 백제계의 고식인 점 그리고 수각형 다리의 윗부분의 귀면문이 경주에서 발견된 귀면문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점으로 보아 미륵사 현지 공방에서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경주의 귀면와의 경우 이를 드러내고 크게 벌린 입 양쪽으로 수염과 같은 갈기가 각각 표현되어 있으나, 금동향로의 귀면문에서는 수염이 중앙 부분에서 한 갈래로 뻗어 있다가 중간에 두 갈래로 갈라진 특징이 보인다.

이와 같이 향로의 형식이나 제작 기법으로 볼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파악된다.

○ (지정 가치 있음)

미륵사지 출토 금동향로는 국내에서 매우 보기드문 수각형 향로로서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수각형 향로가 거의 없으며, 유사한 형태의 향로는 창녕 말흘리 출토 유물 정도가 알려져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말흘리 출토 유물은 다리의 일부분이 파손된 상태이며, 뚜껑이 없고 크기가 매우 작다. 그에 비해 미륵사지 출토 금동향로는 보존상태가 상당히 좋으며, 특별히 파손된 부분이 없으며 크기도 비교적 대형에 속하는 우수한 금속공예품이다.

이 향로의 제작연대에 대해서는 동시대 중국이나 일본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통일신라시대로 알려져 있으며, 기존 학설에서는 8세기 경까지 올려보기도 했다. 그렇지만 유사한 형태의 향로들이 중국 섬서성 경산사지와 섬서성 법문사지 등에서 출토된 예들이 있으며, 이들과 향로의 수각문 및 괴수문 형태를 비교해 보면 경산사지 향로에 비해서는 다소 늦은 양식적 특징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통일신라시대 9세기 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통일신라시대의 향로는 병향로 서너점과 창녕 말흘리 출토 향로 등만 남아 있어서 현존 예가 매우 드문 편인데, 이 중에서 미륵사지 출토 금동향로가 가장 뛰어난 양식과 보존상태를 보여준다.

이 향로가 출토된 미륵사지는 삼국시대 백제 무왕 연간에 발원된 사찰로서, 고

려시대까지 범등을 이어왔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통일신라시대의 미륵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그 실체를 명확하게 알기 어려웠는데, 이번 미륵사지 출토 금동향로의 존재를 통하여 통일신라시대에도 비교적 크고 훌륭한 法具를 사용할 정도로 寺格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향로는 현존하는 통일신라시대의 불교 금속공예품 중에서는 보기드문 대형의 뛰어난 금속 주조 공예품으로서, 동아시아 불교 공예사와 불교 의례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국내에서는 최초로 출토된 대형의 수각형향로로서, 동시대 중국 및 일본의 불교 공예와의 관계를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러한 미술사적 가치로 볼 때, 보물로 지정하여 보호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보물로 지정함.

조사보고서

□

○ 현상 및 특징

미륵사지 출토 수각 향로는 총 높이 30.0cm, 지름이 29.7cm의 비교적 큰 크기로서 전체의 구성은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반원형으로 높게 솟은 뚜껑 [蓋部] 과 운두가 낮은 납작한 대야형의 몸체 [身部], 그리고 4개의 다리가 받치고 있는 대부 [臺部]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뚜껑 [蓋部]

향로의 뚜껑은 가운데로 가면서 둥그렇게 솟아오른 중앙부의 굽은 돌기 위에 寶珠形으로 높다랗게 돌출된 鈕가 있으며 그 주위를 한 단의 圓座로 둘러쌌다. 寶珠形 鈕는 중단의 띠를 둘러 위, 아래로 나누었는데 상부는盒 모양의 뚜껑처럼 둥글게 처리되어 하부는 굽고 넓은 앞으로 묘사된 6葉의 蓮瓣文으로 장식하였다. 이 보주형 鈕의 아래 부분은 잘록하게 좁아져 그 아래를 짚은 기둥 모양으로 만들고 이 주위를 돌아가며 3줄의 隆起同心圓이 돌출 시문되었다. 동심원 주위로 구획을 둔 뒤 8엽의 蓮瓣으로 구성된 蓮瓣文帶를 두었는데, 이 연판문은 백제 연화문 瓦

當을 연상케 하는 특유의 부드러우면서도 그 끝단의 중앙 부분을 살짝 말아 올린 유려한 모습이다. 특히 연봉형 뉴의 상부 중앙과 연판문대의 2개의 연판과 연판 사이에 해당되는 상부 쪽에 1개씩 도합 4곳에 排煙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작은 小孔을 뚫어 놓았다.

연판 아래로는 몇 줄의 동심원을 둘러 區劃을 마련하였는데, 蓮瓣文帶 아래의 좁은 구획 다음에 있는 넓은 구획의 4곳을 택해 透孔을 장식하였다. 透孔의 형태는 중앙의 하트형 문양을 중심으로 왼쪽 상부로는 고사리처럼 좌우로 말려 돌기된 모습이며 오른쪽에는 길게 휘어진 꼬리 무늬로 구성되었다. 이 투공 역시 장식적 문양과 함께 排煙孔의 역할도 함께 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뚜껑을 밑에서 들여보게 되면 중앙 연봉형에 해당되는 큰 排煙孔이 중심에 있고 그 주위에 연판 상부에 뚫린 4개의 배연공과 문양의 효과를 노리면서도 배연의 역할까지 한 4곳의 雲唐草文 투공 등 도합 9개의 배연공이 돌아가며 뚫려 있는 점을 볼 수 있다. 뚜껑의 구연 끝단은 살짝 밖으로 外反되도록 처리되었다.

2) 몸체 [身部]

높고 둔중한 뚜껑에 비해 운두가 낮은 몸체의 외형은 마치 洗盤과 같은 형상으로서 상부의 구연은 뚜껑을 받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립된 짧은 턱을 두었고 다시 옆으로 外反되면서도 아래쪽으로 꺾인 독특한 모습이다. 몸체의 밑면은 납작한 평면을 이루었으며 측면에는 중간과 하부 쪽에 3줄의 隆起同心圓이 돌려져 있다. 이 옆면에 별도의 리벳팅 방식을 이용하여 4개의 怪獸形 다리를 배치하였고 다리와 다리 사이에 해당되는 3곳의 공간에 聯珠形의 원형 고리를 물고 있는 괴수 머리의 장식을 도드라지게 별도로 부착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몸체의 측면에 별도로 구조하여 부착한 獸面 장식을 살펴보면 역시 獸脚과 마찬가지로 동일 范으로 구조된 듯 3점 모두 동일한 형태와 크기를 갖추었다.

다리에 비해 조각의 양감이 뚜렷하고 보다 도드라지게 표현되어 옆에서 보면 마치 丸彫처럼 입체적이면서 한층 역동적이다. 원형으로 이루어진 얼굴은 좌우로 굴곡을 이룬 갈기가 묘사되었으며 주름진 이마 위로 좌우로 갈라진 뿔이 솟아 있다. 두툼한 눈썹 아래로는 부릅뜬 눈과 양 눈 사이에 크고 몽툰한 코가 세밀히 묘사되었다. 크게 벌린 입 안에는 날카로운 이빨이 표현되었는데, 입의 양쪽으로 공간을 뚫어 별도의 聯珠形 고리를 끼우도록 하여 고리를 물고 있는 모습으로 구성하였다. 타원형을 한 연주형 고리는 그 끝단을 사각으로 처리하여 이 부분이 입안으로 끼워지는 방식을 취하였다. 獸面에는 머리 가운데 하나, 좌우의 갈기 부분에 하나씩 구멍을 뚫어 3개의 굵은 못을 이용하여 리벳팅하는 방법으로 몸체에 부착시켰음을 알 수 있다.

3) 다리 [臺部]

4개로 구성된 다리는 그 외형이 거의 동일하여 정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怪獸의 머리를 중심으로 좌우로 갈기가 묘사된 것이 마치 날개를 뻗고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 머리 위로는 좌우로 뻗친 뿔과 삼각형으로 솟아오른 갈기가 생동감 넘치게 묘사되었고 불거진 눈과 뭉툭한 코 아래로는 길게 찢어진 입이 표현되었다. 벌려진 입 안에는 위쪽에서 솟아난 날카로운 이빨이 표현되었고 그 아래로 길게 내려오다가 양쪽으로 갈라진 혀바닥이 보이고 이 아래 다시 턱과 같은 굴곡을 마련한 모습이다.

얼굴 아래로 연결된 짧지만 굵고 든든한 다리는 위쪽과 아래쪽 2단으로 이루어진 커다란 발톱으로 묘사되었다. 발톱은 그다지 날카롭지 않고 뭉툭하게 처리되었지만 움크린 듯 힘을 모은 발끝에서 강한 역동감이 느껴진다. 이 괴수형 다리 역시 향로의 몸체 부분과 연결되도록 머리 위와 좌우에 뻗친 갈기 부분에 구멍을 뚫고 못으로 리벳팅하여 고정시키도록 하였다. 4개의 獸脚은 거의 동일한 형태와 크기를 지니고 있어 하나의 范으로 구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뒷면은 다리부분이 원통으로 주물되어 전체가 둥그렇게 감싸져 있으며 머리와 갈기에 해당되는 면은 뒤쪽이 안으로 움푹 파인 부조형태로 구조되었다. 특히 이 4개의 다리 좌우와 머리 위로 퍼진 갈기면의 세부 처리를 달리 표현하고 있어 주목된다.



○ 현 상

가. 2000. 11~2007. 12월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처리.

나. 부식물 제거, BTA 3% 방청처리, Pararoid NAD-10 강화처리, 몸체 구연 파손부위 접착, 몸체 귀면과 다리는 에폭시수지로 임시 접합.

○ 내용 및 특징

-연혁

삼국유사에 의하면 미륵사는 백제 30대 무왕(A.D.600~641)때 창건되었고, 조선 시대 무장현의 강후진의 臥遊錄(A.D.1735)에 “미륵사 석탑이 100여년전에 벼락에 의해 무너졌고”라는 문헌기록과 기와에 쓰인 萬曆 15년(1587) 丁亥 수키와 기록 등에 의해 조선 중기(1600년)를 전후하여 폐사된 것으로 된다.

-금동향로의 특징

가. 금동향로는 뚜껑, 몸체, 다리로 되어 있으며 평면 형태는 원형이다. 향로의 크기

는 지름이 29.7cm, 높이 30.0cm, 무게 7.15kg이다. 다리는 4개이며 다리 사이에 향로 손잡이 장식 4개가 달려 있다. 손잡이 장식의 고리는 4개 중 2개만 출토 되었다. 뚜껑은 지름 26.2cm로 상단 중앙에는 8엽 연화문의 연봉오리 형태의 손잡이가 있고, 손잡이 상면에는 心葉形의 구멍이 뚫려 있다. 뚜껑의 상단부에는 8엽의 연화문이 있고, 하단부에는 4개의 운문이 투조되어 있다. 뚜껑에는 향의 연기를 배출시키는 心葉形의 구멍이 손잡이 상단 중앙에 1개, 상단부 8엽 연화문 사이에 4개, 하단부에 운문 구멍 4개가 상단의 心葉形의 구멍(0.9×0.9cm) 사이에 뚫려있다. 이러한 구성은 형태 면에서 다소 차이가 나지만 부여 陵山里 출토의 金銅香爐에 뚫린 배연공의 구성 방식과 유사한 점이 주목된다. 뚜껑 손잡이와 8엽 연화문, 운문 사이에는 2줄씩의 둥근줄이, 운문과 구연부 사이에는 4줄이 둘러져 있다. 뚜껑의 외형은 반구형이며, 구순부가 둥글게 마무리 되었고 뚜껑의 구연부는 몸체의 구연부 내부에 얹혀진다. 뚜껑 내부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다.

나. 몸체의 지름은 26cm, 전까지 포함한 지름은 29.7cm, 높이 9.1cm이다. 운두가 낮은 몸체의 외형은 마치 洗盤과 같은 형상으로서 상부의 구연은 뚜껑을 받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립된 짧은 턱을 두었고 다시 옆으로 外反되면서도 아래쪽으로 꺾인다. 몸체의 밑면은 납작한 평면을 이루었으며 측면에는 중간과 하부 쪽에 3줄의 隆起同心圓이 둘러져 있다. 이 옆면에 별도의 리벳팅 방식을 이용하여 웅건 하면서도 섬세한 모습의 4개의 怪獸形 다리를 부착하였으며 다리와 다리 사이의 공간 4곳에는 聯珠形의 원형 고리를 물고 있는 별도의 괴수 머리의 장식이 도드라지게 부착되어 있다.

몸체의 측면에 부착된 獸面 장식은 동일 范으로 주조되어 4점 모두 동일한 형태와 크기를 갖추었다. 浮彫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수각에 비해 丸彫처럼 입체적으로 조각 되었다. 원형으로 이루어진 얼굴은 좌우로 굴곡을 이룬 갈기가 묘사되었고 주름진 이마 위로 좌우로 갈라진 뿔이 솟아 있다. 두툼한 눈썹 아래로 부릅뜬 눈과 양 눈 사이에 크고 몽툰한 코가 세밀히 묘사되었다. 크게 벌린 입 안에는 날카로운 이빨이 표현되었는데, 이 입의 양쪽으로 공간을 뚫어 별도의 타원형을 한 聯珠形 고리 끝단을 사각으로 처리하여 끼워 고리를 물고 있는 모습으로 구성하였다. 獸面은 머리 가운데 한곳, 좌우의 갈기 부분에 한 곳씩 3곳을 굵은 못을 이용하여 리벳팅하는 방법으로 부착시켰다.

다. 4개로 구성된 다리는 정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마치 怪獸의 머리를 중심으로 좌우로 갈기가 묘사된 것이 마치 날개를 뻗고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 머리 위로는 좌우로 뻗친 뿔과 삼각형으로 솟아오른 갈기가 묘사되었고, 불거진 눈과 몽툰한 코 아래로는 길게 찢어진 입이 표현되었으며 날카로운 이빨과 그 아래로 두 단의 굴곡을 두었는데 마치 혀를 길게 내민 듯이 보인다. 얼굴 아래로 뻗어있는 굵고

튼튼한 다리는 5개의 커다란 발톱으로 묘사되었는데 2단의 굴곡을 이루며 그 끝단은 뭉툭하게 처리되었다.

이 괴수형 다리는 향로의 몸체 부분과 연결되도록 머리 위와 좌우에 뻗친 갈기 부분에 구멍을 뚫고 못으로 리벳팅하여 고정시키도록 하였다. 4개의 獸脚은 거의 동일한 형태와 크기를 지니고 있어 하나의 范으로 주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리 부분의 뒷면은 평면의 주물을 말아서 전체가 둥그렇게 감싸져 있으며 머리와 갈기에 해당되는 면은 뒤쪽이 안으로 움푹 파인 부조형태로 주조된 점이 주목된다.

□

○ 현 상

익산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금동향로로서, 뚜껑과 몸체, 다리 등으로 구성되었다. 전반적인 보존상태는 도금이 잘 남아 있고 양호한 편이지만, 몸체의 구연부의 전은 일부 파손된 상태로 발견되어 현재는 복원되어 있다. 향로의 몸체 내부는 그을음 흔적과 녹이 조금 남아 있다.

○ 내용 및 특징

이 향로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수각형 다리가 달린 향로이다. 몸체에 비해 높고 크게 만들어진 뚜껑은 용기선에 의해 3단으로 구획되어 있다. 뚜껑의 중앙에는 둥그스름한 손잡이가 달려 있는데, 손잡이의 중간부분에는 단판의 연판문을 얹은 부조로 조각해 놓았다. 뚜껑 중앙에는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구멍은 향로의 연기가 피어 오르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뚜껑의 맨 아랫단에는 별다른 문양이 없으나, 두 번째 단에는 당초문 형태에 가까운 구름 문양으로 구멍이 나 있는데, 사방에 하나씩 모두 4개의 구멍이 뚫려 있다.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의 구름 문양의 구멍은 네 개가 모두 서로 비슷하지만, 정을 사용하여 手工으로 뚫었기 때문에 구멍의 크기와 형태는 약간씩 차이가 있으며, 그중 하나의 구멍은 구부러진 당초의 윗부분이 모두 뚫려서 원형으로 변화된 부분도 있다(도 1). 맨 윗단에는 8엽의 단판 연화문대가 조각되어 있는데, 연판문의 사이사이에는 연잎 2개마다 지름 1cm 내외의 작은 구멍을 뚫어서 모두 4개의 圓孔이 있다. 두 번째 단의 구름 문양의 구멍과 맨 윗단의 둥근 구멍들은 모두 향을 피울 때 연기가 바깥으로 피어나오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뚜껑에 표현된 연화문은 모두 단판의 연화문으로서, 비교적 古式 문양에 속한다.

몸체는 대야 모양에 가까우며, 윗부분에 전이 직립하여 달려 있는데, 이 전의 일부가 파손되고 약간 구부러진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파손된 부분은 현재 복원되었



도 1. 향로 뚜껑의 안쪽에서 본 당초 구름 모양의 구멍.



도 2. 향로 몸체의 안쪽. 구연부의 전이 일부 파손된 부분이 보이며, 다리와 장식을 연결한 못의 뒷부분이 몸체 측면에 군데군데 보인다.

으나 구부러진 부분은 원상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도 2). 다소 복원된 부분이 약하고 몸체 내부에 녹과 그을음 흔적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도금상태나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몸체 바깥쪽에는 사방에 모두 4개의 수각형 다리를 별도로 만들어 못으로 연결했으며, 다리와 다리 사이의 빈 공간에는 역시 고리를 입에 물고 있는 괴수 모양의 장식을 별도로 만들어 못으로 부착해 놓았다. 향로의 몸체와 다리 및 장식을 연결하는 굽은 못들은 머리가 둥그스름한 형태로, 연결부의 구멍을 통과해서 향로 몸체 안쪽에서 마감을 하여 각 구조물을 안정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일부 구멍에는 못이 없어지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다리와 장식의 상태는 양호하다. 수각형 다리의 형태는 윗부분은 갈기, 혹은 날개 형태의 장식이 달린 괴수의 머리 모양으로 생겼으며, 입에서는 당초형의 기운을 뺏어내고 있다. 다리의 아래부분은 짐승의 발 모양을 하고 있다. 수각형 다리와 그 사이의 괴수 모양의 장식은 모두 별도로 주조된 것으로, 다리의 후면부는 속이 일부 비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졌다(도 3). 다리와 괴수가 입에 문 고리 부분은 녹이 좀 많이 나 있고, 도금층도 많이 사라진 편이다.

이러한 수각형 향로는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것으로서, 전체적인 기형의 특징은 중국 唐代 慶山寺 및 法門寺 출토의 금동 수각형향로의 계보를 이으면서도(도 4) 뚜껑이나 구멍의 모양으로 볼 때, 중국과는 다른 통일신라시대적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형식의 향로는 이후 일본에서 종종 발견되는 화사향로의 형식 과도 연결되어, 이러한 형식의 향로들이 동아시아 삼국에서 모두 사용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중국의 수각형 향로는 5족, 혹은 6족이 많은데 비해서, 이 향로는 4족의 안정된 형태이다. 용기문이 장식된 동체나 뚜껑의 형태, 사자와 비슷한 형태의 괴수문 표현, 안정된 단판의 연화문 등은 통일신라시대 불교 공예 양식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리 4개 중에서 1점은 좀 더 갈기 부분의 음각선 조각 등이 사실적이고 자세하게 되어 있어서 다른 3개의 다리와는 약간 조각수법의 차이를 보여준다.



도 3. 향로 다리의 아래 부분. 속이 일부 빈 형태로 만들어졌음이 구멍의 존재로 확인된다.



도 4. 중국 섬서성 法門寺 지공 전실 출토 금동수각형향로. 중국 唐, 9세기.

○ 기 타

이 향로는 2000년 미륵사지 보수정비 과정의 일환으로, 건물지 건널목 시설 공사를 하던 중, 미륵사지 중원 북회랑지 남쪽에서 출토되었다. 정식 발굴에 의해서 출토된 것은 아니지만, 기 정비공사가 완비된 곳에서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조금 특이하다. 발굴된 곳의 주위에서는 별다른 흔적을 찾을 수 없었으며, 공반 유물도 없었다.

발굴 당시 위치는 지표면 아래 20cm 지점이었으며, 향로의 다리가 하늘을 향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뚜껑은 손잡이가 하늘을 향하고 구연부가 아래쪽을 향한 방향으로 놓여 있었다. 발견 당시 다리와 장식들은 일부 분리된 상태였는데,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에서 보존처리를 3년 동안 진행하여 복원했다. 현재 이 향로는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에서 전시 중이다.

8. 불조삼경(佛祖三經)

가. 심의사항

“불조삼경”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불조삼경”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0.01.07)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1.07.19)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은 현지조사자 3인 이상이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문화재로 본 위원회 2011년도 제6차 회의('11.12.13)에서 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 30일간 지정 예고('11.12.23~'12.01.22)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불조삼경(佛祖三經)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운홍사
- 소재지 :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암정리 972 운홍사
- 수 량 : 1권 1책(38장, 표지 2장 포함)
- 규 격 : 가로 16.5cm, 세로 28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木版本)
- 형 식 : 선장본(線裝本)
- 제작연대 : 1361년(고려 공민왕 10)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불조삼경(佛祖三經)』의 편자인 몽산화상 덕이(德異)는 중국 송대의 저명한

학승으로, 고려(高麗)의 문인들과 서신을 왕래하는 등 교류가 많았던 인물로 알려져있다. 『제왕운기(帝王韻紀)』의 저자인 이승휴(李承休:1224~1300)의 문집에는 덕이가 보내온 글과 이에 대한 이승휴의 답신이 수록되어 전한다.

현재 국내에 전존하고 있는 『불조삼경』은 1361년(공민왕 10)에 전주 원암사에서 중간한 판본과 20여년 뒤인 1384년(우왕 10)에 중간한 2종이다. 운흥사 소장본은 1361년 판본으로 이와 같은 판본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바있다.(삼성미술관 리움 : 보물 제694호, 1981.3. 지정). 이외에 1384년 판본 3종도 각기 보물 제695호(삼성미술관 리움, 1981.3.), 보물 제1224-2호(범어사, 1995.7.), 보물 제1224-1호(한솔제지, 2007.9.) 로 지정되었다.

운흥사 소장본 불조삼경(佛祖三經)』은 현존본 중 가장 이른 시기인 1361년에 판각한 책판에서 인출한 책으로서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고려시대의 불교학연구의 경향과 인쇄 출판문화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 보존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 (지정 가치 있음)

현재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불조삼경』은 고려시대의 간본 2종이 있다. 한 종은 전주 원암사에서 1361년(공민왕 10)에 중간한 것이고, 다른 한 종은 1384년(우왕 10)에 중간한 것이다. 운흥사 소장본은 1361년에 전주 원암사에서 간행된 판본이다.

이 책과 동일한 판본인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의 1책이 보물 제694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 외에 동일한 판본으로 공개된 것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고조 21-141)과 고려대학교 도서관(만송 귀111-A) 그리고 장흥 보림사 사천왕상복장의 「불설사십이장경」(전남 유형문화재 제200호, 첫 장과 마지막 장은 반엽이 결락되었음) 등이 있다.

이 책은 몽산화상을 숭배하던 고려 말기 불서간행의 정황과 출판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며, 희귀한 판본이다. 약간의 흠결은 있으나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佛祖三經』은 여말선초 사이에 한국불교에 깊은 영향을 미친 원나라의 고승인 몽산 덕이가 편찬한 「佛說四十二章經」, 「佛遺教經」, 「滄山警策」의 三經의 합집이다. 권말의 誌文에서 1361년에 전라도 전주의 圓嶺寺에서 行心の 발원으로 法空이 刊役의 총책을 맡아 판각한 목판본으로 간행에 참여한 인물을 밝히고 있다. 불조삼경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판본은 2종이다. 현재 이와 동

일한 판본이 보물 제694호(삼성미술관 리움)로 지정되어 있다. 1384년판도 보물 제695호(삼성미술관 리움), 보물 제1224-1호(한솔제지), 보물 제1224-2호(범어사) 등 3건이 지정되어 있다. 불교문화사와 출판인쇄사 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가 되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보물로 지정함.
 - 보물 제694호의 가지번호로 지정함.

조사보고서



○ 현 상

<서지기술> : 佛祖三經/--木版本--全州 圓岩寺 1361板刻.

1冊: 四周單邊, 半郭20.2 X 15cm. 無界 8行17字 注雙行 ; 16.5×28.0cm. 楮紙(印經紙). 線裝(改裝). 판심제 : 四十二章經/ 遺經/ 滂山

<敍> : 至元丙戌(1286)燈節絕 牧叟 德異 敘

<序> : 大宋眞宗皇帝注遺教經

注滂山警策序---紹興九年(1139)十二月旦日謹序

(* 左朝奉大夫 新廣南東路轉運判官 張銖 撰)

<發願文>:至正辛丑(1361)六月日重刊留全州圓嶺寺流益永祀者…發願比丘行心誌

<현상태 >

원래의 표지는 결락되고 표지가 후일에 가철상태로 개장되어 있다. 덕이의 서문 첫째 장의 일부에 5자가 부분결락되었으나, 나머지는 보존상태가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표제는 첫 번에 수록된 「佛說四十二章經」의 약칭인 『佛說經』으로 묵서되어 있다.

○ 내용 및 특징

『불조삼경』이란 서명의 책은 없다. 다만 불교계에서 『불설사십이장경』, 『불유교경(佛遺教經)』, 『위산경책(滂山警策)』을 합칭하여 『불조삼경』으로 부른다.

(德異序文：叢林中以四十二章經遺教經滄山警策謂之佛祖三經).

『불설사십이장경』은 석가의 가르침을 42장으로 간추려 설명한 것으로 가장 먼저 중국에 전래된 불교경전으로 알려져 있다. 『불유교경(佛遺教經)』은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적은 것이고, 「위산경책」은 중국 선종(禪宗)의 일파인 위양종(滄仰宗)을 개창한 위산 영우(靈祐)가 지은 책이다. 이들 세 책의 학습은 학불작조(學佛作祖)의 지름길로 일컬어져서 불교를 공부하는 이들의 필독서였다. 조사대상 3경은 모두 송(宋)의 학승인 수수(守遂)의 주본(注本)이다.

책의 구성은 지원(至元) 병술(1286)년에 몽산화상(蒙山和尚) 덕이(德異)가 지은 서문, 「불설사십이장경」, 송진종(宋眞宗)의 대송진종황제주유교경서(大宋眞宗皇帝注遺教經序)와 「불유교경」, 장수(張銖)의 「注滄山警策序」와 「위산경책」의 순서로 되어있다.(본서에는 위산경책서의 저자를 표시하는 행(行)이 표시되지 않고 있다.)

권말에는 조사 대상서의 판각배경과 시기를 보여주는 비구 행심(行心)의 발원문이 실려 있어서 이 책이 1361년에 전주(全州) 원암사(圓嶽寺)에서 개판된 것임을 보여준다.

참고로 행심의 발원문과 간행 관련 기사의 전문(全文)을 수록한다.

右三經乃佛祖深切之語凡學者之所不易者也太祖云若依吾教雖去五千里如常在吾邊不然對面千里苟力行之則豈可以佛前佛後爲難也如或稱佛子而不依是則 惜乎其將何以比之耶

至正辛丑六月日 重刊留全州圓嶽寺流益永祀者

發願比丘 行心 誌

同願比丘 法空 刊行

助緣居士 尹 善

○ 참고문헌

① 上蒙山和尚謝賜法語(動安居士雜著一部 : 한국문집총간 제2집 390면)

月日。頭陀山動安居士李某稽首。歸依瞻想。絕牧和尚行化家風。其所游刃恢恢乎有餘。隨機接物。應病與藥。方便妙密。由是。凡蒙一言一句。隨所根堪。莫不悟入。此豈古佛幻有重入相門於五濁世中。以退位利生爲樂而來哉。禪風始扇。中吳法乳。旁流東國。航海法參者。帆相屬也。顧如老夫人身朽邁。動必借人。烏能爾耶。但翹誠景仰。瞻之在前。有年矣。越前年八月初七日。伏承四月十二日垂示法語一封。專出非望。顏無所措。某在朝時。以安上恤下爲念。竭力趨公。流落已來。僻在遐陬。未逢善友開示。不知所爲。但以看藏教爲事爾。行年七十有五。來日無多。常恐辜負

平生。姑息待死。何圖於千萬里關山之外。興起大悲。賜之經要話頭。令下鈍上。蓋普賢之化。無間於遠近方隅。皆在一念故也。始自拜賜之日。至今將爲二百日矣。觀劣心浮。猶未知歸。然以謂以大宗匠。加被之深。豈元一日作二伽陀曰。拖泥帶水引初機。示以參詳四種疑。不待揚眉資目擊。朝焚夕點禮爲師。返炤功夫縱未圓。也知三教一根源。綿綿密密崖來去。誓報他家莫大恩。以此發願立志。必於當當來世。隨所住處親近承事去也。願傾慈接引。許爲內眷。和南。

< 和尚所寄法語 >

古今無二道。三才三教一根源。惺惺靈利者。廻光一炤。便可悟明。以一行一相三昧。洗滌多生塵習。不滯無爲。不住有爲。遊普賢道園十力家風。動安居士李司諫承休。具大丈夫志氣者也。宜看五祖演和尚示衆云。釋迦彌勒。猶是他奴。他是阿誰當疑。釋迦彌勒是佛因甚。猶是他奴。又疑畢竟他是阿誰。大疑之下。必有大悟。無疑不悟。或者疑輕時。更疑生從何來。卽今性命在何處。生死到來作麼生脫。死從何去。又有此四種疑。疑得重也。却提他是阿誰一句作話頭。廻本念光。自看獨炤。功圓一聲。○地疑團破盡。法法圓通洞明。父母未生前面目。下得三轉語諦。當得承當已。更宜見本色宗匠。求指快進。高超闊步。取于力妙果。吾祖達摩大師有教誡頌云。悟佛心宗等無差玄行解相應。名之曰祖解者。眞全之解。非意解學解等解也。行者稱實之行。普賢妙行也。末渾中多有學口頭三昧。以助談柄爲禪者。錯用身心。一生光陰易過。生死岸頭得力否。具大志氣者。眞參實悟。此道非大悟。不能洞明悟了。又要掃蕩情意。識及盡玄妙。然後於六六時中。四威儀內。綿綿密密。提撕話頭。話頭自然現前時。方知得力。五欲八風不能入。作動靜如一。到這裏。大悟近矣。却不可將心待悟。亦不可用意卜度。尋文字語言解會。妙在惺惺。不待緣而炤。不觸事而知。從教話頭。歷歷於無造作處。築著磕著。徹底掀翻大悟。最爲奇特。切忌得少爲足。千萬惺惺。大德元年丁酉歲四月十二日。書于中吳休休禪庵蒙山德異。

② 佛祖三經 수록 德異 敍文(운홍사 장본)

道無今古 人有悟迷 是故釋迦老人承願力 示現鹿野苑至跋提河三百餘會 言無言言 開示人天 令各悟入佛之知見 惟四十二章經 遺教經者 是始終教誡法寶也 後漢永平間 迦葉摩騰竺法蘭持前一經東來 焚驗有靈 立教與宗 梁大通間又得西天二十八世祖達磨大師傳佛心印 前來直指 與經符契 是我此土人有大乘根器 而有大幸也 可大師者立雪斷臂求問妙道 言下有悟 執侍數載 三拜得髓 授受衣盂 七傳而至百丈 百丈得黃蘗運公滄山祐公大振玄風 增輝佛日 滄山因見學者少有放逸 遂述法語 警其未悟 策其未到 文簡語直 義博意深 叢林中以四十二章經 遺教經 滄山警策謂之佛祖三經 能一覽而直前者 不歷多生便可成佛作祖 宣和間又得遂禪師直注深義 初學易通妙矣哉 自此有

志於道者省力甚多 不懷香而見佛祖 不動步而登覺場 今靜山慧大師抽衣資鉞梓于吳中 休休庵 以廣其傳哉 以財鉞梓名財施 以教傳法名法施 財法二施名大施 佛云 能行大施者 決證菩提 靜山將來種智圓明 十號俱彰 因此勝緣也 覽斯經者 卻宜淨心如虛空 向未開卷以前著眼 掀翻窠臼 洞徹玄微 挽回眞風 大興末運 若也見義勇爲 將來亦可成器 其或循行數墨 辜負佛祖多矣 至元丙戌(1286)燈節絶 牧叟德異敘

** 본서에는 行草로 되어 있는 것을 楷書로 옮긴 것임.



○ 현 상

원래의 표지가 결락된 가철상태임. 첫째 장 가운데 하단이 손상되어 5자가 결락되었으나 나머지는 대체로 온전함. 표제는 『佛說經』으로 묵서되어 있는데 「佛說四十二章經」을 간략하게 쓴 것으로 판단됨.

○ 내용 및 특징

『불조삼경』은 「불설사십이장경」, 「불유교경(佛遺教經)」, 「위산경책(滙山警策)」 등을 합철한 책이다. 「불설사십이장경」은 석가의 가르침을 42장으로 간추려 설명한 것으로 가장 먼저 중국에 전래된 경전으로 알려져 있다. 「불유교경」은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고, 「위산경책」은 중국 위양종(滙仰宗)의 조사인 위산 영우(靈祐)의 경책(警策)이다. 모두 송나라의 수수(守遂)가 주석을 달았다. 관심의 제목은 각각 「四十二章」, 「遺教」, 「滙山」이다.

책의 편성은 지원 병술년(1286)에 몽산화상 덕이(德異)가 지은 원래의 서문에 이어 「불설사십이장경」, 「大宋眞宗皇帝注遺教經」, 「불유교경」, 「注滙山警策序」, 「위산경책」 등이 차례로 있다.

권미에는 비구 행심(行心)의 발원문이 있고, 발원문의 끝에는 “同願比丘 法空刊行 助緣居士 尹善”이라고 되어있다. 그러므로 이 간본은 행심이 발원하고, 윤선의 도움으로 법공이 간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운흥사 소장본은 권미 지문(誌文)의 “至正辛丑六月有日重刊留全州圓嶺寺”와 같이 1361년(공민왕 10)에 전주 원암사에서 간행된 판본이다. 인쇄된 시기는 간행된 지 수 십년이 지난 여말선초로 판단된다.

○ 기 타

충남 예산 수덕사의 응담 대종사가 당시 수덕사의 성종스님(속명 김동화)에게 기증하였고, 이후 운흥사 주지(1992~1996)로 재임하게 된 성종스님이 2009년 4월 10일에 후임 주지인 혜원스님과 협의하여 운흥사에 무상으로 기증하였다고 함.



○ 현 상

전체적인 현상은 양호하나 앞뒤의 표지는 탈락되어 가칠 상태로 제책되어 있다. 표제는 ‘佛說經’으로 묵서되어 있는데, 이는 ‘佛說四十二章經’을 축약해서 기재한 것으로 생각된다.

○ 서지사항

佛祖三經. 蒙山 德異 編

木版本. 全州, 圓嶺寺, [1361년(恭愍王 10)刻, 麗末鮮初 印出].

1책. 四周單邊, 반곽 20.2×15cm, 無界, 8행 17자 注雙行, 상하향흑어미, 28×16.5cm. 楮紙. 線裝.

관심제 : 四十二章, 遺教, 滄山

序 : 至元丙戌(1286)…… 德異敍

注滄山警策序 : 紹興 九年(1139)十二月旦日謹序

滄山警策 末 : 右三經乃/佛祖深切之語凡學者之所不易者也/六祖云若依吾教雖去吾千里如常在/吾邊不然對面千里苟力行之則豈/可以佛前佛後爲難也如或稱佛子/而不依是則惜乎其將何以比之耶/至正辛丑(1361)六月有日重刊留全州圓/嶺寺流益永祀者 發願比丘 行心誌/同願比丘 法空刊行/ 助緣居士 尹善

○ 내용 및 특징

『佛祖三經』은 원나라의 고승인 蒙山 德異가 석가가 설법한 「佛說四十二章經」과 석가가 열반에 들어가기 직전에 최후 가르침인 「佛遺教經」, 그리고 중국 僞仰宗의 개창조로 알려진 위산 靈祐의 어록인 「滄山警策」을 합집한 책이다. 특히 「佛說四十二章經」은 불교의 호한한 내용이 42장의 요지로 나누어 간명하게 설명되어 있어 스님들의 지침서로 널리 활용되었다. 그리하여 불교의 경전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에게 불교의 교훈적인 가르침을 쉽게 설명하고 있어 불교를 널리 전파하는데 도움을 준 경전으로 알려져 있다.

이 『佛祖三經』은 원나라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1361년에 全州 圓嶺寺에서 간행한 목판본 1책이다.

이 책의 구성을 보면, 권수에는 원나라 蒙山 德異가 초서로 쓴 서문이 붙어 있고 서문 다음 장에 ‘佛說四十二章經’이란 권두서명이 보이고 있으며, 다음의 2행에 역자인 ‘迦葉摩騰’과 ‘法蘭’ 등이, 3행에는 주해자인 守遂가 표시되어 있다. 다음 장에는 송나라 眞宗이 쓴 ‘불유교경’에 대한 어제 서문이 실려 있다. 이 서문에 이

어 ‘佛遺教經’의 권두서명이 보이고 있으며, 다음 행에 역자 및 주해자가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불유교경’에 이어서 張銖가 1139년에 쓴 ‘위산경책’의 서문이 실려 있고, 서문 다음 장부터 ‘滄山警策’의 경문이 시작되고 있으며, 끝에는 비구 行心の 誌文이 수록되어 있어 이 책은 행심이 발원하고 法空이 간행의 책임을 맡아 尹善의 도움으로 1361년에 全州 圓嶺寺에서 간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宋元板을 저본으로 고려시대에 전라도 전주 원암사에서 1361년에 간행된 판본과 1384년에 간행된 것 등 2종의 판본이 현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체적으로 흡사하나 판식의 특징상 판면에 계선의 유무에 따라 확연히 구분된다. 1361년판은 계선이 없고, 1384년판에는 계선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그리고 원암사판은 권말에 병술년(1286)에 益大가 짓고 쓴 발문이 없는 차이가 있다.

운홍사 소장본과 동일한 판본이 보물 제694호(1981.3.18 지정)로 지정되어 삼성미술관 리움에 소장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국립도서관, 고대도서관 그리고 장흥보림사 등에 소장되어 있다. 현재 삼성미술관 리움 및 보림사 등에 소장되어 있는 동일본과 비교한 결과, 모든 형태적 특징은 동일하나 인쇄상태가 완결(剋缺)이 보이고 있으나 희소성이 있는 판본이다.

○ 문헌자료

송일기, 부산 범어사 소장 『佛祖三經』 해제, 금정구청, 2010

○ 기 타

예산 수덕사에 계셨던 응당 대종사가 소장하다가 성종스님(속명 김동화)에게 전승한 것을 성종스님이 나주 운홍사에 2009년 4월 10일 무상기증하였다고 한다.

기 지정된 불조삼경 현황

종별	번호	문화재명칭	소유자	수량	지정일	연대
보물	694	불조삼경	이건희	1권 1책	81/03/18	고려 공민왕10년 (1361년)
보물	695	불조삼경	이건희	1권 1책	81/03/18	고려 우왕10년 (1384년)
보물	1224-1	불조삼경	한솔제지(주)	1권 1책	95/07/19	고려 우왕10년 (1384년)
보물	1224-2	불조삼경	범어사	1권 1책	07/09/18	고려 우왕10년 (1384년)

9. 불설대보부모은중경판 (佛說大報父母恩重經版)

가. 심의사항

“불설대보부모은중경판”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기도지사로부터 “불설대보부모은중경판”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0.04.01)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1.08.26)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은 현지조사자 3인 이상이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문화재로 본 위원회 2011년도 제6차 회의('11.12.13)에서 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 30일간 지정 예고('11.12.23~'12.01.22)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7호(1972.05.14. 지정)
- 명 칭 : 불설대보부모은중경판(佛說大報父母恩重經版)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용주사 (용주사 효행박물관)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송산리 188 용주사
- 수 량 : 73판(목판 42판, 동철판 7판, 석판 24판)
- 규 격 : 목판: 세로 31.5cm × 가로 53.5cm 내외
동판: 세로 22.5cm × 가로 44.5cm 내외
석판: 세로 27.5cm × 가로 43.0cm 내외
- 재 질 : 목·동철·석(木·銅鐵·石)
- 판 종 : 목판·동철판·석판(木版·銅鐵版·石版)
- 형 식 : 경판(經版)
- 제작연대 : 1796~1799년(正祖 20~23 추정)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調査文化財 <佛說大報父母恩重經版>은 佛敎의 「孝經」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佛說大報父母恩重經」(變相圖7張, 科判2張, 漢文本22張, 國文本49張)의 木版·銅鐵版·石版의 經版으로 현재 京畿道 有形文化財 제17호(1972. 05. 14.)로 지정되어 있다.

정조 20년(1796) 仲夏에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의 木版이 조성되자 經版이 보다 오래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變相圖’는 특별히 銅鐵版에 版刻하고 漢文의 經文도 石版으로 다시금 조성하였는데, 銅鐵版은 木版과 함께 정조 20년(1796, 병진)에 造成되어 鑄字所에 內入되고 石板은 正祖 23년(1799, 기미)에 造成되어 鑄字所에 內入되었다. 「鑄字所應行節目」에 수록되어 있는 ‘恩重經圖鐵板 7板’, ‘經文 13板’, ‘圖 5板’, ‘諺解 25板’, ‘恩重經石板 24板’ 등 74판의 經版 중에서 현재 漢文本 木版의 刊記 1版(?)을 제외한 73판의 經版이 龍珠寺에 完整하게 전래되고 있다.

調査文化財 <佛說大報父母恩重經版>의 經版의 특징은 매우 정교하고 장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變相圖>에는 檀園 金弘道(1745~?)의 畫風이 고스란히 살아남아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있으며,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의 本文은 당대의 名筆이던 寤修 黃運祚(1730~1800)의 書風이 우리를 安息할 수 있게 해주는 名品の 經版이다. 오늘날 龍珠寺 刊行의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經典으로 칭송하고 있다. 그것은 정조의 부모에 대한 지극한 孝心을 바탕으로, 당대 최고의 匠人들이 魂心을 쏟아 造成한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調査文化財 <佛說大報父母恩重經版>은 역사적 또는 예술적 가치를 그다지 높게 평가받지 못한 채 花山 龍珠寺에 소장되어 오고 있다. 비록 그 造成의 시기가 조선시대 後期라는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正祖大王의 孝行心과 匠人의 藝術的 英魂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王室文化財라는 점에서 國家文化財로 지정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7호(1972. 05. 14.)로 지정되어 있는 『불설대보부모은중경』 목판(42판), 동철판(7판), 석판(24판) 등 73판의 경판은 정조 20년(1796)부터 이후 3년 사이에 정조의 효심으로 조성되었다. 목판에는 변상도, 과문, 한문본, 국문본 등을, 동철판에는 변상도, 석판에는 과문과 한문본 등을 새겨 놓았다. 그러므로 목판으로 된 한 질, 동철판과 석판으로 된 한 질 등 모두 두 질

이 다른 매체에 조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 세 종류의 경판들은 당대 최고 장인들의 예술성까지 곁들여져 있는 소중한 문화재이다. 더욱이 보존상태가 온전하다는 점, 18세기 말의 국어사 자료가 된다는 점, 이전의 판화와는 달리 경판의 변상도는 공간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보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용주사의 佛說大報父母恩重經板은 목판 42판, 동철판 7판, 석판 24판의 세 종류가 있다. 모두 73판으로 1796~1799년 사이에 조성되었다. 목판은 변상도, 科判, 한문본, 국문본 등이 양면으로 양각되어 있으며, 동철판은 변상도 7판이 단면에 양각되어 있다. 특히 목판의 刀刻 형태까지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석판은 과판과 한문본 등으로 단면에 음각되어 있다.

이 경판들은 정조의 명으로 조성하였기 때문에 최고의 匠人의 솜씨와 예술성을 포함하고 있는 문화재로서 보존상태도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화성 용주사에 보내져서 오랫동안 관리해 오던 사실이 「鑄字所應行節目」 기록과도 일치하고 있다.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 되어야 한다.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보물로 지정함.

조사보고서

□

○ 현 상

□ 書誌記述: 調查文化財 <佛說大報父母恩重經版>의 形態記述은 다음과 같다. 佛說大報父母恩重經版 / [編譯者不明]; [正祖·純祖 御命製作]. -- 木版·銅鐵版·石版. -- [漢城]: [製作處不明], [正祖 20-23(1796~1799) 推定].

木版 42版, 銅鐵版 7版, 石版 24版, 合73版 : 變相圖, 四周雙邊, 半郭 22.0×16.0cm, 有界, 8行16字 註雙行, 花口, 上內向黑魚尾 ; 32.5×21.2cm. 楮紙. 線裝(改裝).

表題: [佛說大報父母]恩重經[版]

卷頭題: 佛說大報父母恩重經[版], 불설대보부모은등경[版]

版心題(花口): 恩重經·恩重經諺解

內容: -佛說大報父母恩重經圖(7張), -佛說大報父母恩重科判(2張), -佛說大報父母恩重經(22張), -불설대보부모은동경(49張) (합 80장)

佛說大報父母恩重科判: -初序分, -二正宗分四<一報恩因緣三(一如來頂禮·二佛認宿世·三二分問答), 二歷陳恩愛二(一彌月劬勞·二十偈讚頌), 三廣說業難二(一指數諸愆·二援喻八種), 四果報顯應三(一啓發懺修·二阿鼻墮苦·三上界快樂)>, -三流通分三<一八部誓願, 二佛示經名, 三人天奉持>

佛說大報父母恩重經圖: 如來頂禮, 懷耽守護恩, 臨產受苦恩, 生子忘憂恩, 咽苦吐甘恩, 回乾就濕恩, 乳哺養育恩, 洗濁不淨恩, 遠行憶念恩, 爲造惡業恩, 究竟憐愍恩, 周遶須彌, 阿鼻墮苦, 上界快樂.

卷末刊記: 歲柔逃執徐(丙辰, 1796, 正祖 20)仲夏開/印藏于花山龍珠寺 (木版本·石版本 同一)

版크기: 木版: 세로 31.5 × 가로 53.5 cm 내외

銅版: 세로 22.5 × 가로 44.5 cm 내외

石版: 세로 27.5 × 가로 43.0 cm 내외

木版數: <斷面 4版, 兩面 38版, 合 42版, (斷面 4張, 兩面 76張, 合 80張)>

變相圖; (도01·한03), (도02·도06), (도03·한05), (도04·과01), (도05·한04), [도06·도02], [도07·한01]. <斷面 無, 兩面 5版, 合 5版>

科判; [과01·도04], [과02·한10]

漢文本; (한01·도07), (한02·한16), [한03·도01], [한04·도05], [한05·도03], (한06·한17), (한07·공00), (한08·한19), (한09·한11), (한10·과02), [한11·한09], (한12·한18), (한13·공00), (한14·한22), (한15·한20), [한16·한02], [한17·한06], [한18·한12], [한19·한08], [한20·한15], (한21·공00), [한22·한14] <斷面 3版, 兩面 9版, 合 12版>

國文本; (국01·국02), (국03·국04), (국05·국06), (국07·국08), (국09·국49), (국10·공00), (국11·국12), (국13·국14), (국15·국16), (국17·국18), (국19·국20), (국21·국22), (국23·국24), (국25·국26), (국27·국28), (국29·국30), (국31·국32), (국33·국34), (국35·국36), (국37·국38), (국39·국40), (국41·국42), (국43·국44), (국45·국46), (국47·국48), [국49·국09] <斷面 1版, 兩面 24版, 合 25版>

銅版數: 斷面 7版 合 7版

變相圖; (동01·공00), (동02·공00), (동03·공00), (동04·공00), (동05·공00), (동06·공00), (동07·공00) <斷面 7版, 合 7版>

石版數: 斷面 24版, 合 24版

科 判; (석01·공00), (석02·공00).

漢文本; (석03·공00), (석04·공00), (석05·공00), (석06·공00), (석07·공00), (석08·공00), (석09·공00), (석10·공00), (석11·공00), (석12·공00), (석13·공00), (석14·공00), (석15·공00), (석16·공00), (석17·공00), (석18·공00), (석19·공00), (석20·공00), (석21·공00), (석22·공00), (석23·공00), (석24·공00) <斷面 24版, 合 24版>

마구리 및 保護圍: 木版(마구리 있음), 銅版(없음), 石版(四面保護圍 있음)

狀態: 73版 完版完整

□ 現狀: 調査文化財 <佛說大報父母恩重經版>은 佛敎의 「孝經」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佛說大報父母恩重經」(變相圖 7張, 科判 2張, 漢文本 22張, 國文本 49張)의 木版·銅鐵版·石版의 經版이다.

調査文化財 <佛說大報父母恩重經版>의 版數는 木版의 경우 <變相圖>·<科判>·<漢文本>·<國文本>을 합하여 斷面4版 兩面38版 合42版(斷面4張 兩面76張 合80張)이고, 銅鐵版의 경우 <變相圖>만 斷面7版 合7版이며, 石版의 경우 <科判>·<漢文本>을 합하여 斷面24版 合24版이다. 도합 73版의 이들 經版은 完整的 完版의 상태로 현재 京畿道 有形文化財 제17호(1972. 05. 14.)로 지정되어 있다.

調査文化財 <佛說大報父母恩重經版>의 木版과 銅鐵版은 正祖 20년(1796) 무렵에 製作되고, 石版은 正祖 23년(1799) 무렵에 造成된 것으로 推定된다. 木版의 크기는 세로 31.5cm, 가로 53.5cm 내외이고 銅鐵版의 크기는 세로 22.5cm, 가로 44.5cm 내외이며 石版의 크기는 세로 27.5cm, 가로 43.0cm 내외이다. 木版에는 마구리가 있으나 銅鐵版에는 없으며, 石版에는 上下左右 四面에 保護圍가 있다.

調査文化財 <佛說大報父母恩重經版>은 京畿道 華城市 泰安邑 松山里 188의 龍珠寺의 소유이며, 전문적인 施設을 갖춘 龍珠寺 孝行博物館에 의해 維持·管理되고 있다.

○ 내용 및 특징

佛敎의 「孝經」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은 본래 佛敎의 발상지인 印度에서 撰述된 經典이 아니라, 중국으로 불교가 전래되는 과정에서 일반 백성들에게 쉽게 布敎하기 위한 방편으로 중국에서 撰述된 ‘僞經’으로 알려지고 있어 正式의 佛敎經典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심지어 西夏에서도 오래된 經典이 발견되고 있을 정도로 동아시아 지역에는 大乘經典에 못지않게 널리 유포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고려 高宗朝에 王室에서 金銀泥로 書寫한 寫經이 일본의 京都博物館에 남아 있고 忠烈王朝에 木版에 판각하여 인출한 木版本이 경주의 祇林寺에 보관되어 있으며, 그 후로 高麗末期까지 王室에서 여러 차례 刊行된 사실이 있다. 또한 儒敎社會인 조선시대 들어와서도 전국의 유명 寺刹에서 漢文과 國文으로 빈번하게 간행되어 그 種數는 무려 83種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儒敎를 國是로 하였던 조선사회에도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이 많이 간행되었다는 사실은 일반 백성들이 功德를 기원하는 佛經으로 신봉하였음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다.

정조(1752~1800)는 일찍이 그의 14년(1790, 경술) 9월에 隆園(莊獻世子)의 齋宮으로 花山에 龍珠寺를 조성하고 청장관 이덕무로 하여금 용주사(龍珠寺) 전각(殿閣) 및 승방의 주련(柱聯) 16구를 지어 나무판에 새겨 곁도록¹⁵⁾ 하고, 그의 19년(1795, 을묘)에는 龍珠寺의 奉佛式을 위하여 祈福偈 10首를 親製하면서 “大海 量만큼의 墨과 須彌山 무더기만큼의 筆을 몰래 가져다 이 8만 4천 普眼法門의 經義와 敎義를 베끼고, 삼가 偈語를 지어서 三業供養을 바치고, 은혜에 보답하는 福田을 닦으려 한다.”고 한 바 있다.¹⁶⁾

또한 그의 20년(1796, 병진) 봄에는 親製한 “이와 같이 들었노라(如是我聞)/ 부처님께서 열 가지 은혜를 깨치시고 사람들에게 권하시니(佛諦十恩爲人勸)/ 수미산 둘레를 천 바퀴 돌고(遶須彌千匝)/ 경전 만권을 만들지라도(造經典萬卷)/ 여덟 종류의 범음으로 대중에게 고하는 것만 못하니(不如以八種梵音告大衆)/ 각각 아버이를 위하여(各各爲爺孃)/ 천상에서 쾌락을 누리도록 일제히 발원하라(得生天上快樂齊發願)”는 <恩重經偈語>를 간행하여 頒帙하고 이어서 그 체를 모방하여 諸臣에게 和答하도록 명하면서 “佛乘에 대해서는 일찍이 어두운 바였다. 그런데 「大報父母恩重經」은 偈頌으로 깨우침이 절실하고 간절하여 衆生을 손잡고 引導하여 極樂에 오르도록 하니, 우리 儒敎의 조상의 은혜를 갚으며 人倫을 돈독하게 하는 취지와 부절처럼 들어맞는다. 그것을 어찌 선달 그믐날이나 단오날 書雲觀에서 찍어 주는 재앙을 물리치게 하는 符籍에다 견줄 수 있겠는가. 지금부터는 선달 그믐날과 단오날의 두 명절에 이 偈頌을 대신 붙이도록 하고 그 印本을 두루 내려 주게 하였다.”¹⁷⁾고 하였다. 정조의 <恩重經偈語>를 바탕으로 여러 신하들이 賡進한 「

15) 李德懋 著, 靑莊館全書, 卷20, 雅亭遺稿稿 12. 應旨各體, ‘龍珠寺柱聯’條.

庚戌九月 華城之龍珠寺成 承命製進柱聯十六句 仍躬往 監董剗以揭之 三三歲優鉢花 長春壽國 十萬種菩提子 有秋福田 護聖殿 八萬四千法門 同臻彼岸 二百五十大戒 共拔迷塗 大雄寶殿 二萬里和訶國 普沾石井功德泉 八十項祇陀園 遍開金地 吉祥蕊 十方七燈閣 結無盡喜歡緣 常住極樂淨土 除一切苦惱想 普渡大願慈航 極樂天願殿 鴈形獅形鶴形 諸佛諸天千劫護 牛乘鹿乘羊乘 善男善女一時聽 天保樓前 蓮花偈貝葉經 不二門中天籟 香積飯伊蒲饌 無量劫前地肥 天保樓後 兜巒宮中稟 大偈 普濟衆生 般若台上演眞詮 超脫浩劫 曼殊利室 直到佛祖不知處 祇是半塗 且向父母未生前 試道一句 那由他寮.

16) 正祖 著, 弘齋全書, 卷55, 雜著2, ‘花山龍珠寺奉佛祈福偈(十首并解 乙卯)’條.

寺爲顯隆園齋宮而建也 小子竊取大海量墨 須彌聚筆 書寫此八萬四千普眼法門之經義乘敎 謹述偈語 以效三業供養 一業謂 身至誠敬禮 二業謂口發言稱美 三業謂意正意念 用修報恩福田 謂父母有養育之恩 若能供養恭敬 是名報恩福田 ….

恩重偈廣載軸」이 편찬되었는데, 여기에서도 정조는 “佛經은 내가 본래 모르는 것이다. 병진년(1796) 봄에 우연히 「大報父母恩重經」의 偈語를 열람하게 되었는데, 생동감 있는警句와 간절하고도 진지한 내용이 우리 儒敎에서 조상의 은혜를 갚고 人倫을 돈독하게 하는 취지와 表裏를 이루는 점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선달 그믐날과 端午의 두 명절에 이 偈를 印刷하여 바치게 하여 門楣에 붙여서, 書雲觀에서 인쇄하여 나누어 주는 符籍을 대신하게 하였다. 이어서 다시 게 한 편을 지어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이 偈語에 廣載한 이는 14인이다.”¹⁸⁾라고 하였다.¹⁹⁾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조는 父母의 回甲을 맞이하여 평소 자신이 존경했던 獅駟(?~?) 寶鏡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체제로 편찬한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을 版刻·印施하여 널리 流布시키고자 하였다.

정조는 “異端을 미워하는 것은 그것이 人倫을 어그러뜨리고 父母를 버리기 때문이다. 「恩重經」도 불교서적 중의 한 가지 법이나, 그 책에는 父母가 애써 길러 준 은혜에 크게 보답할 것을 말하고 因果應報가 뚜렷하게 감응하는 구분을 낱낱이 서술하여 上界와 阿鼻地獄의 圖說에 이르러서는 똑똑히 알 수가 있으니,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보고 깨닫도록 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이번에 刊行하는 일은 실로 感應奮發하고 징계하는 뜻을 부여한 것이거니와, 읽는 사람을 만약 佛經을 숭상하고 믿는 것으로 의심한다면, 오랑캐의 내용이면 물리치고 師門의 내용이면 나오게 한다는 義理가 결코 아니다.”²⁰⁾²¹⁾고 하면서 이에 당시 圖畫署의 으뜸 畫員이었던

17) 正祖 著, 弘齋全書. 卷56. 雜著 3. ‘印頒恩重經偈語 仍倣其體 命諸臣和之(并小序 丙辰)’條.

佛乘嘗所味 而大報父母恩重偈 警切剴摯 導衆生以躋極樂 與吾儒報本篤倫之旨義 爲溪心之印月 豈比於除夕重午雲觀揚頌之禳辟符 自今兩名日 代貼此偈 以印本遍與之 如是我聞佛諦 十恩爲人勸 遠須彌千匝 造經典萬卷 不如以八種梵音告大衆 各各爲爺孃 得生天上快樂齊發願.

18) 正祖 著, 弘齋全書. 권182. 羣書標記 4. 御定 4. 廣載軸. ‘恩重偈廣載軸’條.

佛乘予所素味 而丙辰春 偶覽大報父母恩重偈 愛其警切剴摯 與吾儒報本篤倫之旨相表裏 遂命除夕重午兩名日 印進此偈 貼諸楣上 以代雲觀揚頌之禳辟符 復爲偈語一篇 頒示諸臣 廣載者十四人.

19) 蔡濟恭 著, 樊巖先生集. 卷59. 雜著. ‘廣進御製大報父母恩重經偈’條.

臣幸前偶上竹山七長寺 見有恩重經 拈讀未半 感淚自然盈眶 此人心之不待勉強而然者 夫吾儒之不以佛乘爲 在夷狄則進之者 以其不知有五倫之重也 今是經也說及父母恩重 描寫得十分真切 造人所不能到 其感人之深 不必讓陸子靜論說 魯論旨義聽之者汪然流涕 此豈可以不列於學者載籍少之也哉 遂懇僧人挾以來 至今置在几上 珍惜愛護 恨世之同我見者蓋尠 今伏承聖製恩重偈 益知天地之大無物不容 而推原聖意 蓋欲使天下之圓顛方趾 皆有以知父母恩重而致比屋可封之俗也 況除夕重午除雲觀禳辟符 用此偈代之 尤有補於化俗之政 臣百回莊誦 乃敢廣韻以進曰 如是我聞 努目低眉是懲勸 恩重半偈 亦足以金繩引路 顧安事汗牛之八萬大藏卷 報父母恩 上極樂界 不報父母恩 墮阿鼻獄 閻浮羅各各衆生 阿鼻獄是願 極樂界是願.

20) 正祖 著, 弘齋全書. 卷177. 日得錄 17. ‘原任直閣臣南公轍丙辰錄’條.

所惡乎異端者 以其悖倫而違親也 恩重經 亦佛書中一法 而其言大報父母劬勞之恩 而歷敘果報顯應之分 以至上界阿鼻之圖說 歷歷可指 足令愚夫愚婦見而知曉 故今番刊印之舉 實寓感發懲創之意 讀者若以崇信佛經見疑 則大非夷狄則揮 門牆則進之義也 (原任直閣臣南公轍丙辰錄).

21) 南公轍 著, 金陵集. 卷20. 日得錄. ‘丙辰錄’條.

所惡乎異端者 以其悖倫而違親也 恩重經 亦佛書中一法 而其言大報父母劬勞之恩 而歷敘果報顯應之分 以至上界阿鼻之圖說 歷歷可指 足令愚夫愚婦見而知曉 故今番刊印之舉 實寓感發懲創之意 讀者若以崇信佛經見疑 則大非夷狄則麾 門牆則進之義也 以上丙辰錄.

檀園 金弘道(1745~?)로 하여금 變相圖의 밑그림을 그리게 하고, 또한 당대의 名筆家였던 寤修 黃運祚(1730~1800)로 하여금 漢文과 國文의 版下本을 淨書하도록 하였다.²²⁾²³⁾ 정조는 평소에 “지금 사람들의 글자는 대개가 무게가 없고 경박스러워서 뼈뚫하게 기울어지거나 날카롭고 약해 보이지 않으면 사납고 거칠다. 이것이 비록 예사로운 筆札의 미미한 것이기는 하나, 이렇게 習俗이 점점 못해지고 순수하고 참된 기상이 나날이 엷어지고 있으니, 어찌 심히 개탄스러운 마음을 이길 수 있겠는가. 王右軍도 필요 없고 鍾太傅도 필요 없으니, 한마디로 말해서 惇實하고 圓厚하며 沈著하고 安定되어야 한다. 둔탁하여 墨豬라는 비난을 받을지언정 깡말라서 고니를 새기려다 오리를 만드는 결과는 빗지 말며, 즐렬하더라도 참된 기운은 그대로 있게 할지언정 공교롭게 하려다 기이하고 거짓됨만을 숭상하지는 말아야 한다. 또 정체될지언정 흐르지는 말게 하고 차라리 둔탁할지언정 각박하게는 하지 말며, 용렬할지언정 기이하게는 하지 말고 平凡할지언정 까다롭고 편벽되게는 하지 말아야 한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사실적인 데로 빠져 든다’고 말하지 말지니, 이는 참됨을 전수하는 要訣이다.”라고²⁴⁾ 하였다. 版下本을 淨書한 黃運祚는 당시 정조가 즐겨 쓴 ‘惇實하고 圓厚하며 沈著하고 安定’된 書風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선발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쳐 正祖朝에 版刻과 印刷를 전담했던 鑄字所나 校書館에서 특출한 匠人들을 선발하여 그들로 하여금 木版에 版刻하도록 하였다. 版刻에 사용된 목재는 가볍고 단단한 落葉樹를 사용한 듯 經板은 종이처럼 가볍다. 그것은 당시 芸閣에서 版刻한 木版의 특징에서 볼 수 있듯이 정교하게 鍊版되었던 때문인 듯하다.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의 經版의 版刻이 완료되자 정조는 마지막 經版에 ‘歲柔逃執徐(丙辰, 1796)仲夏開印藏于花山龍珠寺’라는 製作時期를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의 經版은 정조 20년(1796) 仲夏에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조는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의 經版이 보다 오래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20년(1796)에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을 玉石에 새기도록 명하여 ‘變相圖’는 특별히 銅鐵版에 版刻하고 漢文의 經文도 石版²⁵⁾²⁶⁾으로 다시금 제작하

22) 宋煥箕 著, 性潭先生集, 卷21. 墓碣. ‘道谷黃公墓碣銘(并序)’條.
… 乙卯承命書進恩重經.

23) 洪直弼 著, 梅山先生文集, 卷41. 墓誌銘. ‘僉中樞黃公墓誌銘(并序)’條.
… 丁巳上特下新刊恩重經以寵之曰 爾文學行誼 予所稔知 此經雖佛書 亦一孝親之具 忠孝無二致 爾其識之 兼賜杜律.

24) 正祖 著, 弘齋全書, 卷165. 日得錄 5. 文學 5.
柳公權曰心正筆正 程子曰作字非是要字好 卽此是學 書字雖卽技之小者 亦不可胡亂無法 只求妍美 全欠典則 卽近世所謂 善書者 若論以心正是學之語 果何如哉 今人寫字 類皆輕佻浮薄 如不敲斜尖脛 便多怒張荒率 此雖尋常筆札之微 其習俗之 每下 淳真之日漓 有如此 豈勝慨然之甚 不必曰王右軍 不必曰鍾太傅 一言蔽之 惇實而圓厚 沈著而妥帖 寧肥而犯墨豬之 謫 毋疾而歸刻鵠之陋 寧拙而真氣自在 毋巧而詭僞徒尙 寧滯母流 寧鈍母刻 寧劣毋母狂奇 寧庸庸毋苛僻 莫曰矯枉而過實 是真傳之訣爾.

였다. 「鑄字所應行節目」에 의하면 “恩重經圖鐵板 七板 丙辰造成內入”, “恩重經石板二十四板 己未造成內入”이라 기록²⁷⁾되어 있어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의 銅鐵版은 木版과 함께 정조 20년(1796, 병진)에 造成되어 鑄字所에 內入되고 石板은 正祖 23년(1799, 기미)에 造成되어 鑄字所에 內入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조성된 「佛說大報父母恩重經」 關聯 經版들은 造成된 후에 곧바로 鑄字所에 收藏되었다가 언제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그 중 木版·銅鐵版·石版의 도합 73판의 「佛說大報父母恩重經」 關聯 經版들이 顯隆園(莊獻世子)의 願刹이던 花山の 龍珠寺로 移管되었던 듯하다.²⁸⁾²⁹⁾

「佛說大報父母恩重經」 關聯 經版들에 대하여는 「鑄字所應行節目」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鑄字所應行節目」의 <冊板>條에는 “恩重經圖鐵板七板 丙辰造成內入, 經文十三板 圖五板 諺解二十五板 祈福偈九板 丙辰造成下送花山用珠寺”, “恩重經眞言大板一板 小板一板 丙辰造成”, “恩重經石板二十四板 己未造成內入”, “石板十二板 自原營上來恩重經用餘封置” 등으로 기록³⁰⁾되어 있다.

「鑄字所應行節目」에 수록된 <佛說大報父母恩重經版> 關聯 經版數와 <龍珠寺所藏>의 <佛說大報父母恩重經版> 關聯 經版數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25) 尹行恁 著, 碩齋稿. 卷15. 題跋. ‘題黃道谷(運祚)恩重經石刻帖後.
筆家之有王羲之 猶儒家之有六經也 筆而捨王則外道也 黃道谷卽王之正脈也 後人如欲求王 當先從黃求 戊午春日 著泉子書.

26) 李圭景 著, 五洲衍文長箋散稿. 經史篇. 釋典類. ‘釋典總說’條.
我東則正廟丙辰間 命刻恩重經于玉石 而亦有御筆 藏於華城龍珠寺 蓋因顯隆園願刹故也.

27) 奎章閣 編, 鑄字所應行節目(板堂考). 筆寫本. [漢城]: [摛文院], [純祖 14(1814) 推定].
恩重經圖鐵板七板 丙辰造成內入 … 恩重經石板二十四板 己未造成內入 …

28) 朴允默 著, 存齋集. 卷9. 詩. ‘題曼殊利室壁上(室在龍珠寺東廡)’條.
天賜華題侈寺門 万年爲是護仙園 淨供祭品君臣義 虔奉經文父母恩 寺藏恩重經板 地迥丹樓通瑞氣 山深玉井發眞源 福田更有新秋稅 惠澤如今及緇髡.

29) 朴允默 著, 存齋集. 卷8. 詩. ‘龍珠寺’條.
花山之山何崔嵬 龍從千里蜿蜒來 及到山盡水住處 吐得寶珠明光開 所以大拓吉祥地 金殿石樓相對起 天錫嘉額以侈之 二字煌煌因地美 爲是咫尺奉仙寢 四時豆實備祭品 昔年聖孝無不及 禪場艸木亦能感 仰瞻寶偈十襲藏 夜夜空山發虹光 更有一部恩重經 古龕猶帶內府香 緬昔琬琰登梓日 承命董役恐遺失 今來摩挲增悽愴 悅若前生不可悉 寄語曼殊寮中髡 佛告大衆父母恩 君父一體能知否 若有知之意有存 念念齊發保護願 丹心長照不二門.

30) 奎章閣 編, 鑄字所應行節目(板堂考). 筆寫本. [漢城]: [摛文院], [純祖 14(1814) 推定].
… 恩重經圖鐵板七板 丙辰造成內入 經文十三板 圖五板 諺解二十五板 祈福偈九板 丙辰造成下送華城龍珠寺 恩重經眞言大板一板 小板一板 丙辰造成 … 恩重經石板二十四板 己未造成內入 石板十二板 自原營上來恩重經用餘封置 …

<表> <鑄字所 所藏>과 <龍珠寺 所藏>의 「佛說大報父母恩重經」 關聯 經版數 比較

項 目	版 種	鑄字所	內 入 時 期	龍珠寺	備 考
恩重經圖 鐵板	銅鐵版	7	丙辰(1796)造成內入	7	
經文	木 版	13	丙辰(1796)造成下送 花山用珠寺	12	漢文本 刊記 1版(?)
圖	木 版	5		5	變相圖
諺解	木 版	25		25	國文本
祈福偈	木 版	9		-	
恩重經眞言 大板	木 版	1	丙辰(1796)造成	-	
小板	木 版	1		-	
恩重經 石板	石 版	24	己未(1799)造成內入	24	
石板		12	自原營上來恩重經用 餘封置	-	
計	木銅鐵石	97		73	

「鑄字所應行節目」에 수록되어 있는 ‘祈福偈 9板’, ‘恩重經眞言大板 1板 小板 1板’, ‘石板 12板’ 등의 존재여부는 알 수 없으나, 「鑄字所應行節目」에 수록되어 있는 ‘恩重經圖鐵板 7板’, ‘經文 13板’, ‘圖 5板’, ‘諺解 25板’, ‘恩重經石板 24板’ 등 74판의 經版 중에서 漢文本木版의 刊記 1版(?)을 제외한 73판의 經版이 龍珠寺에 完整하게 전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조가 薨去하고 그의 둘째 아들 순조는 즉위 초기부터 父王의 遺志를 받들어 父王이 저술한 많은 서적을 간행하였다. 正祖朝에 제작이 완료되어 龍珠寺에 所藏되고 있던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의 經版으로 印出한 經典도 오늘까지 많은 도서관과 개인들에 의하여 소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수 천부 이상을 印出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正祖朝에 제작된 調查文化財 <佛說大報父母恩重經版> 經版의 특징은 매우 정교하고 장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版式의 邊欄은 四周雙邊으로 아주 정형적인 양상을 보여 주고 있으며, 各 行은 界線으로 구별되어 있고 每半葉의 行字數는 8행 16자이다. 版心部의 上部에는 黑魚尾가 內向하고 있고 下部에는 張次가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魚尾의 上部에는 ‘恩重經’의 花口가 있다. 특히 <如來頂禮>·<懷耽守護恩>·<臨產受苦恩>·<生子忘憂恩>·<咽苦吐甘恩>·<回乾就濕恩>·<乳哺養育恩>·<洗濁不淨恩>·<遠行憶念恩>·<爲造惡業恩>·<究竟憐愍恩>·<周遶須彌>·<阿鼻墮苦>·<上界快樂> 등의 變相圖에는 檀園 金弘道(1745~?)의 畫風이 고스란히 살아남아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있으며,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의 本文은 당대의 名筆이던 寤修 黃運祚(1730~1800)의 書風이 우리를 安息할 수 있게 해주는 名品

의 經版이다.

오늘날 龍珠寺의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經典으로 칭송하고 있다. 그것은 정조의 부모에 대한 지극한 孝心을 바탕으로, 당대 최고의 匠人들이 魂心을 쏟아 造成한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調查文化財 <佛說大報父母恩重經版>은 역사적 또는 예술적 가치를 그다지 높게 평가받지 못한 채, 아직 지방유형문화재로 머물러 있다. 비록 그 조성의 시기가 조선시대 후기라는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정조의 孝行心과 匠人의 藝術的 英魂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王室文化財라는 점에서 國家文化財로 지정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 문헌자료

- 編譯者 不明, 佛說大報父母恩重經. 木版·銅鐵版·石版本. [漢城] : [鑄字所], [正祖 20(1796) 推定]. 龍珠寺 所藏本.
- [正祖·純祖 御命 製作, 佛說大報父母恩重經版. 木版·銅鐵版·石版. [漢城] : [鑄字所], [正祖 20(1796) ~ 純祖 2(1802) 製作 推定]. 龍珠寺 所藏品本.
- 編譯者 不明, 佛說大報父母恩重經科判. 木版本. [漢城] : [鑄字所], [正祖 20(1796) 推定]. 國立中央圖書館 所藏本. (한古朝21-6, 한古朝21-6-2).
- 編譯者 不明, 佛說大報父母恩重經科判. 銅鐵·石版本. [漢城] : [鑄字所], [純祖 2(1802) 推定]. 國立中央圖書館 所藏本. (古朝21-5-1, 한古朝21-5-2)
- 奎章閣 編, 鑄字所應行節目(板堂考). 筆寫本. [漢城] : [摛文院印], [純祖 14(1814) 推定]. 奎章閣 所藏本. (奎貴 7909)
- 李能和 著, 朝鮮佛教通史. 서울 : 신문관, 1918.
- 국가기록유산: <<http://www.memorykorea.go.kr/>>

○ 기 타

□ 所藏管理 : 調查文化財 <佛說大報父母恩重經版>은 현재 京畿道 有形文化財 제17호(1972. 05. 14.)로 지정되어 있으며, 京畿道 華城市 泰安邑 松山里 188의 龍珠寺의 소유로 전문적인 施設을 갖춘 龍珠寺 孝行博物館에 의해 維持·管理되고 있다.

□ 獅駟(?~?): 조선 正祖朝의 승려로 호는 寶鏡이다. 자세한 行歷은 알 수 없으나, 全羅南道 長興郡 가지산 寶林寺에 있었다. 정조에게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을 바쳐 正祖를 佛敎에 歸依시켰다. 정조 14년(1790)에 국왕이 思悼世子(1735~1762)의 舊墓에 龍珠寺를 창건하여 齋社로 삼으려 할 때 그를 南漢山城 都摠攝으

로 임명하여 역사를 감독하였고, 사찰이 완공되자 佛像을 조성하였다. 공사 중에 그는 八道都化主가 되어 팔도의 승려들에게 기부를 받아들였고, 완공 후 龍珠寺都摠攝 겸 八道都僧統으로 임명되었다.

□ 金弘道(1745~?): 조선시대 후기의 대표적인 화가로 본관은 김해이고 자는 士能이며, 호는 檀園·丹邱·西湖·高眠居士·醉畫士·輒醉翁 등이다. 萬戶를 지낸 金震昌의 종손이자 金錫武의 아들이다. 당대의 鑑識者이며 文人畫家인 姜世晁(1712~1791)의 천거로 圖書署畫員이 된 그는 姜世晁의 지도 아래 畫格을 높이는 동시에 29세인 영조 49년(1773)에는 영조의 御眞과 왕세자(뒤의 정조)의 肖像을 그리고, 이듬해(1774) 監牧官의 직책을 받아 司圃署에서 근무하였다. 정조 5년(1781)에는 정조의 御眞 翼善冠本을 그릴 때 韓宗裕(1737~?)과 申漢枰(1726~?) 등과 함께 同參畫師로 활약하여 察訪에 되었다. 이 무렵부터 明朝의 문인화가 李流芳(1575~1629)의 호를 따라 '檀園'이라 自號하였다. 정조 12년(1788)에는 金應煥(1742~1789)과 함께 王命으로 金剛山 등 嶺東一帶를 기행하며 그곳의 명승지를 그려 바쳤다. 그리고 정조 15년(1791)에 정조의 御眞 遠遊冠本을 그릴 때도 참여하여 그 공로로 忠淸道 延豐縣監에 임명되어 정조 19년(1795)까지 봉직하였다. 縣監에서 퇴임한 후 晩年에는 病苦와 가난이 겹친 生活苦에 시달리다가 餘生을 마쳤다. 그는 외모가 수려하고 풍채가 좋았으며, 또한 도량이 넓고 성격이 활달해서 마치 신선과 같았다 한다.

그는 산수·道釋人物·풍속·화조 등 여러 방면에 걸쳐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당대부터 이름을 크게 떨쳤다. 정조는 “繪事に 속하는 일이면 모두 흥도에게 주장하게 했다.”고 할 만큼 그를 총애했으며, 강세황으로부터는 ‘近代名手’ 또는 ‘우리나라 今世의 神筆’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하였다.

□ 黃運祚(1730~1800): 본관은 昌原이고 字는 士用이며 號는 寤修 또는 道川이다. 李适의 난과 병자호란 때 공을 세운 芝所 黃一皓의 현손이다. 正祖朝의 학자이자 서예가로 어려서부터 학문과 書道에 힘써 이 분야에 일가를 이루었다. 蔭職으로 出仕하여 관직은 都正에 이르렀다. 尹淳(1680~1741)과 金相肅(1717~1792) 등과 함께 江都三絶로 불리었다. 정조 21년(1797)에 왕명에 따라 「通監綱目」과 「春秋左傳」의 ‘綱’을 써서 바쳐 加資되었다. 仁川府使로 재직 중에 善行碑 2기가 세워졌으며, 孝行으로 고향에 旌門이 세워졌다. 현조 黃一皓의 神道碑文에 글씨를 썼고 漣川 金載久의 墓碑問을 썼으며, <雙峯寺寺蹟碑>를 썼다.

□ 鑄字所應行節目:

板堂考

鑄字所應行節目

鑄字所雖是本閣句管而各在東西近無印役一向拋置未克照察所藏書籍冊板鑄字及諸般物種雨漏蠹傷且多散亂誠極悶然自今爲始另成節目以爲永久遵行之地爲齊

一生字整理字之當初藏置非不謹嚴而一經印役輒致散佚誠極寒心今番印役後一一照數另成都錄各別典守俾無如前疎虞之弊爲齊

一生字整理字今番印役後守櫪諸員等渠自照數依前分入七櫪亦使渠等各自封標成出都錄仍置板堂各櫪都錄下書諸員姓名是置日後出用之時如有欠縮之事依數徵捧後除汰重治爲齊

一守櫪諸員遞易之時新舊諸員入來鑄所照數傳掌後新差諸員以無頌之意告于本閣而若有頌則依節目徵捧科治同都錄下改錄姓名爲乎矣該色閣吏照管爲齊

一今番成節目時衛夫人字韓構字及各樣活字所當同爲照數而既非今番出用之字則不必更考依原都錄修正是遣典守之方一依新節目舉行為齊

一各樣字照數入櫪後都錄及鑰匙封置本閣爲齊

一各樣冊板及鐵印札俱載於本所都錄依都錄詳細照數區分類別俾無淆雜之弊爲於今番印役後各樣物種添錄於都錄並爲着實典守俾無闕失之弊爲齊

一內下冊子本所冊子屢經兩漏多致腐傷今既一一照檢釐正目錄是置典守之方曝曬之節該色閣吏另念舉行為乎矣若有不謹疎忽之弊該吏論罪爲齊

一冊子曝曬以每年一次爲定而該吏二人無以舉行諸閣吏通同舉行為齊

一本所各處該色閣吏每朔一次看審有無頌告于入直官前爲於若值大雨則隨時看審爲齊

一該色閣吏二人自 官劃出專管舉行而限二年遞易爲齊

一本所舊遺在各樣紙地及考文館所在梓作板數爻並移載於都錄中一體典守爲齊

一未盡條件追後磨鍊爲齊

甲戌七月 日

活字

御筆序文大字四百三十五字

孟子真書字五千五百九十四字

諺書字四千六百五字

衛夫人銅字大字十萬五千六百三十八字

小字四萬四千五百三十二字

丁酉自箕營鑄成

韓構銅字八萬三千六百六十字壬寅自箕營鑄成

燕質木字大字一萬一千五百字

小字一萬一千四百五十字

庚戌質來

燕質木字大字九千六百字辛亥質來

小字九千九百字辛亥質來

生生木字大字十五萬七千二百字

小字十六萬四千三百字

甲寅造成

整理銅字大字十六萬字

小字十四萬字

丙辰鑄成

五倫行實諺書字四千四百字乙卯造成

春秋綱字五千二百六十字丁巳造成○曹筆黃筆並入

冊板

正音通釋五十九板辛丑自箕營造成

○八子百選一百十三板癸卯自箕營造成

祈福偈十七板乙卯造成

○奎章全韻大本九十板

○小本九十板

乙卯造成

立春板大板五言三句

中板七言六句

小板五言九句

七言二十七句

丙辰造成越送本閣

恩重經圖鐵板七板 丙辰造成 內入

經文十三板

圖五板

諺解二十五板

祈福偈九板

丙辰造成下送華城龍珠寺

恩重經真言大板一板

小板一板

丙辰造成

整理儀軌圖五十六板 丁巳造成

○五倫行實一百六十五板 丁巳造成
○五經百篇一百五十五板 戊午造成
○春秋黃筆四百五十七板 戊午造成
○曹筆四百五十七板 己未造成下送完營次
濟衆新編一百六十四板 己未造成出給典醫監
○雅誦七十二板 己未造成
○朱書百選九十五板 庚申造成
恩重經石板二十四板 己未造成 內入
石板十二板 自原營上來恩重經用餘封置
○御定四部手圈三百八十八板 辛酉造成
○小學大全一百六十三板
○諺解二百四十八板
辛酉自原營上來
濟衆丹板二立大一小一
冊芝里
衛夫人字鐵芝里三十板內十三板外閣○十行十八字
韓構字鐵芝里十二板十行二十字
生生字鐵芝里二十五板十行二十字
鐵芝里二十板十行十八字
小芝里十板十行二十二字 (上段附記)五板印札鐵條所入裁折移用於分韻小板
整理字鐵芝里三十板十行二十字
整理儀軌鐵芝里十五板十二行二十二字 八坐杜律分韻小板移用
日省錄鐵印札板一坐十行二十字
五經百篇木印札板一坐七行
實錄鐵印札板一坐十五行 杜律分韻小板移用
御製鐵芝里二坐十行二十字
鑄字穀
湖南移劃米五千五百石丁巳五月自均廳移劃
城役加區劃移錄米三千六百七十四石
丁巳耗三百六十七石六斗
丁巳閏六月自均廳移劃
質置米五千二百八石九斗戊午五月質置
以上米一萬四千七百五十石
嶺南劃付米五千二百五十石丁巳閏六月移劃

都合兩南米二萬石每年耗條二千石○嶺南劃付米五千二百五十石內十四石二斗六升
三合九夕戊午因繡啓反逋除減

器用

御筆孟子字櫛壹坐

衛夫人字櫛柒坐

韓構字櫛柒坐

生生字櫛伍坐

整理字櫛柒坐

燕賀唐字櫛貳坐

奎章全韻大板匣肆坐

小板匣伍坐

正音通釋板櫛貳坐

八子百選板櫛伍坐

·曹筆春秋板匣拾貳坐

·五經百篇板匣肆坐

·整理儀軌板匣壹坐

·祈福偈板匣壹坐

·四部手圈板櫛拾壹坐

行用冊櫛壹坐 移奉於 宙合樓

·會計大櫛壹坐

一去本閣行用中櫛肆坐 壹坐 實錄鑄字入盛藏於外閣

紙籠壹坐 腐傷

·三十二大函壹百坐 陸拾坐見失

·冊登床肆坐

·長臺床捌坐

裁折長楸板貳坐見失

·刀鍊楸板參坐壹坐失

·短足長冊床貳坐

·小冊床肆坐

·濕紙板參立 壹立失

墨石拾坐 貳立失

·褙板壹立

○·藏書卓子拾壹坐

○·冊衣卓子壹坐

·朱漆大櫛壹坐
·登床壹坐
·長檣壹坐
·省記板壹坐
○·硯匣參部
○·硯滴壹箇
○·要江貳坐
○·唾口壹坐
○·灰檣參坐 貳坐破傷
○·大硯貳面 壹面失
○·小硯肆面 貳面失
○·銅絲壹巨里 懸鈴具
·門帳貳部
提燈壹坐 破傷
講圖○·屏風壹坐
○·食鼎參坐 壹坐失
○·鍤沙用壹坐
水桶壹坐 破傷
○·水釜壹坐
○·鍤大也壹坐
○·火爐壹坐
○·燭臺壹坐
○·木燭臺貳坐
地衣伍浮 腐傷
草席地衣貳浮 腐傷
按息肆坐 腐傷
方席參立 腐傷
坐板拾伍立 還下戶曹
·大粉板壹坐
癸酉印役時新備器用
○·小硯匣貳坐
○·硯石肆面
○·硯滴參箇
只有臺三○茶鍾參箇臺具

要江壹坐

·衣巨里貳箇

○·提燈貳坐

○·木燈檠貳坐

○·大盤壹坐

·櫟匙捌立

·一方席參立

·十四又四毛方席貳拾伍立

·七草方席拾貳立

·小門帳壹浮

·六按息柒坐

·五登每陸立

·斗壹坐

·紅函參坐

灰櫬參箇

小磨墨石伍箇

○·鑪煮壹箇

○·鎖鑰拾箇

·大鎖鑰貳箇

○·漚貳箇

○·執介貳箇

○·搗鍊刀參箇

水桶壹坐

○·巨褙引刀貳箇

·巨褙板壹立

·濕紙器伍立

·濕紙板貳立

新·冊卓子貳坐

·冊登床壹坐

木函伍坐

刀鍊板壹坐

裁折長板壹坐

·方丫赤肆箇

·每要壹坐

恒式丁巳六月定式

春夏六朔每朔柴油債六兩式三十六兩

秋冬六朔每朔柴油債十兩式六十兩

每朔公事次白綿紙二卷每卷價二兩式四十八兩

行用次白紙二十卷每卷價三錢式七十二兩

告祀債三兩式三十六兩

監官朔下十五兩式一百八十兩

大廳直二名加布各四兩式九十六兩冊匠兼役

使令二名朔下各九兩式二百十六兩

房直二名朔下各五兩式一百二十兩

軍士二名朔下各四兩式九十六兩

每年謄錄次白綿紙五卷每卷價二兩式十兩

正書會計次白綿紙四卷每卷價二兩式八兩

草會計次白紙五卷每卷價三錢式一兩五錢

日記次白紙五卷每卷價三錢式一兩五錢

以上錢文九百八十一兩

官(押)

內下冊子庚申 內下

五經百篇拾件

春秋壹百拾件一件送于玉堂一件 頒賜在一百件 八件無不帙壯白紙合七十六冊在

八子百選壹百捌拾柒件三十七件 內入及 頒賜在一百五十九件 九件加 不帙六冊在

朱書百選貳百柒拾肆件二十四件 內入及 頒賜在二百五十三件 三件加 不帙五冊在

史記英選貳百拾捌件 二十二件 內入及 頒賜在二百六件 十件加 不帙七冊在

陸奏約選貳百參拾陸件十三件 內入及 頒賜在二百三十四件 十一件加

奎章全韻壹千肆百伍拾捌件大本捌百捌拾柒件小本伍百柒拾壹件大小合百二十二件

內入及 頒賜在一千二百四十四件 八件加

杜律分韻參拾參件 十三件 內入及 頒賜在二十三件 三件加

杜陸分韻伍件 在四件內一件第一第二无一件无

杜陸千選壹百貳拾捌件六件 內入及 頒賜在一百二十一件 一件无

雅誦貳百貳拾陸件 三十二件 內入及 頒賜在一百九十六件 二件加

五倫行實壹百肆拾捌件 在一百四十一件 七件无 不帙八冊在

鄉禮合編參拾壹件 在三十二件 一件加 不帙一冊加

賡載軸伍拾捌冊

人瑞錄參拾捌件 在三十九件 一件加

整理儀軌貳拾件 三件出給都監一件 內入在十七件 一件加一件移奉 望廟樓
忠武公全書肆拾件在三十四件 六件无
濟衆新編陸拾玖件
四部手圈玖拾柒件 在九十五件 二件无 不帙二十三冊在
正始文程貳拾柒件
瓊林聞喜錄貳件
賓興錄拾肆件
司馬榜目拾參件
大學恩盃詩集貳拾貳件 在二十一件 一件无
恩重經具解肆件
祈福偈貳拾柒件
孟子壹件
周易壹件
詩傳壹件
水原外帑庫上來冊子甲子九月上來本閣甲戌九月移置本所
新印經書毛面紙本壹件 木匣
壯紙本壹件
嶺板經書貳件
諺解貳件
新印春秋壯紙壹件
白紙貳件
朱書百選伍拾件
八子百選拾玖件
史記英選伍件
陸奏約選貳拾柒件
五經百篇壹件
奎章全韻貳百參件
正音通釋貳拾捌件
○大典通編柒件
○兵學指南柒件
武藝通譜貳件 在一件內第一第二无 一件无
○諺解壹件
五倫行實貳拾件
○思齋集壹件

- 慕齋集壹件
- 朴訥齋集壹件
- 挹翠軒集貳件
- 石洲集壹件
- 孤山集壹件
- 金息菴集壹件
- 江漢集壹件

各種紙地實數

粉唐紙陸拾捌卷拾伍張

毛面紙參拾柒卷陸張 貳拾卷別置貸用

小毛面紙陸拾壹卷拾捌張

太史紙捌百貳拾陸卷

嶺冊紙玖卷

壯紙肆卷

寧邊紙肆拾壹卷 伍卷以別置完冊紙空印札伍卷相換

白綿紙空印札貳卷

藁精紙肆拾伍卷拾陸張 拾卷別置貸用丁亥五月二十七日

白紙貳千參百陸拾捌卷

嶺白紙壹百肆拾肆卷

一千卷丁丑十月初二日內入 五百卷己卯四月初四日內入五百卷戊寅七月十三日 內

入 二百一卷十五張禮記五件印出所入合二千二百一卷十五張除實時在三百十卷五張

落幅紙陸軸伍張 大廳障子塗袴所入下己卯六月 日

自作板肆千玖百伍拾陸立庚辰三經四書開印時取用

壬辰九月各種紙地除腐傷從實數移付別置實數

·粉唐紙前在陸拾捌卷拾伍張

腐傷拾伍卷拾伍張

實伍拾參卷 移付別置

·毛面紙前在參拾柒卷陸張

別置前移去貳拾卷

腐傷參卷陸張

實拾肆卷 移付別置

·小毛面紙前在陸拾壹卷拾捌張

腐傷鼠破貳拾貳卷拾捌張

實參拾玖卷 移付別置

·太史紙前在捌百貳拾陸卷
 破傷參拾玖卷
 實柒百捌拾柒卷 移付別置
 ·嶺冊紙前在玖卷
 腐傷貳卷拾張
 實陸卷拾張 移付別置
 ·壯紙肆卷 移付別置
 寧邊紙前在肆拾壹卷
 ·伍卷 以別置完冊紙空印札伍卷前已相換 移付別置
 破傷貳張
 ·實參拾伍卷拾捌張內全張參拾卷玖張 移付別置裁折貳百拾捌張伍卷玖張
 ·白綿紙印札空冊貳卷 移付別置
 ·藁精紙前在肆拾伍卷拾陸張
 別置前移去拾卷 丁亥五月二十七日
 破傷拾貳張
 ·實參拾伍卷肆張 移付別置
 ·白紙前在參百拾卷伍張
 參拾卷 壺洞左議政宅取用追會減
 腐傷玖卷拾貳張
 ·實貳百柒拾卷拾參張內 印札空冊拾壹卷拾參張 移付別置
 官(押)
 (摛文院印 五六個處)

□

○ 현 상

『불설대보부모은중경판』은 목판, 동철판, 석판 등 세 종류가 있으며, 종류별로 수량과 내용이 다르다. 목판은 변상도(佛說大報父母恩重經圖), 과판(佛說大報父母恩重科判), 한문본(佛說大報父母恩重經), 국문본(불설대보부모은중경장) 등이 4판의 단면(4장)과 38판의 양면(76장)에 양각되어 있다. 동철판(변상도 7판)은 단면에 양각되어 있고, 석판(과판, 한문본 등 24판)은 단면에 음각되어 있다. 그러므로 전체 경판의 수는 목판(42판), 동철판(7판), 석판(24판) 등 73판이며, 장수로는 111장이 된다.

목판은 정조 20년(1796) 5월에 제작되었고, 석판은 1796년부터 1799년 사이에 조

성되었다. 동철판 역시 이 시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목판에는 마구리가 있으나 동철판에는 없다. 전체 경판의 보존 상태는 온전하다.

○ 내용 및 특징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은 한없는 부모의 은혜에 대한 보은과 멸죄를 설명한 불전이다. 줄여서 『부모은중경』 또는 『은중경』이라고 한다. 이 불전은 “불설”이라는 관제와는 달리 후대에 찬술된 僞經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사경과 판본이 일본과 국내에 전하는 등 비교적 중요시 여긴 불경이다. 이 경은 정조가 「恩重偈廣載軸」에서 말하였듯이 “조상에 대한 보은과 인륜을 돈독하게 하는 유교의 뜻과 표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들어서도 80여회나 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용주사에 소장된 세 종류의 『불설대보부모은중경판』은 정조가 부모의 은혜를 기리기 위해 간행한 것이다. 목판과 동철판에 양각된 「불설대보부모은중경도」는 如來頂禮 등 14종의 제명 아래 그에 해당하는 변상도가 있다. 이전의 판본과 대비하면, 유교적 관념에 배치되는 변상도는 제외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동철판은 목판의 도각 흔적까지 복제해 놓은 듯 목판과 거의 동일한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경판의 글씨에 대해 이능화는 『조선불교통사』에서 “영의정 채제공이 썼다.”³¹⁾고 하였으나 후 당대의 명필가인 黃運祚(1730~1800)가 경판을 조성하기 한 해 전인 1795년에 “왕명으로 은중경을 써서 바쳤다.”³²⁾는 기록도 있으므로 향후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변상도는 당대 최고 수준의 圖畫署 화원이 그린 것으로 판단된다. 판식은 사주쌍변, 반엽은 8행 16자, 판심 상단에는 대형의 내향 흑어미가 있다.

이 경판들은 목판과 석판의 권미에 “歲柔逃執徐(丙辰)仲夏開」印藏于花山龍珠寺”라는 간행기록이 있어 이 경판들이 병진년인 정조 20년(1796)에 조성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주자소응행절목』의 책판 조에는 이 경판의 완성 시기와 이전에 관련된 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恩重經圖鐵板七板(丙辰造成內入) 經文十三板 圖五板 諺解二十五板 祈福偈九板(丙辰造成下送花城龍珠寺) 恩重經眞言大板一板 小板一板(丙辰造成) … 恩重經石板二十四板(己未造成內入) 石板十二板(自原營上來恩重經用餘封置)”

이 기록을 따르면 철판(동철판) 7판, 경문(한문본) 13판, 도(변상도) 5판, 언해(국

31) 李能和, 朝鮮佛教通史(上), p.579, “命造佛說大報父母恩重經, 木鐵石三板本, 領議政蔡濟恭書之, 藏于華山之龍珠寺.”

32) 宋煥箕 著, 性潭先生集. 卷21. 墓碣. ‘道谷黃公墓碣銘(并序)’. “乙卯(1795)承命書進恩重經.”

문본) 25판, 『기복계』 9판, 『은중경진언』 대판 1판과 소판 1판 등은 병진년(1796)에 조성되어 주자소에 납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경문(한문본) 13판, 도(변상도) 5판, 언해(국문본) 25판과 『기복계』 9판³³⁾ 등을 용주사에 내려 보낸 것이다. 그런데 『주자소응행절목』에는 석판 24판은 이보다 3년 뒤인 기미년(1799)에 조성되어 납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전하는 석판의 제24판에는 목판과 같이 정조 20년(1796)에 조성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주자소응행절목』의 기록도 신빙성이 있으므로 석판은 1796년부터 1799년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보는 편이 타당할 것 같다.

현재 용주사에는 한문본 17판, 국문본 25판 등의 목판과 동철판 7판, 석판 24판 등이 전하고 있다. 『주자소응행절목』에는 동철판 7판과 석판 24판에 대한 移送 기록은 없으나 이들도 이 시기에 용주사에 내려 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용주사에 현전하는 목판 한문본은 모두 17판이므로 18판을 보냈다는 『주자소응행절목』의 기록과는 1판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현전하는 한문본과 변상도는 <표 1>에서 보듯이 서로 구분하지 않고 순서도 없이 판각해 놓았다. 곧 변상도와 과판 그리고 한문본 등을 한 묶음으로 판각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문본과 변상도를 장수로 구분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다. 또한 현전하는 경판의 내용 중에 결락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주자소응행절목』에 기록된 18장은 17장의 오류가 아닌가 한다.

<표 1> 목판의 구분 및 판각순서³⁴⁾

구분	판각순서
변상도, 과판 및 한문본(17판)	(도1·한3), (도2·도6), (도3·한5), (도4·과1), (도5·한4), (도7·한1), (과2·한10), (한2·한16), (한6·한17), (한7·×), (한8·한19), (한9·한11), (한12·한18), (한13·×), (한14·한22), (한15·한20), (한21·×)
국문본(25판)	(국1·국2), (국3·국4), (국5·국6), (국7·국8), (국9·국49), (국10·×), (국11·국12), (국13·국14), (국15·국16), (국17·국18), (국19·국20), (국21·국22), (국23·국24), (국25·국26), (국27·국28), (국29·국30), (국31·국32), (국33·국34), (국35·국36), (국37·국38), (국39·국40), (국41·국42), (국43·국44), (국45·국46), (국47·국48)

○ 문헌자료

『불설대보부모은중경』. 용주사소장 영인본.

『불설대보부모은중경』,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다수.

『주자소응행절목』 (『한국의 책판목록·하』, 서울, 보경문화사, 1995).

『홍재전서』 권182.

33) 기복계 9판은 권말의 “予卽祚二十年乙卯(1795)仲夏”와 같이 1795년 5월에 조성되었음.

34) “도”는 변상도, “과”는 과문, “한”은 “한문본”, “국”은 국문본을 일컬음. 굵은 글씨는 구분이 필요한 경우임.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송환기, 『성담선생집』. 권21.
이능화, 『조선불교통사(상)』, 서울, 보림각, [1972].
박상국, 『전국사찰소장목판집』, 문화재관리국, 1987.
조순향, 「용주사판 부모은중경연구」, 『경기대학교논문집』 22집, 1988.
이혜경, 「정조시대 판본 연구」, 『미술사연구』 20집, 2006.



○ 현 상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목판, 동판, 석판.

○ 서지사항

佛說大報父母恩重經版. [正祖 命製作]. 木版·銅鐵版·石版. [漢城] [正祖 20-23(1796~1799) 推定].

73판(木版 42版, 銅鐵版 7版, 石版 24版), 變相圖, 四周雙邊, 半郭 22.0×16.0cm, 有界, 8行16字 註雙行, 花口, 上內向黑魚尾 ; 32.5×21.2cm. 楮紙. 線裝.

表題: [佛說大報父母]恩重經[版]

卷頭題: 佛說大報父母恩重經[版], 불설대보부모은중경[版]

版心題(花口): 恩重經·恩重經諺解

卷末刊記: 歲柔逃執徐(丙辰, 1796, 正祖 20)仲夏開/印藏于花山龍珠寺 (木版·石版 同一)

○ 내용 및 특징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은 부모의 은혜가 深重함을 說하여 유교적으로 변용된 불전의 하나로서 중국·한국·일본에서 불교를 받아들인 태도를 알 수 있게 하는 자료가 되어 부모은중경 또는 은중경으로 약칭하기도 한다.

원래는 불교경전이었던 것이 도중에 유교적으로 변용되어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말 부터 조선에 이르는 시기에 특유한 삽화를 곁들인 판본이 많이 간행되고 조선 중기 이후에는 언해본이 간행되기도 하였다.

용주사 佛說大報父母恩重經板은 목판, 동철판, 석판의 세 종류가 있다. 목판은 변상도, 科判, 한문본, 국문본 등이 양면으로 양각되어 있으며, 동철판은 변상도 7판이 단면에 양각되어 있다. 특히 목판의 刀刻 형태까지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석판은 과판과 한문본 등으로 단면에 음각되어 있다.

정조는 부모의 은혜를 기리는 뜻에서 寶鏡스님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체제로 편찬한 恩重經을 판각 印施하여 널리 유포시키고자 하였다. 한문과 순 한글을 병기하여 간행하도록 하였는데 변상도는 당시의 우수한 도화서 화원이 그렸을 것으로 추정되며, 글씨는 蔡濟恭으로 하여금 정서본을 한문과 한글을 따로 쓰게 하였다 (『樊巖集』 卷59 雜著). 판식은 四周雙邊이며, 界線이 있고. 반엽을 기준으로 목판의 세로는 31.5cm이며, 가로는 53.5cm로 되어 있다. 행자수는 8행으로 매행 16자씩 되어 있다. 판심에는 상혹어미가 하향하고 있으며, 아래쪽에 張次가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상어미 위쪽에 ‘恩重經’이란 花口가 있는데 如來頂禮, 懷耽守護恩, 臨產受苦恩, 生子忘憂恩, 咽苦吐甘恩, 回乾就濕恩, 乳哺養育恩, 洗濁不淨恩, 遠行憶念恩, 爲造惡業恩, 究竟憐愍恩, 周遶須彌, 阿鼻墮苦, 上界快樂 등의 변상도이다. 용주사판은 한문 외에 한글로 동시에 간행되었으며, 또한 한문본은 목판에 판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石版으로도 간행되었다. 특히 변상도의 경우는 銅鐵版으로 구조되어 판심의 대상되고 있다. 목판과 석판의 말미에는 歲柔逃執徐(丙辰, 1796)仲夏開 印藏于花山龍珠寺’라는 간행기록이 있어 이 경판들이 병진년인 1796년에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자소응행절목』의 冊版條에는 철판 7판, 經文 13판, 圖 5판, 諺解 25판, 祈福偈 9판 등은 병진년(1796)에 조성되어 용주사에 보내졌고, 恩重經眞言 大板 1판, 小板 1판 등도 병진년(1796)에 조성되었다. 그리고 은중경 석판 24판은 기미년(1799)에 조성되어 납입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전하는 용주사 석판은 1796년에 조성된 것으로 되어 있어 차이가 나므로 1796~1799년에 조성된 것으로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 문헌자료

「鑄字所應行節目」, 『한국의 책판목록』 下, 서울, 보경문화사, 1999.
 蔡濟恭, 『樊巖集』 卷59, 雜著

○ 기 타

용주사 효행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음.

10. 양휘산법(楊輝算法)

가. 심의사항

“양휘산법”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양휘산법”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0.06.16)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1.09.08)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은 현지조사자 3인 이상이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문화재로 본 위원회 2011년도 제6차 회의('11.12.13)에서 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 30일간 지정 예고('11.12.23~'12.01.22)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양휘산법(楊輝算法)
- 소유자(관리자) : 안숙자(홍명순)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수 량 : 7권 1책
- 규 격 : 34.0cm × 21.5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木版本)
- 형 식 : 선장본(線裝本)
- 제작연대 : 1443년(세종 15) 경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調査本「楊輝算法」은 중국의 楊輝(1238~1298)가 저술한 <乘除通變算寶·法算取用本末>(3권)·<續古適奇算法>(2권) 및 <田畝比類乘除捷法>(2권) 등 도합 7권 1책의 수학서적으로 朝鮮 世宗 15년(1433) 이전에 中國 元朝의 木版本을 翻刻한 版에서 後印한 것으로 추정되는 木版本이다.

調査本「楊輝算法」은 조선시대 算學의 基本書로 조선시대의 數學研究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또한 세종조(1418~1450)에 元本을 底本으로 하여 세종 15년(1433)에 국내에서 「楊輝算法」을 新刊하기 이전인 세종 초기에 翻刻한 版本이라는 점에서 국내에 전래되고 있는 「楊輝算法」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版本인 듯하다. 따라서 調査本「楊輝算法」은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調査本「楊輝算法」은 後印本이라 印出狀態는 그다지 양호하지 않고 多數張에 磨滅·汚損이 있으므로 專門機關이나 匠人에 의한 再補修 및 保存處理가 요망되며, 또한 현재 관리자 홍명순에 의하여 아무런 시설이 없는 개인 주택에서 維持·管理되고 있으므로 문화재의 상태로 보아 專門機關이 受託하여 維持·管理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 (지정 가치 있음)

우리나라에서 『宋楊輝算法』이 처음 간행된 때는 세종 15년(1433)으로 『실록』에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현재 그 당시 간기가 남아서 확인된 책이 일본의 宮內廳 書陵部, 일본 尊經閣에 각각 1건씩 있으며, 국내에서는 고려대 도서관 1건, 개인소장가로 신영길씨가 1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고려대 본도 조사본과 마찬가지로 경주 간행 간기 부분이 결락된 것으로 보인다. 경주 간행된 책판을 바탕으로 1433년 이후 수십년 이내의 조선 전기에 인쇄한 것으로 추정되는 목판본이며 傳本이 희귀한 貴重本이다.

이 책은 주판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算木計算의 방법으로 加, 減, 乘, 除를 소개하고 있으며, 특히 魔方陳에 대한 권위서로서 세종 당시 산학의 필수 과목이었으므로 문헌자료로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각 권의 목록 끝에 ‘洪武戊午冬至 勤德書堂新刊’ 또는 ‘古杭余氏 勤德書堂刊行’의 이라는 중국 刊記가 그대로 남아 있어 홍무 11년(1378)에 明代 杭州지역에 있던 민간인쇄소인 근덕서당에서 간행한 이후에 1433년 慶州에서 번각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중국본을 번각한 판본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양회산법』 중 가장 오래된 책이라는 점에서 서적교류사, 역사학, 서지학적 의의가 크며, 현재 중국에서도 거의 전해지지 않고 있어 희소성이 크다.(최근 2010년에 대만 국립고궁박물관의 남송특별전에서 경주 간본이 1건 전시된 적이 있다.)

이번에 조사된 『宋楊輝算法』은 동일본이 문화재로 지정된 적이 없다. 인쇄와 보관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현재 중국에서도 거의 전해지고 있지 않는 책이라는 것과 지금까지 알려진 간본 중 가장 오래된 목판본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편제면과 권말의 경주부 간기 등이 있는 면이 결락되어 있으나 국외 소장본이나 국내 개인 소장의 동일본으로 그 간행시기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할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양휘산법』은 남송의 양휘가 저술한 수학서적으로 『승제통변산보(乘除通變算寶)』 3권, 『속고적기산법(續古摘奇算法)』 2권 및 『전무비류승제첩법(田畝比類乘除捷法)』 2권 등 모두 7권 1책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양휘산법』이 최초로 간행된 것은 『세종실록』에 의하여 1433년임이 확인되는데, 이 책은 중국에서 간행한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번각한 판에서 1433년(세종 15) 이전에 후인한 판본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원간기와 간행소가 명시되어 있는 등 중국본의 서지학적 특징이 잘 남아있다. 특히 조선시대의 算學 전문인의 선발을 위한 시험에 필수 과목이어서 조선시대 과학사, 특히 수학교육사 및 서지학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조선시대 算學의 기본서로 국내에 전하는 『양휘산법』 중 가장 오래된 목판본일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알려진 것 중 最古本에 해당하는 판본이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되어야 한다.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보물로 지정함.

조사보고서

□

○ 현 상

□ 書誌記述 : 調査本 「楊輝算法」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楊輝算法 / 楊輝(南宋, 1238~1298) 著. -- 木版(中國木版翻刻)後刷本. -- [發
行地不明]: [發行處不明], [世宗 15(1433) 以前 翻刻의 後刷本 推定].

乘除通變算寶 3卷，續古摘奇算法 2卷，田畝比類乘除捷法 2卷 合 7卷1冊：表，插圖，四周雙邊，半郭 22.3×16.1cm，有界，15-16行25字 內外，上大黑口，上下內向1·2·3混葉花文·黑魚尾；34.0×21.5cm. 楮紙. 線裝(改裝).

表題：楊輝算法

卷首題：乘除通變算寶，法算取用本末，續古摘奇算法，田畝比類乘除捷法

卷末題：乘除通變算寶，法算取用本末，續古摘奇算法，田畝比類乘除捷法

版心題：乘除通變，算用，續古，法

附帶事實：四角朱色스탬프; <登錄文化財/ 登錄番號 133/ 登錄年月日 '71. 8. 19/ 登錄物品 典籍/ 摘要 1433年/ 整理年月日 '71. 9. 29.>이 楊輝算法序文首面(133), 乘除通變算寶卷中首面(133-2), 法算取用本末卷下首面(133-3), 續古摘奇算法目錄首面(133-4), 續古摘奇算法卷下首面(133-5), 田畝比類乘除捷法目錄首面(133-6), 田畝比類乘除捷法卷下首面(133-7) 등 7처에 날인되어 있다.

內容：<序>; 夫六藝之設…幸勿罪其僭 歲德祐改元(1275)冬至壬辰日錢塘楊輝謹識. <序>; 夫算之數…以遠其傳 咸淳甲戌(1274)夏至錢塘楊輝序，木記(謙光)，印文(晚山/書院). <序>; 爲田畝算法者…庶少裨汲引之梯徑云爾 歲在乙亥德祐改元(1275)小節錢塘楊輝謹序，木記(謙光)，印文(晚山/書院)

<乘除通變算寶>; 目錄(目錄末刊記; 洪武戊午(1378)冬至/勤德書堂新刊). -卷上; 習算綱目(乘除加減用法，因乘損三法則一，乘除加減定法)，相乘法(單因，重因，身前因，相乘，重乘，損乘)，商除二法(實多法少，實少法多). -卷中; 加術五法(加一位，加二位，重加，加隔位，連身加)，減術四法(減一位，減二位，減加，減隔位)，求一乘法(五六七八九可倍，五六七八九不倍，二三須折半，二三不可折半，遇四兩折紐，遇四不可折紐)，求一除法(五六七八九可倍，五六七八九不倍，二三須折半，二三不可折半，遇四兩折紐，遇四不可折紐)，九歸新舊題括(八十二歸，六十九歸)，算無定法(以括揆數，無括揆數，定位捷徑). -卷下; 代乘成術一至三百，代除成術一至三百.

<續古摘奇算法>; 目錄. -卷上; 縱橫圖(洛書數，河圖數，四四圖，五五圖，六六圖，七七圖，六十四圖，九九圖，百子圖，聚五圖，聚六圖，聚八圖，聚九圖，八陣圖，連環圖)，箭管術五問(三五七數，七八九數，十一十二十三，二五七九)，六十甲子內音，求年內日甲，地支逢宿，甲子逢宿，三女歸盟，倍息一月，正斛法，量倉佚，諸田不求積歲竟答畝數，開河定日，共買紗絹，買果求停. -卷下; 雉兔同籠，綾羅隱價，三雞析直，三果共價，三酒分身，方金求重，開河問積，乘除代換，河上蕩桮，兵士支絹，定率求差，二七差分，引繩量木，賊引盜絹，方圓總論，關方不盡法，度影量竿，以表望木，隔水望木.

卷末刊記(古杭余氏勤德書堂)

<田畝比類乘除捷法>; 目錄(目錄末刊記; 洪武戊午(1378)冬至/勤德書堂新刊). -卷上; 步法直田, 比斤疋斛, 直田步下帶尺, 比斤兩疋尺, 直田步下帶寸, 比斤兩銖疋尺寸, 方里田, 比方圍箭, 圓田, 畹田比牛角丘田, 環田, 比方箭圓箭, 圭田, 比勾股梭田, 梯田, 比田堞圍. -卷下; 桑牆四不等田, 截直田, 差步問長闊和, 和步問長闊差, 直田演段, 共積分方經, 截圭梯環圓田, 錢田.

墨書: 松故

冊末: <刊年攷>; 王朝實錄世宗十五年癸丑(1433)八月乙巳條曰景狀監司進新刊/ 宋楊輝算法一百件分賜集賢殿戶曹書雲觀習算局/ 按尙州本慶尙道先生案則當時監司通政大夫前刑曹右參議辛引孫/ 也 辛引孫靈山人刑判藝文館提學.

狀態: 後印本이라 印出狀態가 좋지 않고 多數張에 磨滅·汚損이 있어 專門的 保存處理 要望.

□ 現狀 : 調査本 「楊輝算法」은 중국의 楊輝(1238~1298)가 저술한 <乘除通變算寶·法算取用本末>(3권)·<續古適奇算法>(2권) 및 <田畝比類乘除捷法>(2권) 등 도합 7권 1책의 수학서적으로 朝鮮 世宗 15년(1433) 이전에 中國 元朝의 木版本을 翻刻한 版에서 後印한 것으로 추정되는 木版本이다.

調査本 「楊輝算法」의 表題는 ‘楊輝算法’이나 卷首題와 卷末題는 ‘乘除通變算寶’·‘法算取用本末’·‘續古適奇算法’·‘田畝比類乘除捷法’ 등이며 版心題는 ‘乘除通變’·‘算用’·‘續古’·‘法’ 등이다. 本文에는 表와 插圖 등이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으며, 版式의 邊欄은 四周雙邊이고 半郭의 크기는 세로 22.3cm 가로 16.1cm 內外이며, 계선이 있고 每行 15~16行25字 內外이다. 版口는 上大黑口이고 魚尾는 上下內向1·2·3混葉花文 또는 黑魚尾이다. 冊의 크기는 세로 34.0cm 가로 21.5cm 內外이다. 紙質은 楮紙이며, 表紙의 裝訂은 五針眼訂의 線裝으로 改裝되어 있다.

調査本 「楊輝算法」에는 7처에 걸쳐 四角朱色스탬프를 찍어 기록한 <登錄文化財/ 登錄番號 133/ 登錄年月日 '71. 8. 19/ 登錄物品 典籍/ 摘要 1433年/ 整理年月日 '71. 9. 29.> 등의 부대사실이 있는데, ‘楊輝算法序文首面(133)’, ‘乘除通變算寶卷中首面(133-2)’, ‘法算取用本末卷下首面(133-3)’, ‘續古適奇算法目錄首面(133-4)’, ‘續古適奇算法卷下首面(133-5)’, ‘田畝比類乘除捷法目錄首面(133-6)’, ‘田畝比類乘除捷法卷下首面(133-7)’ 등의 7처에 捺인·기록되어 있다. 이는 1971년에 文化財管理局의 登錄文化財 일제조사를 통하여 등록되었던 典籍文化財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 내용 및 특징

調査本 「楊輝算法」은 <乘除通變算寶上·乘除通變算寶中·法算取用本末下>(3권, 1274), <續古適奇算法上·續古適奇算法下>(2권, 1275) 및 <田畝比類乘除捷法上·田畝比類乘除捷法下>(2권, 1275) 등 도합 7권을 1책으로 엮은 수학서이다.

「楊輝算法」은 일용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乘除通變算寶·法算取用本末>에서는 승제법 계산이 어떤 성질의 것인지에 관하여 밝히고 그것을 간단히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였고, <續古適奇算法>에서는 비근한 문제로부터 전해진 것을 소개하였으며, <田畝比類乘除捷法>에서는 당시의 지배자가 가장 중시한 田制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등 각각 그 특색을 달리하고 있다. 「經國大典」의 考試科目에서도 「詳明算」, 楊輝의 「楊輝算」 및 「啓蒙算」으로 기록될 만큼 安止齊(明)의 「詳明算」 및 朱世傑의 「啓蒙算」과 더불어 조선시대 算學의 기본 서적이었다.

현재 국내에서 공개된 「楊輝算法」은 몇몇 筆寫本이 도서관에 전할 뿐이며, 우리나라에서 「楊輝算法」이 처음으로 刊印된 기록은 「世宗實錄」에 전한다. 곧 세종 15년(1433) 8월 25(을사)일에 “慶尙道 監司가 새로 인쇄한 宋朝의 「楊輝算法」 1백권을 진상하므로 集賢殿과 戶曹와 書雲觀의 習算局에 나누어 하사하였다.”³⁵⁾고 기록하고 있다. 당시에 간행된 것 중의 일부가 日本의 養安院과 尊經閣 및 宮內廳 書陵部(4권 3책, 청구기호:404-17) 등에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調査本 「楊輝算法」에는 “夫六藝之設…幸勿罪其僭 歲德祐改元(1275)冬至壬辰日 錢塘楊輝謹識”, “夫算之數…以遠其傳 咸淳甲戌(1274)夏至錢塘楊輝序”, “爲田畝算法者…庶少裨汲引之梯徑云爾 歲在乙亥德祐改元(1275)小節錢塘楊輝謹序” 등 3종의 原序가 기록되어 있고 ‘謙光’의 木記와 ‘晚山/書院’의 印文이 있다. 또한 <乘除通變算寶>의 目錄末에는 “洪武戊午(1378)冬至/勤德書堂新刊”, <續古適奇算法>의 卷末에는 “古杭余氏勤德書堂”, <田畝比類乘除捷法>의 目錄末에는 “洪武戊午(1378)冬至/勤德書堂新刊” 등의 原刊記가 나타나고 있어, 중국에서의 元本은 洪武 11년(1378, 우왕 4)에 勤德書堂에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調査本 「楊輝算法」은 조선 세종조(1418~1450)에 元本을 底本으로 하여 세종 15년(1433)에 국내에서 「楊輝算法」을 新刊하기 이전인 세종 초기에 翻刻한 版本이 아닌가 한다.

調査本 「楊輝算法」의 <乘除通變算寶>에는 目錄에 이어 卷上에는 ‘乘除加減用法’·‘因乘損三法則一’·‘乘除加減定法’의 <習算綱目>, ‘單因’·‘重因’·‘身前因’·‘相乘’·‘重乘’·‘損乘’의 <相乘六法>, ‘實多法少’·‘實少法多’의 <商除二法> 등이 수록되어 있고 卷中에는 ‘加一位’·‘加二位’·‘重加’·‘加隔位’·‘連身加’의 <加術五法>, ‘減一位’·‘減二

35)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世宗 15年 8月 25(乙巳)日條.
慶尙道監司進新刊宋楊輝算法一百件 分賜集賢殿·戶曹·書雲觀習算局.

位·‘減加’·‘減隔位’의 <減術四法>, ‘五六七八九可倍’·‘五六七八九不倍’·‘二三須折半’·‘二三不可折半’·‘遇四兩折紐’·‘遇四不可折紐’의 <求一乘法>, ‘五六七八九可倍’·‘五六七八九不倍’·‘二三須折半’·‘二三不可折半’·‘遇四兩折紐’·‘遇四不可折紐’의 <求一除法>, ‘八十二歸’·‘六十九歸’의 <九歸新舊題括>, ‘以括揆數’·‘無括揆數’·‘定位捷徑’의 <算無定法>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卷下에는 <代乘成術一至三百>, <代除成術一至三百> 등이 수록되어 있다.

調査本 「楊輝算法」의 <續古摘奇算法>에는 目錄에 이어 卷上에는 ‘洛書數’·‘河圖數’·‘四四圖’·‘五五圖’·‘六六圖’·‘七七圖’·‘六十四圖’·‘九九圖’·‘百子圖’·‘聚五圖’·‘聚六圖’·‘聚八圖’·‘聚九圖’·‘八陣圖’·‘連環圖’의 <縱橫圖>, ‘三五七數’·‘七八九數’·‘十一十二十三’·‘二五七九’의 <箭管術五問>, <六十甲子內音>, <求年內日甲>, <地支逢宿>, <甲子逢宿>, <三女歸盟>, <倍息一月>, <正斛法>, <量倉佚>, <諸田不求積歲竟答畝數>, <開河定日>, <共買紗絹>, <買果求停>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卷下에는 <雉兔同籠>, <綾羅隱價>, <三雞析直>, <三果共價>, <三酒分身>, <方金求重>, <開河問積>, <乘除代換>, <河上蕩楫>, <兵士支絹>, <定率求差>, <二七差分>, <引繩量木>, <賊引盜絹>, <方圓總論>, <關方不盡法>, <度影量竿>, <以表望木>, <隔水望木> 등이 수록되어 있다.

調査本 「楊輝算法」의 <田畝比類乘除捷法>에는 目錄에 이어 卷上에는 <步法直田>, <比斤疋斛>, <直田步下帶尺>, <比斤兩疋尺>, <直田步下帶寸>, <比斤兩銖疋尺寸>, <方里田>, <比方圍箭>, <圓田>, <畹田比牛角丘田>, <環田>, <比方箭圓箭>, <圭田>, <比勾股梭田>, <梯田>, <比田塚圍>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卷下에는 <桑牆四不等田>, <截直田>, <差步問長闊和>, <和步問長闊差>, <直田演段>, <共積分方經>, <截圭梯環圓田>, <錢田> 등이 수록되어 있다.

調査本 「楊輝算法」의 末張의 裏面에는 “王朝實錄世宗十五年癸丑(1433)八月乙巳條曰景狀監司進新刊/ 宋楊輝算法一百件分賜集賢殿戶曹書雲觀習算局/ 按尙州本慶尙道先生案則當時監司通政大夫前刑曹右參議辛引孫/ 也 辛引孫靈山人刑判藝文館提學” 이라 하여 본 서적을 거래할 때 적은 것으로 보이는 <刊年攷>라는 쪽지가 붙어 있다. 그 내용은 「世宗實錄」에 수록되어 있는 「楊輝算法」 관련기사의 원문을 옮겨 놓고 ‘당시의 慶尙監司는 尙州本の 「慶尙道先生案」에 의하면 石泉 辛引孫(1384~1445)으로 본관은 靈山이고 刑曹判書와 藝文館提學을 역임한 인물’임을 밝혀 놓고 있다.

調査本 「楊輝算法」은 조선시대 算學의 基本書로 조선시대의 數學研究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또한 세종조(1418~1450)에 元本을 底本으로 하여 세종 15년(1433)에 국내에서 「楊輝算法」을 新刊하기 이전인 세종 초기에 翻刻한 版本이라는 점에서 국내에 전래되고 있는 「楊輝算法」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版本인 듯

하다. 따라서 調査本 「楊輝算法」은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문헌자료

- 楊輝 著, 楊輝算法. 木版(中國木版翻刻)後刷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世宗 15(1433) 以前 翻刻의 後刷本 推定]. 안숙자 所藏本.
- 서울시 編, <「양휘산법」 國家指定申請書 關聯書類>. 서울 : 서울시문화관광과, 2010. (辛承云·宋日基·이완우·오용섭 諸教授의 調査內容)
- 국가기록유산: <<http://www.memorykorea.go.kr/>>

○ 기 타

□ 關聯人物 :

• 楊輝(南宋, 1238~1298): 중국 남송시대의 걸출한 數學者이며 數學教育者로 字는 謙光이고 漢族이며 오늘날의 杭州인 錢塘人이다. 중국 고대의 수학자요 수학 교육자이나 전기와 행력은 자세치 않다. 현존하는 문헌기록으로 추측하건대 그는 남송의 지방행정관원을 역임하면서 爲政이 清廉하였으며 그의 足跡은 蘇州와 杭州의 일대에 두루 미쳤던 듯하다. 그는 세계 제일의 풍부한 <縱橫圖>와 그 구성의 원리를 설명한 수학자였으며, 秦九韶·李治·朱世杰과 함께 宋元대의 數學 4대가로 칭송되고 있다. 그가 저술한 수학서는 「詳解九章算法」(12권, 1261년), 「日用算法」(2권, 1262년), 「乘除通變本末」(3권, 1274년, 제3권은 他人과 合編), 「田畝比類乘除捷法」(2권, 1275년), 「續古摘奇算法」(2권, 1275년, 他人과 合編) 등 5종 21권에 이르며, 그 중 「乘除通變本末」·「田畝比類乘除捷法」·「續古摘奇算法」의 3종은 그의 생애 후기의 저술로 일반적으로 「楊輝算法」으로 통칭되고 있다. 그는 수학교육의 普及과 發展을 매우 중시하였으며, 「算法通變本末」 속에 포함되어 있는 初學者를 위한 그의 <習算綱目>은 중국 수학교육사상 매우 중요한 문헌이다.

• 辛引孫(1384~1445): 조선시대 초기의 文臣으로 本貫은 靈山이고 字는 祚胤이며, 號는 石泉이고 諡號는 恭肅이다. 부친은 辛有定이고 어머니는 薛崇의 따님이다. 태종 8년(1408)에 式年文科에 同進士로 급제하여 벼슬이 兵曹判書·大提學에 까지 올랐다. 처음에 史官에 보임되고 태종 13년(1413)에 承政院注書에 전임되어 항상 여러 大君과 함께 經典과 「史記」를 강론하였다. 세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그를 각별히 대접하여 蘭竹屏風을 친히 그려주었다. 이어 禮曹正郎에 오르고 세종 2년(1420)에 舍人, 세종 10년(1428)에 執義, 세종 12년(1430)에 宗簿寺判事 겸 刑曹知事, 세종 14년(1432)에 左司諫大夫가 되고 곧 刑曹右參議가 되었다가 다시 慶尙

道觀察使가 되었다. 세종 16년(1434)에 兵曹左參議가 되고 이내 承政院右承旨를 거쳐 都承旨에 승진하였다. 세종 20년(1438)에 兵曹參判, 세종 26년(1444)에 漢城府判事·兵曹判書에 이르렀다. 세종 27년(1445)에 藝文館大提學에 임명되었으나 病으로 취임하지 못하였고, 母親喪을 당하여 슬퍼한 나머지 몸이 쇠약해지고 병도 깊어 享年 62세로 卒去하였다. 성질이 강직하고 아첨하지 못하며, 남의 과실을 보면 참지 못하고 기탄없는 말로 내쳤다. 글씨에도 뛰어났다.



○ 내용 및 특징

이 책의 내용은 乘除通變算寶 3권(算法通變本末, 乘除通變算寶, 法算取用本末), 續古摘奇算法 2권, 田畝比類乘除捷法 2권 등 총 7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乘除通變算寶 중에 상권인 算法通變本末에는 上乘과 下乘에 관한 곱셈의 기본규칙과 곱하는 수와 곱해지는 수 사이에 1 이외의 공약수가 존재할 경우 등 곱셈의 기초에 관한 계산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간단한 나눗셈을 다루었다. 乘除通變算寶의 중권인 乘除通變算寶에서는 加一位法, 加二位法, 減術四法 등을 다루었으며, 하권인 法算取用本末에서는 1부터 300까지의 범위에서 곱셈과 나눗셈의 계산법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續古摘奇算法은 洛書數, 河圖數, 四四圖, 五五圖 등을 내용으로 한 ‘縱橫圖’로 시작하는데, 특히 魔方陣(자연수를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나열해 가로·세로·대각선의 합이 모두 같아지는 것)에 대한 권위서로 잘 알려져 있다. 마방진에 관한 내용과 행정적인 문제를 동시에 수록하고 있었으므로 大夫와 중인 사이에도 널리 보급되었다. 田畝比類乘除捷法은 농지측량, 고차방정식에 대해 소개하였다.

卷首에는 모두 양휘의 서문으로 咸淳甲戌(1274)에 작성된 것과 德祐乙亥(1275)에 작성된 것이 있다. 그 다음에 ‘乘除通變算寶目錄’이 있다. 目錄 뒤에 ‘洪武戊午(1378)冬至 勤德書堂新刊’의 木記가 있다. 본문은 크게 乘除通變算寶, 續古摘奇算法, 田畝比類乘除捷法の 3개의 장으로 나뉘는데 본문의 시작은 乘除通變算寶의 하위 제목으로 권수제가 ‘算法通變本末’인 내용이 시작된다. 그리고 乘除通變算寶의 두 번째 하위제목인 ‘乘除通變算寶’, 세 번째 하위 제목인 ‘法算取用本末’이 순서대로 나타난다. 각 권 서명 다음에 ‘錢塘(지금의 중국 절강성 杭州)楊輝史仲榮編集’이 표시되어 이 책이 楊輝의 찬술임을 밝혀놓았다. 두 번째 장인 ‘續古摘奇算法’에 다시 목록이 있으며, 목록의 뒤에는 ‘古杭余氏 勤德書堂刊行’의 木記가 있다. 세 번째 장인 ‘田畝比類乘除捷法’에도 목록과 함께 뒤에는 또한 ‘洪武戊午冬至勤德書堂新刊’의 木記가 있다.

‘洪武戊午冬至 勤德書堂新刊’이라는 중국 간기를 통하여 明代 杭州지역에 있던

민간인쇄소인 근덕서당에서 새로 간행한 판본을 바탕으로 변각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경국대전』에는 算學의 고시과목으로 『詳明算』, 『楊輝算』, 『啓蒙算』이 명기되어 있으며, 조선 전기 산학의 기본 서적으로 쓰인 책임을 알 수 있다.

○ 근거 기준

조사본 『宋楊輝算法』과 동일한 판본은 일본의 궁내청 서릉부에 1건, 일본 尊經閣에 1건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고려대 도서관 1건, 개인소장가로 신영길씨가 1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인영의 『淸芬室書目』에서도 이 책을 소개하고 있으며 乘除通變算寶三卷, 田畝比類乘除捷法二卷, 續古摘奇算法二卷 三冊으로 분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분실 소장본에도 권말에 ‘前通善郎 寧海都護府 儒學教授官 朴彧跋’과 ‘宣德八年癸丑五月日 慶州府板刊’의 간기 및 ‘觀察黜陟使 通政大夫 工曹右參議 辛引孫’ 등의 간각자 列銜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을해자본 『攷事撮要』의 경주 책판조에 수록된 『宋楊輝算法』도 바로 이 책이다.

○ 문헌자료

조선왕조실록 세종61권, 15년 1433 계축 명 선덕8년 8월 25일 을사 경상도 감사가 새로 인쇄한 송양휘산법 1백권을 진상하므로 집현전과 호조와 서운관 습산국에 반사하였다.

慶尙道監司進新刊 宋楊輝算法一百件, 分賜集賢殿、戶曹, 書雲觀習算局。

□

○ 현 상

표지는 개장되었으며, 권두에 등록문화재 날인과 등록번호: 133, 등록년월일 : 1971년 8월 17일, 등록물품 : 전적, 적요 : 1433년, 정리 : '71.9.29이 기록되어 있음. 인쇄상태는 좋은 편이 아니나 비교적 온전함

서지사항:

楊輝算法 / 楊輝(南宋, 1238~1298) 著. 木版本. 世宗 15(1433) 以前

7卷1冊(乘除通變算寶 3卷, 續古摘奇算法 2卷, 田畝比類乘除捷法 2卷). 表, 插圖, 四周雙邊, 半郭 22.3×16.1cm, 有界, 15-16行25字 內外, 上大黑口, 上下內向 1·2·3混葉花文·黑魚尾; 34.0×21.5cm. 楮紙. 線裝.

表題: 楊輝算法

版心題: 乘除通變, 算用, 續古, 法

序: 夫六藝之設…幸勿罪其僭 歲德祐改元(1275)冬至壬辰日錢塘楊輝謹識.

夫算之數…以遠其傳 咸淳甲戌(1274)夏至錢塘楊輝序.

爲田畝算法者…庶少裨汲引之梯徑云爾歲在乙亥德祐改元(1275)小節錢塘楊輝
謹序.

目錄末刊記; 洪武戊午(1378)冬至/勤德書堂新刊.

冊末: 王朝實錄世宗十五年癸丑(1433)八月乙巳條曰景狀監司進新刊/宋楊輝算法一百
件分賜集賢殿戶曹書雲觀習算局/按尙州本慶尙道先生案則當時監司通政大夫
前刑 『전무비류승제첩법(田畝比類乘除捷法)』 曹右參議辛引孫/也辛引孫靈
山人刑判藝文館提學.

○ 내용 및 특징

양회산법은 남송의 양회가 저술한 수학서적을 모아 놓은 것이며, 『승제통변산보(乘除通變算寶)』 3권, 『속고적기산법(續古摘奇算法)』 2권 및 『전무비류승제첩법(田畝比類乘除捷法)』 2권 등 모두 7권 1책으로 되어 있다. 내용은 곱셈의 기본규칙과 곱셈 계산과 나눗셈의 계산법과 그리고 魔方陣 및 농지측량법 등을 다루었다. 『경국대전』에는 算學의 고시과목에 『상명산』, 『양회산』, 『계몽산』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책은 조선시대 算學의 기본 서적으로 쓰였다. 각 저작의 첫머리에는 「洪武戊午(1378, 고려 우왕4) 冬至勤德書堂新刊」이라는 원간기가 있다. 변각한 중국 원본의 1378년이라는 간행연대와 근덕서당이라는 간행소를 알 수 있다. 마지막 장 이면에는 “刊年攷”에 이어 4행의 글이 적힌 쪽지가 붙어 있다. 이 글은 책을 거래할 때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 『세종실록』에 있는 『양회산법』의 기사 원문을 옮겨 놓고, 당시 ‘경상도 감사는 상주의 선생안에 따르면 辛引孫이다.’ 라고 보충해 놓았다. 우리나라에서 『양회산법』이 처음 간행된 기록은 『세종실록』에 보인다. 세종 15년(1433) 8월 25일에 ‘경상도 감사가 새로 인쇄한 송나라의 『양회산법』 1백 권을 진상하므로, 집현전과 호조와 서운관의 習算局에 나누어 하사하였다’ 고 한다. 당시 간행된 100건 중의 한 건 (4권 3책)이 일본의 궁내청 서능부(청구기호:404-17)와 일본 尊經閣에 각각 1건씩 전하고 있고 국내는 고려대도서관과 개인소장자 신영길씨가 각각 1건씩 소장하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책은 중국 刊記를 통하여 근덕서당에서 새로 간행한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변각한 판에서 조선 1433년(세종 15) 이전에 후인한 판본으로 추정된다.

○ 문헌자료

『세종실록』

11. 김응남 호성공신 교서 및 관련 고문서 (金應南 扈聖功臣 教書 및 關聯 古文書)

가. 심의사항

“김응남 호성공신 교서 및 관련 고문서”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김응남 호성공신 교서 및 관련 고문서”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1.01.05)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1.09.08)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은 현지조사자 3인 이상이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문화재로 본 위원회 2011년도 제6차 회의('11.12.13)에서 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 30일간 지정 예고('11.12.23~'12.01.22)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김응남 호성공신교서 및 관련 고문서
(金應南 扈聖功臣教書 및 關聯 古文書)
- 소유자(관리자) : 김명호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수 량 : 공신교서 1축, 증서교지 1점
- 규 격 : 공신교서 세로 39.0cm × 가로 295.0cm
증서교지 세로 59.0cm × 가로 106.0cm
- 재 질 : 絹(교서), 壯紙(교지)
- 판 종 : 필사본
- 형 식 : 축, 날장
- 제작연대 : 공신교서 1604년(선조 37)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선조 37년(1604)에 扈聖功臣들에게 사급된 扈聖功臣敎書 및 錄券으로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은 <柳成龍扈聖功臣敎書>(보물 제160-11호), <高曦扈聖功臣敎書·扈聖功臣錄券>(보물 제739호), <李忠元扈聖功臣敎書>(보물 제874호), <沈岱扈聖功臣敎書>(보물 제1175호), <洪進扈聖功臣敎書>(보물 제1308호), <金良輔扈聖功臣錄>(서울시 유형문화재 제87호), <朴崇元扈聖功臣敎書>(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66호) 등이 있다.

調査文化財 <金應南扈聖功臣敎書 및 關聯 古文書> 중의 <金應南扈聖功臣敎書>는 賜給年代가 확실하고 朝鮮時代 功臣 및 人物의 연구에는 물론 朝鮮時代 中期의 制度史와 文化史의 研究에 귀중한 文獻資料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歷史的·學術的 價치는 매우 높다. 또한 敎書文의 製進者와 敎書文의 書寫者가 밝혀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여러 扈聖功臣敎書와 비교할 때 外面과 內面의 表裝, 軸頭의 形態, 多繪紐帶와 象牙針 등의 原型과 原粧이 비교적 완전한 形態로 유지되고 있어 扈聖功臣敎書의 形態的 典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金應南扈聖功臣敎書>는 國家文化財로 지정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調査文化財 <金應南扈聖功臣敎書 및 關聯 古文書> 중의 <贈諡敎旨>는 賜給 및 製作의 時期가 <扈聖功臣敎書>보다 훨씬 늦은 영조 29년(1753, 건륭 18) 4월 23(무신)일 무렵에 제작된 것으로 짐작된다.

○ (지정 가치 있음)

호성공신교서와 시호 교지 모두 보물로 지정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김응남의 호성공신교서 및 증서교지는 김응남의 傳記자료로 임진난사 연구의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古文書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현재 보물로 지정된 여러 호성공신교서 중에서도 1604년 책록 당시의 原粧을 잘 보존하고 있어 호성공신교서의 形態적 기준이 되고 또한 교서문을 지은 제진자와 교서문을 쓴 서사자가 적혀 있는 건수도 극히 희소하다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보물로 지정함.

조사보고서

□

○ 현 상

□ 書誌記述 : 調査文化財 <金應南扈聖功臣敎書 및 關聯 古文書>은 <金應南扈聖功臣敎書> 1점, <贈諡敎旨> 1점 등 도합 2점으로 그 書誌 및 形態의 記述은 다음과 같다.

(1) <金應南扈聖功臣敎書>

扈聖功臣敎書 / [錄勳都監 發給] ; 安大進(1561~?) 製 ; 吳靖(1579~1623) 書 ; [金應南(1546~1598) 受給]. -- 筆寫本. -- [漢城] : [錄勳都監], [宣祖 37(1604) 推定].

1軸 : 四周單邊, 朱絲欄, 70行字數不定 ; 39.0×295.0 cm. 土黃色絹. 卷軸裝.

題簽: 扈聖功臣原城府院君金應南

製書者: 安大進製, 吳靖書

內容: 敎/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監春秋館事世子傳贈忠勤貞亮劾節協策扈/聖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原城府院君金應南書/王若曰國忘家公忘私既盡一介之節德懋官功懋/賞難作九原之人沒而有知生者可勸惟卿清/廟琴瑟廣廈棟樑才器夙成名已知於布衣韋/帶之日孝友天至人不問其父母昆弟之言金/馬玉堂之歷敷烏臺栢府之風采萬里鯨海遐/氓識朝廷之有臣廿載羔裘詩人美雍容之如此屬島夷逆節之萌起揀廷紳專對而前陳周/旋單厥心荷/皇勅之敦勉忠憤有所感得該部之嘉歎逮至兇賊之長/驅惟知赴愬於/上國二三臣跋涉風露相從於患難知中數百年休養生/靈得保於危疑之際爰思載/主而首路必賴司馬之得人陵母之使者虛傳惟其所/在而致死劉珙之封辭雖功豈可捨卿而濟艱/專勾六師之芟糧無敢不多不逮備嘗萬死之/險阻罔或自逸自安賴/天朝拯濟之殊恩復舊都/宗社之遺址傷心慘目曷嘗寧居于一朝酬勞報功夫/我未遑於多難使之秉銓則公方之毛玠于以/作相則霖雨之傳巖予將仰成于

重興天不憊/遺乎一老山河萬世之常在帶礪之盟可尋皇/霜十載之已經鍾鼎之名未
勒屬茲新勳之勘/定緬懷老成之儀形盤血初擎感淚先墮肆策/勳爲扈聖功臣二等超
二階爵其父母妻子亦/超二階無子則甥姪女壻超一階嫡長世襲不/失其祿有及永世
仍賜奴婢九口田八十結銀/子七兩表裏一段內廐馬一匹至可領也於戲/上鉉加號絜
增殄瘁之深悲眞戶爰田惟爾子/孫之永賴薄示寵典少慰營[靈]魂故茲教示想宜/知
悉/一等/李恒福·鄭崑壽/二等/[李]珩·[李]瑋·李元翼/尹斗壽·沈友勝·李好閔/尹根
壽·柳成龍·金應南/李山甫·柳根·李忠元/洪進·李(石國)·柳永慶/李幼澄·朴東亮·沈
岱/朴崇元·鄭姬藩·李光庭/崔興源·沈忠謙·尹自新/韓淵·[李]耆·景溫/景儉·申礪·安
滉/具成/三等/鄭琢·李憲國·柳希霖/李有中·任發英·奇孝福/崔應淑·崔賓·呂定邦/
宋康·高曦·李應順/[李]壽崑·姜綱·金起文/崔彥俊·閔希騫·許浚/李延祿·金應壽·吳
致雲/金鳳·金良輔·安彥鳳/朴忠敬·林祐·金應昌/鄭漢璣·朴春成·金禮禎/金秀源·申
應瑞·辛大容/金璽信·趙龜壽·李公沂/梁子儉·白應範·崔潤榮/金俊榮·鄭大吉·金繼
韓/朴夢周·李士恭·柳肇生/楊舜民·慶宗智·崔世俊/洪澤·全龍·李春國/吳連·李希齡
/萬曆三十二年十月日[施命之寶]

印文: 施命之寶(10.2×10.1cm)

軸: 漆軸(左端), 多繪紐帶와 象牙針(右端)

狀態: 上下·左右의 各端의 蟲食·毀損이 있고 本文 一部에 毀損이 있어 補修
및 保存處理가 要望됨

特記: 內外面表裝, 軸頭形態, 多繪紐帶와 象牙針 등 당시의 原粧이 잘 보존되
어 있어 扈聖功臣敎書의 形態의 典範이 될 수 있을 듯함

所藏: 김명호

(2) <贈諡敎旨>

贈諡敎旨 / [國王 發給] ; [金應南(1546~1598) 受給]. -- 筆寫本. -- [漢城] :
[國王], [英祖 29(1753) 推定].

1枚 : 13行字數不定 ; 59.0×106.0 cm. 土黃色壯紙. 날장.

印文: 施命之寶(10.2×10.1cm)

內容: 敎旨/贈忠勤貞亮効節協策扈聖/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
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原城府院君行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
府左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世子傅金應南贈諡忠靖公/者/危身奉上曰忠/恭
己鮮言曰靖/乾隆十八年四月二十三日[施命之寶]

特記: 補修 및 保存處理 要望

□ 現狀：調查文化財 <金應南扈聖功臣教書 및 關聯 古文書>은 宣祖 37년(1604)에 扈聖功臣 2等に 勅諭된 金應南(1546~1598)의 死後에 賜給된 <金應南扈聖功臣教書> 1軸과 英祖 29년(1753)에 賜給된 <贈諡教旨> 1점으로 構成되어 있다. <金應南 扈聖功臣教書>는 세로 39.0cm 가로 295.0cm의 비단에 書寫된 1軸의 筆寫本이며, <贈諡教旨>는 세로 59.0cm 가로 106.0cm의 土黃色 壯紙에 書寫된 謄寫의 筆寫本이다.

調查文化財 <金應南扈聖功臣教書 및 關聯 古文書>은 金명호가 先祖의 遺品으로 집안 代代로 물려받아 소유하고 있다.

調查文化財 <金應南扈聖功臣教書 및 關聯 古文書>의 상태는 <金應南扈聖功臣教書>의 경우 上下·左右의 各端에 蟲食·毀損이 있고 本文 一部에 毀損이 있으며, <贈諡教旨>의 경우 比較的 良好하나 균열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專門家의 諮問을 통한 補修 및 保存處理가 要望된다.

調查文化財 <金應南扈聖功臣教書 및 關聯 古文書>는 현재 소장자 金명호에 의하여 아무런 시설이 없는 개인 주택에서 維持·管理되고 있으나, 문화재의 상태로 보아 專門機關이 受託하여 維持·管理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 내용 및 특징

□ 內容：調查文化財 <金應南扈聖功臣教書 및 關聯 古文書> 중의 <金應南扈聖功臣教書>는 宣祖 37년(1604)에 金應南의 死後에 賜給된 扈聖功臣 2等의 功臣教書이다.

扈聖功臣은 선조 37년(1604) 6월 25(갑진)일에 功臣들의 명칭을 정하여 대대적으로 錄勳할 때 宣武功臣 및 淸難功臣 등과 함께 勅諭되었다. 扈聖功臣은 의주까지 始終 車駕를 따른 人들을 3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이 있게 명칭을 내린 것으로 1등은 李恒福·鄭岷壽로 忠勤貞亮竭誠效節協力扈聖功臣이라 하고, 2등은 信城君 李珣·定遠君 李桴·李元翼·尹斗壽·沈友勝·李好閔·尹根壽·柳成龍·金應南·李山甫·柳根·李忠元·洪進·李(石+國)·柳永慶·李幼澄·朴東亮·沈岱·朴崇元·鄭姬藩·李光庭·崔興源·沈忠謙·尹自新·韓淵·海豐君 李耆·順義君 李景濶·順寧君 李景儉·申礪·安滉·具成으로 忠勤貞亮効節協策扈聖功臣이라 하고, 3등은 鄭琢·李憲國·柳希霖·李有中·任發英·奇孝福·崔應淑·崔賓·吳定邦·李應順·慎壽崑·宋康·高曦·姜綱·內侍 金起文·內侍 崔彦俊·內侍 閔希蹇·醫官 許浚·李延祿·理馬 金應壽·理馬 吳致雲·內侍 金鳳·內侍 金良輔·內侍 安彦鳳·內侍 朴忠敬·內侍 林祐·內侍 金應昌·內侍 鄭漢璣·內侍 朴春成·內侍 金禮楨·內侍 金秀源·內侍 申應瑞·內侍 辛大容·內侍 金璽信·內侍 趙龜壽·醫官 李公沂·內侍 梁子儉·內侍 白應範·內侍 崔潤榮·內侍 金俊榮·內侍 鄭大吉·內侍 金繼韓·內侍 朴夢周·李士恭·柳肇生·楊舜民·慶宗智·內需司 別坐 崔世俊·司謁 洪澤·理馬 全龍·理馬 李春國·理馬 吳連·理馬 李希齡 등으로 忠

勤貞亮扈聖功臣으로 하여 각각 爵位를 내리고 君으로 봉했다. 모두 86인인데 內侍가 24명, 理馬가 6명, 醫官이 2명이었고, 別坐와 司謁이 또 2명이었다.³⁶⁾ 그러나 이에 대하여 史臣은 “국가가 壬辰年의 倭變을 만나 宗社가 전복되고 乘輿가 파천했으며 園陵이 화를 입었고 생령들이 해독을 받았으니, 말하기에도 참혹한 일이다. 다행히 皇恩이 멀리 미침을 힘입어 八道가 다시 새로워졌으니, 임금의 도리에 있어 論功行賞하여 공로에 보답하는 특전을 그만둘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扈從臣을 80여 명이나 錄勳하였고 그 가운데 中官이 24명이며 미천한 僕隸들이 또 20여 명이나 되었으니, 또한 외람한 일이 아니겠는가?”³⁷⁾고 비평하였다.

또한 선조 37년(1604) 10월 29일(을해)에는 扈聖功臣의 敎書를 頒給할 때에 別敎書를 내리기도 하였는데 그 내용은 “그대들의 공로를 버릴 수 없음은 세상 사람들을 면려시키기 위한 당연한 일이고, 공이 있으면 반드시 상을 주는 일은 가장 우선하는 정사이다. 지난번 逆夷들이 亂을 일으키기 위해 감히 길을 빌자는 흉계를 부렸는데, 이런 고통을 부모에게 호소하는 것은 정리상 실로 당연한 것이다. 외적을 편들기 위해 황제를 저버리는 것은 죽어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 평소 지성으로 事大하였으니 내가 어찌 감히 생각이나 할 수 있겠는가. 힘을 다해 周旋하기에 분주하여 신하들 또한 수고로웠다. 忠貞한 절개를 바쳐 말고삐를 잡고 치달리는 수고로움을 극진히 하였으니, 일은 같지 않지만 그 공로는 다를 바 없다. 敎書로 호칭을 내려 크게 盟約하는 반열에서 고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李恒福·鄭崑壽를 1等に 策勳하고 모습을 그려 후세에 전하며, 관작과 품계를 3資級 초천한다. 그의 부모와 처자도 3자급을 超遷하되, 아들이 없으면 甥姪과 女壻를 2자급 초천하라. 嫡長은 世襲케 하여 녹봉을 잃지 않게 할 것이며 대대로 영원히 赦宥를 받게 하라. 이에 伴佻 10인, 奴婢 13구, 丘史 7명, 田地 1백 50결, 銀子 10냥, 內廐馬 1필을 하사한다. 信城君李珥·定遠君李瑄·李元翼·尹斗壽·沈友勝·李好閔·尹根壽·柳成龍·金應南·李山甫·柳根·李忠元·洪進·李(石+國)·柳永慶·李幼澄·朴東亮·沈岱·朴崇元·鄭熙藩·李光庭·崔興源·沈忠謙·尹自新·韓淵·海豐君李耆·順義君李景溫·順寧

36)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宣祖 37年 6月 25(甲辰)日條.

大封功名 以自京城至義州 終始隨駕者 爲扈聖功臣 分爲三等 錫號有差 … 其扈聖一等 李恒福·鄭崑壽 爲忠勤貞亮竭誠效節協力扈聖功臣 二等 信城君珥·定遠君瑄·李元翼·尹斗壽·沈友勝·李好閔·尹根壽·柳成龍·金應南·李山甫·柳根·李忠元·洪進·李(石國)·柳永慶·李幼澄·朴東亮·沈岱·朴崇元·鄭熙藩·李光庭·崔興源·沈忠謙·尹自新·韓淵·海豐君耆·順義君景溫·順寧君景儉·申礪·安滉·具成 爲忠勤貞亮効節協策扈聖功臣 三等 鄭琢·李憲國·柳希霖·李有中·任發英·奇孝福·崔應淑·崔賓·吳定邦·李應順·節慎正壽·宋康·高曦·姜綱·內侍金起文·內侍崔彦俊·內侍閔希睿·醫官許浚·李延祿·理馬金應壽·理馬吳致雲·內侍金鳳·內侍金郎輔·內侍安彥鳳·內侍朴忠敬·內侍林祐·內侍金應昌·內侍鄭漢璣·內侍朴春成·內侍金禮楨·內侍金秀源·內侍申應瑞·內侍辛大容·內侍金璽信·內侍趙龜·壽醫官李公沂·內侍梁子儉·內侍白應範·內侍崔潤榮·內侍金俊榮·內侍鄭大吉·內侍金繼韓·內侍朴夢周·李士恭·柳肇生·楊舜民·慶宗智·內需司別坐崔世俊·司謁洪澤·理馬全龍·理馬李春國·理馬吳連·理馬李希齡 爲忠勤貞亮扈聖功臣 各賜爵封君 凡八十六人 而內侍二十四人 理馬六人 醫官二人 別坐司謁又二人 …

37)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宣祖 37年 6月 25(甲辰)日條.

… 史臣曰 國家值壬辰之變 宗社顛覆 乘輿播遷 禍及園陵 毒被生靈 所可道也 言之慘也 幸賴皇恩遠暢 八路重新 則在人君賞功酬勞之典 似不可已也 而扈從之臣 至錄八十餘人 而中官二十四人 僕隸之賤 又是二十餘人 則不亦濫乎.

君李景儉·申礪·安滉·具成은 2등에 책훈하고 모습을 그려 후세에 전하며, 관작과 품계를 2자급 초천한다. 그들의 부모와 처자도 2자급을 초천하되 아들이 없으면 생질과 여서를 1자급 초천하라. 적장은 세습케 하여 그 녹봉을 잃지 않게 할 것이며, 대대로 영원히 赦宥를 받게 하라. 이에 반당 6인, 노비 9구, 구사 4명, 전지 80결, 은자 7냥, 내구마 1필을 하사한다. 鄭琢·李憲國·柳希霖·李有中·任發英·奇孝福·崔應淑·崔賓·呂定邦·宋康·高曦·李應順·節愼正·壽崑·姜綱·金起文·崔彥俊·閔希騫·許浚·李延祿·金應壽·吳致雲·金鳳·金良輔·安彥鳳·朴忠敬·林祐·金應昌·鄭漢璣·朴春成·金禮禎·金秀源·申應瑞·辛大容·金璽信·趙龜壽·李公沂·梁子儉·白應範·崔潤榮·金俊榮·鄭大吉·金繼韓·朴夢周·李士恭·柳肇生·楊舜民·慶宗智·崔世俊·洪澤·全龍·李春國·吳連·李希齡은 3등에 책훈하고 모습을 그려 후세에 전하며, 품계와 관작을 1자급 초천한다. 그들의 부모와 처자도 1자급 초천하되 아들이 없으면 생질과 여서를 加階하라. 적장은 세습케 하여 녹봉을 잃지 않게 할 것이며, 대대로 영원히 사유를 받게 하라. 이에 반당 4인, 노비 7구, 구사 2명, 전지 60결, 은자 5냥, 내구마 1필을 하사한다. 功의 등급이 1등에서 3등까지여서 高下가 다른 것을 면할 수 없고, 賞의 恩數가 많기도 하고 작기도 하여 輕重의 차이가 있게 되었다. 그러나 어떻게 감히 그 공을 잊을 수 있겠는가. 애오라지 가상히 여기는 마음을 표하는 바이다. 아, 황상께서 再造하여 준 은총은 진실로 전고에 없던 것이니 君臣을 일체로 여긴 聖恩이 후세에까지 전해가기를 바란다. 가서 新命을 받아 모두 열복하는 지극한 마음을 품으라. 그러므로 敎示하노니 잘 알 것으로 여긴다.”³⁸⁾는 것이었다.

수급자인 金應南(1546~1598)은 조선 宣祖朝의 文臣으로 本貫은 原州이고 字는 重叔이며, 호는 斗巖이고 諡號는 忠靖이다. 충청도병마절도사 金末孫의 증손자이며 金珩의 아들이다. 선조 즉위(1567)년에 生員試에 합격하고 선조 원년(1568) 增廣文科에 乙科로 급제하여 藝文館·弘文館의 正字를 역임한 뒤 賜暇讀書를 하였으며 同副承旨에 이르렀다. 선조 16년(1583)에 兵曹判書 李珥(1536~1584)를 탄핵한 三司의 宋應漑(?~1588)·許筠(1551~1588)·朴謹元(1525~1585) 등이 선조의 노여움

38)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宣祖 37年 10月 29(乙亥)日條.

扈聖功臣敎書頒給時 別敎書 王若曰 無棄爾勞 曠世之當務 有功必賞 爲政之所先 永言構亂之逆夷 敢肆假途之兇計 極痛呼父 於情固然 以賊遺君 雖死不可 顧平昔至誠事大 予何敢云念奔走 竭力周旋 臣亦勞止 乃至効忠貞之節 以致盡羈縻之勤 雖事不同 厥功則一 宜敷渙汗之號 誕告盤血之班 肆策勳李恒福·鄭崑壽爲一等 圖形垂後 超三階爵 其父母妻子 亦超三階 無子則甥姪女婿超二階 嫡長世襲 不失其祿 有及永世 仍賜伴僮十人·奴婢十三口·丘史七名·田一百五十結·銀子十兩·內廐馬一疋 信城君珥·定遠君瑄·李元翼·尹斗壽·沈友勝·李好閔·尹根壽·柳成龍·金應南·李山甫·柳根·李忠元·洪進·李(石國)·柳永慶·李幼澄·朴東亮·沈岱·朴崇元·鄭熙藩·李光庭·崔興源·沈忠謙·尹自新·韓淵·海豐君耆·順義君景溫·順寧君景儉·申礪·安滉·具成爲二等 圖形垂後 超二階爵 其父母妻子 亦超二階 無子則甥姪女婿 超一階 嫡長世襲 不失其祿 有及永世 仍賜伴僮六人·奴婢九口·丘史四名·田八十結·銀子七兩·內廐馬一疋 鄭琢·李憲國·柳希霖·李有中·任發英·奇孝福·崔應淑·崔賓·呂定邦·宋康·高曦·李應順·節愼正·壽崑·姜綱·金起文·崔彥俊·閔希騫·許浚·李延祿·金應壽·吳致雲·金鳳·金良輔·安彥鳳·朴忠敬·林祐·金應昌·鄭漢璣·朴春成·金禮禎·金秀源·申應瑞·辛大容·金璽信·趙龜壽·李公沂·梁子儉·白應範·崔潤榮·金俊榮·鄭大吉·金繼韓·朴夢周·李士恭·柳肇生·楊舜民·慶宗智·崔世俊·洪澤·全龍·李春國·吳連·李希齡爲三等 圖形垂後 超一階爵 其父母妻子 亦超一階 無子則甥姪女婿加階 嫡長世襲 不失其祿 有及永世 仍賜伴僮四人·奴婢七口·丘史二名·田六十結·銀子五兩·內廐馬一匹 功之等級 一而三, 未免高下之異 賞之恩數 多若寡 抑有輕重之差 何敢忘之 聊表嘉乃 於戲 皇上再造之天寵 固是無前 君臣一體之聖恩 庶幾垂後 往膺新命 咸服至懷 故茲敎示 想宜知悉.

으로 도리어 유배당할 때 그들과 일당이라는 혐의를 받고 濟州牧使로 좌천되었으나, 평소 李珣를 존경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三司의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임지에 도착하자 성심껏 饑民을 救恤하고 교육을 진흥시키며 民俗을 바로 잡아서 뒤에 인조 때 金尙憲(1570~1652)이 쓴 「南程錄」이나 효종 때 李元鎭(1594~1665)이 쓴 「耽羅誌」에는 그때의 치적을 칭송하는 글이 수록되어 있다. 2년 뒤 선조 18년(1585)에 右承旨로 기용되고 이어 大司憲·大司諫·副提學·吏曹參判 등을 역임하였다. 선조 24년(1591)에 聖節使로서 明朝에 갔는데, 마침 明朝에서는 日本의 國書를 받고 朝鮮이 日本과 內通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진 자가 많아 이를 힘써 해명함으로써 의구심을 풀게 하였다. 귀국 후 漢城判尹이 되었는데, 다음해(1592) 壬辰倭亂이 일어나 先祖가 蒙塵에 오르게 되자 柳成龍(1542~1607)의 천거로 兵曹判書 겸 副體察使가 되었다. 선조 26년(1593)에 吏曹判書로서 국왕을 따라 환도한 뒤 이듬해(1594)에 우의정을 지내고 선조 28년(1595)에 左議政이 되어 領議政 柳成龍과 함께 임진왜란 후의 혼란한 정국을 안정시켰다. 항상 나라를 복구하는 급선무는 군사를 훈련하고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인심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선조 30년(1597) 丁酉再亂 때에는 按撫使로서 嶺南地方에 내려갔다가, 慶尙道 豊基에서 병이 위독해져서 귀경 후 辭職하였으며 이듬해(1598)에 卒去하였다. 그는 관대하고 근신하며 청렴하고 검소하였으며, 銓曹의 장관으로 있을 때에도 門庭이 쓸쓸하여 뇌물을 바치는 자가 아무도 없었고 賢才를 추천하여 등용하는 것으로 자신의 임무를 삼았다. 다만 언론을 전개할 때에 고집스러움을 면치 못하여 士論이 단점으로 여겼다.³⁹⁾ 선조 37년(1604) 扈聖功臣 2등으로 原城府院君에 추봉되었다.

調査本 <金應南扈聖功臣教書>는 임진왜란 때 선조를 義州까지 扈從하여 扈聖功臣 2등으로 錄勳된 金應南(1546~1598)에게 그가 卒去한 6년 뒤인 선조 37년(1604)에 賜給된 功臣教書이다.

선조 31년(1598)에 金應南이 卒去하자 禮曹에서 “난리가 일어난 뒤로 禮葬에 관계된 일을 일체 停廢하여 대신의 喪事가 있더라도 官에서 도와주는 일이 아예 없었던 것은 형편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간혹 절박한 喪事가 있을 경우 점차 禮葬의 典禮를 시행하기도 하는데, 유독 大臣의 喪事에 있어서는 그대로 폐지하여 거행하지 않아 소소한 관원들과 다를 바 없으니 미안한 듯합니다. 金應南의 집은 너무도 빈한하고 궁핍하여 장사를 치를 수 없으므로 듣는 이들이 불쌍하게 여깁니다. 本道로 하여금 조금이나마 墓軍 및 葬禮費用을 대주게 한다면 국가에서 후대해 주는 恩典에도 손실이 없을 것이다.”고 보고하자, 宣祖는 參酌하여

39)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宣祖 31年 12月 6(丁巳)日條.

金應南 寬大謹慎 清儉自勵 常爲銓相 門庭寂然 賄賂不行 推轂賢才 以明揚爲己任 但言論之際 未免固滯 士論短乏.

施行할 것을 傳教⁴⁰⁾하였을 정도였다.

調査本 <金應南扈聖功臣教書>는 金應南의 官階와 宣祖가 蒙塵할 때 義州까지扈從한 功勞로 扈聖功臣 2등에 녹훈한다는 功績을 비롯하여, 그 褒賞으로 本人과 父母·妻子의 벼슬을 2階씩 올려주되 자식이 없으면 조카나 여조카에게 1階씩을 올려 주고 嫡長子에게 벼슬의 지위를 세습하도록 하며, 奴婢 9口, 田 80結, 銀子 7兩, 表裏 1段, 內廐馬 1匹을 하사한다는 褒賞內容이 수록되어 있다. 이어서 등급별 功臣名單이 수록되어 있으며 마지막 부분에는 ‘萬曆三十二年十月 日’의 功臣教書의 賜給時期와 ‘施命/之寶’라는 宣祖의 御寶가 安印되어 있다. 軸의 外面에는 ‘安大進製 / 吳靖書’라 기록되어 있어 安大進(1561~?)이 功臣教書文을 撰述하고 吳靖(1579~1623)이 書寫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선조 37년(1604)에 사급된 扈聖功臣教書 및 錄券으로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은 <柳成龍扈聖功臣教書>(보물 제160-11호), <高曦扈聖功臣教書·扈聖功臣錄券>(보물 제739호), <李忠元扈聖功臣教書>(보물 제874호), <沈岱扈聖功臣教書>(보물 제1175호), <洪進扈聖功臣教書>(보물 제1308호), <金良輔扈聖功臣錄>(서울시 유형문화재 제87호), <朴崇元扈聖功臣教書>(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66호) 등이 있다.

調査本 <金應南扈聖功臣教書>는 賜給年代가 확실하고 朝鮮時代 功臣 및 人物의 연구에는 물론 朝鮮時代 中期의 制度史와 文化史의 研究에 귀중한 文獻資料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歷史的·學術的 價치는 매우 높다. 또한 教書文의 製進者와 教書文의 書寫者가 밝혀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여러 扈聖功臣教書와 비교할 때 外面과 內面의 表裝, 軸頭의 形態, 多繪紐帶와 象牙針 등의 原型과 原粧이 비교적 완전한 형태로 유지되고 있어 扈聖功臣教書의 形態的 典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金應南扈聖功臣教書>는 國家文化財로 지정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 만한 價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調査文化財 <金應南扈聖功臣教書 및 關聯 古文書> 중의 <贈諡教旨>는 영조 29년(1753)에 金應南에게 ‘忠靖’의 諡號를 내린 教旨이다.

<贈諡教旨>는 영조 29년(1753, 건륭 18) 4월 23(무신)일에 영의정 趙顯命(1690~1752)과 좌의정 鄭錫五(1691~1748) 등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에게 시호가 하사될 때 좌의정 金應南에게도 ‘忠靖’이라는 諡號가 하사⁴¹⁾되었는데, 이는 <贈諡

40)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宣祖 31年 12月 6(丁巳)日條.

禮曹啓曰 亂離以後 凡于禮葬 一切停廢 雖遇大臣之喪 絕無官庇之事 其勢然也 自上年來 或仍切迫之喪 稍開禮葬之例 而獨於大臣之事 仍廢不舉 與小官無異 以爲未安 金應南之家 尤甚貧乏 將無以營葬 聞者矜憫 若令本道 略給助墓軍及葬需 則庶不墜國家歸厚之典 傳曰 斟酌施行.

41)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英祖 29年 4月 23(戊申)日條.

賜領議政趙顯命諡忠孝 左議政鄭錫五諡貞簡 東平尉鄭載崙諡翼孝 德陽君岐諡靖僖 禮曹判書李彥綱諡貞孝 左議政柳灌諡忠肅 知敦寧李愔諡莊靖 贈左贊成金錫衍諡貞僖 兵曹判書徐必遠諡貞毅 贈領議政張雲翼諡貞敏 贈左贊成張鵬翼諡武肅 禮曹判書嚴緝諡貞憲 贈領議政鄭壽期諡貞簡 禮曹判書盧禎諡憲敏 吏曹判書申命仁諡貞清 工曹判書李光迪諡靖憲 贈左贊成崔慶會諡忠毅 判尹任說諡文靖 贈領議政申最諡文肅 吏曹判書南銑諡貞敏 左議政金應南諡忠靖 以李宗白爲大司憲 任珣爲司諫

教旨>의 發給日字인 ‘乾隆十八年四月二十三日’과도 일치되고 있다. 또한 發給日字 위에는 ‘施命之寶’의 御寶가 安印되어 있다.

○ 문헌자료

- 錄勳都監 發給, 安大進 製, 吳靖 書, 金應南 受給. 金應南扈聖功臣教書. 筆寫本. [漢城] : [錄勳都監], [宣祖 37(1604)]. 김명호 所藏品.
- 英祖 發給, 金應南 受給, 諡號教旨. 筆寫本. [漢城] : [國王], [英祖 29(1753)]. 김명호 所藏品.
- 英祖 發給, 金應南 受給, 諡號教旨函. 木函. [漢城] : [國王], [英祖 29(1753)]. 김명호 所藏品.
- 서울시 編,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書. 서울, 서울시문화관광과, 2010. (辛承云·이완우·이동국 諸教授의 調査內容)
- 국가기록유산: <<http://www.memorykorea.go.kr/>>



○ 현 상

호성공신교서는 최초에 제작한 형태로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감긴 상태로 있어서 중간 꺾인 곳들이 많으며 상하로 터진 곳 등이 있어서 시급히 보존 처리가 요망된다. 시호 교지 역시 꺾인 곳들이 많아서 지정 후 보존 처리가 시급하다.

○ 내용 및 특징

김응남(1546~1598)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충청도병마절도사 김말손(金末孫)의 증손자이며, 김형(金珩)의 아들이다. 1567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1568년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관직생활을 시작하여 대사헌, 대사간, 이조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피난 길을 떠난 왕을 호종하여 하였다. 1593년에 이조판서로 왕을 따라 환도한 후 우의정과 좌의정을 역임하였다. 1597년에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안무사로 영남지방에 내려갔다가 풍기에서 병이 위독해져 귀경 후 사직하였다. 1604년에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으로 원성부원군(原城府院君)에 추봉되었다. 호성공신교서는 바로 이때 발급된 것이다. 그에게 충정이라는 시호가 내려진 것은 영조 29년의 일인데 역시 이때 발급된 교지가 바로 이번에

李仁源 李宜老爲正言 成天柱爲校理 李顯重爲副校理 申旼爲承旨 沈墿爲輔德 韓光會爲舍人 李昌誼爲戶曹判書.

지정문화재로 지정을 신청한 시호 교지이다.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호성공신교서는 모두 4점이다. 유성룡 호성공신교서(보물 제160-11호), 고희 호성공신교서(보물 제739호), 이충원 호성공신교서(보물 제874), 심대 호성공신교서(보물 제1175호)가 그것이다. 보물로 이미 지정된 호성공신교서와 김응남의 교서는 문화재적 가치에서 전혀 차이가 없고 오히려 김응남의 교서가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 등을 연구하는 측면에서는 더욱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문헌자료

『선조실록』

『선조수정실록』

『영조실록』

- <<http://www.memorykorea.go.kr/>>



○ 현 상

앞부분이 훼손되어 있으며, 부분적으로 꺾임이 심하여 보수 및 보존처리가 요망된다.

○ 내용 및 특징

1. 金應南 扈聖功臣教書

이 扈聖功臣教書는 임진란에 선조와 세자를 호종하고 피란할 때 侍從한 공로로 난후인 1604년에 金應南에게 내린 것이다. 호성공신은 서울에서 義州까지 侍從한 신하들을 공로에 따라 3등으로 나누어 모두 86명을 녹훈하였는데, 1등은 李恒福 등 2명, 2등은 李元翼 등 31명, 3등은 鄭琢 등 53명이다. 김응남은 2등공신의 9번째에 책록되었다.

本 教書의 구성은 김응남의 官階에 이어 선조가 蒙塵할 때 의주까지 호종한 공로로 2등 공신에 책봉한다는 것과 그에 따른 포상으로 본인과 부모·처자의 벼슬을 2階씩 올려주고, 자식이 없으면 조카나 여조카에게 1階씩을 올려 주며, 적장자에게 벼슬의 지위를 세습하게 하며, 奴婢 9구, 田 80結, 銀子 7兩, 表裏 1段, 內廐馬 1匹을 하사한다는 내용을 列記하였다. 끝으로 공신 86명의 名錄과 본 교서의 발급일인 ‘萬曆三十二年十月日’을 쓰는 순서로 되어있다. 발급연월일 위에는 「施命之寶」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축의 바깥 하단부에는 ‘安大進製 吳靖書’ 가 쓰여 있어 교서문은 안대진(1561~?)이 짓고 교서문의 글씨는 오정(1579~1623)이 썼음을 알 수 있다. 겉면과 안면의 표

장, 軸頭의 형태, 축을 묶는 색실띠[多繪帶]와 象牙針 등이 최초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현존하는 여러 호성공신교서와 비교할 때 기준이 되는 예에 해당된다.

호성공신의 책훈에 관한 내용은 『宣祖實錄』(宣祖 37年 10월 乙亥條)에 보이는데, 실록에 열거된 2등공신의 賞賜와 본 교서를 비교해보면 실록에 기재된 「伴尙六人」 과 「丘史 四名」이 빠지고 「表裏一段」이 추가된 것만 다르고 모두 일치하여, 공신의 책봉에 있어 같은 등급의 공신이라도 대상과 경우에 따라 賞賜에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호성공신교서는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평가되어 이미 柳成龍(보물 제160-1호)·高曦(보물 제739호)·李忠元(보물 제874호)·沈垚(보물 제1175호)·洪進(보물 제1308호)·李憲國(보물 제1617호)·金良輔(서울시 유형문화재 제87호)·朴崇元(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66호) 등이 지정된 바 있다.

2. 金應南 贈諡教旨 (1753년, 영조 29)

1753년(영조 29) 4월 23일에 김응남에게 ‘忠靖’이란 시호를 내리면서 발급한 교지이다. 발급연월일 위에 「施命之寶」印이 날인되어 있다.

教旨/贈忠勤貞亮効節協策扈聖/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原城府院君行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世子傅金應南贈諡忠靖公/者/危身奉上曰忠/恭已鮮言曰靖/乾隆十八年四月二十三日

○ 教書 全文

教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
監春秋館事世子傅贈忠勤貞亮効節協策扈/
聖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
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
師原城府院君金應南書/

王若曰國忘家公忘私既盡一介之節德懋官功懋/
賞難作九原之人沒而有知生者可勸惟卿清/
廟琴瑟廣廈棟樑才器夙成名已知於布衣韋/
帶之日孝友天至人不問其父母昆弟之言金/
馬玉堂之歷敷烏臺栢府之風采萬里鯨海遐/
氓識朝廷之有臣廿載羔裘詩人美雍容之如/
此屬島夷逆節之萌起揀廷紳專對而前陳周/

旋單厥心荷/
皇勅之敦勉忠憤有所感得該部之嘉歎逮至兇賊之長/
驅惟知赴愬於/
上國二三臣跋涉風露相從於患難知中數百年休養生/
靈得保於危疑之際爰思載/
主而首路必賴司馬之得人陵母之使者虛傳惟其所/
在而致死劉珙之封辭雖功豈可捨卿而濟艱/
專勾六師之芟糧無敢不多不逮備嘗萬死之/
險阻罔或自逸自安賴/
天朝拯濟之殊恩復舊都/
宗社之遺址傷心慘目曷嘗寧居于一朝酬勞報功夫/
我未遑於多難使之秉銓則公方之毛玠于以/
作相則霖雨之傅巖予將仰成于重興天不憖/
遺乎一老山河萬世之常在帶礪之盟可尋皇/
霜十載之已經鍾鼎之名未勒屬茲新勳之勘/
定緬懷老成之儀形盤血初擎感淚先墮肆策/
勳爲扈聖功臣二等超二階爵其父母妻子亦/
超二階無子則甥姪女婿超一階嫡長世襲不/
失其祿有及永世仍賜奴婢九口田八十結銀/
子七兩表裏一段內廐馬一匹至可領也於戲/
上鉉加號絜增殄瘁之深悲眞戶爰田惟爾子/
孫之永賴薄示寵典少慰營[靈]魂故茲教示想宜/
知悉

一等

李恒福 鄭崐壽

二等

珩	琿	李元翼
尹斗壽	沈友勝	李好閔
尹根壽	柳成龍	金應南
李山甫	柳根	李忠元
洪進	李石+國	柳永慶
李幼澄	朴東亮	沈岱
朴崇元	鄭姬藩	李光庭

崔興源	沈忠謙	尹自新
韓淵	耆	景溫
景儉	申礪	安滉
具晟		
三等		
鄭琢	李憲國	柳希霖
李有中	任發英	奇孝福
崔應淑	崔賓	呂定邦
宋康	高曦	李應順
壽崐	姜綱	金起文
崔彦俊	閔希騫	許浚
李延祿	金應壽	吳致雲
金鳳	金良輔	安彦鳳
朴忠敬	林祐	金應昌
鄭漢璣	朴春成	金禮禎
金承源	申應瑞	辛大容
金璽信	趙龜壽	李公沂
梁子儉	白應範	崔潤榮
金俊榮	鄭大吉	金繼韓
朴夢周	李士恭	柳肇生
楊舜民	慶宗智	崔世俊
洪澤	全龍	李春國
吳連	李希齡	

萬曆三十二年 十月 日

○ 문헌자료

『宣祖實錄』

문화재청, 『동산문화재지정보고서』, 「이헌국 호성공신교서」, 2010.

○ 기 타

교서 수령자의 後孫家에 전래된 遺品임.

기 지정된 호성공신교서 현황

종별	번호	문화재명칭	소유자	수량	지정일
----	----	-------	-----	----	-----

보물	160-11	유성룡 호성공신교서	유영하	1축	63/01/21
보물	739	고희 호성공신교서	유영하	1축	67/07/15
보물	874	이충원 호성공신교서	이용선	1축	86/10/15
보물	1175	심대 호성공신교서	공유	1축	93/11/05
보물	1308	홍진 호성공신교서	남양홍씨 예사공파 종회	1축	01/02/23
보물	1617	이헌국 호성공신교서	이철근	1축	09/06/29

12. 양산 신흥사 대광전 벽화 (梁山 新興寺 大光殿 壁畵)

가. 심의사항

“양산 신흥사 대광전 벽화”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사찰건축물벽화조사 사업을 통해 조사된 벽화로서 관계전문가의 조사('11.09.26~27)가 진행되었음.
- 위 사안은 현지조사자 3인 이상이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문화재로 본 위원회 2011년도 제6차 회의('11.12.13)에서 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 30일간 지정 예고('11.12.23~'12.01.22)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양산 신흥사 대광전 벽화(梁山 新興寺 大光殿 壁畵)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 소재지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영포리 268 신흥사
- 수 량 : 6점
- 규 격 : 목록 참조
- 재 질 : 흙벽에 채색
- 형 식 : 벽화
- 제작연대 : 17세기 후반

○ 지정대상 벽화 목록

번호	벽화명칭	크기(cm)	위 치
1	藥師三尊圖	210×347	내부 동측면 벽
2	阿修羅王圖	250.4×66	
3	阿彌陀三尊圖	229×342.5	내부 서측면 벽
4	六大菩薩圖	195×342.5	
5	四天王圖	155×335	
6	神衆圖	250.4×137	

라. 내용 및 특징

1) 조사내용

신흥사 대광전에는 건물 외부 포벽과 측벽에 모두 17폭의 벽화가 있으며, 내부 좌우측 벽 및 포벽, 후불벽 등에 57폭의 벽화가 있어 대광전 내외에 총 80여 점의 벽화가 남아있다. 내부의 동벽에는 약사삼존도와 팔부중, 서벽에는 아미타삼존도와 6대보살도 및 팔부중, 좌우포벽에 팔상도 등이 있으며, 후불벽 뒷면에는 三觀音菩薩圖가 그려져 있다.

이들 벽화 가운데 내부 동측면의 약사삼존도와 팔부중, 내부 서측면의 아미타삼존도와 6대보살도, 사천왕도, 신중도 등은 대광전 건립 당시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며, 그 외의 벽화들은 1801년 대광전을 중수할 때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대광전 후불벽에는 벽화는 남아있지 않고 대신 탕화가 봉안되어 있으나 좌우에 약사삼존도 벽화와 아미타팔대보살도 벽화가 배치된 것으로 보아 조성 당시에는 영산회상도 벽화가 배치되어, 전체적으로 삼세불 도상을 이루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측면 벽화]

서측면 벽의 중앙은 3단으로 구성해 상단에 아미타삼존, 중단에는 6대보살, 하단에는 사천왕을 배치했다. 서측벽 중앙칸 상단은 상방이 가로질러 토벽이 상하로 나뉘고 다시 2개의 벽선으로 나뉘어 모두 6쪽의 흠벽과 상방표면에 걸쳐 그림이 배치되어 있다. 중앙칸 중단에 그려진 아미타삼존도는 그 아래 함께 그려진 6보살도와 함께 아미타팔대보살도를 이루고 있다.

상단 중앙의 아미타불은 좌우 협시보살인 관음보살과 세지보살과 함께 그려졌는데, 결가부좌한 아미타불은 신체에 비해서 머리가 작고 육계가 불분명하며 중앙계

주가 크게 묘사되었다. 계란형의 얼굴은 눈꼬리가 위로 치켜 올라갔으며 입이 작다. 신체는 비대하며 건강한 편인데 사각형적인 신체에 직각에 가까운 어깨, 평판적인 가슴, 폭이 좁은 무릎 등 전체적으로 방형의 느낌이 강하다. 수인은 오른손을 들어 엄지와 중지를 맞대었고 왼손은 내려서 엄지와 중지를 맞댄 하품중생인을 결하였다. 대의는 통견으로 걸치고 있는데 못깃에만 무늬가 표현되었다. 좌측의 관음보살은 왼쪽다리를 내린 유희좌로 앉아 머리에서부터 아래까지 백의를 걸쳤는데, 보관에는 아미타화불이 표현되어 관음보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얼굴은 풍만한 편으로 눈이 치켜 올라갔으며 입이 작은 것이 본존과 비슷하다. 우측의 세지보살 역시 둥글고 풍만한 얼굴 등이 관음보살과 비슷한 모습인데, 화려하고 복잡한 보관을 쓰고 있으나 보관에 정병은 분명치 않다. 얼굴에 비해 장대한 체구는 본존과 닮았다. 가슴과 팔에는 영락장식이 화려하게 표현되었다.

아미타삼존 아래에는 6구의 보살이 입상으로 나란히 서 있다. 6대보살의 가슴 높이에 중방이 가로 지르고 벽선으로 나뉘어 6쪽의 토벽과 수장재 표면에 걸쳐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들 6대보살은 아미타삼존도의 관음보살, 대세지보살과 함께 팔대보살을 이루었는데, 아미타불의 좌우에 관음보살과 세지보살이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6대보살은 문수보살·보현보살·지장보살·미륵보살·금강장보살·제장애보살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각각 탑과 여의 같은 지물을 들거나 천의자락을 잡고 있는 등 다양한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두건을 쓴 지장보살을 제외하고는 특징적인 지물이 표현되지 않아 존명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보통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지장보살과 미륵보살, 금강장보살과 제장애보살 등이 서로 상대하여 표현되는 것으로 볼 때 향우측에서부터 금강장보살, 지장보살(두건), 문수보살, 보현보살, 미륵보살(여의), 제장애보살(그릇)로 추정된다. 이들 역시 신체에 비해 얼굴이 작으며, 보관의 장식이 정교하고 수식이 풍부하게 표현되었다.

6대보살 아래로는 사천왕이 배치되었다. 이곳에는 중인방 밑에 2개의 벽선을 세워 3쪽의 토벽과 벽선 위에 그림을 그렸는데, 雨期의 빗물과 습기로 인해 박락과 손상이 심하며, 사람들의 손길이 쉽게 닿는 곳이어서인지 신장의 얼굴은 고의적으로 지워졌거나 훼손된 곳이 많으며 補彩도 가해졌다. 3칸으로 벽을 나누어 중앙에는 2구, 좌우에 각 1구씩의 천왕을 배치하였다. 조선시대의 사천왕은 보통 동북천왕, 서남천왕이 짝으로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볼 때, 용을 든 천왕이 동방지국천, 칼을 든 천왕이 북방 다문천, 화살을 든 천왕이 남방 증장천, 비파를 든 천왕이 서방 광목천으로 추정되지만 다른 사천왕상들과 지물이 달라 존명은 확실하지 않다. 천왕은 모두 장대한 신체에 갑옷을 입고 있으며 신장으로서의 위엄과 당당한 모습이 잘 표현되었다.

한편 중앙칸 벽화의 향우측 벽에는 팔부중 가운데 4구가 그려져 있다. 위에는 날개를 활짝 펴고 있는 구반다가 배치되었으며 그 아래로 象王이라고 적힌 코끼리 모습의 신장과 홀을 든 천, 어금니가 날카롭게 튀어나온 모습의 마후라가가 그려졌다.

이와 상대하는 반대편 동벽에도 나머지 4구의 신장이 그려졌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는 팔부중 가운데 1구만 남아있다.

[동측면 벽화]

동측면 벽에는 서측면벽과 마찬가지로 상인방이 그림의 중앙을 가로 지르고 벽선이 상하에 2개씩 있어 6쪽으로 되어 있다. 중앙칸은 서측벽과 마찬가지로 3단으로 구성되었는데, 중단과 하단의 벽화는 탈락되었으며 왼쪽 칸 하단은 문으로 되어 있어 벽화가 그려지지 않았고 오른쪽 칸의 벽 일부에 벽화가 그려져 있다.

중앙칸에는 약사삼존도가 묘사되어 있다. 다양한 색대로 장식된 광배를 배경으로 본존 약사불은 결가부좌의 자세로 앉아있는데 머리에는 육계가 뽕족하며 머리 중앙에 계주가 표현되었다. 얼굴은 둥근 편으로 눈 꼬리가 위로 치켜 올라갔으며, 신체는 어깨가 직선적이며 사각형적이어서 아주 장대해 보인다. 옷은 통견으로 붉은 대의를 걸쳤으며 옷깃에만 무늬가 표현되었다. 오른손은 들었으며 왼손은 배에 대어 약그릇을 든 약기인을 취하였다. 왼쪽에는 일광보살, 오른쪽에는 월광보살이 협시하였는데 각각 보관에는 붉은 해와 흰 달을 표현하였으며 일광보살은 연꽃줄기, 월광보살은 여의를 들었다. 풍만한 얼굴에 장대한 체구가 서측벽면의 아미타삼존도와 유사하다.

약사삼존도 아래에는 人獅子王이라고 쓴 입상의 신장이 1구 배치되어 있다. 하체부분의 탈락이 심하지만 붉은 머리칼이 위로 뻗쳐올라간 모습과 작은 얼굴에 치켜 올라간 눈, 팔자의 붉은 입 등에서 험상궂은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다. 머리 옆에 흰 달의 모습이 보이고 양발의 머리를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아수라상일 가능성이 있지만 전체적인 모습을 알 수 없어 확신하기는 어렵다.

2) 자료 : 현판기문

- 신흥사대웅전중수기 현판(1801년)



新興寺大雄殿重修記

洪惟我釋迦氏之垂化也分身百億應跡十方
 開導群迷○拔流品爲一代之教主作萬古之表準
 凡有寫刹之羅於八城者孰不爲之尊仰其範執持其
 道也哉梁之新興大雄殿亦善逝之遺貌而始創於
 順治己酉性淳師之所尸之也於焉之間棟樑腐隕
 丹碧漫漶風雨之侵幾及尊像不能免仰屋之
 歎久矣時九龍大士居其寺慨然發心押募疏得八百
 餘財辛酉仲春始運斧至孟夏設功而香爐殿五間
 亦同時改造輪奐翬飛增俊舊制余時在梵魚寺欲
 賀九龍之勞而無由也此際公作蓬萊之行因過余
 請記文余曰諾自古名山勝刹豐功偉績之傳於後世
 者皆由記而詳也今公之善葺亦出於○神積○而能
 易舊增新興廢補完惡不可記而傳之耶雖然兔角
 龜毛之畫樑混入於空花幻域之中而景色本空無物
 可取復何有寶刹之莊嚴酣宮之修飾乎且談功記績皆涉
 於誇而喪於儉非吾佛所謂難相不着之意也公若脫之而歸
 功於太空卽無形之德不言之功垂空劫而無盡也公曰我則不有
 之功而都監淨雲師之執勞不可以不錄遂書而誌之
 嘉慶六年辛酉七月日 浩溟軌觀述

施主秩	李宗權	一兩秩	金后是	
嘉善金斗善五十兩	金道昌		宋己男	緣化秩
嘉善有○二十兩	車至暎		宋興孫	都片手道云
襄開世十兩	洪樂函		金一○	前韓大順
崔尙○十兩	金○口		禹春成	後吳石天
金奉才十兩	金七宝		俞○○	安○枝
宝敏七兩	朴命石		金有成	金命得
萬峰五兩	姜以大		文性	卜但

吳大行五兩	池仁采	助○秩	金○化
鄭德○	二兩秩 池魚大	有札	知閑
奇○○	池麗○	瑞允	快文
韓○○	金大成	瑞快	趙允卜
全○安	○○○	幻一	冶金正云
永守	南氏	兼玉	蓋瓦朴同仁
萬學	通度寺	寬○	允○
道心	梵魚寺	有文	鉅刀襄后時
有行	吳正寺	定守	金正孫
金○任○	一兩秩 國清寺	性守	負木朴得世
三星暑澄	雲水寺	成○	供養 文字
影月○澄	石南寺	普札	戒玉
念一	極樂庵	成一	性云
宝○	內院庵	成○	本寺秩
有希	呂一禮	成○	前御平順
慎寬	尹臧	慶信	有寬
抱印	體有	成玉	有札
戒○	崔○卜	成學	瑞允
守悟	林○柱	性○	觀榮
有還	尹尙○	有登	董玉
能玳	黃得用	性○	宝敏
萬曄	金用○	天俊	時任憂定
偉○	鄭靜○	有安	書記萬○
宏學	安○校	金昇用	典座萬曄
炯心	劉漢徵	張三采	首僧成侃
就奎	劉漢慶	金○文	直歲有信
成俊	李思烈	菊洋	三補性覺
鄉校中	徐昌永	金血喆	東片長成敏
養士齋	金奉世	李是石	西片長性惠
作廳	朴慶俊	金孫男	山中秩
杖房	金啓用	安望重	淨雲體休
校首老廳	張一奉	金次喆	藥峰永希
判廳正祖十石		林○年壽	九龍有澹
大化士九龍有檐		金壽福	持殿戒言

都監淨雲體休	金俊	寺主有寬
次化藥峰永希	金卜來	功刻○秀文五貫
別座通政萬曄	化主陪行成敏	性林
外都監通政有札	性○	

持殿新岩戒言募得二千貫立法字長灯本資又以爐殿
修裝等事專身用苦不必皆記

內外往返幹事通政觀榮 侍奉定和同苦
里一日土役 成一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신흥사 대광전의 벽화는 건물 내·외벽과 포벽, 건물 내부의 대량과 고주에 그려진 별화 등을 포함하여 50여점에 이른다.

내부의 벽화는 동·서면(건물을 향하여 우와 좌측)의 벽체와 남·북면의 포벽과 내목도리 윗벽 그리고 후불벽 뒷면 등 빈 공간 없이 부처의 세계로 벽을 가득 채우고 있다. 특히 건물이 맞배지붕이어서 동·서면의 벽면이 매우 넓은데 이에 걸맞게 그려진 불·보살도는 다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위용이 느껴진다. 동면의 벽화는 벽면 중앙 윗부분에 앉은 자세의 藥師三尊圖, 좌·우측의 평주와 창방 위에는 如來圖와 八相圖, 벽면을 향하여 왼쪽 끝 창방 아래 벽에는 阿修羅圖가 배치되어 있다.

서면의 벽화는 벽의 가로부재인 중방과 상방이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상하 거의 三等分으로 구분한 화면에 그려져 있다. 제일 윗부분에는 앉은 자세의 阿彌陀三尊圖, 중간부분에는 6軀의 菩薩圖를, 중방 아래인 제일 밑부분에는 四天王圖를 배치하였다. 좌·우측의 평주와 창방 위에는 동벽과 마찬가지로 如來圖와 八相圖를, 벽면을 향하여 왼쪽 끝 창방 아래 벽에는 神衆圖가 그려져 있다.

후불벽 뒷면에는 검은 군청 바탕에 白色顔料로, 좌상의 관음을 중심으로 좌우에 입상의 관음을 묘사한 <線描 三觀音圖>가 있다. 이 이외에도 빗반자, 포벽, 내목도리 등에 각종의 벽화가 그려져 있다.

신흥사 대광전은 1988년 해체보수 때 발견된 상량문의 ‘順治十四年 丁酉年(1657)’이라는 기록과, 이보다 4년 앞선 ‘順治十年(1653)’銘의 암막새 기와를 통해 1657년(효종 8) 건립된 건물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대광전은 원래는 대웅전 이었던 듯하며, 「新興寺大雄殿重修記」 현판의 내용에 의하면 1801년 대대적인 보수가 시행되었다 한다. 이 기록을 통하여 볼 때 신흥사 대광전의 벽화는 우선 17세기 후반 건물을 중창하였을 때 그려졌고 이후 또 한번 대대적

으로 중수한 1801년에 개채 또는 새로 그린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근거로 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벽화의 상태를 살펴보면, 동벽과 서벽의 약사와 아미타삼존도는 일부 개채가 있기는 하지만 17세기 후반의 모습을 거의 유지하고 있으며, 서벽의 6軀의 보살도와 그 아래의 사천왕도 역시 개채가 되었으나 비교적 원상을 잘 전하고 있다. 그러나 東西 양 벽의 八相圖를 비롯하여 포벽과 내목도리 윗벽의 여래도 등은 여러 번에 걸친 개채로 인해 원래의 모습을 잃었으며 후불벽 뒷면의 <線描 三觀音圖>는 1801년 대대적 중수 시에 그렸을 가능성이 많다.

신흥사 대광전 벽화는 비록 일부가 개채되었고 19세기 초 중수 시에 그려진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동·서면의 약사삼존도와 아미타삼존도의 경우는 도상과 형상 등에서 전형적인 17세기 불화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동·서면의 벽화는 국내 유일의 17세기 후반의 귀중한 사례로 아수라도, 신중도와 함께 국가 문화재 보물로 지정하여 보호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 (지정 가치 있음)

양산 신흥사는 원효대사(617~686)가 처음 개창했다고 전한다. 이후 사적기라든가 관련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연혁은 알 수 없지만, 1988년 대광전 해체 보수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암막새 기와에 ‘順治十年四月’이라고 쓴 명문이 발견되어 1653년에 대광전에 사용할 기와를 제작한 사실이 밝혀졌고, 해체 보수 때 종도리 뱃바닥에서 발견된 묵서된 상량기에 ‘順治 十四年 丁酉年 四月 十七日 上樑’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1657년에 현재의 대광전이 건립되었음이 밝혀졌다.

또한 현재 대광전에 남아 있는 「新興寺大雄殿重修記(1801년)」 현판에 “... 대웅전은 順治 己酉년에 性淳스님이 주관하여 창건했으나 세월이 흘러 棟樑이 썩어 떨어지고 단청이 흩어졌으며, 비바람이 尊像에 미치게 되니 지붕을 쳐다보고 탄식함을 면하지 못한 지 오래되었다. 이때 九龍대사가 절에 거주하면서 사람들에게 募緣을 하여 신유년 仲春에 공사를 시작하여 초여름에 이르러 공역을 마쳤으며, 香爐殿 5칸도 동시에 개조하였다” 라는 기록이 있어 1801년에 대광전을 중수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록으로 볼 때 신흥사 대광전의 벽화는 17세기 후반 건물의 중창과 함께 그려진 듯하며, 「신흥사대웅전중수기」에서 보듯이 19세기 초 중창 때 부분적으로 보수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앞에서 언급한 벽화들은 양식적 특징으로 볼 때 17세기에 대광전이 중수될 당시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인물에 보이는 형태적 특징, 예를 들어 풍만한 얼굴과 큼직한 나발의 표현, 치켜 올라간 얼굴과 작은 입, 방형의 긴장한

신체표현 등은 1687년 쌍계사 영산회상도를 비롯하여 1649년 보살사 영산회상패불도, 1653년 화엄사 영산회상패불도 등 17세기 중반 경의 불화와 유사한 특징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들 벽화 또한 17세기 중엽 경에 처음 그려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서벽 하단의 사천왕도라든가 동벽 하단의 팔부중도 같은 일부 벽화는 사람의 손이 쉽게 닿는 곳에 위치하고 또 벽체를 통해 들어온 빗물의 피해로 인해 벽체의 손상과 채색의 박락이 심하며 후보의 흔적이 보인다.

신흥사 대광전 벽화는 서측면 벽에 아미타팔대보살도와 사천왕 및 팔부중을 배치하고 동측면 벽에는 약사삼존도와 팔부중을 배치하였으며, 현재는 남아있지 않지만 후불벽에 석가모니벽화가 그려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구도는 중앙에 석가모니불화를 배치하고 향우측에 약사여래도, 향좌측에 아미타여래도를 배치하는 삼세불화의 구성을 보여줌으로써 조선시대 벽화로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삼세불벽화로서 중요성이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조선 후기의 벽화 가운데에서는 가장 연대가 올라가는 작품이자 다양한 도상을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다. 이에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 (지정 가치 있음)

양산 신흥사 대광전은 1988년 해체수리 시, '順治十年四月'銘이 있는 암막새가 발견되었고 중도리 뱃바닥에는 '順治十四丁酉年四月十七日 上樑'이라는 목서상량기가 발견되어, 1657년에 크게 중창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801년에 씌여진 「新興寺大雄殿重修記」에 따르면, 順治 己酉年 性淳이 주관하여 창건한 대웅전이, 棟樑이 썩고 단청이 흩어져 비바람이 존상에 미치게 되어 九龍大師가 모연하여 嘉慶 6年 辛酉(1801) 仲春에 공사를 시작하여 초여름에 공사를 마쳤다고 한다. 이 기록을 통해, 초창기에는 '大雄殿'이라는 전각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고, 1801년에 단청을 비롯한 벽화 등에도 대대적인 보수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신흥사 대광전 내·외벽에는 총 71폭의 벽화가 현존하고 있다. 그 중 주제의 완결성을 가진 벽화는 좌·우측벽의 약사·아미타여래설법도, 신중도, 그리고 후불벽면의 三觀音菩薩圖 정도가 여기에 해당하며, 지정대상 검토 대상도 이에 한정한다.

대광전 좌·우 벽면에는 약사여래삼존도 벽화와 아미타여래설법도 벽화가 그려졌다. 대광전의 좌우 측벽은 건축의 구조상 상하로 3개의 벽면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좌우 벽면의 벽화도 3단 구도로 되어 있다. 서벽에 그려진 아미타여래

설법도는 최상단에 아미타여래삼존도를, 중단에 6대보살, 하단에 사천왕상과 신중을 위계질서에 맞게 배치하였다. 좌측벽의 최상단에는 日光과 月光菩薩을 협시로 한 약사여래삼존도가 그려졌고, 중단은 후대에 벽체가 교체되어 어떠한 벽화가 그려졌는지 알 수 없으며, 하단에는 아수라왕도 1위가 남아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중앙 후불벽에는 석가여래설법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레야만이 초창기의 대응전의 전각명과 부합한다.

신홍사 대광전 좌우측벽의 약사여래삼존도 및 아미타여래설법도 벽화는 임진왜란 이후 재건불사 과정에서 크게 유행한 삼불신앙과 깊은 관련이 있다. 삼불신앙은 조각으로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조성되어 그 예가 많은 편이나 불화는 일반적으로 18세기 이후에 많이 그려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개 불화에서는 3폭의 후불화로 그려진 예가 많으며, 벽화로 그려진 예는 신홍사 대광전 벽화를 비롯하여 범어사 대응전, 통도사 약사전 등이 있다. 이러한 삼불형식은 조각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지고, 이어서 후불화 내지 벽화와 후불화의 혼합된 형태로 조성되어 나간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신홍사 대광전 약사삼존도, 아미타여래설법도 벽화는 벽화로서는 매우 드문 三佛會 형식의 構成을 보여주는 예이다. 특히 아미타여래설법도는 아미타여래삼존, 6대보살, 사천왕, 팔부중이 체계적으로 배치된 설법도적 구성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예라고 하겠다. 비록 후대에 일부에서 보채와 보수 흔적이 있지만 필선, 형태, 채색, 문양 등에서 17세기 후반기의 양식적 특징을 잘 간직한 벽화이자 가장 이른 시기의 三佛會 벽화라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후불벽면 뒷벽에 흑색바탕에 백색 선묘로 그려진 三觀音菩薩圖는 水月觀音을 중앙에 두고 좌우에 魚籃觀音과 白衣觀音이 협시하는 형태로 그려진 벽화이다. 33변화 관음 중 수월, 백의, 어람관음 3위를 선택하여 마치 삼존형식처럼 구성한 독특한 형식의 선묘불화이자 국내 유일한 예에 해당한다. 삼관음보살도는 색채를 제외한 인물표현이나 선묘, 형태, 비례 등에서 아미타설법도 벽화와 거의 유사한 양식적 특징을 간직하고 있으나 수법이나 기량에서 다소 떨어진다. 동시기, 같은 화원에 의해 조성되었을 수도 있으나, 수법 상 1801년 중수 시 기존의 것을 바탕으로 다시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정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지정 가치 있음)

신홍사 대광전의 건물 내·외벽에 그려진 채색 벽화는 내부 56점, 외부 15점 등이 전한다. 외부 벽화는 풍화로 인해 박락이 심해 도상 전모를 파악하기 어

려우나, 내부 벽화는 벽체의 균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상을 제외하고 대체로 양호하며, 뛰어난 화풍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사찰 건물들이 보수되는 과정에서 벽화가 사라져가는 점을 고려할 때, 대광전 벽화는 매우 귀중한 자료로 높이 평가된다.

현재 내부 벽화 중 가장 주목되는 벽화는 동·서측 벽화와 후불벽 이면의 관음벽화다. 동측벽은 중앙칸을 상·중·하 3단으로 구분하여, 상단에는 약사와 일광·월광보살로 구성된 약사삼존도를 그렸고, 중하단 벽체는 새로 교체된 것으로 현재 벽화는 남아있지 않으며, 하단부 향좌측 벽에는 아수라상이 그려져 있다. 서측벽도 동측벽과 같이 중앙칸을 상·중·하 3단으로 구성하였고, 중앙칸의 상단에는 아미타와 관음·세지로 구성된 아미타삼존도를, 중단부에는 육대보살을, 하단에는 사천왕을 각각 배치하였다. 그리고 하단부 향우측벽에는 신장상을 그렸다.

동서측벽의 약사삼존도와 아미타삼존도의 본존상은 설법인에 결가좌를 취하고, 협시보살상은 모두 한쪽 발을 아래로 내려뜨린 유희좌의 자세이다. 약사여래의 두부는 지발과 치숯은 육계에 중간계주와 정상계주를 갖추고 있는 반면, 아미타는 지발과 완만하게 솟은 육계 사이에 중간계주만 표현하였을 뿐 정상계주는 생략하고 있다. 본존의 상호는 장방형에 턱 선이 약간 가름한 편으로, 양쪽 눈 꼬리는 치켜 올라가고, 입술 가운데는 완만한 능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뚝 솟았으며 양쪽 입 꼬리는 수평상으로 길게 뻗은 형태이다. 신체는 넓게 떡 벌어진 어깨를 지닌 건장한 모습이다. 협시 보살상의 측면 얼굴은 양볼에 양감을 지닌 통통한 모습으로 17세기 불화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다만 본존의 가슴아래에 중방이 가로질러 채색의 결락과 마모현상이 보이며, 연화대좌의 청색 안료의 박락도 심하다. 게다가 약사삼존도의 연화대좌 줄기에 채색된 녹색이 아미타삼존도에는 백록색으로 칠해진 점, 육보살상의 안면에 칠해진 백색과 균의의 백록색 등은 모두 후대에 가채된 흔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하단부에 그려진 사천왕과 신장상 부분에 농채 및 농묵의 거칠고 경직된 선묘를 사용하고 있으며, 황색, 흑색, 대자, 백색, 백녹색 등의 보채, 안면부의 색선묘, 농묵의 이중선묘의 의습선 등에서 개채 흔적이 보인다. 전체적으로 벽화의 하단부는 상단부보다 훼손되기 쉬운 위치여서 몇차례 걸쳐 보채나 가필 등 개보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후불벽 뒷면의 흑색 바탕에 백선묘로 그린 관음벽화는 중앙의 수월관음좌상을 중심으로 어람관음과 백의관음 입상을 협시로 배치하였다. 이 벽화는 본존 관음좌상을 중심으로 응신장면을 조합하여 구성한 관음벽화로 조선 후기 주전각 후불화로서 매우 중요한 사례이자 유일한 사례이기도 하다. 중앙

의 관음좌상의 상호는 동서측벽 본존상의 표현기법과 거의 흡사하다. 관음의 정병 역시 17세기 정병의 흐름을 이어받고 있으며, 3위의 관음상의 착의에 시문된 각종 기하학적인 문양의 모티프 역시 16세기 선묘불화의 문양을 이어받고 있다. 다만 부분적으로 후대에 손을 댄 흔적이 엿보인다.

신흥사 대광전 벽화의 조성시기는 대광전이 1657년(효종 8)에 중창된 건물로 추정되어 동·서측 주요 벽화는 17세기 후반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신흥사대웅전중수기」 현판을 통해 대광전이 1801년에 중수된 사실로 미루어 이 시기에 벽화가 보수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이후 부분적으로 개채가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신흥사 대광전 벽화는 조선시대 사찰벽화로서 규모도 대작일 뿐만 아니라 17세기에 조성된 사례로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 아울러 벽체에 묘사된 도상들의 조합 역시 한국 불교회화사 연구에 자료적인 가치가 높으며 화풍 또한 수작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신흥사 대광전(보물 제1120호) 벽화는 전각 건물과 별도로 국가지정문화재로 보존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관음벽화는 제작시기에 대해 검토를 요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번 지정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藥師三尊圖, 210×347, 17세기 후반



阿修羅王圖, 250.4×66, 17세기 후반



阿彌陀三尊圖, 229×342.5, 17세기 후반



六大菩薩圖, 195×342.5, 17세기 후반



四天王圖, 155×335, 17세기 후반



神衆圖, 250.4×137, 17세기 후반

13. 포항 중성리 신라비(浦項 中城里 新羅碑)

가. 심의사항

“포항 중성리 신라비”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포항 중성리 신라비”는 도로개설 현장에서 발견('09.05.11)된 후, 발견매장문화재분류평가심의회('09.10.29) 및 보존처리('10.04.~09.)를 거쳐 국가귀속('11.09.05)이 되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1.10.10)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은 현지조사자 3인 이상이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문화재로 본 위원회 2011년도 제6차 회의('11.12.13)에서 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 30일간 지정 예고('11.12.23~'12.01.22)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포항 중성리 신라비(浦項 中城里 新羅碑)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로 132(마동 931)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수 량 : 1기
- 규 격 : 높이 105.6cm, 너비 47.6~49.4cm, 두께 13.8~14.7cm, 무게 115kg
- 재 질 : 화강암
- 제작연대 : 441년(신라 눌지왕 25) 혹은 501년(신라 지증왕 2)으로 추정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포항 중성리신라비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이 비는 신라사 연

구에 획기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비의 발견 장소가 냉수리신라비 발견 장소로부터 8.7km 밖에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인 데다, 비문의 내용 또한 유사점이 많다는 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지방민이 관여된 재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다는 점, 이들 분쟁에 대해 신라의 지배층들이 합동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었다는 점, 판결 이후 이들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재발방지를 명시하고 있었다는 점 등의 유사성이 있고, 그리고 관직명과 관등 표기의 유사성 및 냉수리신라비에 나타나는 인물과 동일인이라고 추정되는 인명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시 신라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내용을 연구·확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특히 이 비는 지금까지 발견된 신라비 중에서 그 연대가 가장 앞선 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신라의 서예사와 신라인의 심미경향을 연구하는 데 획기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문장 기술이 능숙하거나 세련되지 못한 점으로 보아 당시 신라에서는 중국의 한문(漢文)이 크게 보편화되지 않았음을 추정해 볼 수 있으며, 또한 비문의 서체로 보아 중국의 한(漢)나라 또는 위진(魏晉)시대 서예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겠다. 이 비의 서체를 굳이 중국의 서예 발전의 과정 상에서 비추어 본다면, 소전(小篆)으로부터 예서(隸書)로 이행되어 가는 과정 상의 고예(古隸)에 비견해 보거나, 상하 장방형(長方形)의 소전체로부터 좌우 편방형(偏旁形)의 예서체로의 이행 과정 상에서 잠시 나타났던 파책(波磔)이 없는 고예체에 비견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중국의 서체와 서풍에 별로 영향받지 않은, 신라의 자생적, 토속적 서체·서풍이라 하겠다. 글자의 결구가 불균형의 조화를 이루면서, 토속적이고 서민적인 익살로 넉넉한 여유로움의 자유를 구현하는 무정형(無定形)적 서예미학을 창출하고 있다. 이는 어느 서체·서풍만을 고집하지 않고 전법(篆法)·예법(隸法)·해법(楷法)은 물론 행법(行法)까지도 두루 섭취·융합하여 불균형의 조화를 구현하고 있는 신라적 자생서예라고 하겠다.

여기서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비의 서체가 광개토태왕비의 서체 풍모와는 크게 구별되면서도, 앞서 지적했던 이 비의 서체 특징을 광개토태왕비의 서체에서도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광개토태왕비의 서체 역시 파책이 없는 고예에 가까운 데다, 불균형의 조화를 이루면서 토속적이고 서민적인 익살로 넉넉한 여유로움의 자유를 구현하는 서예미학을 창출하고, 또한 어느 한 서체만을 고집하지 않고 전법·예법·해법·행법을 두루 섭취·융합하고 있다. 다만 포항 중성리신라비가 보다 무정형적이라면 고구려 광개토태왕비는 보다 정형적이라는 데에 차이가 있다. 이 비는 통일신라 이전 신라시대의 심미의식과 초기 신라서예사를 밝히는 데 획기적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비는 통일신라 이전의 역사와 문화 예술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

치가 충분하다.

○ (지정 가치 있음)

포항 중성리 신라비의 고고학적 연대 추정이나 사료적 가치에 판단에 대해서는 본인이 언급할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비문 내용의 문장 해독을 시도해 본 결과에 의한 소견만을 말하기로 한다.

그 결과에 의하면, 이 금석문은 토지나 재산권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일종의 판결문으로서의 성격을 띤 문서로 추정되며, 이를 돌에 새겨서 세워두었다는 데에 큰 특색이 보인다.

이 비문 이외에 이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금석문이 출현하지 않는 한, 이 비문 자체의 완벽한 해독에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드러난 이 비문 그 자체만으로도 서기 6세기 초(이 금석문에 표기된 간지 신사(辛巳)년을 서기 501년으로 비정할 경우)의 신라 사회상이나 제도, 관명, 인명 및 언어 사용의 관행과 신분제도사의 수수께끼를 풀어 나가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금석문이 일단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포항 중성리 신라비에 대하여 금석학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연구를 통하여 고신라비로서 판명이 난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전제로 하면서 서예의 측면에서 자료의 가치와 근거기준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이 비의 글씨체는 예서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곧 고구려의 광개토호태왕비와 통하는 고예서로서 신라특유의 진솔미를 십분 발휘하고 있다. 가로획에서 수평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울기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에서 예서임을 증좌할 수 있으며 다소 보이는 해서의 필의는 단양적성비 같은 고해서로 변해가는 전초요 선구가 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냉수리비와 봉평비보다도 더욱 신라스럽다는 점에서 더욱 그 가치가 부여되고 있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연구되어진 냉수리비나 봉평비 등에서 밝혀졌듯이 이 비에서도 글씨체에서 보이고 있는 6세기 전반의 특징 속에서 당시의 문자생활의 정도와 고대 한자어의 쓰임 및 용례 등을 바탕으로 우리 고대사연구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상의 의견들을 근거로 하여 이 비의 중요성은 물론 서예의 예술적인 차원 또한 매우 높은 점을 주안점으로 볼 때 그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에 부합된다

고 본다.

○ (지정 가치 있음)

辛巳年 곧 441년, 501년, 561년 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신라전기의 빗돌은 간혹 희미한 글자가 있기는 하나 세척, 적외선 촬영 방법으로 판독이 거의 가능하며, 연대도 올진 봉평비(국보 제124호)나 영일냉수리비(국보 제264호)와 거의 같은 시기의 것으로 직명, 출신지명, 인명, 관등명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교시를 내리는 이, 교시를 받는 이, 아되는 이, 소송당사자, 서약하는 자, 기록하는 자 등등이 비교적 자세히 나오고 있어 신라 전기의 소송 내용 및 제도, 인물 등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국보급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됨.

○ (지정 가치 있음)

1. 석비는 시대에 따라 치석 수법이나 명문을 새기는 기법 등이 점차 발전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초기에는 암벽이나 자연석에 가까운 돌에 명문을 새기는 방식에서 점차 비신면을 고르게 다듬어 정연한 모습으로 명문을 새기게 된다. 또한 비신을 사각형태로 정연하게 치석하고 각 면을 깔끔하게 다듬어 일정한 체계에 의하여 명문을 새기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비신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받침이나 개석을 마련하여 비신을 보호하거나, 통일신라 초기에 들어서면 귀부나 이수를 결구하여 비신에 대한 상징성과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되는 양상을 보인다.

2. 포항 중성리 신라비는 서체와 명문 각자 기법이 완전한 모습보다는 자연적이어서 다소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받침이나 개석 시설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비신은 정연한 치석 수법 보다는 자연석 상태의 화강암을 고르게 다듬지 않고 비문이 새겨지는 면만 비교적 깔끔하게 다듬어 글자를 음각하여 초기적인 석비 양식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초기적인 신라 석비로는 무술명 오작비, 영일 냉수리 신라비, 남산신성비, 올진 봉평 신라비, 영천 청계비 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석비 양식이 발전하면 단양 신라 적성비, 진흥왕 순수비와 같이 비교적 정연한 치석으로 건립된 석비들이 출현하게 된다.

3. 이러한 신라 석비 변천 과정으로 보아 포항 중성리 신라비는 초기적인 석비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비신에 새겨진 명문에 신라의 지명, 인명, 관직과 관등명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비문 첫머리에 ‘辛巳’ 라는 간지가 있어 건립 시기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문헌이 영성한 신라사 연구에 귀중한 학술적 자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지

정문화재로 지정 관리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보물로 지정함.
 - 임시 관리단체 지정(국립경주문화재 연구소)

조사보고서

□

○ 현 상

본 포항 증성리신라비는 상부가 약간 넓고 하부가 약간 좁은 모습으로, 최대 높이가 105.6cm, 너비 47.6~49.4cm, 두께 13.8~14.7cm이며, 무게는 115kg이다.

비의 윗부분은 가장자리를 따라 일부 손상되었으나 전체적인 형태는 크게 변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굴삭기 등의 장비에 긁힌 흔적이 비면의 중앙과 아래쪽 부분에 남아 있다.

글자의 새김은 앞면에서만 확인되고 있으며, 면을 약간 편평하게 치석한 후 새긴 듯 하다. 뒷면은 비교적 편평한 편이나 글자는 새겨져 있지 않다. 글자는 모두 12행이며, 각 행마다 적게는 6자에서 많게는 21자가 새겨져 있다. 총 글자 수는 최다 203자로 추정되며, 대부분의 글자가 판독이 가능할 정도로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글의 행은 우로부터 좌로, 위로부터 아래로 읽는 순서로 새겨져 있으며, 중간부분에서는 약간 왼쪽으로 새겨져 줄이 전체적으로 비뚤어져 있다. 비의 오른쪽 가장자리면의 형태가 중앙 부분에서 약간 들어가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좁아진 때문이다.

비에 새겨진 글자의 크기는 최소 2×2cm에서 최대 3×5cm 정도다. 글자가 새겨진 전면의 경우 1행과 12행을 제외한 매 행의 글자가 새겨진 부분은 57~71.7cm 정도이다. 글자가 새겨진 가로 폭은 30~44cm 정도이고, 상당부분이 하단부분에 비해 다소 넓은 모양이다. 비의 좌우 가장자리에도 약 1.5~5.5cm 정도의 여백을 두고 글자를 새겼다. 글자의 배치 상태로 보아 비의 윗부분은 최소한의 여유 공간만을 남겨 둔 채 비의 테두리 형태를 따라 가장 위쪽에서부터 글자를 새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 행의 첫 글자들은 높낮이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약간씩 들쭉날쭉한 모습이다.

비의 아랫면은 약 19~22cm 정도 높이만큼 글자를 새기지 않은 빈 공간을 남겨 두었다. 비를 다른 물체(비좌 등) 위에 끼워 새우기 위한 여유 공간으로 추정된다.

○ 내용 및 특징

비의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각자의 심도도 깊어서 판독하기가 어렵지 않은 편이나, 몇 개의 글자가 마모되어 판독하기 어려운 데다, 관직과 관등 또는 인명 등을 명확하게 읽어 낼 수 없고, 문장 또한 세련되지 못하여 전체 내용을 완전히 해독하기가 쉽지 않다. 해독 내용은 앞으로의 더 깊고 정확한 연구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다시 정리하여 아래에 옮긴다.

“신사년 ○○ 중 절로○ 휘부의 습지아간지와 사훼의 사덕지아간지가 사훼의 이추지나마와 휘부의 본지나마에게 명을 전한다. 본모자(원주인)인 휘의 사리이사리의 말에 의하면, 소송한 사람은 휘의 평공사미, 사훼의 이수모단벌, 휘의 사리일벌과 피말지·본피훼의 사간지와 불내일벌, 금평사간지, 제지일벌이고, 사인은 나소독지이며, 도사는 휘의 염모지와 사훼의 추수지이다. 이에 거벌의 일사리소두와 고리촌의 구추열지간지와 비죽휴일금지, 나음지촌의 복악간지 및 주근일금지에 명령하고 세간에 알린다. 진벌은 옛날 한 때 두지사간지궁과 일부지궁의 것으로 불렸지만, 이제는 다시 모단벌훼의 작민 사간지에게 돌려 주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사인 과서모리는 후세에 만약 이에 대해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있다면 중벌을 가할 것이라 선언하였다. 전서 여모두가 그 까닭을 기록하고, 사훼의 심도리가 ○한다.”

원문은 아래와 같다.

辛巳○○中折廬○

喙部習智阿干支沙喙斯德智阿干支

教沙喙尔抽智奈麻喙部本智奈麻本牟子

喙沙利夷斯利白爭人喙評公斯弥沙喙夷須牟旦

伐喙斯利壹伐皮末智本彼喙柴干支弗乃壹伐金評

○干支祭智壹伐使人奈蘇毒只道使喙念牟智沙

喙鄒須智世令于居伐壹斯利蘇豆古利村仇鄒列支

干支沸竹休壹金智那音支村卜岳干支走斤壹金支

珍伐壹昔云豆智沙干支宮日夫智宮奪尔今更還

牟旦伐喙作民沙干支使人果西牟利白口若後世更

善人者与重罪典書与牟豆故記

沙喙心刀里○

이 비의 특징은 <영일냉수리신라비(503년)>, <울진봉평신라비(524년)>과 같은 유형의 울령비에 속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부의 명칭과 지명·인명·관직·관등명 등이 다수 언급되어 신라문화사 연구에 큰 자료가 된다는데 있다. 이 비에 나타나는 고유명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부(部)의 명칭이나 지명을 나타내는 것, 인명을 표기하고 있는 것, 관직 및 관등명을 가리키는 것이 그것이다. 이들에 대한 연구와 분석은 향후 이 비의 정확한 제작 시기와 당시 지방 통치방식 및 관등체계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부의 명칭에 휘부(喙部), 사훼(沙喙)가 등장하고, 지명에 거벌(居伐), 고리촌(古利村), 나음지촌(那音支村), 진벌(珍伐)이 등장하고, 관등명에 아간지(阿干支), 사간지(沙干支), 나마(奈麻), 간지(干支), 일벌(壹伐)이 등장하고, 관직명으로 도사(道使), 사인(使人)이 등장하고, 인명에 습지(習智), 사덕지(斯德智), 이추지(亦抽智), 사리(斯利), 나마독지(奈麻毒只), 구추열지(仇鄒列支), 비죽휴(沸竹休) 등이 등장하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보다 요구된다.

이 비의 또 하나의 특징은 지금까지 발견된 신라비 중 가장 연대가 앞선 것으로, 영일냉수리신라비·울진봉평신라비 등의 서체와 흐름을 같이 하면서도, 보다 신라적인 서예의 원형성을 간직한 신라의 자생적 서예라는 점이다.

□

○ 내용 및 특징

- 토지나 재산권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판결문으로서의 성격을 띤 문서
- 6세기 초의 사회상이나 제도, 관명, 인명 및 언어 사용의 관행을 알 수 있음

□

○ 현 상

화학작용에 의한 변색이 나타나 있고 발굴 당시 굴삭기에 의한 상흔이 테두리에 조금 발견되지만 상태가 매우 양호함

○ 내용 및 특징

부의 명칭, 지명, 인명 그리고 관직명 등을 통하여 당시의 지방의 통치방식, 관등

체계, 지방의 행정단위나 그 편제 등을 고찰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예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서체는 古隸書에 속하며 단양 적성비의 세련된 古楷書체 이전의 냉수리비, 적성비 등과 맥을 같이 하는 6세기 전반의 서체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문헌자료

기존의 연구자료인 냉수리비, 봉평비, 천전리서석, 창녕비, 북한산비 등등의 것들과 2009년 9월 발견기념 학술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논문



○ 내용 및 특징

포항시 흥해읍 중성리 167-1번지에 위치한 곳에서 발견된 이 비는 흑운모 화강암의 자연석에 최대 높이 105.6cm, 너비 47.6~49.4cm, 두께 13.8~14.7cm, 무게 115kg의 빗돌에 새겨진 신라 고비로, 글자는 모두 12줄, 각 줄마다 적게는 6자에서 많게는 21자이며, 총글자수는 203자 가량이다. 새겨진 글자의 크기는 최소한 2×2cm에서 최대한 3.5cm 정도이다. 빗돌에 나타난 관직명, 인명, 출신지명, 관등명 등인데, 관직명 3건, 출신지명 9건, 인명 25건 가량, 관등명 8건, 비문상 용어 몇 건 등 다양하다. 빗돌이 흠에 묻혀 있어 간혹 희미하여 판독이 어려운 글자가 있기는 하였으나, 비교적 세척 등의 방법으로 판독되고 있다. 고비는 대동소이하게 새로운 관직명이나, 인명, 지명, 제도 내용 등이 주된 내용이나, 이 비 역시 어떤 사람이 무슨 사건을 위해 소송한 내용을 판결, 서약하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 조사연구가 정밀히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현재 나타난 것만으로도 신라 고비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것으로 사료되느니 만큼 매우 소중한 자료이다.



○ 현 상

1. 포항 중성리 신라비는 행정 구역상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중성리 167-1번지의 현 흥해 중앙교회 앞에서 발견되었다. 이 일대는 발견 당시 포항시가 시행하는 주민생활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도로개설 작업이 진행 중에 있었다. 도로개설 작업 중 큰 돌들이 출토되었는데, 정지작업을 위하여 한쪽으로 치워 놓았다고 한다. 이 돌들 중 비교적 편평한 돌을 공사장 인근에 사는 주민이 집에서 사용하기 위해 옮겨 놓았다고 한다. 보관 중이던 돌이 빗물에 씻기면서 일부 글자가 확인되었고, 세척하여 고비로 추정했다고 한다. 그래서 지역의 전문가들에게 알렸

고, 고비임을 확신하게 되어 포항시에 신고하였다. 포항시는 2009년 5월 14일 문화재청에 발견문화재 신고를 하였으며, 관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 연락하여 현지 조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현지를 조사한 후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석비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로 이관 조치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2. 포항 중성리 신라비는 비신만으로 구성되었으며, 하부에 받침시설이나 상부에 개석시설은 마련되지 않았다. 석비는 흑운모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 흑운모화강암으로 제작되었으며, 암석의 색은 담회색이며 풍화면은 담갈색을 띠고 있다. 비신은 오랜 세월로 인한 자연적인 마멸과 훼손, 도로개설 공사 중 인위적인 파손 등으로 인한 균열과 파손 등이 진행된 상태이다. 현재의 비신은 보존처리로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3. 비신은 앞면을 비교적 고르게 다듬어 명문을 세로로 음각했으며, 좌우와 상부에 파손 흔적이 있어 최초 조성 시의 명문이 원형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다. 특히 향좌측은 크게 파손된 흔적은 없지만 향우측과 상부는 최근에 파손된 흔적이 남아있어 도로개설 공사 중에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상당수 명문이 파손 마멸된 것으로 판단되어 아쉬운 감이 있다. 비신 뒷면은 명문이 새겨지지 않았지만 앞면과 동일하게 표면을 고르게 다듬었으며, 앞면보다 많은 면적이 파손된 상태이다. 비신 측면은 파손되어 구체적인 상태는 알 수 없지만 상부로 올라가면서 약간 넓어지는 형태로 치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어쨌든 현재의 파손 상태로 보아 최초 조성시에는 평면 사각 형태로 치석되어 비문이 새겨졌을 것으로 보인다.



○ 내용 및 특징

1. 포항 중성리 신라비의 앞면은 비면을 비교적 고르게 치석한 후 명문을 새겼는데, 모두 12행으로 각 행마다 적게는 6자에서 많게는 21자까지 새겼다. 비신의 마멸과 파손으로 인하여 많은 명문이 탈락되었지만, 판독이 가능한 부분은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현재 남아있는 총 글자 수는 203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경은 최소 2cm에서 최대 5cm까지 크기가 다르며, 비신의 가장자리에는 여백을 두었다.

2. 지금까지 판독된 비문에 의하면 명문의 내용은 신라의 6부와 관련된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신라의 지명이 기록되어 있으며, 신라의 관등명과 관직명도 확인되고 있으며, 사람의 이름도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신라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3. 비신의 건립 시기는 비신의 치석 수법과 비정형적인 서체, 신라 6부의 명칭이나 관등 관직명 등으로 보아 5~6세기대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확실시된다. 특히 비문 첫머리에 '辛巳'가 새겨져 있는데, 辛巳年은 비신의 양식과 명문의 내용으로 보아 501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문헌자료

문화재청·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浦項 中城里 新羅碑』, 2009.

문화재청·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浦項 中城里 新羅碑 발견기념 학술심포지움』, 2009.

한국고대사학회, 『韓國古代史研究』 56, 2009.

한국고대사학회, 『韓國古代史研究』 59, 2009.

14. 이순신 관련 고문서(李舜臣 關聯 古文書)

가. 심의사항

“이순신 관련 고문서”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09년 현충사에 기탁된 “이순신 관련 고문서” 13매는 2011년도 제2차 회의('11.04.14) 심의를 거쳐 보물 제1564호로 지정된 바 있음.
- 본 위원회에 부의하는 2점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조사('11.12.02)를 실시한 결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 사안임.
- 위 사안은 현지조사자 3인 이상이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문화재로 본 위원회 2011년도 제6차 회의('11.12.13)에서 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 30일간 지정 예고('11.12.23~'12.01.22)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이순신 관련 고문서(李舜臣 關聯 古文書)
- 소유자(관리자) : 최순선(현충사)
-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현충사길 126 충무공 이순신 기념관
- 수 량 : 2매
- 규 격 : (1) 사패교지(賜牌教旨) 세로 79.2cm × 가로 119.0cm
(2) 증직교지(贈職教旨) 세로 64.3cm × 가로 101.0cm
- 재 질 : (1) 사패교지(賜牌教旨): 저지(楮紙)
(2) 증직교지(贈職教旨): 홍지(楮紙)
- 형 식 : 낱장
- 제작연대 : (1) 사패교지(賜牌教旨): 1653년(효종 4)
(2) 증직교지(贈職教旨): 1793년(정조 17)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調査 古文書 (1) <李舜臣 賜牌教旨(1653, 孝宗 4, 順治 10)>와 (2) <李舜臣 贈職教旨(1793, 正祖 17)>는 그 동안 李忠武公 宗孫家에서 보존되어 왔던 유물로 역사적, 학술적 측면에서 문화재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 忠武公 李舜臣 관련 일괄 문서로서 國家文化財로 지정하는데 아무런 손색이 없다.

따라서 調査 古文書 (1) <李舜臣 賜牌教旨>와 (2) <李舜臣 贈職教旨>는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保存할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評價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이 두 유물은 그동안 이충무공 종손가에서 보존되어 왔던 유물로 역사적, 학술적 측면에서 문화재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 이순신 관련 일괄 문서로서 보물로 지정하는데 아무런 손색이 없다.

○ (지정 가치 있음)

충무공 이순신의 사패교지와 증직교지는 역사적, 학술적으로 문화재적인 가치가 매우 높다. 이순신과 관련된 고문서는 이순신 선무공신교서, 이순신의 교서, 유서, 유지, 무과홍패, 증직·증시교지를 비롯하여 별급문기, 이순신처 방씨 고신교지 등 14건이 보물 제1564호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순신의 1653년 사패교지와 1793년 증직교지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보물로 지정함.
- 보물 제1564호의 가지번호로 지정함.

조사보고서



○ 현 상

문서의 하단 부분이 표구하여 전시하는 과정에서 잘려 나갔으며 교지의 경우 상태가 나빠 보존처리가 시급하다.

○ 내용 및 특징

1. 李舜臣 賜牌教旨 (1653년, 효종 4)

이순신은 1604년 6월 25일에 선무 1등 공신에 책봉되었다. 정식 명칭은 효충장의적의협력선무 공신(效忠仗義迪毅協力宣武功臣)이다. 같은 해 10월 29일에는 이순신의 초상화를 그려 후세에 전하고 관작과 품계를 세 자급(資級) 초천(超遷)하도록 했다. 아울러서 부모와 처자도 세 자급을 초천하되, 아들이 없으면 생질(甥姪)과 여서(女壻)를 두 자급 초천하고 적장(嫡長)은 세습(世襲)하게 하여 그 녹봉을 잃지 않게 할 것이며, 영원히 사유(赦宥)의 은전을 받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반당(伴僮) 10인, 노비(奴婢) 13구, 구사(丘史) 7명, 전지 1백 50결, 은자(銀子) 10냥, 내구마(內廐馬) 1필도 하사하였다. 그러나 전란 직후이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이듬해 즉 1605년 정월 19일에야 전라도 부안과 고산, 충청도 온양과 천안 등지에 있던 관노비 8명을 상으로 내렸다. 이때 발급한 사패교지가 보물 제1564-11호이다. 나머지 5명은 전쟁이 끝난 한참 후까지 지급하지 못하다가 1653년, 즉 효종 4년 2월에 지급하게 되는데 그때 작성한 교지가 바로 이것이다. 이에 의하면 경상도 안동부에 배속되어 있던 예빈시, 사재감, 종친부의 노비를 지급하였다. 이순신과 관련된 유물로서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2. 李舜臣 贈職教旨 (1793년, 정조17)

정조는 이순신에게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정조실록을 살펴보면 재위 17년이던 1793년 7월 21일에 신하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린다. “생각해보면 충무공의 그 충성과 위무(威武)로서 죽은 뒤에 아직까지 영의정을 가증(加贈)하지 못한 것은 실로 잘못된 일이었다. 유명 수군 도독 조선국 증 효충 장의 적의 협력 선무 공신 대광 보국 숭록 대부 의정부 좌의정 덕풍 부원군 행 정헌 대부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 겸 삼도 통제사 충무공 이순신에게 의정부 영의정을 가증하라. 비석을 세우는 날의 치제(致祭)에 대하여는 전에 명을 내려 알렸는데, 벼슬을 추증하고 선고(宣誥)하는 일도 그날 함께 거행하도록 하라.”

이 명령에 따라 증직교지가 같은 날 곧바로 내려졌는데 이때 내린 교지가 바로 이것이다.

○ 문헌자료

『선조실록』

『선조수정실록』

『정조실록』

『난중일기』

『서애집』



○ 현 상

□ 書誌記述 : 調査 古文書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1) <李舜臣 賜牌教旨>

教旨 / 李舜臣(1545~1598) 受給. -- 筆寫本. -- [筆寫地不明] : [筆寫處不明], 順治 10(1653, 孝宗 4).

1枚 : 9行15字 内外 ; 79.2×119.0cm. 楮紙. 낱장.

內容: 教旨/ [施命之寶]卒統制使李舜臣丁酉討倭時參宣/ 武一等功而奴婢五口未及受出故將/ 安東案付禮賓寺婢南化三所生奴/ 得化司宰監婢千介六所生奴莫奉/ 婢鄭代五所生婢善介宗親府婢莫/ 今三所生婢未叱每司瞻寺婢春伊/ [施命之寶]四所生婢一玉等特賜賞可傳永世者/ 順治十年二月[施命之寶]

(2) <李舜臣 贈職教旨>

教旨 / 李舜臣(1545~1598) 受給. -- 筆寫本. -- [筆寫地不明] : [筆寫處不明], 癸丑(1793, 正祖 17).

1枚 : 20行10字 内外 ; 64.3×101.0cm. 紅紙. 낱장.

內容: 教旨/ 有明水軍都督朝鮮國贈/ 效忠仗義迪毅協力宣/ 武功臣大匡輔國崇祿/ 大夫議政府左議政兼/ 領經筵事監春秋館事/ 世子傳德豐府院君行/ 正憲大夫全羅左水/ 軍節度使兼忠清全羅/ 慶尙三道統制使贈諡/ 忠武公李舜臣贈效忠/ 仗義迪毅協力宣武功/ 臣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領議政兼領經/ 筵弘文館藝文館春秋/ 館觀象監事德豐府院/ 君贈諡忠武公者/ 癸丑七月二十一日/ 加贈事承/ 傳[施命之寶]

□ 現狀 :

調査 古文書 (1)<李舜臣 賜牌教旨>와 (2)<李舜臣 贈職教旨>는 表具 또는 襟接하는 과정에서 각각 문서의 下端部가 잘려 나갔으며, 보다 高級의 保存處理가 요

망된다.

○ 내용 및 특징

(1) <李舜臣 賜牌教旨(1653, 孝宗 4, 順治 10)> : 임진왜란이 끝난 뒤 宣祖는 그의 37년(1604) 6월 25일에 임진왜란에 혁혁한 武功을 세운 李舜臣(1545~1598)을 效忠仗義迪毅協力宣武功臣 1등으로 책봉⁴²⁾하였다. 그리고 동년(1604) 10월 29일에 이순신의 肖像畵를 그려 후세에 전하도록 하고 官爵과 品階를 3資級씩 超遷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父母와 妻子도 3자급씩 초천하도록 하되, 아들이 없으면 甥姪과 女壻를 2자급씩 초천하고 嫡長은 世襲하도록 하여 그 祿俸을 잃지 않게 할 것이며, 영원히 赦宥의 은전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伴尙 10人, 奴婢 13口, 丘史 7名, 田地 150結, 銀子 10兩, 內廐馬 1匹도 賜給하도록 하였다.⁴³⁾

約定된 賜給奴婢는 13口였으나 당시는 전란의 직후라 국가의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여 賜給하지 못하다가 이듬해(1605) 정월 19일에야 비로소 전라도 부안과 고산, 충청도 온양과 천안 등지의 官奴婢 8名을 賜給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때 발급한 사패교지가 보물 제1564-11호로 지정되어 있다.

約定된 賜給奴婢 13口 중 나머지 5口는 倭亂이 끝난 한참 후까지 賜給하지 못하다가 효종 4년(1653, 順治 10) 2월에 이르러 賜給하게 되는데, 이때 작성된 교지가 바로 본 <李舜臣 賜牌教旨>이다. 이에 의하면 경상도 安東府에 배속되어 있던 예빈시·사재감·종친부 등의 奴婢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본 <李舜臣 賜牌教旨>는 이순신과 관련된 유물로서 보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2) <李舜臣 贈職教旨(1793, 正祖 17)> : 정조대왕은 임진란의 영웅이었던 이순신에게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 결과 「正祖實錄」에 의하면 정조 17년(1793) 7월 21일에 “생각해보면 충무공의 그 충성과 威武로서 죽은 뒤에 아직까지

42)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宣祖 37年 6月 25(甲辰)日條.

大封功名 … 以征倭諸將及請兵糧使臣 爲宣武功臣 分三等 錫號有差 … 其宣武一等 李舜臣·權慄·元均三大將 爲効忠仗義迪毅協力宣武功臣 二等 申點·權應銖·金時敏·李廷範·李億祺 爲効忠仗義協力宣武功臣 三等 鄭期遠·權俠·柳思瑗·高彦伯·李光岳·趙徹·權俊·李純信·奇孝謹·李雲龍 爲効忠仗義宣武功臣 各賜爵封君 凡十八人.

43)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宣祖 37年 10月 29(乙亥)日條.

宣武功臣教書頒給時 宣讀別教書 王若曰 爲臣子所貴 急病當效扞艱之忱 越先王率惟救功 盍舉懋賞之典 茲循彝章 用推渙恩 頃緣雲雷之構屯 而致家國之多難 奔鯨倉卒 勢難制於觸羅 駭獸蒼黃 孰能禦乎窟藪 哀百年之宗社 慘一朝而丘墟 何幸賴夫天之靈 又有仗諸臣之力 鳴劍抵掌 爭奮袂於同仇 沐雨櫛風 共殫誠於循國 茲生氣之稍在 庶死灰之復燃 合勢前驅 克掃舐鱸之衆 背城一戰 能却百萬之師 專節制於四方 服勤勞於七載 其他奔走告急 與夫果毅傷功 豈曰小補乎時哉 蓋亦將多乎前矣 若非諸卿之興起 而竭盡其心 安能庶事之否艱 而保有今日 一生一死 雖死生之不同 是崇是褒 豈褒崇之有異 肆策勳李舜臣·權慄·元均爲一等 圖形垂後 超三階爵 其父母妻子 亦超三階 無子 則甥姪女壻 超二階 嫡長世襲 不失其祿 宥及永世 仍賜伴尙十人·奴婢十三口·丘史七名·田一百五十結·銀子十兩·內廐馬一匹 … 於戲 出此三物 既共山河帶礪之盟 傳諸百代 永享子孫仍雲之祿 故茲教示 想宜知悉.

領議政을 加贈하지 못한 것은 실로 잘못된 일이었다. 유명수군도독 조선국 증 호충장의적의협력선무공신 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좌의정 덕풍부원군 행 정헌대부 전라좌도 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제사 충무공 이순신에게 의정부 영의정을 가증하라. 비석을 세우는 날의 致祭에 대하여는 전에 명을 내려 알렸는데, 벼슬을 추증하고 宣誥하는 일도 그날 함께 거행하도록 하라.”⁴⁴⁾고 전지하였다.

정조의 하명에 따라 증직교지가 같은 날 곧바로 내려졌는데, 이때 내려진 교지가 바로 본 <李舜臣 贈職教旨>이다.

본 <李舜臣 贈職教旨>는 이순신과 관련된 유물로서 보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 문헌자료

- 「宣祖實錄」, 「宣祖修正實錄」
- 「正祖實錄」
- 「亂中日記」
- 「西厓集」
- <<http://www.memorykorea.go.kr/>>



○ 현 상

문서의 하단 부분이 표구하는 과정에서 잘려 나갔으며 상태가 不良하므로 보존처리가 요망된다.

○ 내용 및 특징

1. 李舜臣 賜牌教旨 (1653년, 효종 4)

사패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노비와 토지를 하사해 줄 때 쓰인다.

이 교지는 1653년 2월에 충무공 이순신에게 지급하지 못한 노비 5구를 지급하면서 발급한 사패교지이다. 지급된 노비는 경상도 안동부에 배속되어 있던 예빈

44)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正祖 17年 7月 21(壬子)日條.

遣承旨 奉審皇壇奉室 行副護軍李源 奉審宣武祠 加贈忠武公李舜臣議政府領議政 教曰 是日何日也 嗚呼 神皇再造之恩 與天無極 匪風之感 下泉之思 將於何寓其萬一乎 既遣近臣 替審奉室 申使武臣李源 往于宣武祠周視之者 蓋欲識此日 而此何足以識之也 象德報功 有國賦典 況以小國陪臣 荷被天朝寵章 而爲天下名將者 李忠武是也 昔武寧王徐達之碑 皇帝臨書之 有司治其功 謹敢遵倣 曾令該道斲石 以篆首之書下 銘詩之撰示 昨以民事未遑 今召問忠武後孫 俾督其役 且思之 忠武之忠之武 沒後尙闕首相之加贈 實爲欠事 有明水軍都督朝鮮國贈效忠仗義迪毅協力宣武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德豐府院君行正憲大夫全羅左道水軍節度使兼三道統制使忠武公李舜臣 加贈議政府領議政 豎碑日致祭 前有知委 而贈官宣誥 并行於伊日 莫曰春秋無地可讀 三傳束之高閣 此義此理 長在宇宙間 與日星并葆光輝 烏可不思講明之方 是日何日也.

시, 사재감, 종친부의 관노비 들이다.

이순신은 임진난에 공을 세워 1604년 6월 25일에 선무 1등 공신에 책봉되었다. 그해 10월 29일에는 賞勳으로 이순신의 초상화를 그려 후세에 전하고 관작과 품계를 세 資級 超遷하도록 했다. 아울러서 부모와 처자도 세 자급을 초천하되, 아들이 없으면 甥姪과 女壻를 두 자급 초천하고 嫡長은 世襲케 하여 그 녹봉을 잃지 않게 할 것이며, 영원히 赦宥의 은전을 받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반당伴尙 10인, 奴婢 13구, 丘史 7명, 전지 1백 50결, 銀子 10냥, 內廐馬 1필도 하사하였다. 노비 13구 중 1605년 정월 19일에 全羅道 扶安, 高山, 忠淸道 溫陽, 稷山, 天安, 珍山, 恩津 등지에 있던 관노비 8명을 상으로 내렸다. 이때 발급한 사패교지가 보물 제1564-11호이다.

교지 전문은 다음과 같다.

教旨/卒統制使李舜臣丁酉討倭時參宣/ 武一等功而奴婢五口未及受出故將/ 安東案付禮賓寺婢南化三所生奴/ 得化司宰監婢千介六所生奴莫奉/ 婢鄭代五所生婢善介宗親府婢莫/ 今三所生婢未叱每司瞻寺婢春伊/ 四所生婢一玉等特賜賞可傳永世者/ 順治十年二月

2. 李舜臣 贈職教旨 (1793년, 정조17)

이 교지는 국왕(정조)이 1793년 7월 21일에 충무공 이순신에게 議政府領議政으로 증직을 더해주면서 발급한 증직교지이다. 『正祖實錄』(正祖 17年 7월 21일條)에 有明 水軍都督 朝鮮國 效忠仗義迪毅協力宣武功臣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左議政 兼 領經筵事 監春秋館事 世子傳 德豐府院君 行 正憲大夫 全羅左水軍節度使 兼 三道統制使 忠武公李舜臣에게 議政府領議政을 加贈하라는 내용이 보인다.

교지전문은 다음과 같다.

教旨/有明水軍都督朝鮮國贈/效忠仗義迪毅協力宣/武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世子傳德豐府院君行/正憲大夫全羅左水/軍節度使兼忠淸全羅/慶尙三道統制使贈諡/忠武公李舜臣贈效忠/仗義迪毅協力宣武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德豐府院/君贈諡忠武公者/癸丑七月二十一日/加贈事承/ 傳

○ 참고자료

보물 제1564호 ‘이순신 관련 고문서’ 지정목록

지정번호	지정명칭	제작연도	지정일자	수량	소유자(관리자)	비고
1564-1	이순신 선무공신교서	1604(선조 37)	2008.06.27	1축	국유(현충사)	
1564-2	이순신 선유호상교서	1596(선조 29)	2011.04.27	1점	개인(현충사)	
1564-3	이순신 사명훈유교서	1597(선조 30)	2011.04.27	"	"	
1564-4	이순신 유서	1591(선조 24)	2011.04.27	"	국유(현충사)	
1564-5	이순신 유서	1594(선조 27)	2011.04.27	"	개인(현충사)	
1564-6	이순신 유서	1597(선조 30)	2011.04.27	"	"	
1564-7	이순신 무과홍패	1576(선조 9)	2011.04.27	"	"	
1564-8	이순신처 방씨 고신교지	1591(선조 24)	2011.04.27	"	"	
1564-9	이순신처 방씨 고신교지	1603(선조 36)	2011.04.27	"	"	
1564-10	이순신 증직교지	1604(선조 37)	2011.04.27	"	"	
1564-11	이순신 사패교지	1605(선조 38)	2011.04.27	"	"	
1564-12	이순신 증시교지	1643(인조 21)	2011.04.27	"	"	
1564-13	이순신 유지	1595(선조 28)	2011.04.27	"	"	
1564-14	이순신 별급문기	1588(선조 21)	2011.04.27	"	"	

II. 국가지정문화재 국외반출

안건번호 동산 2012-01-015

국보 제188호 ‘천마총 금관’ 등 국가지정문화재 국외반출 허가

가. 심의사항

중국 섬서성 서안시의 중서부 중심박물관인 섬서역사박물관에서 전시하기 위하여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국외반출 허가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39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반출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한·중 수교 20주년 및 우호교류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상호 교환전시를 추진함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국외반출 허가신청 목록을 검토하기 위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제안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신청기관 : 국립경주박물관
- 대상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 9건 10점(국보 제188호 ‘천마총 금관’ 등 3건 3점, 보물 제617호 ‘천마총 금제 관식’ 등 6건 7점)
- 반출국가 : 중국
- 반출기간 : 2012. 4. 30 ~ 7. 31
- 전 시 명 : 신라의 화려한 황금문화 소개
- 전시장소 : 섬서역사박물관

라. 조치사항

- 국가지정문화재의 국외반출 허가 여부

마. 의결사항

○원안 가결 - 국외 반출 허가.

【붙임】

국외반출신청 문화재목록

연 번	지정번호	문화재 명칭	수량
1	국보 제188호	천마총 금관	1
2	국보 제189호	천마총 관모	1
3	국보 제190호	천마총 금제 허리띠	1
4	보물 제617호	천마총 금제관식	1
5	보물 제618호	천마총 금제관식	1
6	보물 제619호	천마총 목걸이	1
7	보물 제620호	천마총 유리잔	1
8	보물 제621호	천마총 환두대도	1
9	보물 제622호	천마총 자루솥	2
계		9건 10점	

국외반출신청 문화재목록 사진 및 설명

	지정종별 및 명칭	o 국보 제188호 천마총 금관
	지정일자	o 1978. 12. 7.
	시 대	o 신라
	소 장 처	o 국립경주박물관
	문화재 설명	<p>o 경주 천마총에서 발견된 금관이다. 목관 속에서 묻힌 사람이 착용한 상태로 발견되었다.</p> <p>o 넓은 관테에 3개의 나뭇가지모양 장식과 2개의 사슴뿔장식을 접합한 것으로, 나뭇가지모양 장식의 작은 가지는 모두 4단이다. 전체적으로 곱은옥 및 달개가 가득 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금관의 전면에는 2줄의 수하식이 매달려 있어 매우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p>
	지정종별 및 명칭	o 국보 제189호 천마총 관모
	지정일자	o 1978. 12. 7.
	시 대	o 신라
	소 장 처	o 국립경주박물관
	문화재 설명	<p>o 경주 천마총에서 발견된 관모이다. 목관과 부장품수장궤 사이에서 발견되었다.</p> <p>o 모두 4개의 뚫음무늬로 장식된 금판을 결합하여 만든 관모이다. 크기와 모양으로 볼 때, 유기질의 모자의 윗부분에 올려 장식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여러 문양을 정교하게 투조하여 장식하였으며, 문양을 베풀지 않은 여백에도 점무늬를 찍어 장식했고, 금판의 연결부에는 두터운 금테를 두르고 금실로 연결하였다.</p>

	지정종별 및 명칭	○ 국보 제190호 천마총 금제 허리띠
	지정일자	○ 1978. 12. 7.
	시 대	○ 신라
	소 장 처	○ 국립경주박물관
	문화재 설명	<p>○ 경주 천마총에서 발견된 허리띠이다. 목관 속에서 묻힌 사람이 착용한 상태로 발견되었다.</p> <p>○ 얇은 금판을 오리거나 두들겨 만들었다. 과관 44개와 띠고리, 띠끝장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띠드리개는 모두 13줄이다. 과관은 인동무늬와 이파리무늬를 뚫어 장식하였다. 띠드리개에는 대소형의 타원형장식을 매달아 장식하였고, 금으로 만든 물고기 모양, 족집게, 곱은 옥 등이 매달려 있다.</p>
	지정종별 및 명칭	○ 보물 제617호 천마총 금제 관식
	지정일자	○ 1978. 12. 7.
	시 대	○ 신라
	소 장 처	○ 국립경주박물관
	문화재 설명	<p>○ 경주 천마총에서 발견된 관 장식이다. 부장품수장궤 위에서 발견되었다.</p> <p>○ 얇은 금판을 오리 만든 관 장식으로, 나무 껍질로 만든 관모의 앞부분에 꽂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1장의 금판에 좌우대칭의 도안을 그려 만들었다. 전체적으로 역심엽형, 안상 모양의 장식을 뚫어 표현하였다. 뚫음 무늬의 가장자리와 장식부위 테두리에 점무늬를 배푸고 모두 150여개의 둥근 달개를 금실로 매달았다.</p>

	지정종별 및 명칭	o 보물 제618호 천마총 금제 관식
	지정일자	o 1978. 12. 7.
	시 대	o 신라
	소 장 처	o 국립경주박물관
	문화재 설명	<p>o 경주 천마총에서 발견된 관 장식이다. 부장품수장궤 위에서 발견되었다.</p> <p>o 새가 힘차게 날개짓하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좌우대칭의 형태의 관 장식이다. 고깔 모양 모자의 앞부분에 꽃아 장식하도록 만들어졌다. 관식의 내면에 복잡한 무늬가 베풀어져 있는데, 당초줄기로 여겨진다. 모두 400개 이상의 원형달개를 금실로 촘촘히 매달아 화려하게 장식하였다.</p>
	지정종별 및 명칭	o 보물 제619호 천마총 목걸이
	지정일자	o 1978. 12. 7.
	시 대	o 신라
	소 장 처	o 국립경주박물관
	문화재 설명	<p>o 경주 천마총에서 발견된 목걸이이다. 목관 속에서 묻힌 사람이 착용한 상태로 발견되었다.</p> <p>o 금, 은, 비취, 유리 등의 재료를 사용하였다. 청색 유리옥과 금·은 제품이 여섯줄로 이어져 일정한 간격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좌우에는 큰 곱은 옥이 매달려 있다. 그래서 목에 걸면 전체적으로 V자 형태가 된다. 여타 신라 무덤에서 출토된 목걸이에 비해 매우 화려하게 만들어져 있다.</p>

	지정종별 및 명칭	o 보물 제620호 천마총 유리잔
	지정일자	o 1978. 12. 7.
	시 대	o 신라
	소 장 처	o 국립경주박물관
	문화재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경주 천마총에서 발견된 유리잔이다. 부장품수장궤 속에서 발견되었다. o 청색의 투명한 유리제로 기포가 거의 보이지 않아 높은 수준의 제작기술을 보여준다. 잔의 두께는 일정하지 않고 아가리는 밖으로 약간 벌어져 있다. 전체적인 형태는 U자형을 이루고 있으며 아가리 밑으로 굽은 세로선을 그었고, 그 밑으로 부정형의 원형 무늬를 눌러 만들어 장식하였다.
	지정종별 및 명칭	o 보물 제621호 천마총 환두대도
	지정일자	o 1978. 12. 7.
	시 대	o 신라
	소 장 처	o 국립경주박물관
	문화재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경주 천마총에서 발견된 환두대도이다. 목관 내부, 문헌 사람의 왼쪽 편에서 발견되었다. o 손잡이 끝부분에 둥근 고리를 만들고 그안에 봉황으로 여겨지는 새의 머리로 장식하였다. 칼집과 칼자루는 나무로 만들어 그 위에 얇은 금동을 입힌 것이다. 칼집 표면에는 별다른 장식을 하지 않았는데, 옆쪽으로 네모난 형태의 꼭지가 있어 이곳에 끈을 매어 달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정종별 및 명칭	o 보물 제622호 천마총 자루술
	지정일자	o 1978. 12. 7.
	시 대	o 신라
	소 장 처	o 국립경주박물관
	문화재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경주 천마총에서 발견된 자루술이다. 부장품수장궤 속에서 발견되었다. o 자루술은 술, 음식, 약 등을 끓이거나 데울 때 사용하던 그릇이다. 전체적인 형태는 납작한 구형의 몸통에 뚜껑을 덮은 형식으로 밑에는 3개의 동물 모양 다리가 달려 있다. 몸통에 액체를 따르는 주구가 달려 있고, 이와 직각되는 위치에 손잡이가 달려 있다.

Ⅲ.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안건번호 동산 2012-01-016

1. 2012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 사업 관련 현상변경 허가

가. 심의사항

2012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보물 제41호 「남원 실상사 철조여래좌상」이 보존상태가 열악하여 2012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존처리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2년도 국고보조사업 17건(현상변경허가 대상)에 대해 2011년 동산분과 제6차회의('11.12.13)에서 일괄 심의한 바 있으며, 금회 안건은 추가 사업임.
- 동 사업은 철조여래좌상의 보호각인 약사전이 노후되어 2010년부터 해체보수 공사를 추진하던 중 동 불상의 보존상태가 열악한 상황임을 확인, 2012. 1.10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보존처리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신청인 : 문화재청장
- 대상문화재 : 보물 제41호 '남원 실상사 철조여래좌상'(1963.01.21 지정)
- 소재지 :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50 실상사
- 규격 : 높이 2.69m
- 조성연대 : 통일신라시대
- 추진방침
 - 문화재위원 등 3명 이상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자문을 받도록 함.
 - 보수·보존처리는 별도지침을 마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추진함.
 - 추진 중 중요사항 발생 시에는 별도로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추진함.

라. 참고사항(2012. 1.10 자문회의 결과)

- 자문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한경순·배재호·손영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정광용교수
- 자문결과
 - 실상사 철조여래좌상은 표면의 부식, 1986년 나무로 보수한 부분의 이격 등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불량하여 보존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보존처리는 안전하게 보양하여 별도의 처리실로 이운하여 실시
 - 보존처리 전 비파괴검사를 실시하여 내부 구조 파악
 - 지대석 하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대좌의 원구조 파악
 - 대좌를 둘러싼 화강석 테두리는 불상의 격에 맞지 않고 이질감을 주므로 교체방안 강구
 - 세부적인 보존처리 범위 및 방향 등은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아 시행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원안접수

2. 보물 제1721호 ‘속초 신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현상변경 허가

가. 심의사항

강원도 속초시 신흥사 소재 보물 제1721호 ‘속초 신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을 개금하고자 신흥사 주지가 신청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삼존좌상 얼굴 및 무릎 등 개금 층 일부에 박락 및 들뜸이 있어 새로이 개금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부의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신청인 : 신흥사 주지
- 대상문화재 : 보물 제1721호 ‘속초 신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2011.09.05 지정)
-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 신흥사 극락보전
- 규격
 - 아미타불좌상: 높이 164cm, 무릎 폭 114cm
 - 관음보살좌상: 높이 147cm, 무릎 폭 95cm
 - 대세지보살좌상: 높이 152cm, 무릎 폭 91cm
- 조성연대 : 1651년(효종 2)

라. 검토의견(유형문화재과)

- 동 불상은 강원유형문화재 제143호에서 2011.09.05 보물 제1721호로 지정되었으며, 얼굴 및 무릎 등 개금 층 일부에 박락 및 들뜸이 있어 장기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개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단,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기존의 개금 층 제거 시 표면손상이 없도록

사포 및 젤 상태의 박리제를 이용하도록 하고, 옷은 국내산을 정제하여 전통
옷칠 개금으로 시행하도록 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원안접수

【검토사항】

I.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안건번호 동산 2012-01-018

1. 서산 개심사 오방오제위도 및 사직사자도 (瑞山 開心寺 五方五帝位圖 및 四直使者圖)

가. 검토사항

“서산 개심사 오방오제위도 및 사직사자도”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서산 개심사 오방오제위도 및 사직사자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0.07.09)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1.09.09)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서산 개심사 오방오제위도 및 사직사자도
(瑞山 開心寺 五方五帝位圖 및 四直使者圖)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개심사
- 소재지 :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신창리 11-5 개심사
- 수 량 : 오방오제위도 5폭, 사직사자도 4폭
- 규 격 : 1. 중방 황제지군도 전체 144.5×84.5cm, 화면 102.5×69.0cm
2. 동방 태호지군도 전체 139×83.5cm, 화면 101×70.0cm

3. 서방 소호지군도 전체 129.5×83.5cm, 화면 101.5×68.6cm
4. 남방 염마지군도 전체 146.5×83.5cm, 화면 101.5×69.3cm
5. 북방 전옥지군도 전체 135.0×83.0cm, 화면 100.0×67.8cm
6. 연직사자도 전체 131×85.5cm, 화면 99.0×74.0cm
7. 월직사자도 전체 118.0×84.5cm, 화면 96.5×73.6cm
8. 일직사자도 전체 128.0×86.2cm, 화면 98.0×74.0cm
9. 시직사자도 전체 125.0×85.5cm, 화면 99.0×73.5cm

- 재 질 : 오방오제도 : 삼베 · 비단 바탕에 채색
사직사자도 : 삼베 바탕에 채색
- 제작연대 : 1676년(숙종 2)
- 제작자 : 일호(一浩)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이 다섯 폭의 오제위도는 같은 절의 사직사자도(四直使者圖) 네 폭과 함께 1676년에 제작되었는데 이처럼 오제위도와 사직사자도가 완전한 세트를 이루는 또 다른 사례는 통도사본 정도이다. 그러나 1676년의 개심사본과 달리 통도사본은 절대 연대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고려 할 때 이 그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화기를 통하여 이들 그림의 제작과 관련된 시주자, 증명·화원·화주비구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사례이다. 따라서 이 그림은 오제위도와 더불어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하여야 할 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한다.

개심사 사직사자도는 다섯 폭의 오제위도(五帝位圖)와 함께 하나의 완전한 세트를 이루는 그림으로, 1676년이라는 확실한 제작연대가 있는 가장 이른 사례이다. 또한 화기가 남아있어 이들 그림의 제작과 관련하여 시주자, 증명·화원·화주 비구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그림은 오제위도와 더불어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하여야 할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한다.

○ (지정 가치 있음)

사직사자도와 오방오제도는 사찰에서 영산재(靈山齋) 및 수륙재(水陸齋) 의식을 행할 때 괘불도(掛佛圖)와 일식을 이루어 사용되는 의식용 불화로서 조성시기와 조성화원 및 각 존명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화기가 남아 있음은 물론, 의식용 불화로서 결손 없이 거의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어 자료적 가치가 큰 것

으로 판단되어 국가문화재로 지정함이 마땅하다 하겠음.

그러나 개별적이기보다는 비록 조성시기는 서로 차이가 있다고는 하나 현재 개심사에는 영산회괘불도가 보물 제1264호로 지정되어 있어 이와 연관지어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지정 가치 있음)

개심사 사직사자도와 오제위도는 1676년에 화승 일호(一浩)가 단독으로 제작한 것으로, 사찰에서 의식을 행할 때 도량장엄용으로 조성한 불화이다. 현재 도량장엄용 불화는 전국 사찰에 여러 세트가 남아있지만 대부분 연대가 불분명하고 제작화승이 분명하게 밝혀져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 작품들은 일호라는 동일한 화승에 의해 제작되었음이 밝혀져 있을 뿐 아니라 현존하는 도량장엄용 불화 가운데에서도 조성연대가 가장 올라가는 작품으로 가치가 높다. 이에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지정 가치 있음)

현재까지 알려진 오방제위도와 사직사자도가 함께 전하는 예로는 양산 통도사, 안동 봉정사와 봉황사, 문경 김룡사 등 극히 일부 사찰에서 전한다. 이들 사찰에 전하고 있는 오방제위도와 사직사자도 중 완결성을 갖추고 있는 것은 통도사본뿐이고, 나머지 사찰의 작품들은 몇 폭이 빠진 상태로 전하고 있다. 그런데 완전하게 전하는 통도사본마저 정확한 조성연대, 제작자 등 화기를 남기고 있지 않아 기준자료로 활용하는 데 한계점이 있다.

이에 비해 개심사 오방제위도와 사직사자도는 정확한 조성연대와 제작자를 남기고 있는 유일한 작품이자, 결 폭이 없는 완전한 작품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개심사 오방제위도와 사직사자도는 작품성도 비교적 우수하고 임란 이후 크게 유행한 수록재, 영산재 등에 사용된 불화로서 대형 의식불화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보물로 지정 예고함.

조사보고서



- 오방오제도

○ 내용 및 특징

각 쪽의 향우측 중앙에 세로로 중방황제지군(中方皇帝之君), 동방태호지군(東方太皞之君), 서방소호지군(西方少皞之君), 남방염제지군(南方炎帝之君), 북방전욱지군(北方顓頊之君)이라는 존상의 명칭이 먹으로 기재되어 있어 오제위를 묘사한 그림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중국의 전설 속 황제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교의 오방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방황제지군은 황색, 동방태호지군은 녹색, 서방소호지군은 흰색, 남방염제지군은 붉은색의 옷으로 각 방위색에 해당하는 옷을 입고 있다. 다만, 북방전욱지군은 검은 색 대신 밝은 청색의 옷을 입고 있다. 도교의 전설에 따르면 중앙 황제는 신들 중 최고의 통치자로서 귀신나라를 다스리고 번개를 관장하였다고 하며, 동방 태호는 나무, 서방 소호는 금속을 관장하면서 하늘나라의 형벌도 담당하였다고 한다. 남방 염제는 농업과의 약에 관련이 있으며, 북방 전욱은 바다 및 바람을 관장하였다고 한다.

이들 오제(五帝)는 옷의 색깔만 다를 뿐 다섯 쪽 병풍을 배경으로 하여 의자에 앉아 일월관을 쓰고 두 손으로 홀을 받쳐 든 모습은 모두 동일하다. 이러한 도상의 오제위도는 양산 통도사(通度寺/ 단, 통도사본은 관에 일월이 없다.), 문경 김룡사(金龍寺), 안동 봉정사(鳳停寺)와 봉황사(鳳凰寺), 동국대박물관 등에 현전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는 통도사본만이 사직사자도와 함께 완전한 한 세트를 이루고 있다.

이들 오제위도는 도교의 도상이긴 하지만 불교의식 때 사용되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 도교의 오제가 언제부터 어떤 연유로 불교사찰에 그려져 봉안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불교 그림 속에 다양하게 등장하는 도교신들 - 산신(山神), 칠성(七星), 조왕신(竈王神) 등 - 처럼 불교에 습합되어 신앙되어진 듯하다.

개심사 오제위도는 전체적으로 채색이 엷은 편으로, 묘선이 활달하며 상호나 상의 비례 등이 비교적 안정감 있게 표현되었다. 화기에 의하면 네 쪽의 사직사자도(四直使者圖)를 그린 일호(一浩)라는 스님에 의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일호스님은 오제위도를 그리기 3년 전인 1673년 충남 청양 장곡사(長谷寺) 괘불화의 제작에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1675년의 『현종빈전도감의궤(顯宗殯殿都監儀軌)』에

서 ‘혼전(魂殿) 조성소(造成所) 화승(畫僧)’으로 등장하는 등 17세기 후반 충청도를 중심으로 활동한 주요 화승이다.

개심사 오제위도는 축(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5폭의 오제위도 중 중방, 동방, 남방지군도는 중앙부가 비단이고 그 양쪽에는 마를 덧대어 화폭을 마련하였다.

<畫記>

황제지군 皇帝之君 : 施主金禮(?)信兩 證明覺連比丘 畫員一浩比丘

化主天玄比丘 康熙十五年 丙辰五月日 開心寺

타他の 4폭 : 證明覺連比丘 畫員一浩比丘

化主天玄比丘 康熙十五年 丙辰五月日 開心寺

- 사직사자도

○ 내용 및 특징

개심사 사자도(使者圖)는 방기(旁記)에 의하면 1676년에 제작되었으며, 소위 사직사자라 부르는 연직사자(年直使者), 월직사자(月直使者), 일직사자日(直使者), 시직사자(時直使者)의 4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직사자는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염라대왕 등의 심부름꾼으로, 망자의 집에 파견되는 저승사자의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두루마리나 긴 창을 들고 말과 함께 서 있는 전령의 모습을 하고 있다.

개심사의 사직사자들은 녹색의 옷에 붉은 망토를 어깨에 두르고 있거나 혹은 반대로 붉은 옷에 녹색의 망토를 두르고 있으며, 연직사자는 담갈색의 말과 함께 손에 인장이 찍힌 두루마리를, 월직사자는 흰 말과 함께 있으며 지물은 없다. 일직사자는 청색의 말과 함께 손에는 긴 창을 들고 있으며, 시직사자는 지물은 없으며 갈색의 말과 함께 그려졌다. 현전하는 다른 사직사자도들과 비교해보면, 복식과 말의 색에 차이가 있으나 말과 함께 하고 있는 전령의 모습이라는 점은 모두 동일하다. 사직사자도 중 4폭을 모두 갖추고 있는 예로는 양산 통도사본(通度寺本)과 안동 봉황사본(鳳凰寺本) 정도이다.

화기에 의하면 이 그림은 화승 일호(一浩)가 그렸음을 알 수 있는데, 일호스님은 청양 장곡사(長谷寺) 괘불화 제작에도 참여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다. 채색은 비교적 열은 편이며, 상호와 신체의 비례가 안정되어 있고, 색의 조화도 잘 이루어졌다.

개심사 사직사자도는 축(軸) 형식으로 되어 있어 불교의식 때 걸었던 의식용 그림으로 생각되며, 각각의 화폭은 마(麻) 세 매를 이어 사용하였다.

<畫記>

연직사자 年直使者 : 施主林承紀(?)兩 證明覺連比丘 畫員一浩比丘

化主天玄比丘 康熙十五年 丙辰五月日 開心寺

월직사자 月直使者 : 施主金戒龍兩 大禪(?)證覺連 畫工一浩比丘

大認(?)德主(?)天玄比丘 康熙十五年 丙辰五月日 開心寺

일직사자 日直使者 : 施主金?垂兩 證明覺連比丘 畫員一浩比丘

化主天玄比丘 康熙十五年 丙辰五月日 開心寺

시직사자 時直使者 : 施主吳承允莫介兩 證明覺連比丘 畫員一浩比丘

化主天玄比丘 康熙十五年 丙辰五月日 開心寺



○ 내용 및 특징

대웅전 후면 벽에 잇대어 마련되어 있는 궤(櫃)에서 발견된 불화들로서 모두 족자형식을 이루고 있는데, 가로 꺾임이 심하고 배접지가 분리되었으며 바탕화면 일부가 손상되어 있는 등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

화면 상단 좌·우쪽에 존명을 나타내주는 방제가 남아 있는 사직사자도의 경우 각 폭마다 말을 대동한 사자가 1명씩 그려져 있다. 각 사자들은 머리에 두 개의 깃털장식이 있는 홍색 두건을 감싼 검은색 복두(幘頭)를 쓰고 있으며, 녹색 옷에 붉은색 망토 혹은 붉은 색 옷에 녹색 망토를 두르고 서서 말의 고삐를 잡고 있거나 명부(名簿)와 당(幢)을 쥐어 염라대왕의 명을 받아 인간 수명을 관장하는 저승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한편 각 폭 하단에는 시주, 증명, 화원, 화주와 함께 조성연대를 밝혀주는 묵서의 화기가 남아 있어 그림의 내력을 알 수 있다.

제왕형 인물을 묘사한 오방오제도의 경우 역시 한 폭에 1명씩 그리고 있는데, 각 상들은 위엄을 갖춘 제왕의 모습으로서 머리에 일월(日月)이 그려진 면류관을 쓴 채 발을 족답(足踏) 위에 올리고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는 홀(笏)을 잡고 있다.

각 왕들의 복식은 방위에 따라 상의(上衣)의 색채를 다르게 표현하여 중방 황제지군은 황색을, 동방 태호지군은 녹색, 남방 염제지군은 홍색, 서방 소호지군은 백색, 북방 전욱지군은 청색(흑색 대신)으로 처리하였다.

각 폭마다 상의 왼쪽 어깨 부분에 오방오제를 나타낸 그림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존명이 쓰여져 있으며, 하단에는 증명, 화원, 화주와 함께 조성시기를 밝혀주는 화기가 남아 있다.

<畫記>

1. 四直使者圖

1) 年直使者

施主林承龍兩 證明覺連比丘 畫員一浩比丘 化主天玄比丘
康熙十五年丙辰五月日 開心寺

2) 月直使者

施主金戒龍兩 大禪證覺連 畫員一浩比丘 大功德主天玄比丘
康熙十五年丙辰五月日 開心寺

3) 日直使者

施主金芑虫兩 證明覺連比丘 畫員一浩比丘 化主天玄比丘
康熙十五年丙辰五月日 開心寺

4) 時直使者

施主吳承允莫介兩 證明覺連比丘 畫員一浩比丘 化主天玄比丘
康熙十五年丙辰五月日 開心寺

2. 五方五帝圖

1) 中方皇帝之君

施主金禮信兩主 證明覺連比丘 畫員一浩比丘 化主天玄比丘
康熙十五年丙辰五月日 開心寺

2) 東方太皞之君

證明覺連比丘 畫員一浩比丘 化主天玄比丘
康熙十五年丙辰五月日 開心寺

3) 南方炎帝之君

證明覺連比丘 畫員一浩比丘 化主天玄比丘
康熙十五年丙辰五月日 開心寺

4) 西方少皞之君

證明覺連比丘 畫員一浩比丘 化主天玄比丘
康熙十五年丙辰五月日 開心寺

5) 北方顓頊之君

證明覺連比丘 畫員一浩比丘 化主天玄比丘
康熙十五年丙辰五月日 開心寺



○ 내용 및 특징

1970년대에 일괄적으로 개심사 대웅전 뒤의 목곽 속에 넣어져 보관되어 오다 2009년에 발견된 불화 중 일부로, 오제위도 5점과 사직사자도 4점 등 총 9점이다.

두 불화 모두 1676년에 제작되었다.

- 사직사자도 : 연직사자(年直使者), 월직사자(月直使者), 일직사자(日直使者), 시직사자(時直使者)의 4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직사자는 사람이 죽었을 때 염라대왕을 비롯한 여러 대왕이 과견하는 지옥사자로서 죽은 자의 연월일시(年月日時)를 관장하는 네 사자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두루마리나 긴 창을 들고 말과 함께 서 있는 전령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개심사의 사자도 역시 말과 함께 서 있는 사자를 각각 그렸다. 사직사자들은 녹색 또는 적색의 옷에 적색 또는 녹색의 망토를 어깨에 두르고 있거나 혹은 반대로 붉은 옷에 녹색의 망토를 두르고 있으며, 두루마리연직사자, 긴 창 일직사자를 들거나 지물 없이 말과 함께 그려졌다. 이러한 사자의 모습은 일반적인 사자도의 모습과 같은 것으로서 전령으로서의 사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직사자도는 통도사 사직사자도, 안동 봉황사 사직사자도처럼 연직사자, 월직사자, 일직사자, 시직사자가 각각 1폭씩 총 4폭으로 그려지는가 하면 삼성미술관소장 사직사자도처럼 한 폭에 사직사자를 모두 그리기도 하는데, 개심사 사직사자도는 4폭으로 그려진 경우에 속한다. 이 그림은 일호(一浩)라는 화승이 단독으로 그린 것으로, 상호와 신체의 비례가 안정되어 있고, 색의 조화도 잘 이루어졌다. 일호는 청양 장곡사(長谷寺) 괘불화 제작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보아 충청도 일대에서 활동하던 화승으로 추정된다. 각각의 그림은 마(麻) 세 매를 이어 화폭을 마련하였다.

화기는 아래와 같다.

年直使者 : 施主林承紀(?)兩 證明覺連比丘 畫員一浩比丘 化主天玄比丘 康熙十五年 丙辰五月日 開心寺

月直使者 : 施主金戒龍兩 大禪(?)證覺連 畫工一浩比丘 大功德主天玄比丘 康熙十五年 丙辰五月日 開心寺

日直使者 : 施主金?虫兩 證明覺連比丘 畫員一浩比丘 化主天玄比丘 康熙十五年 丙辰五月日 開心寺

時直使者 : 施主吳承允莫介兩 證明覺連比丘 畫員一浩比丘 化主天玄比丘 康熙十五年 丙辰五月日 開心寺

- 오제위도

오제위도는 황제(皇帝)와 태호(太皞), 소호(少皞), 염제(炎帝), 전욱(顓頊) 등 중국 전설속의 다섯 황제를 그린 것으로, 도량장엄을 위한 의식용 불화이다. 삼베바탕에 그려졌으며, 각 폭 모두 오곡병을 배경으로 일월관을 쓰고 두 손으로 홀을 든 채 정면을 향해 등높은 의자에 앉아 있는 오제를 동일한 모습으로 그렸다. 각 폭

의 향우측 중앙에 세로로 ‘중방황제지군(中方皇帝之君)’, ‘동방태호지군(東方太皞之君)’, ‘서방소호지군(西方少皞之君)’, ‘남방염제지군(南方炎帝之君)’, ‘북방전욱지군(北方顓頊之君)’이라고 적혀있어 각 존상의 명칭을 분명하게 밝혔다. 황제는 황색, 태호는 녹색, 소호는 흰색, 염제는 붉은색 등 각 황제는 각 방위에 맞는 색의 옷을 입고 있으나 전욱만이 검은 색 대신 밝은 청색의 옷을 입었다. 오제위도는 현재 통도사, 김룡사, 안동 봉정사와 봉황사 등 주로 경상도 지역에서 주로 남아 있으며, 통도사 오제위도는 개심사 오제위도처럼 사직사자도와 함께 남아있어 이들이 모두 도량장엄용 의식불화로서 함께 제작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개심사 오제위도는 사직사자도를 그린 일호(一浩)가 단독으로 조성하였으며, 화주 또한 두 그림 모두 천현(天玄) 비구가 맡고 있어 동시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채색이 엷은 편으로 묘선이 활달하며 상호나 상의 비례 등이 비교적 안정감 있게 표현된 것으로 보아 일호의 화승으로서의 기량을 엿보게 한다. 오제위도 중 중방, 동방, 남방지군도는 중앙부가 비단이고 그 양쪽에는 마를 덧대어 화폭을 마련하였다.

화기는 다음과 같다.

施主金禮(?)信兩 證明覺連比丘 畫員一浩比丘 化主天玄比丘 康熙十五年 丙辰五月日 開心寺(皇帝之君圖)

證明覺連比丘 畫員一浩比丘 化主天玄比丘 康熙十五年 丙辰五月日 開心寺(나머지 4폭)



○ 내용 및 특징

2009년 6월 27일 예산 수덕사 근역성보박물관에서 개심사 대응전 뒤편에 있던 궤짝을 조사하던 중 그곳에서 다량의 불화가 발견되었다. 이들 불화는 보존상태가 불량하여 불전(佛殿)에서 떼 내 한 곳에 모아 보관한 것으로 추정된다. 발견된 불화는 17, 18세기에 제작된 예배·의식용 불화로써 그 중 완결성을 갖추고 있는 것은 오방제위도 및 사직사자도, 도량옹호변 2건이다.

오방제위도와 사직사자도는 조선시대에 성행한 수륙재(水陸齋)에서 의식 초반에 봉청(奉請)되는 대상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불화이다. 이 오방제위도 5폭과 사직사자도 4폭은 1676년 5월에 각련(覺連)이 증명을 맡아 화승 일호(一浩)가 그린 것이다. 화승 일호는 1673년에 수화승(首畫僧) 철학(哲學)을 도와 청양 장곡사 미륵불괘불도(彌勒佛掛佛圖)를 조성하였고, 1675년에는 현종(顯宗) 빈전(殯殿) 조

성소(造成所) 화승(畫僧)으로도 참여한 바 있는 17세기 후반 경 충청도를 중심으로 활약한 화승으로 보인다.

우선 오방제위도는 중국의 전설상의 제왕인 삼황오제(三皇五帝) 중 동방(東方) 태호(太皞) 복희씨(伏羲氏), 서방(西方)의 소호(小皞) 금천씨(金天氏), 남방(南方)의 염제(炎帝) 신농씨(神農氏), 북방(北方) 전욱(顓頊) 고양씨(高陽氏), 중방(中方) 황제헌원씨(黃帝憲轅氏)를 그린 것으로, 방위에 따라 중방 황제지군은 황색, 동방 태호지군은 청색, 서방 소호지군은 백색, 남방염제지군은 적색, 북방 전욱지군은 흑색의 상의(上衣)를 입혀 구분하였다. 이와 더불어 병풍의 왼쪽 면에 내려쓰기로 각각의 방위와 존명(尊名)을 병기하여 도상(圖像)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들 오제(五帝)는 옷의 색깔만 다를 뿐 모두 다섯 폭의 병풍을 배경으로 의자에 앉아 두 발을 약간 벌려 족좌(足座)에 발을 두고, 머리에는 해와 달이 그려진 일월관(日月冠)을 쓰고 두 손을 모아 홀을 잡은 모습이다. 정면관을 취한 둥근 얼굴은 이목구비가 작고 오밀조밀하며, 눈썹은 세필로 양 끝을 두텁게 그려 특징적이다. 의자의 등받이는 비단으로 꾸몄는데, 적색 옷을 입은 남방제(南方帝)만 색 대비에 따라 녹색비단으로 채색하였고, 나머지는 붉은색으로 채색하였다. 병풍의 펼쳐진 면에는 아무런 배경을 넣지 않았으며 겉면에는 패턴화된 문양을 그려 넣었다. 병풍을 제외한 권속이나 배경은 일체 표현하지 않았다.

오제(五帝)의 복식(服飾)은 흰색의 중의(中衣) 위에 다시 굵은 깃을 단 상의(上衣)를 입었으며, 하의(下衣)는 가장자리에 주름 잡힌 레이스가 달린 바지 위에 치마를 입었고, 굵은 수(綬)가 족좌(足座) 아래까지 길게 드리워졌다. 전반적으로 화려하지 않고 소박한 모습이다.

색채는 기본적으로 적, 청, 황, 백색을 주조 색으로 하여 중간색 계통의 은은한 색을 조채하여 밝고 온화한 느낌의 분위기를 연출했다. 강약과 장단의 변화가 있는 섬세한 필선, 안정감 있는 비례와 구도, 밝고 부드러운 색채 등에서 17세기 후반 경의 양식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사직사자도(四直使者圖)는 때와 시간에 따라 임무가 부여된 연직사자(年直使者), 월직사자(月直使者), 일직사자(日直使者), 시직사자(時直使者) 등 네 명의 사자(使者)를 그린 것이다. 사자도 역시 오방제위도와 마찬가지로 1676년 병진(丙辰) 5월에 각련(覺連)이 증명(證明) 맡고 화승(畫僧) 일호(一浩)가 그렸다. 사자도는 폭마다 1명의 사자와 그들의 1필(匹)의 말이 표현되었다. 사자들은 녹색의 옷에 붉은 색 상의(上衣)에 붉은색 망토를 두르거나 녹색 상의에 붉은 색 망토를 두르고 있으며, 구름무늬 장식이 있는 장화를 신었다. 복부와 허리는 끈으로 맵시있게 묶었는데, 전반적으로 옷이 몸에 밀착되어 신속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복장이다. 연직사자(年直使者)는 오른손으로 방금이라도 달려갈 기세의 역동적인 담갈색 말

의 고삐를 잡았고, 왼손으로 인장(印章)이 찍힌 두루마리를 쥐고 있다. 월직사자도는 얼굴이 결손(缺損)되었고, 오른손으로 말의 고삐를 잡고 있다. 일직사자도는 청색의 말과 함께 달려갈 자세로 하여 양손으로 긴 부월(斧鉞)을 잡고 있다. 시직사자도는 지물은 없으나 땅에 코를 박고 있는 적갈색말의 고삐를 오른손으로 잡고 있다. 정적인 오방제위도와 달리 언제든지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역동적인 전령과 말(馬)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개심사 사직사자도는 유려하고 세밀한 선과 색으로 인물의 형상을 생동적으로 잘 묘사하였으며, 특히 우아하고 세련된 색채감을 보여준다. 자세에서도 전령이라는 성격에 잘 부합하게 역동적인 동세가 잘 녹아 있다.

○ 기타

[화기]

1. 中方黃帝之君

施主金禮信兩主」證明覺連比丘」畫員一浩比丘」化主天玄比丘」康熙十五年」丙辰五月日」開心寺」

2. 東方太皞之君

證明覺連比丘」畫員一浩比丘」化主天玄比丘」康熙十五年丙」辰五月日開心」寺」

3. 西方小皞之君

證明覺連比丘」畫員一浩比丘」化主天玄比丘」康熙十五年丙」辰五月日開心」寺」

4. 南方炎帝之君」

證明覺連比丘」畫員一浩比丘」化主天玄比丘」康熙十五年丙」辰五月日開心寺」

5. 北方顓頊之君

證明覺連比丘」畫員一浩比丘」化主天玄比丘」康熙十五年」丙辰五月日」開心寺」

6. 年直使者

施主林承禮兩主」證明覺連比丘」畫員一浩比丘」化主天玄比丘」康熙十五年」丙辰五月日」開心寺」

7. 月直使者」

施主金戒龍兩」大禪證明覺連」畫工一浩比丘」大功德主天玄比丘」康熙十五年丙辰」五月日開心寺」

8. 日直使者」

施主金昱虫兩」證明覺連比丘」畫員一浩比丘」化主天玄比丘」康熙十五年」丙辰五月日」開心寺」

8. 時直使者」

施主吳承允
兩主」

莫介
證明覺連比丘」畫員一浩比丘」化主天玄比丘」康熙十五年」丙辰五月日」開心寺」

2. 서산 개심사 제석·범천도 및 팔금강·사위보살도 (瑞山 開心寺 帝釋·梵天圖 및 八金剛·四位菩薩圖)

가. 검토사항

“서산 개심사 제석·범천도 및 팔금강·사위보살도”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서산 개심사 제석·범천도 및 팔금강·사위보살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0.07.09)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1.09.09)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서산 개심사 제석·범천도 및 팔금강·사위보살도
(瑞山 開心寺 帝釋·梵天圖 및 八金剛·四位菩薩圖)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개심사
- 소재지 :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신창리 11-5 개심사
- 수 량 : 제석도 1폭, 범천도 1폭, 팔금강도 8폭, 사보살도 4폭
- 규 격 : 제석천왕도(帝釋天王圖) 161×83cm, 150.3×79.6cm
대범천왕도(大梵天王圖) 172×84.8cm, 150.7×79.5cm
제일 청제재금강(第一 靑除災金剛) 166.5×85.7cm, 149.8×80.0cm
제이 벽독금강(第二 辟毒金剛) 168.0×84.7cm, 149.5×79.8cm
제삼 황수구금강(第三 黃隨求金剛) 165.0×84.2cm, 149.5×79.8cm
제사 백정수금강(第四 白淨水金剛) 161.0× 86.0cm, 150.5×80.5cm
제오 적성금강(第五 赤聲金剛) 176.0×85.0cm, 149.5×79.0cm

제육 정제제금강(第六 定除災金剛) 160.0×84.0cm, 149.9×79.8cm
 제칠 자현신금강(第七 紫賢神金剛) 166.0×84.0cm, 151.5×79.5cm
 제팔 대신력금강(第八 大神力金剛) 167.0×84.8cm, 150.5×79.5cm
 제일 금강권보살(第一 金剛眷菩薩) 158.8×84.4cm, 149.1×79.8cm
 제이 금강색보살(第二 金剛索菩薩) 164.0×83.6cm, 149.6×80.0cm
 제삼 금강애보살(第三 金剛愛菩薩) 85.6×154.0cm, 149×79.7cm
 제사 금강어보살(第四 金剛語菩薩) 159.4×84.8cm, 150.2×79.4cm

- 재 질 : 지분채색
- 제작연대 : 1772년(영조 48)
- 제작자 : 미상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현재 동시에 동일 목적으로 제작된 동사(同寺)의 괘불화가 보물 제1264호로 지정되어 있어 이 그림들도 추가하여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할 것이다.

○ (지정 가치 있음)

제석·범천도 및 사보살도, 팔금강도 14점은 1772년 괘불도와 함께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화로서 일괄을 이루고 있어 18세기 의식용 불화의 구성과 도상을 이해하는데 자료적 가치가 있다고 하겠음.

따라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되나, 현재 개심사에는 동시 조성으로 추정되는 괘불도가(보물 제1264호) 봉안되어 있어 이와 관련하여 지정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지정 가치 있음)

이 14점의 불화는 1772년에 개심사 괘불도 조성 시 함께 제작된 도량장엄용 의식불화로, 제석천도, 범천도, 사보살도, 팔금강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이 바탕에 채색되었으며 전체적으로 화면에 구김이 많고 화면 일부가 유실되거나 얼룩이 심한 편이다. 필선이라든가 채색에서는 동시기 불화에 비하여 다소 형식화되고 양식적으로 떨어지는 면을 보이지만 괘불도와 함께 제작되었다는 화기가 남아있고 당시 괘불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의식화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에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개심사 괘불도와 같은 지정번호에 추가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 (지정 가치 있음)

개심사 대범천(大梵天)·제석도(帝釋圖)와 팔금강(八金剛)·사위보살도(四位菩薩圖)는 영산재(靈山齋) 등 야외 불교의식을 진행하기에 앞서 야외 도량에 현쾌하여 도량 주위를 걸계하고, 옹호·장엄하기 위해 제작된 불화이다. 제6정제재금강도(定除災金剛圖)에 남아 있는 화기를 통해, 1772년 영산회괘불도(靈山會掛佛圖) 조성 시 옹호신중(擁護神衆)으로 함께 조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들 도량옹호변은 괘불도와 함께 영산재를 배풀기 위해 일괄로 제작된 것으로 함께 남아 있는 경우가 드물다. 비록 선이 거칠고 색감이 산뜻하지 못해 작품성은 떨어지지만, 괘불도와 도량옹호변이 함께 남아 있는 드문 사례에 해당하기 때문에, 야외 의식불화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이미 지정된 개심사 영산회괘불탱(보물 제1264호)에 포함시켜 일괄로 지정 관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지정명칭은 “서산 개심사 영산회괘불도 및 도량옹호변”을 제안한다.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보물로 지정 예고함.

조사보고서

□

○ 내용 및 특징

-제석·범천

이 작품은 동사(同寺)의 팔금강변과 같이 불교의식을 행할 때 그 도량을 장엄하는 역할을 하는 번으로써 각 폭에 제석천·범천을 표현하고 있다.

제석천은 도리천(忉利天)의 선견성(善見城)에 살면서 여러 신중과 사천왕을 거느리고 불법을 수호하는 모든 신중의 신이고, 범천은 색계(色界) 초선천(初禪天)의 왕으로 제석천과 함께 불법 수호의 역할을 맡고 있다. 제석천과 범천의 형상은 모두 의복과 보관을 쓴 보살형의 모습으로 두 존상의 모습을 구별하기 어렵고 정확한 도상학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이마에 세로로 눈이 하나 더 표현되어 삼목(三目)을 가진 신을 범천으로 추정한다.

두 작품은 화기가 적혀있지 않지만, 본 작품과 같은 시기에 제작된 제6 금강보살 변 하부의 화기에 건륭삼십칠년(乾隆三十七年, 1772) 괘불화를 제작 할 때 범·제석천, 팔대금강(八大金剛), 사위보살(四位菩薩)을 함께 제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아마도 그 때 함께 제작된 것으로 짐작한다.

먼저 제석천도의 화면구성을 살펴보면, 천의를 휘날리는 의복을 입고 머리에 보관을 쓰고 합장을 하고 향우를 향하여 있지만 얼굴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범천 역시 제석천과 유사한 모습을 하고 신체는 향좌를 바라보고 얼굴은 정면을 향하고 있으며 이마에 눈이 하나 더 표현되어있다. 두 작품은 화면 밖의 상부에 제석천왕(帝釋天王), 대범천왕(大梵天王)이라고 존명이 적혀있어 존상을 구분할 수 있다.

-4위보살변

이 작품은 동사(同寺)의 팔금강변과 같이 불교의식을 행할 때 그 도량을 장엄하는 역할을 하는 변으로써 각 폭에 금강색보살(金剛索菩薩), 금강권보살(金剛眷菩薩), 금강애보살(金剛愛菩薩), 금강어보살(金剛語菩薩)의 4보살을 1위씩 표현하고 있다.

4위보살변에서는 화기를 확인할 수 없으나 팔금강변에 남아 있는 화기를 통하여 건륭(乾隆) 37년인 1772년에 괘불화를 제작할 때 팔금강변, 범천, 제석, 신중변 등과 함께 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표현기법 역시 동일하다.

금강권보살의 경우 윗 가로대 부분이 손실되었으며 가로대의 아래에 적혀 있었을 명호나 화면의 안쪽 오른쪽 상부에 있을 명호도 확인되지 않는다. 금강색보살은 가로대는 있으나 떨어져 있는 상태이며 윗 가로대 아래쪽의 명호는 확인되지 않고 화면 안쪽에 적혀 있는 명호만이 확인된다. 금강애보살은 아래 가로대가 손실되었으며 위쪽 가로대 아래의 명호만이 확인되며 안쪽의 명호는 확인되지 않는다. 금강어보살은 아래 가로대는 남아 있으나 손상이 있어 떨어져있고 윗 가로대 아래의 명호는 확인되지 않고 안쪽에 번호만이 확인된다. 4보살변은 모두 조금씩 물얼룩이 졌다.

주조색은 주(朱), 황(黃), 녹청(綠靑), 군청(群靑)이다. 팔금강변과 마찬가지로 먹선으로 화폭의 안쪽을 구획하고 그 화면 중앙에 천의를 입고 합장 하고 있는 보살을 표현하였으며 먹선의 구획 바깥쪽은 백색안료로 채색하였다. 전체적으로 먹선으로 윤곽을 긋고 있는 것과 채색의 아래쪽에 밑선이 드러나 보이는 것 모두 팔금강변과 동일하다.

앞에서 살펴본 팔금강변, 제석천·대범천왕변과 함께 이 4위보살변의 경우 현존하는 변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괘불화와 함께 제작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화기가

남아 있어 이와 같은 번이 괘불화와 함께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그리고 1772년이라는 확실한 기년명을 지니고 있으며 괘불화와 함께 제작되었음을 확실히 밝힌 화기가 있는 세트로 남아 있는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번들은 현존하는 번들 중에서도, 그리고 기년명을 지니고 있는 번들 중에서도 1736년에 제작된 통도사 성보박물관 소장의 팔금강번에 이은 가장 오래된 번이며, 또한 현존 예가 많지 않은 지본(紙本)의 번으로써도 역시 통도사 성보박물관 소장의 오계수호신장번(五界守護神將幡) 이후 두 번째로 오래된 번이다. 그리고 그 크기에 있어서도 18~19세기에 제작된 다른 작품들과 비교하여 볼 때 가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세로는 타 작품들에 비해 약 20~60cm 정도 크다.

-8대금강번

이 금강번은 불교의식을 행할 때 그 도량을 장엄하기 위해서 사용된 번들로써 각 폭에 각각 한 구씩 여덟 금강을 표현하고 있다. 존명은 청제재금강(靑除災金剛), 벽독금강(辟毒金剛), 황수구금강(黃隨求金剛), 백정수금강(白淨水金剛), 적성화금강(赤聲火金剛), 정제재금강(定持災金剛), 자현신금강(紫賢神金剛), 대신력금강(大神力金剛)이다.

이 금강번은 제6 금강 화면 아래쪽에 남아 있는 화기에 의하면 건륭(乾隆) 37년인 1772년에 괘불 제작 시 신중, 범천, 제석, 보살번 등과 함께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각 8폭의 표현기법은 모두 동일하며 주조색은 주(朱), 황(黃), 녹청(綠靑), 군청(群靑)이다. 먹선을 이용하여 전체 화폭의 안쪽에 방형으로 화면을 구획하고 그 중앙에 칼·용·바위·금강저 등을 잡거나 혹은 집고 있고, 합장을 하고 있는 금강이 화면 가득 표현되어 있다. 구획한 먹선의 바깥쪽은 백색안료로 채색하여 채웠다.

근육 등은 먹선의 밑선 위에 채색 후 먹으로 바림하여 표현하였다. 채색 위에 다시 먹선으로 윤곽 및 주름을 표현하고 있음이 옷주름 등 일부에서 확인된다. 천의 자락은 동일한 색상으로 명도 차이를 주거나 바림을 함으로써 그 주름을 표현하고 있다. 눈동자는 황색 안료로 눈동자를 표현한 후 먹선으로 그 윤곽과 홍채를, 그 주변을 백색안료로 바림하여 흰자위를 표현하였다. 수염이나 눈썹, 머리카락 등은 먹선으로 하나하나 표현하거나 각 금강에 따라서 녹청과 먹, 백색안료 등을 사용하여 나타내고 있다.

밑선 위로 채색을 하고 먹선을 다시 그어 윤곽 및 주름을 표현하였는데 채색이 열어 밑선이 그대로 드러나 위에 다시 그은 먹선과 그 위치에 있어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은 부분에서 확인된다.

<畫記>

乾隆三十七年壬辰中秋○○寺掛佛○造○時○護神衆大梵帝釋八大金剛四位菩薩○○○○○○○○○○冥○三○○○○○○三僮○持○○



○ 내용 및 특징

대웅전 후면에 있는 궤(櫃)에서 사직사자도 및 오방오제도와 일괄하여 발견되었다. 사찰에서 영산재라든가 수륙재 등과 같은 큰 규모의 의식 때 괘불도와 세트를 이루어 사용되던 의식용 불화인 변화(幡畫)로서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부분적으로 존명과 순서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묵서명이 남아 있다.

화면 상단 일부에 얼룩이 조금 남아 있을 뿐 변화들 가운데 보존상태가 가장 양호한 제석·범천도의 경우 복식과 형태상으로는 도상과악이 어려우나, 각 화면 상단부 테두리에 ‘제석천왕’, ‘대범천왕’이라고 묵서되어 있고 대범천왕상 미간(眉間)에 세로 형태의 눈이 하나 더 그려져 있어 존명과 더불어 도상과악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조성시기 및 화원을 밝혀주는 화기는 남아 있지 않다.

사보살도 역시 제석·범천도와 유사한 보살형으로 모두 합장을 하고 있어 존상의 구분이 어려우나 다행히도 각 그림 화면 상단부 테두리에 부분적으로 존명(尊名)이 남아 있고, 금강권보살(제1)-금강색보살(제2)-금강애보살(제3)-금강어보살(제4) 별로 순서를 표기해 놓았다. 이들 사보살 가운데 제1보살과 제4보살은 좌향하고 있으며 제2보살과 제3보살은 우향하여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보살형 대의 및 소매자락의 색채 역시 제1보살과 제4보살은 적·녹색과 녹·적색인 반면 제2보살과 제3보살의 경우는 녹·적색과 적·녹색으로서 대칭적으로 처리하여 흥미롭다. 사보살도 역시 화기는 남아 있지 않다.

팔금강도의 경우도 상단부에 청제재금강-벽독금강-황수구금강-백정수금강-적성화금강-정제재금강-자현신금강-대신력금강 순으로 순번과 존명이 묵서되어 있다. 각 상별로 권법 자세에 칼, 창, 금강저, 바위 등의 무기를 들고 있으며 근육질의 몸을 나타내기 위하여 신체에 음영법을 구사함으로써 불법수호 및 도량을 위호하는 상으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팔금강도 역시 제6 정제재금강도 하단 테두리에 조성내력과 조성시기를 알게 해주는 묵서가 남아 있을 뿐 전반적으로는 화기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14점 모두 전반적으로 적·녹색 위주로서 담채법(淡彩法)을 구사한 난색(暖色)조의 밝고 명량한 색채와, 팔금강도 몸체에 적용한 음영법(陰影法)의 대비가 심하지 않아 온화하고 부드러운 느낌이고, 신체 형태 및 비례 또한 적당하며 세련된 필선이 엿보인다.

조성시기는 팔금강도 중 제6 정제재금강도에 남아 있는 “乾隆三十七年壬辰仲秋開心寺中掛佛幀造成時擁護神衆大梵帝釋八大金剛四位菩薩化主○休○○別座宗閑○○○○三○○我○○○持○○○”라는 묵서로 미루어 보아 1772년 괘불도 조성 시 함께 그려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개심사에는 묵서 내용의 괘불도로 생각되는 1772년 조성의 영산회괘불도가 봉안되어 있다. 이 괘불도는 “유성(有誠)”이 책임을 맡아 “유위(宥偉), 성청(性聽), 보은(報恩), 상흠(尙欽)” 등 11명의 화승을 거느리고 조성한 영산회괘불도로서 이들 14점의 변화 역시 유성 일파에 의해 일괄로 그려진 의식용 그림으로 추정된다.



○ 내용 및 특징

이 14점의 불화는 1970년대에 일괄적으로 개심사 대웅전 뒤의 목곽 속에 넣어져 보관되어 오다 2009년에 발견된 불화 중 일부이다. 함께 발견된 팔금강도 중 정제재금강도의 하단에 건륭 37년(1772) 괘불 조성 시 옹호신중인 대범제석팔대금강사위보살(大梵帝釋八大金剛四位菩薩)을 함께 조성했다는 기록이 적혀있어, 1772년 범천도와 제석천도, 사보살도, 팔금강도 등 14점이 괘불과 함께 도량장엄용의 의식용 불화로 제작되었음이 밝혀졌다.

- 제석천도 : 상단에 향우측에서 향좌측으로 ‘제석천왕(帝釋天王)’이라고 적혀있다. 전체적으로 화면에 얼룩이 많고 손상이 심한 편이다. 제석천은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얼굴은 정면을 향한 채 왼쪽으로 몸을 약간 틀고 서있다. 얼굴은 둥글고 원만한 편이며 이목구비가 작게 묘사되었으며, 머리에는 큼직한 보관을 쓰고 있다. 소매가 넓은 옷을 입고 위에 운견(雲肩)같은 것을 걸쳤는데, 좌우로 천의자락 같은 것이 휘날리는 모습이 정적인 화면에 동감을 느끼게 한다. 채색은 주황색과 백색, 갈색, 하늘색, 녹색이 주로 사용되었다. 상축은 남아있으며 지축은 결실되었다.

- 범천도 : 상단에 향우측에서 향좌측으로 ‘대범천왕(大梵天王)’이라고 적혀있다.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오른쪽으로 얼굴과 몸을 돌려 서있는 모습으로 제석천과 상대하여 그려졌다. 자세와 복식 모두 제석천과 동일하지만 얼굴에는 천안(天眼)이라고 부르는 제3의 눈이 그려져 있다. 주황색과 녹색, 백색, 청색이 주로 사용되었다. 화면 상단 우측에 얼룩이 심한 편이다.

- 사보살도 : 화면 상단 천축 아래에 각각 ‘제일금강권보살(第一金剛眷菩薩)’, ‘제이금강색보살(第二金剛索菩薩)’, ‘제삼금강애보살(第三金剛愛菩薩)’, ‘제사금강어보살(第四金剛語菩薩)’이라 적혀있다. 네 보살 모두 범천 및 제석천과 같이 소매가

넓은 옷을 입고 어깨에는 운견(雲肩) 같은 것을 걸치고 오른쪽 또는 왼쪽을 향해 몸을 돌리고 서있다. 네 점 모두 화면의 향좌측 동일한 곳에 얼룩이 심한 것으로 보아 보관 시 생긴 얼룩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필선의 처리가 미숙하여 마치 미완성된 듯한 곳도 보인다. 채색은 주황색과 백색, 녹색이 주조를 이룬다. 화면에는 가로, 세로로 주름이 많아 손상이 심하며 찢겨져 나간 부분(제1금강권보살 및 제4금강어보살)도 보인다.

- 팔금강 : 팔금강도는 청제재금강, 벽독금강, 황수구금강, 백정수금강, 적성금강, 정지재금강, 자현신금강, 대신력금강의 8폭으로 이루어져 있다. 화면 상단에는 향우측에서 향좌측으로 각각의 명칭이 적혀있으며, 아래 위로 천축과 지축을 대었으나 떨어진 것도 있다. 각 금강은 하체에는 치마, 상체에는 스카프 모양의 천을 두르고 칼, 창, 삼지창, 바위, 용 등의 지물을 들고 눈을 부릅 뜬 채 몸을 뒤틀며 서 있다. 대체적으로 필선이 두껍고 형식화되었지만 정지재금강에서처럼 세필을 사용하기도 했다. 얼굴에는 일부 음영처리를 하여 입체감을 강조하기도 했으나 다리와 손 등의 음영법이 어색하고 형식화되었다. 화면에는 전체적으로 가로와 세로 주름이 많으며, 상단에는 가는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천축을 삼았고 하단에는 사각형, 원형 등으로 지축을 삼았다. 채색은 주황색과 양록색, 갈색, 백색, 하늘색, 양녹색 등이 주로 사용되었는데, 전통적인 채색기법과 달리 부분적으로 너무 강하게 설채되었으며, 특히 음영 표현에서 형식화되어 자연스럽지 못하다.



○ 내용 및 특징

2009년 6월 27일 예산 수덕사 근역성보박물관에서 개심사 대응전 뒤편에 있던 궤짝을 조사하던 중 그곳에서 다량의 불화가 발견되었다. 이들 불화는 보존상태가 불량하여 불전(佛殿)에서 떼어 내 한 곳에 모아 보관한 것으로 추정된다. 발견된 불화는 17, 18세기에 제작된 예배·의식용 불화로서 그 중 완결성을 갖추고 있는 것은 오방제위도 및 사직사자도, 제석범천도(帝釋梵天圖) 및 사보살팔금강도(四菩薩八金剛圖) 등 도량옹호용(道場擁護用) 불화 2건이다.

개심사 대범천(大梵天)·제석도(帝釋圖)와 사보살(四菩薩)·팔금강도(八金剛圖)는 영산재(靈山齋) 등 야외 불교의식을 진행하기에 앞서 야외 도량에 헌배하여 도량 주위를 결계하고, 옹호·장엄하기 위해 제작된 불화이다. 제6 정제재금강도(定除災金剛圖)에 남아 있는 화기를 통해, 이들 불화들은 1772년 영산회괘불도(靈山會掛佛圖) 조성 시 옹호신중(擁護神衆)으로 일괄 조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화사(畫師)는 화기의 박락이 심하여 정확하지 않으나 부○(富○)이라는 승명(僧名)이

확인되는데, 아마도 영산회괘불도 조성에 참여한 부일(富一)로 추정된다. 부일이 단독으로 도량옹호변을 모두 그렸을 가능성도 있겠으나 통상의 예처럼 괘불화를 그린 유성(有誠) 일파(一派)가 함께 참여하여 그렸다고 보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개심사 괘불화와 도량옹호변은 현전하는 조선 후기 유행한 영산재(靈山齋) 등 야단법석에 현과되었던 의식용 불화의 드문 사례이다.

개심사 도량옹호변은 모두 그림의 가장자리를 굵은 먹 선으로 구획하고 그 안에 각 1구씩 총 14쪽의 각기 다른 도상을 그렸다. 상단에는 좌서(左書)로 존명(尊名)을 묵서해 도상의 이해를 돕고 있다.

우선 제석과 범천은 서로 대응되게 표현하였는데, 이들의 머리에는 원형의 두광을 갖추고 화려한 보관을 착용하였으며 소매가 배추 형태로 풍성히 늘어진 상의와 치마를 입었다. 두 손은 합장하였으며 복부에서 X자형으로 교차한 천의자락이 바람에 나부끼듯 S자형으로 역동적으로 흘러내렸다. 정면을 향한 얼굴은 둥글고 이목구비는 작고 오밀조밀하게 표현하였다. 범천은 이마 한 가운데 세로로 제3의 눈을 표현하여 도상의 정확성을 기했다. 굵고 가는 선을 자유분방하게 구사한 선묘는 거칠고 번잡하여 정치(精緻)하지 않다. 진채 위주의 채색은 전반적으로 조화롭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색의 톤과 바림을 통하여 입체감을 시도하였으나 효과적이지는 않다. 이러한 선과 색채감, 표현방식은 여타 사위보살도나 팔금강도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사위보살도(四位菩薩圖)는 제일 금강권보살(第一 金剛眷菩薩), 제이 금강색보살(第二 金剛索菩薩), 제삼 금강애보살(第三 金剛愛菩薩), 제사 금강어보살(第四 金剛語菩薩)의 네 점이다. 제1과 제4 보살은 좌측을, 제2와 제3은 우측을 향해 합장하여 상호 대응되게 하였다. 모두 녹색의 두광(頭光)을 갖추고 풍성한 소매를 가진 상의(上衣)를 입었으며, 어깨에는 적(제1, 3)·녹(제2, 4)의 솔을 걸치고 복부에서 X자 형태로 교차한 천의 자락이 바람에 나부끼듯 표현되었다. 전반적인 형태는 이천(二天)과 같으나, 좌우안(左右顔) 7분면(分面)의 측면관을 한 점이 다른 점이다.

팔금강도는 제일 청제재금강(第一 靑除災金剛), 제이 벽독금강(第二 辟毒金剛), 제삼 황수구금강(第三 黃隨求金剛), 제사 백정수금강(第四 白淨水金剛), 제오 적성금강(第五 赤聲金剛), 제육 정제재금강(第六 定除災金剛), 제칠 자현신금강(第七 紫賢神金剛), 제팔 대신력금강(第八 大神力金剛)의 8점이다. 팔금강(八金剛)은 모두 주름이 깊은 분노형의 얼굴에 기운 넘치는 근육질의 신체를 가지고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나신(裸身)의 상체에는 역동적인 천의를 걸쳤으며, 하체에는 무릎까지 드리워진 도티를 입었으며 신발은 신지 않았다. 지물로 제1 금강은 철퇴(鐵槌), 제2 금강은 장검(長劍), 제3 금강은 용(龍), 제4 금강은 금강저(金剛杵), 제5 금강은 장검

(長劍), 제6 금강은 금강저(金剛杵), 제7 금강저(金剛杵), 제8 금강은 바위를 들고 있다. 금강은 백색, 적갈색, 흑갈색 등 다양한 신체 색을 가지고 있으며, 금강의 위엄과 강력한 힘을 표현하기 위해 안면(顔面)과 육신부(肉身部)에 먹 선과 먹 바림을 사용하여 동세와 과장된 입체감을 나타내었다.

[화기]

乾隆」三十七季」壬辰」仲秋」開心」寺中」掛佛」幀造」成時」擁護」神衆」大
梵」帝釋」八大」金剛」四位菩薩」化主」○休」○○」別座」守閑」畫師」富○」
三綱」住持」通洽」三補」宇察」持事」侃○」

3. 부산 금정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釜山 金井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및 腹藏遺物)

가. 검토사항

“부산 금정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 금정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1.03.08)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1.12.16)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부산 금정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釜山 金井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및 腹藏遺物)
- 소유자(관리자) : 금정사
- 소재지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1동 282 금정사
- 수 량 : 불상 1구, 복장유물 11종 557점(전적 7종 9책, 다라니 4종 548매)
- 규 격 : 상 높이 107.5cm, 어깨 폭 46.5cm, 무릎 폭 74.5cm,
무릎 높이 26.0cm
- 재 질 : 나무(木), 종이(楮紙)
- 형 식 : 독존
- 제작연대 : 1677년(숙종 3)
- 제작자 : 혜희(慧熙), 처상(處祥), 신일(信日), 영탄(靈坦), 보융(普融),
회일(懷日), 도문(道文)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부족함)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정사에 있는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원래 전라남도 고산현 북거 대둔산 문룡사(高山縣 北距 大菴山 門龍寺)에 봉안했던 상이며, 조상기에 의해 수화승 혜희(慧熙)를 중심으로 모두 7명이 참여하여 1677년(康熙 16, 숙종 3)에 조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상과 같이 삼불상의 하나로 만들었던 약사불상이 전주 일출암에 있다고 하므로 같이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보존 상태는 좋은 편이나 1655년 범주사 원통전에 있는 같은 혜희작의 목조관음상에 비하여 얼굴 표현이나 옷주름 처리 등에서 힘이 많이 빠져 있다.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 보다는 우선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것을 권유한다.

○ (지정 가치 부족함)

부산 금정사 대웅전 목조불좌상은 복장 유물을 지닌 중요한 불상이다. 복장 유물 중 조성발원문을 통하여 대둔산(大菴山) 문룡사(門龍寺)에 봉안하기 위하여 조선시대 1677년에 조각승 혜희를 비롯한 7명의 승려가 조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불상은 조선시대 17세기에 활동했던 조각승 혜희의 후기 작품 중 대표적인 예이다. 불상은 전주 일출암에 봉안되어 있는 용문사 목조불좌상과 함께 같은 해에 혜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비록 두 불상 간에는 미묘한 양식적인 차이가 있지만, 원래 삼존상을 구성하던 두 불상으로 추정된다. 다만 조성발원문에서 불상의 도상 명을 밝히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존명을 거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불상은 17세기 조각승 범령의 뒤를 이은 혜희에 의해 조성되었는데, 그의 작품은 상호와 법의의 옷주름 표현에서 어느 정도 확인된다. 그러나 그의 전성기에 조성했던 불상에서 볼 수 있는 힘이 넘치는 작품은 사라지고 번다해진 장식성과 탄력성이 떨어진 표현 특징 만이 남아 있다.

금정사 대웅전 목조불좌상은 비록 혜희의 주도 하에 조성되었지만, 그의 대표작으로 보기에는 다소 미약한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금정사 불상이 조성 시기와 조각승의 이름을 알 수 있고, 복장유물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혜희에 의해 1677년에 삼존상의 한 존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 지정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금정사 목조불좌상, 전주 일출암에 봉안된 용문사 목조불좌상과 함께 만들어졌을 또 다

른 불상이 확인된 후에 삼존상을 함께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단독상으로서의 금정사 목조불좌상은 지방유형문화재로서 지정되어 보존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될 것을 권고한다.

○ (지정 가치 부족함)

부산 금정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17세기 후반 경에 활약한 대표적인 조각승 혜희에 의해 1677년에 제작된 작품이다. 지금은 폐사된 전라도 대둔산 용문사에 봉안되었던 불상임이 발원문에 의해 밝혀졌으며, 원래는 삼세불 중 오른쪽 협시불이었음도 알 수 있다. 이 불상은 신체에 비해 큰 얼굴에 옆으로 팽창감이 느껴지는 얼굴 표현, 넓은 무릎에서 오는 안정감과 건장하면서도 힘이 넘치는 표현 기법이 특징으로, 혜희만의 독특한 조형 감각이 잘 남아 있다.

금정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혜희의 말년 작품이라는 상징적 의미는 있지만 불상의 조형성이라든가 복장물의 성격 등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되며 지방유형문화재로서 보존, 관리함이 좋을 듯 하다.

○ (지정 가치 부족함)

이 불상은 17세기 중, 후반기에 활약한 조각승 혜희 등이 1677년 고산현(현 전북 완주) 대둔산 문룡사(또는 용문사)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된 불상이며, 지금까지 알려진 수조각승(首彫刻僧) 혜희(慧熙)의 가장 늦은 시기의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는 혜희의 전성기 작품에서 볼 수 있는 강인하고 역동적인 것에 비해 많이 부드러워져 시기에 따른 조각적 변화, 또는 조각적 특성이 많이 약화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 불상은 도상적 특징상 현재 전주 일출암에 봉안되어 있는 약사여래상과 함께 석가여래삼불 형식을 이루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불상은 혜희의 작품 중에서 시기가 가장 늦고 혜희의 작품 경향이 가장 잘 드러난 대표작으로 볼 수도 없다. 또한 석가여래삼불 형식의 완전한 구성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17세기 중·후반기를 대표하는 조각승 혜희의 작품 경향을 시기별로 연구하는데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므로 함께 발견된 복장유물과 함께 '부산시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 보호해 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 (지정 가치 부족함)

부산 금정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 고문서 및 전적류(釜山 金井寺 木造阿

彌陀如來坐像 腹藏 古文書 및 典籍類)는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보존하기에는 그 가치가 미흡한 듯하다.

그러나 부산 금정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 고문서 및 전적류(釜山 金井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腹藏 古文書 및 典籍類)는 임진왜란(壬辰倭亂)을 전후한 조선시대 목판인쇄술의 개략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권유한다.

○ (지정 가치 부족함)

부산 금정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 고문서 및 전적류(釜山 金井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腹藏 古文書 및 典籍類)는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보존하기에는 그 가치가 미흡하다.

그러나 부산 금정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 고문서 및 전적류(釜山 金井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腹藏 古文書 및 典籍類)는 임진왜란(壬辰倭亂) 이후 조선시대 목판인쇄술의 개략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유형문화재자료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정 가치 부족함)

부산 금정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 고문서 및 전적류(釜山 金井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腹藏 古文書 및 典籍類)는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보존하기에는 그 가치가 미흡한 듯하다.

그러나 부산 금정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 고문서 및 전적류(釜山 金井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腹藏 古文書 및 典籍類)는 임진왜란(壬辰倭亂)을 전후한 조선시대 목판인쇄술의 개략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권유한다.

○ (지정 가치 부족함)

부산 금정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전적은 대웅전에 봉안된 본존불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이 1677년(숙종 3)에 조성되어 복장품으로 납입되었던 전적류들이다. 권말과 본문이 여러장 결락(缺落)되어 있어 좋지 못하다. 법어언해, 법화경, 금강경, 육경합부 등 전적류는 대부분 후쇄본(後刷本)이며, 다라니류는 복장 시 인출되어 납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 부결 - 지방 유형문화재로 지정 권고함.

조사보고서



○ 내용 및 특징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1동 282번지 금정사에 있는 이 목조여래좌상은 높이 107.5cm의 상으로 상체를 앞으로 숙여 아래를 굽어보는 자세로 머리의 비례가 불상에 비해 큰 편이다. 수인은 설법인의 아미타불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복장물에서 나온 조성 발원문에 의하면 이 상은 강희(康熙) 16년, 1677년(숙종 3년)에 전라도 고산현 대둔산 문룡사에 봉안했던 상이며, 수화승 혜희(慧熙)를 중심으로 처상(處祥), 신일(信日), 영탄(靈坦), 보융(寶融), 회일(懷日), 도문(道文) 등 7비구가 조성에 참여하였다. 혜희는 속리산 범주사 원통전의 관음보살상을 조각한 장인이며 또한 소현세자(1612~1645)의 며느리가 1662년(현종 3)에 발원하여 현재 순천 송광사 관음전에 있는 목조관음보살상 역시 혜희가 조각한 상이다. 따라서 혜희는 전라도와 충청도에서 활약한 승장으로 이 금정사상은 혜희 활동기간으로는 후기의 예로 생각된다. 그러나 범주사나 송광사 관음상에서 보이던 강인한 조각양식이 부드러워졌고 원만한 인상을 준다.

전주 일출암에는 이 상의 발원문과 같은 내용을 가진 목조약사불좌상이 있다고 하는데 원래 대둔산 문룡사에 봉안하였을 때에는 아마도 본존 석가모니불의 좌측에 모셨던 불상인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이 상은 일출암의 상과 같이 조사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문화재보다는 지방 유형문화재로 지정하며 보존할 것을 권유한다. 복장물의 후령통속에서 나온 동제(銅製)의 오보병, 경전류 등도 발견되어 일괄로 함께 보존하여야 할 것이다.



○ 내용 및 특징

부산 금정사 대웅전의 불단 위에는 중앙의 불좌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협시보살

좌상이 각각의 대좌 위에 봉안되어 있다. 이미 조사된 바에 의하면, 불상은 나무로 조성되었으며, 협시보살상들은 돌로 만들어졌다. 원래 이들 삼존상은 함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협시보살상들을 근년에 따로 제작하여 봉안한 것이다. 보살상들은 중앙의 불상과 양식적으로도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전언에 의하면,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된 중앙의 목조불좌상은 1920년 경에 다른 곳에서 지금의 금정사로 옮겨 왔다고 한다. 이 불상은 2009년 11월에 개금하였는데, 이 때 복장물이 발견되었다. 발견된 복장 유물로는 불상 조성의 발원문을 비롯하여 후령통, 7종 8점의 경전류와 수백장의 목판본 다라니 꾸러미가 있다.

(1) 목조불좌상

발원문에 의하면, 금정사 대웅전 목조불좌상은 조선시대 1677년 6월에 혜희(慧熙), 처상(處祥), 신일(信日), 영탄(靈坦), 보융(寶融), 회일(懷日), 도문(道文) 등의 조각승(발원문에서는 공화(工畵)라고 기록되어 있음)에 의해 제작되었다고 한다. 불상은 조선시대 불상의 일반적인 조성법인 양손을 따로 제작하여 끼웠으며, 전체적으로 후보되거나 훼손된 곳이 없이 보존 상태가 매우 좋은 편이다. 다만 2009년의 두터운 개금으로 인하여 상호의 느낌이 약간 바뀐 듯하다.

불상은 통견식으로 법의를 착용하고 결가부좌하고 있다. 오른손은 위로 들어 올린 다음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으며, 왼손은 자연스럽게 결가부좌한 오른발 발바닥 위에 둔 채 역시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다. 이는 아미타불상의 설법인에서 많이 차용하는 수인이다. 머리와 하체에 비해 상체가 가늘고 왜소한 느낌을 주어 전체적인 비례가 다소 부자연스럽다. 또한 상체의 길이에 비해 무릎의 폭이 상당히 넓어서 지나친 안정감을 부여해 준다.

머리에는 높고 뾰족한 형태의 나발이 촘촘하게 표현되어 있다. 머리와 육계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다. 머리 정면 가운데에는 반월형의 중앙계주가 있으며, 정상 부에는 정상계주가 있다. 얼굴은 방형에 가까우며, 이마가 넓고 양 볼과 턱 부분에는 살찐 듯이 부풀어 있다. 호선을 그리는 눈썹과 그 사이에 백호, 양 눈썹 안쪽 부분에서 연결되어 삼각형의 우뚝 선 코, 조금은 작아 보이는 눈, 살짝 입술에 힘을 주어 올라간 입가의 미소 등 원만한 상호를 갖추고 있다. 양 볼과 턱 부분에서 살이 오른 모습을 제외하면 상호의 모습은 조각승 법령(法靈)의 전통을 계승한 조능(祖能)의 표현 기법이 간취된다.

한편 법의는 대의(大衣)와 상의(上衣) 등으로 이루어 졌다. 법의의 옷주름은 신체의 굴곡을 잘 살려 유기적으로 처리하였다. 가슴 중앙에는 승각기가 표현되어 있다. 옷주름의 전체적인 표현 방식은 부드러운 곡선으로 처리되었는데, 이러한 모습은 조각승 혜희의 전형적인 작품이다. 특히 교차된 양 발목 사이로 흘러 내린 옷주름은 스형태로서 매우 입체적이다. 또한 왼쪽 무릎 위를 덮고 거의 바닥까지

흘러 내린 법의 끝부분이 세장한 ‘Ω’형태로 처리되었는데, 이러한 특징들도 혜희 조각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법의의 옷주름 처리에서 선의 움직임이 많아짐으로써 다소 장식적인 느낌마저 든다. 또한 오른발을 살짝 덮으면서 흘러 내린 옷주름의 선 처리에서는 선의 유기적인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아울러 이들 옷주름에 보이는 여러 표현 속에서 1650년대의 혜희 조각에서 보이던 힘이 넘치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금정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목조불좌상을 조성한 혜희는 전라도와 충청도를 중심으로 활동한 17세기 중·후반을 대표하는 조각승이다. 그는 송림사(崇林寺) 성불암(成佛庵)의 목조불상(1640년)과 완주 송광사(松廣寺) 소조삼세불좌상(1641년)의 조성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650년대 이후가 되면 제자들을 이끌고 직접 불상 조성을 주도하기 시작한다. 금산사(金山寺) 대장전(大藏殿) 불상(1650년)과 감사 보장각 목조석가여래좌상(1650년 경), 법주사 관음전 목조관음보살좌상(1655년) 등은 그의 대표작이다. 그의 말년에 조성한 것으로는 전주 일출암(日出庵)에 봉안되어 있는 용문사(龍門寺) 목조약사여래좌상(1677년)과 같은 해의 금정사 목조불좌상이 있다. 즉 혜희는 1640년대 수련기를 거쳐 1650년대부터는 수화승으로 활동하였다. 따라서 금정사 목조불좌상은 혜희의 후기 작에 속한다.

(2) 복장 유물

금정사 목조불좌상을 2009년에 개금하면서 많은 양의 복장유물이 발견되었다. 아래의 조성발원문과 후령통 외에도 1441년에 간행된 『묘법연화경』 권4와 『금강반야바라밀경』, 『법어』 등 여러 권의 경전과 인쇄된 범자다라니가 함께 나왔다.

1) 조성발원문(가로 57.5cm, 세로 37.0cm, 저지묵서)

한지에 3단에 걸쳐 최대 34행으로 썼다. 발원문 형식은 시주질, 사중질, 연화질로 구성되며, 쓰던 공간이 모자라면 빈 공간에 적기도 하여 짜임새 있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 조성 연대와 사명(寺名)을 밝히고 있으며, 발원문의 첫 문구인 “주상삼전하만만세(主上三殿下萬萬歲)” 등으로 보면 조선 후기 일반적 발원문의 형태에 비해 생략되고 간략해졌음을 알 수 있다.

조성발원문에 따르면 금정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1677년(강희 16)에 조성하여 전라도 고산현 대둔산 문룡사에 봉안했던 것이며, 수화승 혜희(慧熙)를 중심으로 모두 7명이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발원문은 혜희에 의해 같은 해에 조성된 전주 일출암에 봉안되어 있는 용문사 목조불좌상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여 주목된다. 비록 두 불상 간에 양식적인 차이가 있지만, 발원문의 내용이 일치하여 원래 삼존 불상 중에 두 불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정사 목조불좌상 조성발원문】

主上三殿下萬萬歲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皆共成佛道

供養大施主 印云比丘

材木大施主 裴德朋兩主

座代大施主 金大吉兩主

面金施主 申福立兩主 尹漢孫兩主

材木施主 成伯勳兩主 張有連兩主 李未承兩主 李先男兩主 秋命達兩主

洪月奉兩主 林厚辰兩主 金張水兩主 妙巖比丘 金應食兩主

廉石金兩主 尹氏戒良兩主 鄭三龍兩主 洪論世兩主 崔氏愛今

朴之淳兩主 李未男兩主 韓男生兩主 許氏禮香 懷日 郭振伋兩主

亡人 金氏禮莫靈駕 戒定 金得生兩主 金永吉兩主 金以信兩主

朴氏淑德兩主

鐵物施主 李旬伊兩主

寺中秩 山人 印云比丘 山人 應梅比丘 山人 性淳比丘 六藏比丘

尙雲 大明 裕勝 性義 戒訓

煠匹施主 金貴奉

持寺 文哲 三綱 智獻

緣化秩 證師 沖蹟比丘

持殿 大義比丘

工畫 慧熙比丘 處祥比丘 信日 靈坦 普融 懷日 道文

爐冶 崔秀千

來往 黃應具兩主

負木 李貴業 智洽比丘 法行比丘

供養主 惠雲比丘 省主比丘 幸明比丘

副化主 金起龍 副化主 尙均比丘

化主 吳氏白蓮兩主

都大別座 義允比丘

大化主 尙日比丘

康熙拾六年丁巳六月 落成 道內高山縣北距大茆山門龍寺安于

2)후령통(喉鈴筒)

후령통은 동서남북의 사방(四方)이 적힌 가로 31cm, 세로 35cm의 황초폭자(黃綯幅子)에 싸여 있다. 후령통은 일반적인 형태이지만, 길이가 약간 긴 편이다. 뚜껑을 포함한 전체 높이가 13.5cm, 하부 지름 5.3cm이며, 몸체 높이만 11.2cm이다. 내부에는 2겹으로 된 양면원경 1점, 붉은 구슬 1점, 오색의 명주천 등과 세장한 원통형의 동제 오보병 5개가 안립되어 있다. 동제 오보병은 보기 드문 사례이지만 오곡(五穀), 오과(五果), 오약(五藥) 등 납입물은 조선 후기 일반적인 형식을 따르고 있다. 후령통 외면은 방경(方鏡) [동], 원경(圓鏡) [서], 반월경(半月鏡) [북], 삼각경(三角鏡) [남]의 동판을 각각 방위별로 놓고 5색실로 감아 모양을 갖추었다.



○ 내용 및 특징

2010년 불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에 따르면, 이 불상은 전라북도 고산현(高山縣) 대둔산(大菴山) 문룡사(門龍寺)에 봉안하기 위해 조성된 불상이다. 대둔산 문룡사에서 현재의 금정사로 언제, 누구에 의해 이안(移安)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금정사가 창건되던 1920년 경으로 추정되고 있다.

불상의 제작에는 혜희(慧熙)를 비롯한 7명의 조각승들이 참여하였고, 제작 시기는 1677년(숙종 3)이다. 이와 동일한 시기, 동일 사찰에 봉안하기 위해 조성된 불상이 현재 전주 일출암에 전한다. 일출암 불상 조성에 참여한 조각승이나 시주자, 조성시기, 봉안사찰 등 모든 것이 같기 때문에 두 불상은 대둔산 문룡사(門龍寺) (또는 용문사龍門寺)⁴⁵⁾에 봉안하기 위해 조성된 불상임에 틀림없다. 특히 전주 일출암에 있는 불상은 오른 손을 올리고 왼손을 내린 약사불상의 도상적 특징을 보이고 있고, 이 불상은 그 반대인 아미타불상의 수인을 하고 있어 원래 석가여래삼불상을 구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불상 조각을 주도한 조각승 혜희는 법주사 원통전 관음보살상, 송광사 관음전 관음보살상, 전주 일출암 목조약사여래좌상(원 대둔산 용문사龍門寺) 등 강인하고 역동적인 조각을 즐겨 구사한 17세기 중, 후엽 경의 대표적 조각승(彫刻僧)이다.

이 불상은 머리는 크고, 어깨는 넓고 가슴은 당당하다. 허리는 짧고 두터우며 무릎은 높고 넓어 3, 4등신의 단구적이면서도 우람한 형태미를 보여준다. 육계와 지발부의 경계가 불분명한 둥근 머리에는 따로 만든 굵고 날카로운 나발을 촘촘히 부착하였고, 중앙과 정상에는 계주를 나타내었다. 얼굴은 양감이 복스럽게 올라

45) 전주 일출암 불상에는 大菴山 龍門寺로 되어 있는데 동일 사찰로 보인다.

온화한 기품이 흐르는 가운데, 가늘고 긴 눈초리 끝을 치켜 올린 눈매는 예배자를 향하게끔 하였다. 이마는 넓고 반듯하며 양미간에는 백호를 도드라지게 박았다. 삼각형을 이루는 콧날은 큼직하며 콧등은 편평하고 각 있게 처리하여 인상적이다. 다소곳이 다문 얇은 입술에는 열은 미소가 흐른다. 얼굴에는 통통한 살집이 강조되어, 혜희 조각의 특징인 강인한 면모는 약간 누그러진 듯 하다.

목에는 열은 음각 선으로 삼도를 표현하였으며, 가슴은 굴곡 없이 밋밋하게 처리하였다. 오른손은 어깨 위로 들어 엄지와 중지, 왼손은 무릎 위에 두어 엄지와 중지를 살며시 맞댄 설법인의 형태이다. 이와 함께 가슴에 표현된 균의의 끝단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비스듬히 접었는데, 흔히 삼불상의 우협시 불상에서 볼 수 있는 균의처리 방식이기 때문에 석가여래삼불상의 우협시, 즉 아미타불상으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을 말해 주는 것이다.

착의 형식은 두 장의 대의를 걸친 이중착의법인데, 복부의 중앙에 두 장의 대의가 교차하고 있으며, 왼쪽 어깨 뒤로 넘긴 대의 자락은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 이 시기 여느 불상과 마찬가지로 두텁게 걸친 불의(佛衣)는 여백을 중시하여 불필요한 주름은 생략하였으며, 불신(佛身)과의 유기적인 조화는 잃지 않았다. 왼쪽 어깨에 잡힌 칼날처럼 길게 드리워진 못깃 주름과 신축성 있는 옷감을 손으로 꼬집듯 집어올린 역Y자형 돌출주름이 눈에 띠며, 좌측면에는 높낮이가 있는 M자형의 주름을 이루고 있다.

무릎은 높고 넓으며, 속도감 있게 오른 발목을 덮어 내린 S자 형태의 띠 주름을 중심으로 하여 좌측에는 날선 수평 2단 주름으로, 우측에는 사선주름으로 처리하여 변화를 주었는데, 기세(氣勢)가 빠르고 생동적이다. 왼쪽 무릎 측면에는 발가락을 덮고 내린 날렵한 일형 주름이 드리워져 있다. 이곳에 표현된 속도감 있게 흘러내린 주름의 표현과 주름의 날이 살아 있는 듯 강조된 날선 주름은 혜희(慧熙)가 즐겨 구사한 조각적 특징이다.

이 불상은 이 보다 앞선 시기에 제작된 공주 갑사 목조석가여래좌상(1640년대)이나 보은 법주사 관음보살상(1655년), 그리고 순천 송광사 관음보살상(1662년) 등의 조각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으면서, 이들 조각에 비해 얼굴의 통통하고 부드러운 양감을 부각시켜 초·중기 조각의 특징인 강인함과 역동성이 많이 감소하고 차분하고 온화해진 느낌이 강하다.

이외 불상의 복장에서는 다량의 경전과 함께 황초폭자에 쌓여있는 후령통(喉鈴筒)이 발견되었다. 후령통은 원통형 후신과 후혈(喉穴)이 달린 후개(喉蓋)로 구성되어 있다. 후령통과 거의 같은 형태의 금속제 오보병과 끝을 꽃잎처럼 처리한 양면월경, 그리고 반월경(半月鏡)과 범자(梵字)가 음각된 원경(圓鏡), 호박(琥珀) 1점을 납입하였다. 후령통은 높이 13cm, 폭 5.2cm이며, 오보병은 높이 8cm, 폭 1.5cm이

다. 양면원경(兩面圓鏡)은 지름 2.8cm, 반월경은 2.4×1.5cm, 원경은 지름 2.6cm, 호박은 지름 0.7cm이다. 모두 불상의 조성(1677년)과 함께 납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발원문] 37.3×51.5cm

主上三殿下萬萬歲」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皆共成佛道」

상단

供養大施主 印云比丘」

材木大施主 裴德朋兩主」

座臺大施主 金大吉兩主」

面金施主 申補立兩主」

尹漢孫兩主」

材木施主 成伯勳兩主」

張有連兩主」

李末承兩主」

李先男兩主」

秋命達兩主」

洪月奉兩主」

林厚辰兩主」

金張水兩主」

妙嚴比丘」

金應食兩主」

廉石金兩主」

尹代戒良兩主」

鄭三龍兩主」

洪論世兩主」

崔氏愛今」

朴之淳兩主」

李末男兩主」

韓男生兩主」

許氏礼香」

懷日」

郭振伋兩主」

亡人 金氏礼莫灵駕」
戒定」
金得生兩主」
金永吉兩主」
金以信兩主」
朴氏淑德兩主」

鐵物施主 李旬伊兩主」

중단

寺中秩」

山人 印云比丘」

山人 應梅比丘」

山人 性淳比丘」

六藏比丘」

尙雲」

大明」

裕勝」

性義」

戒訓」

恢匹施主 金貴奉」

持寺 文哲」

三綱 智猷」

하단

緣化秩」

證師 沖曠比丘」

持殿 大義比丘」

工畫 慧熙比丘」

處祥比丘」

信日」

灵坦」

普融」

懷日」

道文」

炉治 崔秀千」

來往 黃應眞兩主」

負木 李貴業」
智洽比丘」
法行比丘」
供養主 惠雲比丘」
省玉比丘」
幸朋比丘」

副化主 金起龍 副化主 尙均比丘」
化主 吳氏白蓮兩主」
都大別座 義允比丘」
大化士 尙日比丘」
康熙拾六年丁巳六月日落成」
道內高山縣北距大菴山門龍寺安于」



○ 내용 및 특징

이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금정사 대웅전에 후대에 만든 보살 2구와 함께 삼존불의 본존불로 봉안되어 있다. 1m가 넘는 크기의 상으로 신체에 비해 큰 얼굴, 넓은 무릎과 건장한 어깨 등에서 안정감과 더불어 운동감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머리에는 중간계주와 정상계주가 있으며, 방형의 얼굴에 옆으로 긴 눈과 얇은 입술에 그 양 끝을 살짝 들어가게 함으로서 약간의 미소가 남아 있는 표정이 특징이다. 넓고 건장한 어깨에는 오른쪽에 편삼을 입은 대의를 입었는데 오른팔에서 흘러 내린 옷자락이 대의 속으로 들어 간 형식이라든가 수평으로 처리된 승각기, 밋밋한 가슴 처리 등에서 전형적인 조선 후기 여래상의 특징을 보인다. 두 손은 별도로 제작하여 끼웠으며 각기 세 번째 손가락을 구부려 역시 일반적인 아미타불의 설법인 수인을 짓고 있다.

이 아미타여래좌상은 조선 후기 17세기의 시대적 특징을 따르면서도 얼굴을 다소 크게 표현한다든가 방형의 얼굴 형상에 옆으로 긴 눈과 입술 그리고 평면적인 듯 하면서도 주름에 강약을 주어 힘 있게 표현하는 혜희만의 독특한 특징을 드러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불상은 2009년 11월에 이루어진 개금 당시 복장물이 공개되었는데 조성발원문을 비롯한 후령통 및 다수의 경전들이 발견되었다. 조성발원문에 의하면 강희 60년(1677년) 6월에 조성되었으며 혜희(慧熙)를 비롯한 6명의 조각승에 의해 제작

되었고, 불상이 모셔졌던 원래의 사찰은 전라도에 위치한 고산현(高山縣) 대둔산(大菴山) 용문사(龍門寺)임도 밝혀졌다.

불상을 제작한 수화원 혜희는 금산사 대장전 불상(1650년), 감사 보장각 목조석가여래좌상(1650년 경), 법주사 관음전 목조관음보살좌상(1655년), 전주 일출암 목조약사여래좌상(1677년)을 조성한 17세기 대표적인 조각 승려 중의 한 명이다. 이 작품들 가운데 1677년에 제작한 전주 일출암 약사불상과는 수인의 위치가 반대라는 점만 제외하면 특징은 물론 크기, 발원문의 구성과 내용까지 같아 함께 제작된 상임이 확인된다. 즉 금정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원래 일출암 약사여래좌상과 더불어 전라도 대둔산 용문사에 있었던 불상으로 원래는 석가불을 주존으로 한 석가여래삼불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書誌記述 : 金井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腹藏遺物の 細部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01)

[阿彌陀如來坐像造成發願文] / [撰者不明]. -- 筆寫本. -- [全羅道 高山縣] : [大菴山門龍寺], [肅宗 3(1677)].

1枚 : 全 3段34行19字 ; 37.0×57.5cm. 楮紙. 낱장.

內容: 主上三殿下萬萬歲/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皆共成佛道/ 供養大施主印云比丘/ 材木大施主裴德朋兩主/ 座代大施主金大吉兩主/ 面金施主申福立兩主/ 尹漢孫兩主/ 材木施主成伯勳兩主/ 張有連兩主/ 李末承兩主/ 李先男兩主/ 秋命達兩主/ 洪月奉兩主/ 林厚辰兩主/ 金張水兩主/ 妙巖比丘/ 金應食兩主/ 廉石金兩主/ 尹氏戒良兩主/ 鄭三龍兩主/ 洪論世兩主/ 崔氏愛今/ 朴之淳兩主/ 李末男兩主/ 韓男生兩主/ 許氏禮香/ 懷日/ 郭振伋兩主/ 亡人 金氏禮莫靈駕/ 戒定/ 金得生兩主/ 金永吉兩主/ 金以信兩主/ 朴氏淑德兩主/ 鐵物施主 李旬伊兩主/ 寺中秩/ 山人印云比丘/ 山人應梅比丘/ 山人性淳比丘/ 六藏比丘/ 尙雲/ 大明/ 裕勝/ 性義/ 戒訓/ 煥匹施主 金貴奉/ 持寺文哲/ 三綱智獻/ 緣化秩/ 證師 沖曠比丘/ 持殿 大義比丘/ 工畫 慧熙比丘/ 處祥比丘/ 信日/ 靈坦/ 寶融/ 懷日/ 道文/ 爐冶 崔秀千/ 來往 黃應具兩主/ 負木 李貴業/ 智洽比丘/ 法行比丘/ 供養主 惠雲比丘/ 省主比丘/ 幸明比丘/ 副化主金起龍/ 副化主尙均比丘/ 化主 吳氏白蓮兩主/ 都大別座義允比丘/ 大化主尙日比丘/ 康熙拾六年丁巳(1677, 肅宗 3)六月日落成/ 道內高山縣北距大菴山門龍寺安于

(02)

[蒙山和尚]法語 / 蒙山 德異(元) 撰 ; 慧覺尊者 信眉(?~?) 譯訣. -- 木版本. --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肅宗 3(1677)頃 印出 推定].

不分卷1冊(9張)：插圖，四周雙邊，半郭 18.9×12.7cm，有界，9行17字，註雙行，上下大黑口，上下內向黑魚尾；24.3×16.9cm. 楮紙. 線裝(五針眼訂).

表題：蒙山法語

卷首題：法語

卷末題：法語

版心題：法語

內容：皖山正凝禪師示蒙山法語，東山崇藏主送子行腳法語，蒙山和尚示衆，古潭和尚法語

卷末：墨書 3張(七言排律)

言語：漢文本에 懸吐 및 諺解

狀態：前後表紙 闕落 및 毀損

(03)

曹洞五位 / [編著者不明]. -- 木版本. -- [發行地不明]：[發行處不明], [肅宗 3(1677)頃 印出 推定].

不分卷1冊(32張)：插圖，四周單邊，半郭 17.2×12.5cm，無界，9行16字，無魚尾；24.3×16.9cm. 楮紙. 線裝(五針眼訂).

卷首題：法語

卷末題：法語

版心題：位

內容：仁宗聖帝勅秦州大中寺/道隆禪師述序云，五位序，曹山五位群臣圖頌并序，曹洞五位圖，慈明總頌，曹洞宗旨/諸家頌五首，功勳五位，君臣五位，正偏五位에 대한 明安和尚의 釋斗 汾陽和尚의 頌，妙喜示衆，曹山三墮，洞山大師金針三種滲漏，洞山唱道三綱要頌，趙州三門，諸家五位頌

狀態：前後表紙闕落 및 毀損

(04)

金剛界曼荼羅 / [編著者不明]. -- 木版本. -- [慶尙道 聞慶地]：[烏井寺], [孝宗 2(1651)刻, 肅宗 3(1677)頃 印出 推定].

1張223枚：插圖，四周雙邊，半郭 24.2×27.0cm，；28.0×51.0cm. 楮紙. 날장.

刊記：刻信暉懷信靈默靈照/ 順治八年辛卯(1651, 孝宗 2)八月日慶尙道聞慶/ 地烏井寺重修開板藏

(05)

一切如來全身舍利寶篋眞言四道合輪印 / [編著者不明]. -- 木版本. -- [發行地不明]：[發行處不明], [肅宗 3(1677)頃 印出 推定].

1張112枚：插圖，四周雙邊，半郭 26.3×27.4cm；33.0×51.0cm. 楮紙. 날장.

(06)

諸眞言片 / [編著者不明]. -- 木版本. -- [發行地不明]：[發行處不明], [肅宗 3(1677)

頃 印出 推定].

1張117枚：插圖，四周單邊，半郭 17.2×46.8cm；19.0×53.0cm. 楮紙. 낱장.

內容：[失題明]，大佛頂首楞嚴神呪，寶篋真言，六字大明王真言，淨法界真言

狀態：頭部缺落

(07)

[陀羅尼]片 / [編著者不明]. -- 木版本. -- [發行地不明]：[發行處不明]，[肅宗 3(1677)頃 印出 推定].

1張96枚：四周單邊，半郭 17.2×44.4cm，20.0×51.0cm，有界，22行11字；20.0×51.0cm. 楮紙. 낱장.

(08)

妙法蓮華經. 卷1~7 / 鳩摩羅什(姚秦)譯；戒環(宋)解. -- 木版本. -- [發行地不明]：[發行處不明]，[世宗 23(1441)刻，光海君 10(1618)頃 印出 推定].

7卷2冊：四周雙邊，半郭 19.8×13.5cm，無界，10行20字，上下內向黑魚尾；30.0×18.4cm. 楮紙. 線裝(五針眼訂).

卷首題：妙法蓮華經

卷末題：妙法蓮華經

版心題：法

序：妙法蓮華經弘傳序(道宣 述)

序：妙法蓮華經要解序(及南 撰) … 靖康丁未(1127，仁宗 5)莫春中澣日謹序

卷三末墨書：印經施主 高億萬 兩主/ 比丘 双訥 夷鷲/ 高世元 灵鷲/ 崔馬伊同 兩主/ 萬曆四十六年戊午(1618，光海君 10)月日 比丘 彦浩

跋：歲在戊申(1428，世宗 10)丁母喪 … 壬子(1432，世宗 14)正月受咸吉道都節制之命 … 惠信寺繡之梓壬戌(1442，世宗 24)春告功訖請跋其尾文辭荒拙未敢如請… 太宗大王證佛智先亡父母生淨刹者

狀態：前後表紙 缺落

(09)

妙法蓮華經. 卷4~7 / 鳩摩羅什(姚秦)譯；戒環(宋)解. -- 木版本. -- [發行地不明]：[發行處不明]，[世宗 24(1442)刻，肅宗 3(1677)頃 印出 推定].

4卷1冊：四周雙邊，半郭 121.0×13.5cm，無界，10行20字，無魚尾；28.0×17.0cm. 楮紙. 線裝(五針眼訂).

卷首題：妙法蓮華經

卷末題：妙法蓮華經

卷末跋：仁順府尹成公爲 … 蒼龍壬寅(1422，世宗 4)春三月日涵虛堂守伊(1376-1433) 無準敬跋

卷末發願文：蓮經七部 … 三寶俯賜證明 道人 定菴

卷末書寫秩：書寫/ 摠制 成達生/ 判事 成概

卷末刻手秩：施主/ 慶華宅主李氏 金虛 / 樂安郡夫人金氏妙華/ 光州郡夫人鄭氏 尹氏

同良/ 智觀 妙祥 賢蟾 妙演

卷末墨書跋： 我釋師子久默斯要爲群生故發本大願/ 無相之相無言之言演/ 此妙法一乘
圓宗莫比爲此/ 理圓言偏奇哉大矣大矣巨說/ 叵測難信/ 難遭由是慎順宮主李氏恭聞勝
事印成蓮經二七部/ 伐此勝因光願我/ 太宗大王仙駕/ 元敬王后仙駕共有漏同入無生仙
遊樂那佛杲圓成伏願/ 主上殿下聖祚深長石爛而不老/ 王妃殿下祥雲畢集山移而水寧/
世子邸下內孝於二親外安於四海亦願我光父母親緣超脫苦輪咸/ 昇覺路又願延昌君兩立
爲身貴子星現氏如彳賴 氏溫泉氏現增/ 福壽當成佛果次願己身連枝眷屬此世他生隨意自
在虛空可/ 書誠願無窮之願請予爲跋予於此經信不淺故喜爲之書所/ 經者行墨云乎哉/
正統辛酉(1441, 世宗 20)十一月日道人定菴跋/ 亦爲先亡/ 父星山府院君李稷/ 母馬韓
國大夫人許氏靈駕見/ 佛聞法證悟無生法忍也

狀態：前後表紙 缺落

(10)

金剛般若波羅密經. 上·下 / 雙林傳大士 贊； 六曹大鑿禪師 口訣； 圭峯密禪師 纂要
； 治父川禪師 頌； 豫章鏡禪師 提綱； 涵虛堂得通 說誼. -- 木版本. -- [全羅道 錦山
郡]：[神陰山 身安寺]，[中宗 32(1537)刻，光海君 5(1613)頃 印出 推定].

2卷2冊： 四周單邊，半郭 26.5×18.3cm，有界，9行14字，註雙行，上下內向黑魚尾；
36.0×23.8cm. 楮紙. 線裝(五針眼訂).

表題：金剛經

序題：金剛般若波羅密經五家解

卷首題：金剛般若波羅密經

卷末題：金剛般若波羅密經

版心題：金

序：金剛般若波羅密經五家解序說 … 永樂乙未(1415, 太宗 15)六月日涵虛堂衲守伊
(1376-1433)無準謹序

序：曹溪六祖禪師序 …

序：豫章沙門宗鏡提頌綱要序

卷上末刊記：時嘉靖十六年丁酉(1537, 中宗 32)午月日全羅道錦山郡地/ 神陰山身安寺
此經及眞覺詩眞實珠集/ 并開板/

卷上末發願文：主上殿下壽萬歲

卷上末：施主秩，刻手秩

卷下末：大施主 金大仁 兩主/ 施主 劉莫同 兩主/ 施主 崔石孫 靈駕/ 施主 金彥必 兩
主/ 施主 崔云水 兩主/ 施主 芑介 兩主/ 施主 鄭京 兩主/ 化主 印曇 比丘/ 萬曆四十
一年癸丑(1613, 光海君 5)季春日 [墨書]

狀態：前後表紙 缺落

(11)

六經合部 / [編著者不明]. -- 木版本. -- [發行地不明]：[發行處不明]，[肅宗 3(1677)
頃 印出 推定].

不分卷1冊： 插圖，四周單邊，半郭 19.2×13.0cm，無界，8行16字，無魚尾； 24.0×16.6cm.

楮紙. 線裝(五針眼訂).

內容: 金剛般若波羅密經/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大佛頂首楞嚴神呪

參考: 六經合部인 듯하나 金剛般若波羅密經,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大佛頂首楞嚴神呪만 있음.

狀態: 前後表紙 및 卷末本文 數張 缺落

(12)

六經合部 / [編著者不明]. -- 木版本. --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肅宗 3(1677)頃 印出 推定].

不分卷1冊: 插圖, 四周單邊, 半郭 19.5×12.5cm, 無界, 8行17字, 無魚尾; 25.4×15.7cm. 楮紙. 線裝(五針眼訂).

內容: 金剛般若波羅密經(花岩寺版)/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大佛頂首楞嚴神呪

參考: 六經合部인 듯하나 金剛般若波羅密經,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大佛頂首楞嚴神呪만 있음.

狀態: 前後表紙 및 卷末本文 數張 缺落

□ 現狀: 調查文化財 <釜山 金井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腹藏遺物>(古文書 및 典籍類)은 (1) <[阿彌陀如來坐像造成發願文]> 1點, (2) 「[蒙山和尚]法語」 1冊, (3) 「曹洞五位」 1冊, (4) <金剛界曼荼羅> 1張 223枚, (5) <一切如來全身舍利寶篋眞言四道合輪印> 1張 112枚, (6) <諸眞言片> 1張 117枚, (7) <[陀羅尼]片> 1張 96枚, (8) 「妙法蓮華經」 7卷 2冊, (9) 「妙法蓮華經」 4卷 1冊, (10) 「金剛般若波羅密經」 2卷2冊, (11) 「六經合部」 1冊, (12) 「六經合部」 1冊 등 도합 12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산 금정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 고문서 및 전적류(釜山 金井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腹藏 古文書 및 典籍類)의 상태는 표지(表紙)와 본문 및 장정(裝訂) 등의 결락(缺落)·마멸(磨滅)·훼손(毀損) 등으로 인하여 양호하지 못한 편이다.

부산 금정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 고문서 및 전적류(釜山 金井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腹藏 古文書 및 典籍類)는 현재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1동 282의 금정사(金井寺)에 의하여 보관·유지·관리되고 있다.

○ 내용 및 특징

부산 금정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 고문서 및 전적류(釜山 金井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腹藏 古文書 및 典籍類)는 세부 서지기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미타여래좌상조성발원문(阿彌陀如來坐像造成發願文) 1건과 불서류(佛書類) 11건의 도합 12건으로 1677년(숙종 3)에 전라도 고산현(高山縣) 대둔산(大菴山) 문룡사(門龍寺)에서 조성된 목조아미타여래좌상에 복장되었던 유물들이다.

아미타여래좌상조성발원문(阿彌陀如來坐像造成發願文) 1건은 1677년(숙종 3)에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을 조성할 때에 작성된 것이며, 목판본 불서류(佛書類) 11건의 경우 판각시기(版刻時期)는 임진왜란(壬辰倭亂) 이전(以前)으로 짐작되나 전반적으로 후쇄본(後刷本)에 해당된다. 그 인출시기(印出時期)는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을 조성하였던 1677년(숙종 3)을 기준으로 그 직전(直前)의 시기가 아니었는가 한다.

부산 금정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 고문서 및 전적류(釜山 金井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腹藏 古文書 및 典籍類)는 표지와 본문 및 장정(裝訂) 등의 결락(缺落)·마멸(磨滅)·훼손(毀損) 등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며, 심지어 「능엄경(楞嚴經)」·「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몽산법어(蒙山法語)」·「선종영가집(禪宗永嘉集)」·「사분계문(四分戒文)」 등 본문은 없이 표지만 남은 것도 있다.

부산 금정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 고문서 및 전적류(釜山 金井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腹藏 古文書 및 典籍類) 중 아미타여래좌상조성발원문(阿彌陀如來坐像造成發願文)은 1677년(숙종 3)에 전라도 고산현(高山縣) 대둔산(大菴山) 문룡사(門龍寺)에서 조성된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의 조성연대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며, 불서류(佛書類)의 전적은 불교학(佛敎學) 및 서지학(書誌學)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들이다.

부산 금정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 고문서 및 전적류(釜山 金井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腹藏 古文書 및 典籍類)는 보존상태가 불량(不良)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후쇄본(後刷本)이라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보존하기에는 그 가치가 미흡한 듯하며, 다만 임진왜란(壬辰倭亂)을 전후한 조선시대 목판인쇄술(木版印刷術)의 개략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할만한 가치는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근거 기준

부산 금정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 고문서 및 전적류(釜山 金井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腹藏 古文書 및 典籍類)는 보존상태(保存狀態)가 불량(不良)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후쇄본(後刷本)이라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보존하기에는 그 가치가 미흡한 듯하며, 다만 임진왜란(壬辰倭亂)을 전후한 조선시대 목판인쇄술의 개략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문헌자료

·釜山市文化財委員會 編, 釜山金井寺木造阿彌陀佛坐像 및 腹藏典籍一括 調査報告書. 釜山市, 釜山市文化財委員會, 2010年 7月 21日. 釜山市文化財委員 윤상

기·송정숙, 文化財專門委員 이희정·양은경 作成本.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譯, 「(역주)蒙山和尚法語略錄諺解」. 서울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2.

· <http://www.nl.go.kr/> ‘曹洞五位君臣圖序要解’

· 강호선, “「妙法蓮華經」해제”, 서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강호선, “「六經合部」해제”,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 박재현, “「금강반야바라밀경」해제”,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 문명대, “彫刻僧 慧熙의 작품세계와 釜山 金井寺 奉安 龍門寺 木阿彌陀佛像의 三世佛像研究”,



○ 내용 및 특징

부산 금정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 고문서 및 전적류(釜山 金井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腹藏 古文書 및 典籍類)는 세부 서지기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미타여래좌상조성발원문(阿彌陀如來坐像造成發願文) 1건과 불서류(佛書類) 11건의 도합 12건으로 1677년(숙종 3)에 전라도 고산현(高山縣) 대둔산(大菴山) 문룡사(門龍寺)에서 조성된 목조아미타여래좌상에 복장되었던 유물들이다.

아미타여래좌상조성발원문(阿彌陀如來坐像造成發願文) 1건은 1677년(숙종 3)에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을 조성할 때에 작성된 것이며, 목판본 불서류(佛書類) 11건의 경우 판각시기(版刻時期)는 임진왜란(壬辰倭亂) 이전(以前)으로 짐작되나 후대에 인출한 후쇄본(後刷本)이다. 그 인출시기(印出時期)는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을 조성한 1677년(숙종 3)을 기준으로 그 직전(直前)의 시기로 추정된다.

부산 금정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 고문서 및 전적류(釜山 金井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腹藏 古文書 및 典籍類)는 표지와 본문 및 장정(裝訂) 등의 결락(缺落)·마멸(磨滅)·훼손(毀損) 등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며, 심지어 「능엄경(楞嚴經)」·「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몽산법어(蒙山法語)」·「선종영가집(禪宗永嘉集)」·「사분계문(四分戒文)」 등 본문은 없이 표지만 남은 것도 있다.

부산 금정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 고문서 및 전적류(釜山 金井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腹藏 古文書 및 典籍類) 중 아미타여래좌상조성발원문(阿彌陀如來坐像造成發願文)은 1677년(숙종 3)에 전라도 고산현(高山縣) 대둔산(大菴山) 문룡사(門龍寺)에서 조성된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의 조성연대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며, 불서류(佛書類)의 전적은 불교학(佛敎學) 및 서지학(書誌學)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들이다.

부산 금정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 고문서 및 전적류(釜山 金井寺 木造阿彌

陀如來坐像 腹藏 古文書 및 典籍類)는 보존상태가 불량(不良)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후쇄본(後刷本)이라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보존하기에는 미흡하다. 다만 임진왜란(壬辰倭亂)을 전후한 조선시대 목판인쇄술(木版印刷術)의 개략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근거 기준

부산 금정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 고문서 및 전적류(釜山 金井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腹藏 古文書 및 典籍類)는 보존상태(保存狀態)가 불량(不良)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후쇄본(後刷本)이라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보존하기에는 그 가치가 미흡하며, 다만 임진왜란(壬辰倭亂) 이후 조선시대 목판인쇄술의 개략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 내용 및 특징

부산 금정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 고문서 및 전적류(釜山 金井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腹藏 古文書 및 典籍類)는 세부 서지기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미타여래좌상조성발원문(阿彌陀如來坐像造成發願文) 1건과 불서류(佛書類) 11건의 도합 12건으로 1677년(숙종 3)에 전라도 고산현(高山縣) 대둔산(大菴山) 문룡사(門龍寺)에서 조성된 목조아미타여래좌상에 복장되었던 유물들이다.

아미타여래좌상조성발원문(阿彌陀如來坐像造成發願文) 1건은 1677년(숙종 3)에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을 조성할 때에 작성된 것이며, 목판본 불서류(佛書類) 11건의 경우 판각시기(版刻時期)는 임진왜란(壬辰倭亂) 이전(以前)으로 짐작되나 전반적으로 후쇄본(後刷本)에 해당된다. 그 인출시기(印出時期)는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을 조성하였던 1677년(숙종 3)을 기준으로 그 직전(直前)의 시기가 아니었는가 한다.

부산 금정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 고문서 및 전적류(釜山 金井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腹藏 古文書 및 典籍類)는 표지와 본문 및 장정(裝訂) 등의 결락(缺落)·마멸(磨滅)·훼손(毀損) 등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며, 심지어 「楞嚴경(楞嚴經)」·「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몽산법어(蒙山法語)」·「선종영가집(禪宗永嘉集)」·「사분계문(四分戒文)」 등 본문은 없이 표지만 남은 것도 있다.

부산 금정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 고문서 및 전적류(釜山 金井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腹藏 古文書 및 典籍類) 중 아미타여래좌상조성발원문(阿彌陀如來坐像

造成發願文)은 1677년(숙종 3)에 전라도 고산현(高山縣) 대둔산(大菴山) 문룡사(門龍寺)에서 조성된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의 조성연대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며, 불서류(佛書類)의 전적은 불교학(佛敎學) 및 서지학(書誌學)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들이다.

부산 금정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 고문서 및 전적류(釜山 金井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腹藏 古文書 및 典籍類)는 보존상태가 불량(不良)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후쇄본(後刷本)이라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보존하기에는, 그 가치가 미흡하며, 다만 임진왜란(壬辰倭亂)을 전후한 목판인쇄물로 불상 복장 유물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일괄 보존할 가치는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근거 기준

부산 금정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 고문서 및 전적류(釜山 金井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腹藏 古文書 및 典籍類)는 보존상태(保存狀態)가 불량(不良)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후쇄본(後刷本)이라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보존하기에는 그 가치가 미흡한 듯하며, 다만 임진왜란(壬辰倭亂)을 전후한 조선시대 목판인쇄술의 개략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 수 량 : 11종 557점(전적 7종 9책, 다라니 4종 548매)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木版本)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1677년 (숙종 3) 경
- 내용 및 특징

부산 금정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 전적은 『법어언해(法語諺解)』, 『조동오위(曹洞五位)』,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 『육경합부(六經合部)』 등 7종 9책이며, 다라니류는 금강계만다라(金剛界曼荼羅), 일체여래전신사리보협진언사도합륜인(一切如來全身舍利宝篋眞言四道合輪印), 제진언편(諸眞言片), 다라니(陀羅尼)편 등으로 4종 548매로 조사되었다. 전적류는 전부 표지가 없고 일부 마멸 및 훼손 그리고 얼룩 등이 있어 보존상태가 좋지 않으며, 능엄경(楞嚴經)·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몽산법어(蒙山法語)·선종영가

집(禪宗永嘉集)·사분계문(四分戒文) 등은 본문 없이 표지만 남은 것도 있다.

아미타여래좌상 조성 발원문 끝에 ‘康熙拾六年丁巳(1677, 肅宗 3)六月日落成 道內高山縣北距大菴山門龍寺安于’라 하여 1677년(숙종 3)에 불상이 조성되어 고산(高山)의 대둔산(大菴山) 문룡사(門龍寺)에 봉안되었다가 어느 시기에 부산 금정사로 옮겨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 금정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 전적류 대부분은 1677년(숙종 3)에 불상 조성 시 인출되어 복장품으로 납입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부산 금정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전적 목록>

순번	명칭	수량	연대	크기 (세로×가로cm)	비고
1	법어언해 (法語諺解)	1책	1677년경 (숙종 3)	18.9×12.7	간경도감 번각본.
2	조동오위 (曹洞五位)	1책	1677년경 (숙종 3)	24.3×16.0	목판본, 후쇄본, 선장
3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7권2책 (권1~7)	1677년경 (숙종 3)	30.0×18.4	목판본, 후쇄본, 선장
4	묘법연화경 권4~7 (妙法蓮華經 卷)	4권1책 (권4~7)	1677년경 (숙종 3)	28.0×17.0	목판본, 후쇄본
5	금강반야바라밀경 (金剛般若波羅蜜經)	2권2책 (권상·하)	1537년 (중종 32) 각, 1613년 경 (광해군 5) 인출	36.0×23.8	목판본. 후쇄본. 時嘉靖十六年丁酉(1537, 中宗 32)午月日全羅道錦山郡地 神陰山身安寺此經及眞覺詩眞實珠集并開板
6	육경합부 (六經合部)	1책	1677년경 (숙종 3)	36.0×23.8	목판본. 후쇄본, 三經만 있음
7	육경합부 (六經合部)	1책	1677년경 (숙종 3)	25.4×15.7	목판본. 후쇄본. 三經만 있음. 금강경말: 全羅道 高山地 花岩寺開板
8	금강계만다라 (金剛界曼荼羅)	223매	1677년경 (숙종 3)	28.0×51.0	목판본. 주색인출, 날장 順治八年(1651)辛卯八月日慶尙道聞慶地烏井寺重修開板藏, 刻手: 信暉·懷信·靈默·靈照
9	일체여래전신사리 보협진언사도합륜 인 (一切如來全身舍利寶篋眞言四道合輪印)	112매	1677년경 (숙종 3)	33.0×51.0	목판본. 주색인출, 날장
10	제진언편 (諸眞言片)	117매	1677년경 (숙종 3)	19.0×53.0	목판본. 주색인출, 날장

11	다라니(陀羅尼)	96매	1677년경 (숙종 3)	20.0×51.0	목판본. 주색인출, 날장
----	----------	-----	------------------	-----------	---------------

1. 법어언해(法語諺解)

- 수 량 : 1책
- 규 격 : 18.9×12.7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木版本)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1677년 (숙종 3) 경 인출 추정
- 서지사항

蒙山 德異(元) 撰, 慧覺尊者 信眉 譯訣.

木版本. [肅宗 3(1677)年頃 印出 推定].

不分卷1冊(9張) : 插圖, 四周雙邊, 半郭 18.9×12.7cm, 有界, 9行17字, 註雙行,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24.3×16.9cm. 楮紙. 線裝.

表題: 蒙山法語

卷首題: 法語

版心題: 法語

『법어언해』는 혜각존자(慧覺尊者) 신미(信眉)가 환산정응선사시몽산법어(皖山正凝禪師示蒙山法語)·동산승장주송자행각법어(東山崇藏主送子行腳法語)·몽산화상시중(蒙山和尚示衆)·고담화상법어(古潭和尚法語)의 4종에 한글로 구결을 달고 번역하여 엮은 것이다. 흔히 ‘사법어언해(四法語諺解)’라 일컫고 있다. 분량이 적어 단독으로 간행되지 못하고 『목우자수심결(牧牛子修心訣)』 또는 『몽산화상법어약록(蒙山和尚法語略錄)』의 언해본에 합각되고 있는데, 세조 13년(1467) 간경도감에서 봉교조조(奉敎雕造)한 신미역의 『목우자수심결(牧牛子修心訣)』 앞에 합각된 것이 초간본이다.

이 판본은 간기나 간행기록이 없어서 정확한 간행사항은 알 수 없으나 간경도감 번각본으로 먹색이 고르지 못하고 번짐이 심하여 인쇄상태가 깨끗하지 못하여 금정사 대웅전 본존불 목조아미타불좌상이 조성된 숙종 3년(1677) 경에 인출하여 복장에 납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2. 조동오위(曹洞五位)

- 수 량 : 불분권(不分卷) 1책(冊) 32장(張)
- 규 격 : 24.3×16.9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木版本)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1677년 (숙종 3) 경 인출 추정
- 서지사항

曹洞五位 [編著者不明]. 木版本. [肅宗 3(1677)年頃 印出].

不分卷1冊(32張) : 插圖, 四周單邊, 半郭 17.2×12.5cm, 無界, 9行16字, 無魚尾 ; 24.3×16.9cm. 楮紙. 線裝.

版心題: 位

조동오위는 조동종파에서 설하고 있는 조동종(曹洞宗)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교의(教義) 가운데 하나로서 수행인이 닦아 가는 수행의 위상(位相)을 정(正)과 편(偏)을 가지고 다섯 측면으로 나타낸 정중편(正中偏), 편중정(偏中正), 정중래(正中來), 편중지(偏中至), 겸중도(兼中到)의 오위(五位)의 종지(宗旨)를 수록한 내용이다. 간기나 서·발문 등 간인연도를 밝힐 수 있는 기록이 전혀 없어 간년(刊年)을 알 수 없고 글자 부분에 결획된 부분이 드문드문 나타나고 광곽에도 끊어진 부분이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후쇄본으로 보인다. 금정사 대응전 본존불 목조아미타불좌상이 조성된 숙종 3년(1677) 경에 인출하여 복장에 납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3.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 수 량 : 7권 2책
- 규 격 : 30.0×18.4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木版本)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1677년 (숙종 3) 경 인출
- 서지사항

妙法蓮華經. 鳩摩羅什(姚秦) 譯 ; 戒環(宋) 解. 木版本. [光海君 10(1618)年頃 印出]. 7卷2冊 : 四周雙邊, 半郭 19.8×13.5cm, 無界, 10行20字, 上下內向黑魚尾 ; 30.0×18.4cm. 楮紙. 線裝.

版心題: 法

序: 妙法蓮華經弘傳序(道宣 述)

卷三末墨書: 印經施主 高億萬 兩主/ 比丘 雙訥 夷鷲/ 高世元 靈鷲/ 崔馬伊同 兩主/
萬曆四十六年戊午(1618, 光海君 10)月日 比丘 彦浩

跋: 歲在戊申(1428, 世宗 10)丁母喪 … 壬子(1432, 世宗 14)正月受咸吉道都節制之命
… 惠信寺繡之梓壬戌(1442, 世宗 24)春告功訖請跋其尾文辭荒拙未敢如請… 太宗大
王證佛智先亡父母生淨刹者

이 묘법연화경은 7권 말의 발문에 의하면 임효인, 조보, 성달생 3인이 필사하여 판각한 7권 2책의 목판본이다. 권삼 말(卷三末)에 ‘印經施主 高億萬 兩主, 比丘 雙訥 夷鷲, 高世元 靈鷲, 崔馬伊同 兩主 萬曆四十六年戊午(1618)月日 比丘 彦浩’ 라는 목서지기(墨書識記)가 있어 광해군(光海君) 10년(1618)에 인출되어 금정사 대웅전 본존불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에 납입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4. 묘법연화경 권4~7(妙法蓮華經 卷4~7)

- 수 량 : 4권 1책(권4~7)
- 규 격 : 28.0×17.0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木版本)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1677년 (숙종 3) 경 인출
- 서지사항

妙法蓮華經. 卷4-7. 鳩摩羅什(姚秦) 譯 ; 戒環(宋) 解. 木版本. [肅宗 3(1677)年頃印出].

4卷1冊 : 四周雙邊, 半郭 121.0×13.5cm, 無界, 10行20字, 無魚尾 ; 28.0×17.0cm. 楮紙. 線裝

卷末跋: 仁順府尹成公爲… 永樂壬寅(세종 4, 1422)二月日 正憲大夫 成均大司成
密山卞季良(1369~1430)跋

跋:.....蒼龍壬寅(세종4, 1422)三月日涵虛堂守伊(1376~1433)無準敬跋

권말목서지기: 我釋師子 … 正統辛酉(세종23, 1441)十一月日道人定菴跋

卷末發願文: 蓮經七部 … 三寶俯賜證明 道人 定菴

書寫/ 摠制 成達生/ 判事 成概

施主/ 慶華宅主李氏 金虛 / 樂安郡夫人金氏妙華/ 光州郡夫人鄭氏 尹氏 同良/ 智觀 妙祥 賢蟾 妙演

이 묘법연화경 권4~7은 성달생과 아우인 성개가 등재본을 필사하여 판각한 목판본이다. 권말에 발문이 있어서 간행경위를 알 수 있으나 권1~3이 결본이고 후쇄본으로 금정사 대응전 본존불 목조아미타불좌상이 조성된 숙종 3년(1677) 경에 인출하여 복장에 납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5.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

- 수 량 : 2권 2책(권상·하)
- 규 격 : 36.0×23.8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木版本)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1537년(중종 32) 각, 1613년(광해군 5) 경 인출
- 서지사항

金剛般若波羅密經. 上·下 / 雙林傳大士 贊 ; 六曹大鑿禪師 口訣 ; 圭峯密禪師 纂要 ; 治父川禪師 頌 ; 豫章鏡禪師 提綱 ; 涵虛堂得通 說誼. 木版本. [全羅道 錦山郡] : [神陰山 身安寺], [中宗 32(1537)刻, 光海君 5(1613)年頃 印出].

2卷2冊 : 四周單邊, 半郭 26.5×18.3cm, 有界, 9行14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36.0×23.8cm. 楮紙. 線裝

表題: 金剛經

版心題: 金

序: 金剛般若波羅密經五家解序說 … 永樂乙未(1415, 太宗 15)六月日涵虛堂衲守伊(1376~1433)無準謹序

序: 曹溪六祖禪師序 …

序: 豫章沙門宗鏡提頌綱要序

卷上末刊記: 時嘉靖十六年丁酉(1537, 中宗 32)午月日全羅道錦山郡地/ 神陰山身安寺此經及眞覺詩眞實珠集/ 并開板/

卷下末墨書識記: 大施主 金大仁 兩主/ 施主 劉莫同 兩主/ 施主 崔石孫 靈駕/ 施主 金彥必 兩主/ 施主 崔云水 兩主/ 施主 玆介 兩主/ 施主 鄭京 兩主/ 化主 印曇 比丘/ 萬曆四十一年癸丑(1613, 光海君 5)季春日

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은 전라도 금산지(錦山地) 신음산(神陰山) 신안사(身安寺)에서 진실주집(眞實珠集)과 1537년(중종 32)에 간행된 목판본이며 상하 2권 2책이다. 권하 말에는 시주자 명단과 함께 ‘萬曆四十一年癸丑(1613)季春日’의 묵서지기가 있는데 광해군 5년(1613)에 인경(印經)되어 금정사 대응전 본존

불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에 납입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6. 육경합부(六經合部)

- 수 량 : 1책
- 규 격 : 36.0×23.8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木版本)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1677년 (숙종 3) 경 인출
- 서지사항

六經合部

木版本.[肅宗 3(1677)年頃 印出 推定].

不分卷1冊 : 插圖, 四周單邊, 半郭 19.2×13.0cm, 無界, 8行16字, 無魚尾 ;
24.0×16.6cm. 楮紙. 線裝

육경합부에 수록되는 경의 종류와 그 차례는 합각자 또는 합철자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일정하지 않고 출입이 있다. 이 육경합부에는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蜜經), 대방광불화엄경입불사의해탈경계보현행원품(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대불정수능엄신주(大佛頂首楞嚴神呪)의 순으로 3경이 합철되어 있고 전후표지(前後表紙) 및 권말본문(卷末本文)이 수장(數張) 결락(缺落)되었다.

7. 육경합부(六經合部)

- 수 량 : 1책
- 규 격 : 25.4×15.7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木版本)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1677년 (숙종 3) 경 인출

刊記 : 全羅道高山地花岩寺開板(金剛般若波羅密經 권말제)

- 서지사항

六經合部

木版本. [肅宗 3(1677)年頃 印出].

不分卷1冊 : 插圖, 四周單邊, 半郭 19.5×12.5cm, 無界, 8行17字, 無魚尾 ;

25.4×15.7cm. 楮紙. 線裝

육경합부에는 육경 중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蜜經), 보현행원품(普賢行願品), 대불정수능엄신주(大佛頂首楞嚴神呪)의 순으로 3경이 합철되어 있고 금강반야바라밀경의 말미에는 화암사에서 개판된 간기와 시주질 등이 새겨져 있다. 후쇄본이며, 전후표지(前後表紙) 및 권말본문(卷末本文) 수장(數張) 결락(缺落)되어 있고 상태도 불량하다.

8. 금강계만다라(金剛界曼荼羅)

- 수 량 : 223매
- 규 격 : 28.0×51.0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木版本)
- 형 식 : 낱장
- 조성연대 : 1677년 (숙종 3) 경 인출
- 刊記 : 順治八年辛卯(1651, 孝宗 2)八月日慶尙道聞慶地烏井寺重修開板藏
刻 信暉懷信靈默靈照

이 금강계만다라를 둘러싼 광곽은 사주쌍변이고 크기는 24.2×27.0cm이다. 좌우의 기록을 포함한 광곽까지의 폭은 36.4cm이다. 만다라를 인쇄한 종이는 저지(楮紙)로서 크기는 대체로 28×51cm 전후이며, 동일한 만다라가 모두 223매인데 목판에 새겨 주색(朱色)으로 인출되었다.

만다라의 오른쪽에는 사주단변의 소광곽 안에 ‘刻信暉懷信靈默靈照’라고 인쇄되어 있다. 맨 앞에 ‘각(刻)’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각수(刻手)를 나타낸 것으로 신휘(信暉), 회신(懷信), 영묵(靈默), 영조(靈照)라는 4인의 각수가 판각한 것으로 보인다.

만다라의 왼쪽에는 사주쌍변의 소광곽 안에 “順治八年辛卯八月日慶尙道聞慶地烏井寺重修開板”이라는 간기가 있다. 그리고 본래 이 간기의 마지막에 연속하여 몇 자 정도가 더 있었으나 인쇄가 희미하여 무슨 글자인지는 불분명하다. 이 간기를 통해 효종 2년(1651) 8월에 경상도 문경의 오정사(烏井寺)에서 중수 판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좌우의 광곽에 일부 끊어진 곳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후쇄본이며 금정사 대웅전 본존불 목조아미타불좌상이 조성된 숙종 3년(1677) 경에 대량 인출하여 복장에 납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9. 일체여래전신사리보협진언사도합륜인(一切如來全身舍利寶篋眞言四道合輪印)

- 수 량 : 112매
- 규 격 : 33.0×51.0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木版本)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1677년 (숙종 3) 경 인출

만다라를 둘러싼 광곽은 사주쌍변이고 크기는 26.3× 27.4cm이다. 만다라를 인쇄한 종이는 저지(楮紙)로서 크기는 대체로 33×51cm 전후이며, 동일한 만다라가 모두 112매이다. 목판에 새겨 주색(朱色)으로 인출되었다.

구조는 사주쌍변의 광곽 안에 상단에 가로선으로 구분하여 한 줄로 ‘一切如來全身舍利寶篋眞言四道合輪印’이라는 제목을 적고, 만다라를 각각 2줄씩 4개를 배치하였다. 하단의 네 모서리에는 사방을 범자로 표시하였다. 각각의 만다라에 진언(眞言)을 적은 방식은 동심원이 아니라 중앙에 1자를 적고 그 둘레에 안쪽에서부터 바깥으로 7점을 풀어 나오면서 기록하고 있는 형태이다. 간행과 관련된 아무런 기록도 없어 언제, 어디에서 판각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금정사 대웅전 본존불 목조아미타불좌상이 조성된 숙종 3년(1677) 경에 대량 인출하여 복장에 납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10. 제진언편(諸眞言片)

- 수 량 : 117매
- 규 격 : 19.0×53.0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木版本)
- 형 식 : 낱장
- 조성연대 : 1677년 (숙종 3) 경 인출

이 다라니 일편(一片)에는 5종의 다라니가 수록되어 있는데, 순서대로 보면 맨 처음에 명칭이 파악되지 않은 다라니의 뒷부분이 수록되어 있고, 이어서 대불정수능엄신주(大佛頂首楞嚴神呪), 보협진언(寶篋眞言), 육자대명왕진언(六字大明王眞言) 및 정법계진언(淨法界眞言)이 각각 한자로 된 명칭과 더불어 범어로 된 내용이 있다. 23행 11자로 기록되어 있으며 계선이 있다. 광곽은 사주단변이고 크기는 17.2×46.8cm이다. 다라니를 인쇄한 종이는 저지(楮紙)로서 크기는 대체로 19×53cm 전후이며, 동일한 다라니가 모두 117매인데 목판에 새겨 주색(朱色)으로 인출(印出)된 것이다. 금정사 대웅전 본존불 목조아미타불좌상이 조성된 숙종 3년(1677)

경에 대량 인출하여 복장에 납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11. 다라니(陀羅尼)

- 수 량 : 96매
- 규 격 : 20.0×51.0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木版本)
- 형 식 : 낱장
- 조성연대 : 1677년 (숙종 3) 경 인출

이 다라니 일편(一片)에는 1종의 다라니가 수록되어 있는데, 전체가 아니라 중간 일부분만 수록되어 있다. 22행 11자로 기록되어 계선이 있고 광곽은 사주단변이며 크기는 17.2×44.4cm이다. 다라니를 인쇄한 종이는 저지(楮紙)로서 크기는 대체로 20×51cm 전후이며, 동일한 다라니가 모두 96매인데 목판에 새겨 주색인출(朱色印出)한 것이다. 간행과 관련된 아무런 기록이 없어 언제, 어디에서 판각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금정사 대웅전 본존불 목조아미타불좌상이 조성된 숙종 3년(1677) 경에 대량 인출하여 복장에 납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4. 청주 용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淸州 龍岩寺 石造毘盧遮那佛座像)

가. 검토사항

“청주 용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청주 용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1.02.07)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1.07.09)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3호(1976.12.21. 지정)
- 명 칭 : 청주 용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淸州 龍岩寺 石造毘盧遮那佛座像)
- 소유자(관리자) : 청주대학교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298 청주대학교박물관
- 수 량 : 1구
- 규 격 : 불상 높이 115cm, 어깨 폭 64cm, 무릎 폭 90cm,
무릎 높이 17cm, 대좌 높이 78cm
- 재 질 : 석조
- 형 식 : 독존형식
- 제작연대 : 통일신라 말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부족함)

원래 근처의 용암사에서 옮겨 왔다는 이 청주대학교박물관의 석조비로자나불 좌상은 상과 대좌를 다 갖추었고 상호의 특징이나 법의의 처리방식 그리고 대좌의 구조나 중대석에 부조된 향로나 공양자상의 표현이 통일신라 말기 9세기 경의 상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마모가 많으며 특히 얼굴에 코, 양쪽 볼, 귀 등을 시멘트로 덧붙여서 원래 상의 상호보다 살이 더 붙게 변형되었다. 국가보물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하여 현재의 충북유형문화재 제 23호를 그대로 유지하기를 권고한다.

○ (지정 가치 부족함)

통일신라 후기의 전형적인 석조비로자나불로, 광배를 제외하고는 원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머리의 중앙계주를 비롯한 얼굴 곳곳이 잘못 복원되어 왜곡이 심하며, 조형적으로는 유려하지만 탄력성을 잃은 옷주름 표현 등에서 쇠퇴기의 양식적 특징을 나타낸다. 더욱이 지권인(智拳印)을 맺은 양 손도 지나치게 작고 상체에 밀착된 평면적인 형태여서 9세기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석조비로자나불의 일반적인 형식에 비해 작품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편이다. 광배(光背)도 결실된 상태이다.

대좌는 지대석을 제외하고는 완비된 형식이나 연꽃의 볼륨이 약화되어 평면적이며, 중대석 아래에 끼워진 별석의 괴임석은 통일신라 말기와 고려 초기에 걸쳐 석조대좌와 석탑에 흔히 나타나는 일반적인 형식의 하나이다. 이 석불과 비교되는 청원 동화사 석조비로자나불과 비교할 때 제작시기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상의 크기가 현저하게 위축(동화사 석불의 전체 높이는 2.67m)되었고 생동감도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불상의 조형성과 대좌의 형식이 통일신라 9세기의 일반적인 경향을 따르고 있으나 작품의 완성도가 낮고, 부분적으로 결실되고 왜곡 복원된 부분이 많아 이 불상만이 지니고 있는 미술사적 특수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석불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준거가 되는 여러 요소(희소성, 조형미, 기년명(紀年銘), 특수한 도상(圖像)과 형식 등) 가운데 어느 한 요소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로의 지정가치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부족함)

이 비로자나불상은 지권인의 수인, 주름 표현, 비례, 장식성과 장엄이 강조된

대좌 등에서 통일신라 말에 제작된 비로자나불상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통일신라 말 충청지역의 비로자나불 도상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하지만 불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얼굴과 머리 부분이 후대에 크게 보수되어 종교적·예술적 감성을 크게 상실하였고, 불신(佛身) 표면의 마멸도 두드러져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의 가치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 부결 - 가치 미흡함.

조사보고서

□

○ 내용 및 특징

이 석조상은 통일신라 말기 9세기의 비로자나불상으로 상의 높이 115cm, 두 무릎의 너비 90cm, 그리고 중대석과 하대석을 갖춘 대좌의 높이는 78cm로 비교적 큰 상에 속한다. 그러나 통일신라 말기에 나타나는 중대 괴임석이 있으나 하대석 밑에 오는 기단석이 없어졌다. 이 역시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로 넘어가는 전단계의 요소라고 생각된다. 지권인을 한 비로자나불상으로 통견의 범의를 입었고 통일신라시대 하대에 유행한 불상양식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좌우의 손의 위치가 바뀌었다.

가장 유사한 예가 국립박물관에 있는 석조비로자나불상인데, 이 청주의 상에는 광배가 결실되어 있어 광배 문양을 통한 시대적 특징은 확인하기가 어렵다. 약간 통통한 얼굴은 코, 뺨, 귀에 시멘트로 덧붙여 보수하였기 때문이며 머리에는 시멘트로 계주를 추가하여 원래의 통일신라기의 불상의 얼굴에서 약간 변형되었다. 여러군데의 보수와 마멸된 상태 그리고 광배가 없는 점 등에서 완성감이 모자라며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

○ 현 상

광배가 결실되었으나 대좌를 비롯한 전체 보존상태는 양호함. 단지 얼굴은 중앙계주와 나발, 코와 양 뺨 등이 시멘트로 복원되어 왜곡이 심한 편임. 신체 곳곳에 선태가 끼어 있고 뒷면 상단 부분은 가로로 균열됨.

○ 내용 및 특징

광배를 제외하고는 불신과 삼단 대좌를 모두 갖추고 있는 전형적인 통일신라시대 여래형 비로자나불좌상이다.

얼굴은 전체적으로 인자한 상호이지만 중앙계주(中央髻珠)를 비롯한 머리의 나발(螺髮) 부분과 귀의 일부분, 콧날과 양뺨 등이 모두 시멘트로 복원되어 원래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백호(白毫)도 원래 것이 아니며, 목에는 얇은 삼도(三道)가 새겨져 있다.

착의(着衣)는 목깃 중앙이 한번 접혀진 통견의(通肩衣)로, 옷주름은 선조(線彫)가 없는 도들새김으로 흐름이 자유롭고 유연한 선으로 표현했으나 긴장감이 줄어들어 위축된 느낌을 준다. 오른쪽의 도식적인 표현과는 달리, 왼쪽 손목을 감싸 내린 옷자락은 아래쪽에서 한 번 접혀진 채 무릎 아래로 드리워 변화를 주었다. 오른손 검지를 곧추 세워 지권인을 맺은 수인은 지나치게 작아 신체구조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며, 특히 측면관에서는 지권인 특유의 신체구조 때문인지 두 손이 몸에 맞붙어 평면적이고 움츠린 듯한 느낌이 강하다.

가부좌한 하체는 양 발바닥이 노출되었는데 양 발이 좌우 직선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도식적이며, 양 무릎 중앙에는 부채살 모양의 옷깃이 드리워져 있다.

뒷면에는 왼쪽 어깨 뒤로 넘긴 옷자락이 여러 갈래의 긴 골 주름으로 드리워지다가 그 끝자락이 자연스럽게 좌측면의 옷주름으로 연결되어 사실적인 느낌을 준다. 등 윗부분에 세로로 길게 균열된 부분이 있어 보존대책이 시급하다.

오랜 기간 야외에 있었기 때문인지 신체 곳곳에 선태가 많으며, 특히 왼쪽 팔꿈치와 무릎의 큼직한 선태는 보존관리를 위해 제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원래의 상호가 왜곡된 불상에 비해 대좌는 통일신라시대 삼단대좌의 전형을 간직하고 있다. 현재 지대석(地臺石)과 팔각 하대석은 결실되었으며, 하대(下臺) 복련석(覆蓮石)과 괴임석, 중대석(中臺石), 상대석(上臺石) 모두 각 1매석으로 구성되었다. 하대 복련석은 잎이 넓고 판심(瓣心) 좌우에 복엽(複葉)을 조각하고 꽃잎 사이 사이에는 날카로운 간엽(間葉)을 배치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볼륨이 약하고 활력을 잃은 모습이다. 복련석의 윗면에는 호형(弧形)과 각형(角形)의 낮은 2단 괴임대를 몰딩하고 윗면의 팔각 중대석을 받도록 하였는데, 그 사이에 별석으로 된 팔각 괴임석을 끼워 중대석을 받도록 하였다. 이처럼 석불이나 석탑에서 측면이 반전된 형태의 팔각 괴임석을 끼워 넣어 중대석(中臺石)이나 탑신석(塔身石)을 받도록 한

형식은 통일신라 9세기부터 나타나 고려 초기에 이르러 크게 유행한다. 괴임석의 윗면에도 2단의 괴임대를 몰딩하여 상대석을 받도록 하였다.

중대석의 각 면에는 양 우주(隅柱)를 각출(刻出)하였는데, 면석에는 별도의 감실형(龕室形) 공간 표현 없이 정면의 향로를 중심으로 각각 두(頭)·신광(身光)과 연화좌(蓮華座)를 갖춘 공양(供養) 인물좌상(人物坐像)을 새겨 넣었다. 상대석은 원형의 양련대(仰蓮臺)로, 꽃잎의 폭이 매우 넓고 큼직한 8잎 연판(蓮瓣)을 돌리고 그 사이에 또다른 소형의 양련(仰蓮)을 간엽(間葉)처럼 배치하였다. 각 연판 내부에는 산머루 형태의 잔열매 무늬와 꽃무늬로 구성된 화려한 장식 무늬를 새겨 넣었는데, 이처럼 장식적인 연판(蓮瓣) 의장(意匠) 역시 통일신라 9세기부터 등장하는 특징적인 연꽃무늬 형식의 하나이다.

균형을 잃고 다소 위축된 신체, 긴장감을 찾을 수 없는 옷주름 표현, 별석의 괴임석을 끼워넣은 삼단대좌의 구성, 장식성이 강조된 특징적인 양련(仰蓮) 의장(意匠) 등에서 조성시기는 통일신라시대 9세기대로 추정된다.



○ 내용 및 특징

불상은 최근까지 청주대학교 내 용암사(龍岩寺) 경내에 봉안되고 있었으나 2009년 4월 사찰이 폐사(廢寺)되어 용암사 부지와 불상을 청주대학교에서 매입하여 현재는 청주대 박물관 1층으로 옮겨 전시 중이다. 석조불상은 높은 팔각연좌대좌 위에 결가부좌한 지권인(智拳印)의 비로자나불상으로서 지대석은 결실하였다. 나발로 표현된 머리의 앞부분과 얼굴, 그리고 귓볼부분이 손상되어 1980년대 시멘트로 보수하여 원래의 모습은 알 수 없다.

착의는 못깃 주름이 중앙에서 한번 교차하여 스카프 형태를 이루고 있는 통견착의법이다. 수인은 가슴 중앙에서 손등을 보인 채 치켜세운 오른손 검지를 왼손으로 움켜잡은 이른바 좌권인(左拳印)을 결하고 있다. 정통의 우권인(右拳印) 비로자나불상에 비해 다소 늦은 시기부터 등장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불상의 제작시기 추정에 도움이 된다. 지권인(智拳印)을 결한 팔에는 굽힌 팔꿈치를 중심으로 용기선 주름이 모여들었고, 팔꿈치에는 9세기 이후 불상에서 흔히 보이는 물방울 형태의 주름이 잡혀있다. 하박(下膊)에도 용기선의 옷 주름이 자연스레 흘러내렸으나 긴장감이 현저히 줄어든 느낌이다. 다리에는 발목을 덮어 내린 주름이 좌우로 팔자(八字)형태로 펼쳐졌고, 무릎 앞으로는 형식적인 부채꼴 주름이 자리하였으나 과손되었다. 왼쪽 어깨 뒤로 넘겨진 대의자락은 S자형으로 구불거리며 늘어져 왼쪽 측면으로 둥글게 돌아가는 형식이며, 등에는 같은 간격으로 빗금치듯

옷 주름을 세밀하게 표현하였다. 이러한 배면의 주름 처리는 창원 불곡사 석조비로나불좌상 등 9세기 후반의 불상들과 시대적 특징을 함께 하고 있다.

어깨는 넓고 당당하며 허리는 짧은 편이다. 무릎은 넓고 낮으나 오행감은 그다지 깊지 않아 불안해 보이거나, 정면에서의 형태미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건장한 느낌을 준다.

대좌는 팔각의 하대·중대·상대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대석과 하대 하석은 남아 있지 않다. 하대 상석에는 끝을 살짝 들어 올린 얇은 평면적인 16판의 단판복엽(單瓣複葉)의 복련(覆蓮)으로 장엄하였고, 연꽃 사이에는 간엽(間葉)을 나타내었다. 그 위에는 2단의 굽 받침이 있는 큼직한 받침석을 두었다. 이러한 접시모양의 받침석은 9세기 후반 경의 예천 청룡사 석조여래좌상(보물 제242호)이나, 철원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상(758년),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863년경) 등 9세기 중엽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팔각 중대석의 정면에는 향로를 얹게 새겼고, 나머지 면에는 무릎을 꿇거나 앉아 꽃과 향을 공양하는 7구의 공양자상을 얹게 새겼다. 상대 양련(仰蓮)은 단판의 연꽃을 이중(二重)으로 중첩하였는데, 연꽃잎 내에는 포도송이처럼 여러 개의 꽃잎으로 이루어진 화문(花文)을 도드라지게 표현하여 다분히 장식적이다.

스카프 형태의 못깃 주름이 좌우대칭을 이루는 통견 착의형식, 좌권인의 수인, 그리고 중대 받침석을 별도로 조성하여 부각시킨 점이나 표면 장엄과 장식이 강조된 대좌의 형태 등에서 이 불상은 9세기 중엽 이후에 조성된 불상들과 양식적으로 상통하므로, 이 불상도 9세기 후반 이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5.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

가. 검토사항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충청북도지사로부터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1.02.07)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1.08.18)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93호(2008.04.11 지정)
- 명 칭 :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
- 소유자(관리자) : 청주대학교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586 청주대학교박물관
- 수 량 : 2권 1책
- 규 격 : 29.5×16.0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木版本)
- 형 식 : 선장본(線裝本)
- 제작연대 : 1378년(우왕 4)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1책)은 고려시대(1378) 간본으로는 전본이 희소하며, 고려 말의 불교학연구와 서지학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충청북도 유형문화재인 청주대학교박물관 소장본은 보물 제720호(1981.7.15)와 동일 판본으로 일부 마멸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므로 국가문화재로 승격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금강반야경소론찬요』와는 달리 이 책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 주된 이유는 간본이 적었던 탓이다. 그래서 현재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은 희귀본으로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공개되어 국내에 전하는 간본으로는 보물 제720호(1981.07.15.)인 동국대학교 도서관 소장본과 환암의 발문 한 면이 낙장이 된 원광대학교 소장본이 전북 유형문화재 제164호로 지정되어 있을 뿐이다. 이 책은 고려 말기의 불교학, 불교용어는 물론 서지학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은 송나라 혜정(慧定)이 찬(撰)한 『금강반야경(金剛般若經)』의 주석서로서 1378년(고려 우왕 4) 충주 청룡사(靑龍寺)에서 상·하 2권 1책으로 간행된 목판본이다. 후진(後晋)의 구마라습이 번역한 『금강반야경』에 당나라 종필이 해설하여 찬술한 『금강반야경소론찬요(金剛般若經疏論纂要)』에 송나라 혜정이 그 뜻을 좀더 알기 쉽게 설명한 책이다. 권말에는 발문이 있어 간행경위를 알 수 있고, 간행에 참여한 인명이 수록되어 있어서 불교학 연구 및 서지학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이 판본은 보물 제720호(동국대학교도서관)와 같은 고려시대 판각본에 해당되며 전본이 드문 희귀본이므로 권수 앞부분에 약간의 훼손이 있으나 결장이 없고 인쇄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보물로 지정 예고함.

조사보고서

□

○ 지정현황 : 보물 제720호(1981.7.15)

전라북도유형문화재 제164호(1998.11.27)

충청북도유형문화재 제293호(2008.4.11)

○ 현 상

본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은 상하권 52장 가운데 앞의 3장에 일부 마멸(磨滅) 훼손된 부분이 보수(補修)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상태가 양호하며 서지(書誌) 사항은 다음과 같다.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 宗密(唐) 撰 ; 慧定(唐) 助顯. - 木版本. - 忠州 : 靑龍寺, 禡王 4(1378).

2卷1冊 : 上下單邊, 1板匡郭 21.2×27.4cm, 無界, 10~13行15~17字 內外 註雙行, 無魚尾 ; 29.5×16.0cm.

楮紙. 線裝.

○ 내용 및 특징

이 책은 송(宋)나라 혜정(惠定)이 찬한 『금강경(金剛經)』의 주석서이다. 후진(後晉)의 구마라습(鳩摩羅什 : 344~413)이 번역한 『금강반야경(金剛般若經)』(全1권)에 당(唐)의 화엄종 5조(祖)인 종밀(宗密 : 780~841)이 찬술한 『소론찬요(疏論纂要)』(全2권)에 대하여 보다 부연 정리한 것이다. 『금강반야경(金剛般若經)』은 줄여서 『금강경』이라고도 부르는데, 부처가 금강석과 같은 지혜로 종자(種子)와 현행(現行)의 두 가지 의심을 끊어야만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경을 설법한 것이라 한다. 이 경은 우리나라에서 반야부 경전 가운데 『반야심경(般若心經)』 다음으로 널리 읽혀진 책이다.

권말에는 선광(宣光) 8년 무오(戊午, 1378) 2월 상순에 환암비구(幻庵比丘) 무작

(無作)이 쓴 발문과 간행참여 명록이 수록되어 있다. 이 발문에 의하면 병진년(1376) 안거(安居)가 끝나갈 때에 환암(幻庵)의 설법을 듣고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하는 이가 있어서 이 책을 설법하였는데, 청중 가운데 신사(信士) 고식기(高息機)가 감동하여 이 책의 간행광포를 희망하여 간비(刊費)를 보시하였으므로 제자 만회(万恢) 등에게 맡겨 판각하였고, 책판은 충주의 청룡사에 장판(藏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간행경위를 보여주는 환암(幻庵)의 발문과 간기를 전록(全錄)하면 다음과 같다.

<跋文>

夫金剛般若者 越苦海之舟船 入覺城之蹊徑也 五位大士 賴此而因圓 十方諸佛 由斯而果滿 自六代翻譯之後 箋注解釋者 固不可勝數也 然斷疑遣執 壞相泯心 令諸末學 披迷雲而覩慧日者 無如此錄 山僧越丙辰安居垂末 受人請益 開演是法 有信士高君息機 聞法歡喜 願欲鏤板 以廣其傳 捐家資 囑門人万恢尙偉等 令辦是事 今彫刻已畢 携以示予 隨喜贊揚 書其大略云 時宣光八年戊午二月上旬 幻菴比丘無作 書于宴晦菴

<刊記>

募緣 万恢 尙偉 志中 天密

辦善

奉善大夫 典醫副正 高息機

海州郡夫人 崔氏 省緣

同願

比丘尼 戒完

承奉郎漢陽判官 趙 云介○○

板鎮忠州靑龍寺



○ 현 상

앞의 6장은 보수를 위해 배접하였으나 나머지는 온전하며, 표지는 개장되었음.

○ 내용 및 특징

당나라의 종밀(宗密)이 찬술한 『금강반야경소론찬요(金剛般若經疏論纂要)』를 송나라의 혜정(慧定)이 알기 쉽게 2권으로 풀이한 책이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이다. 이 책이 고려에 전래되어 처음 개관된 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현전하는 고려 간본으로는 이 판본이 처음이다.

권미에는 “순희기해년(淳熙己亥年, 1179)”에 쓴 왕거(王璩)의 발문, “지원오년(至元五年, 1339)”에 쓴 한성(韓性)과 사조비구(嗣祖比丘)의 발문 등 원래의 발문이 있다. 이어 “宣光八年戊午(1378)二月上旬幻菴比丘無作書于宴晦庵”과 같이 고려 환암(幻菴, 1320~1392)이 연회암에서 쓴 발문이 차례로 있다. 다음 장에는 모연자 등의 명단에 이어 “판진충주청룡사(板鎭忠州靑龍寺)”라고 되어 있다. 이 발문 등을 미루어 보면, 이 책은 원나라 지원 5년(1339)에 간행한 책을 저본으로 삼아 1378년에 충주 청룡사의 서쪽에 있었던 연회암에서 새긴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환암은 발문에서 “고식기(高息機)가 이 책의 간행을 계획하고 시주자의 도움을 받아 문인인 만회(萬恢)와 상위(尙偉)를 시켜 완성”한 것이라고 하였다. 환암은 능엄경에 정통했다는 고려 말기의 명승이다. 혼수(混修)는 범호이고 무작(無作)은 자이다. 간행 당시는 권자본 형식으로 간행하였으나 열람의 편의를 위해 선장으로 장책된 듯하다. 청주대학교 소장의 이 책도 다른 국내 전본과 마찬가지로 선장형식이다. 먹색의 선명도 등으로 볼 때 이 책은 개관 직후에 간행된 초쇄본으로 보인다.

○ 문헌자료

박문열 역, 『역주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 청주, 청주대학교박물관, 2008.



○ 현 상

표지는 개장되었고 상하권 52장 중 앞부분 3장이 손상되어 보수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상태는 양호함.

- 서지사항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

宗密(唐) 撰, 慧定(宋) 助顯.

木版本. 忠州, 靑龍寺, 禰王 4(1378).

2卷1冊 : 上下單邊, 1板匡郭 21.2×27.4cm, 無界, 10~13行 15~17字 內外 註雙行, 無魚尾; 29.5×16.0cm. 楮紙. 線裝.

版首題: 助顯

序: 淳熙戊戌(1178)季春既望戢山西方丈(慧定)序

跋: 淳熙己亥(1179)中秋皇弟小傳恩平郡王璩謹跋

跋: 至元五(1339)年歲次己卯孟秋上澣安陽韓性書

跋: 至元五(1339)年龍居己卯.....嗣祖比丘大同焚香謹題

跋: 安陽韓性書

跋: 夫金剛般若者 越苦海之舟船 入覺城之蹊徑也 五位大士 賴此而因圓 十方 諸佛 由斯而果滿 自六代翻譯之後 箋注解釋者 固不可勝數也 然斷疑遣執 壞相泯心 令諸末學 披迷雲而覩慧日者 無如此錄 山僧越丙辰安居垂末 受人請益 開演是法 有信士高君息機 聞法歡喜 願欲鏤板 以廣其傳 捐家資 囑門人万恢尙偉等 令辦是事 今彫刻已畢 携以示予 隨喜贊揚 書其大略云 時宣光八年戊午(1378)二月上旬 幻菴比丘無作書于宴晦菴

募緣 万恢 尙偉 志中 天密

辦善/ 奉善大夫 典醫副正 高息機/ 海州郡夫人 崔氏 省緣

同願/ 比丘尼 戒完/承奉郎 漢陽判官 趙 云介

板鎮 忠州青龍寺

○ 내용 및 특징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은 송나라 혜정(慧定)이 찬(撰)한 『금강반야경(金剛般若經)』의 주석서이다. 후진(後晋)의 구마라습(鳩摩羅什)이 번역한 『금강반야경(金剛般若經)』에 당나라 종밀(宗密)이 해설하여 찬술한 『금강반야경소론찬요(金剛般若經疏論纂要)』에 대하여 송나라 혜정(慧定)이 다시 그 뜻을 좀 더 알기 쉽게 주해한 것이다. 『금강반야경(金剛般若經)』은 금강석과 같은 지혜로 모든 고통의 고리를 끊어야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반야부 계통의 경전 가운데 『반야심경(般若心經)』 다음으로 읽혀진 경전이다.

이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은 1378년(고려 우왕 4) 충주의 청룡사(靑龍寺)에서 상·하 2권 1책으로 간행된 목판본이다. 전체 52장으로 본래는 권자본 형식으로 판각된 것을 선장으로 장책(粧冊)한 것이다. 형태적인 특징을 보면 광곽(匡郭)은 상하단변이며 반곽의 크기는 21.2×27.4cm이며, 이를 2절로 절첩하였다. 계선(界線)은 없고 행자수(行字數)의 경우 대자(大字)는 5행 15자, 중자(中字)는 6~7행 17자, 소자(小字)는 10행 20자이다. 전장(全張)의 처음 중간 부분에 권차를 나타내는 상(上) 및 하(下) 아래에 장차(張次)가 표시되어 있다. 구성체재는 권상의 첫머리에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并序/ 山陰 苾芻 慧定 述’이란 제하(題下)에 1178년에

쓴 서(序)가 있고 이어 경의(經義), 소의(疏義), 예현발신해(例顯發信解), 예현명행증(例顯明行證)의 항목이 끝나고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蜜經)의 권수(卷首)가 나온다. 권말에는 변자(辨字), 출잡(黜雜), 응험(應驗) 등 추가 항목이 있고 하권 말에는 은평군(恩平郡) 왕거(王據)를 비롯하여 안양(安陽) 한성(韓性)의 후서(後序), 사조비구 대동(嗣祖比丘大同), 안양(安陽) 한성(韓性), 환암비구 무작(幻菴比丘無作) 등의 발문에 이어 간행에 관련한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宣光八年戊午(1378)二月上旬 환암비구 무작(幻菴比丘無作)이 연회암(宴晦菴)에서 쓴 발문에 의하면 이 책은 신사(信士) 고식기(高息機)가 사재(私財)를 내고 문인(門人) 만회(万恢)와 상위(尙偉) 등에게 판각 일을 맡게 하여 충주의 청룡사에서 간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간행(刊行)기록과 간행에 참여한 명단이 수록되어 간행경위를 알 수 있어서 불서 판본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이와 동일본이 보물 제720호(동국대 도서관 소장, 1981.7.15 지정)와 전북 유형문화재 제164호(원광대 소장, 1998.11.27 지정)로 지정되어 있다.

○ 문헌자료

朴文烈, 譯註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 청주대학교 박물관, 2008.

○ 기 타

청주대학교 박물관에서 구입하여 소장하고 있음.

기 지정된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 현황

종별	번호	명칭	소유자	수량	지정일	제작연대
보물	720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	동국대학교	2권1책	81/07/15	1378년(우왕 4)

6. 묘법연화경 권2·4·5·6 (妙法蓮華經 卷二·四·五·六)

가. 검토사항

“묘법연화경 권2·4·5·6”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묘법연화경 권2·4·5·6”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1.02.07)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1.08.18)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46-2호(2004.10.24 지정)
- 명 칭 : 묘법연화경 권2·4·5·6(妙法蓮華經 卷二·四·五·六)
- 소유자(관리자) : 청주대학교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586 청주대학교박물관
- 수 량 : 4권 4첩
- 규 격 : 30.2×9.4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木版本)
- 형 식 : 절첩장(折帖裝)
- 제작연대 : 1288년(충렬왕 14)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부족함)

청주대학교박물관 소장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은 고려시대 후기에 판각된

판목에서 인출한 책으로 추정되고, 전본(傳本)도 희귀하다는 점에서 서지학연구에 일정부분의 가치가 인정된다. 다만 간행시기가 불분명하고 각 권마다 일부만 잔존하는 낙질(落帙)의 낙장본(落張本)이라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지방유형문화재의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 (지정 가치 부족함)

청주대학교박물관 소장의 소자본 『묘법연화경』은 결권에다 결락된 장이 많지만 아직 국내에서 공개되지 않은 권이 있는 등 나름대로의 가치는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전 7권 중에서 3권이나 부족한데다 소장된 4권도 모든 권이 결락된 장이 많다. 그래서 한 권도 완전하지 못하다. 이러한 점을 보아 국가문화재급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강태영 소장의 보물 제918호는 권7의 한 권이지만 완전하다.

○ (지정 가치 부족함)

고려시대 판본 가운데 소자본 『妙法蓮華經(妙法蓮華經)』이 여러 종 전래되고 있으나 청주대 박물관 소장본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은 과주를 본문에 연결하여 『법화경(法華經)』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기 드문 희귀본에 해당된다. 이 책은 고려 후기에 간행된 판본으로 추정되며 4권 4첩의 낙질본(落帙本)이다. 권2: 10판(2~11판), 권4: 5판(13~17판), 권5: 2판(8~9판), 권6: 4판(6~9판)으로 일부만이 잔존하기 때문에 국가문화재로서 지정하기에는 미흡하므로 현행대로 지방문화재로 유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 부결 - 가치 미흡함.

조사보고서

□

○ 현 상

본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은 작은 글자로 새긴 목판본으로 권2는 10판(제2

판~제11판), 권4는 5판(제13판~제17판), 권5는 2판(제8~9판), 권6은 4판(제6판~9판) 도합 4권 21판의 낙질 낙장본이다. 매판(每板)은 5절로 절첩되었고, 상하단변(上下單邊)에 행수(行數)는 판당 34~35행이며 글자 수는 18자 내외이다.

○ 내용 및 특징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은 대표적인 대승경전으로 흔히 『법화경(法華經)』이라 부른다. 천태종(天台宗)의 소의경전(所依經典)이다. 『화엄경(華嚴經)』과 함께 우리나라 불교사상의 확립에 크게 영향을 끼쳤으며, 가장 널리 유통된 불교경전 중 하나이다. 이 판본은 낙질인 관계로 간행 관련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출판시기와 출판처 및 간행 관여자 등이 모두 미상이다.



○ 현 상

전 7권 중의 4권이며, 4권도 결락된 장이 매우 많음.

○ 내용 및 특징

『묘법연화경』은 요진 시대인 406년 경에 처음으로 한역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부처의 40년 설법을 집약하는 정수를 담고 있는 경전이다. 『화엄경』과 함께 대승불교의 2대 경전의 하나로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한다. 내용은 가야성에서 도를 이룬 부처가 세상에 나온 본 뜻을 말한 것이다. 쿠마라지바 [(鳩摩羅什)]의 한역본을 저본으로 과문(科文)을 나누어 해석함으로써 이 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청주대학교박물관에 소장 중인 소자본 『묘법연화경』은 보물 제918호와 동일한 판본으로 판단되므로, 보물 제918호의 권미에 있는 “至元二十五年戊子(1288)七月日 僧齋色 刻板”과 같이 1288년(고려 충렬왕 14)에 판각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의 변란은 상하단변, 계선과 어미는 없으며 주석은 쌍행이다. 장당 행수는 34~35행, 글자 수는 1행당 18자 내외, 매 장당 5절하였다. 세로는 20cm 내외, 가로는 46cm 내외이다. 판심제는 “묘경(妙經)”이며, 각 권에는 도표가 있다. 또한 권2에는 “然”과 “昌”, 권4~5는 “洪”, 권6에는 “學”이라는 각수명이 새겨져 있다.

소장본은 전 7권 중에서 권2·4·5·6 등 4권으로 3권이 결본이다. 더욱이 이 4권도 결락된 장이 많다. 각 권별로 남아있는 장수를 보면, 권2는 제2~11장의 10장, 권4는 제13~17장의 5장, 권5는 제7~8장의 2장, 권6은 제6~9장의 4장 등이다.

□

○ 현 상

표지는 개장되었고, 권2, 권4, 권5, 권6 모두 낙장(落張)이 많음.

- 서지사항

『妙法蓮華經』 鳩摩羅什(唐) 譯. 木版本. [고려 후기]

4卷4帖 : 圖表, 上下單邊, 無界, 每版34~35行16字 內外 註雙行, 無魚尾
30.2×9.4cm.

楮紙. 折帖裝.

○내용 및 특징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은 범화사상을 담고 있는 천태종의 근본경전으로 흔히 『법화경(法華經)』으로 약칭하여 불리우고 있다. 일반적으로 『화엄경(華嚴經)』과 더불어 대표적 대승경전으로 알려져 있다.

이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은 구마라습(鳩摩羅什)의 번역본(翻譯本)에 의거하여 「법화경(法華經)」의 대의(大義)를 조리(條理)있게 이해(理解)할 수 있도록 과주(科註)를 새겼는데 본문과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과문(科文)을 조목(條目)으로 나누어 나열(羅列)하여 『법화경(法華經)』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귀중한 자료이다. 판식의 특징을 보면 소자(小字)로 새긴 목판본으로 매판마다 5절로 절첩되었고 광곽(匡郭)은 상하단변에 매판(每版)의 크기는 세로 19.7~20.1cm, 가로 45.6~46.6cm이며, 계선은 없고 행자수는 매판 35행 자수는 매행(每行) 18자 내외이다. 판 첫머리에는 판수제 ‘묘경(妙經)’과 권차가 있고 그 아래 장차를 일본(一卜), 이본(二卜) 등으로 표기하고 하단부에는 각수(刻手)를 새겼다.

청주대박물관 소장본은 4권 4첩의 일부로서 낙장본이다. 잔존(殘存) 판은 권2: 10판(2~11판), 권4: 5판(13~17판), 권5: 2판(8~9판), 권6: 4판(6~9판)으로 권수와 권말이 낙장(落張)이 되어 간행과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간행시기는 추정할 수 밖에 없다.

7.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奉化 淸涼寺 乾漆藥師如來坐像 및 腹藏遺物)

가. 검토사항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09.06.01)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0.04.23, '10.05.04)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奉化 淸涼寺 乾漆藥師如來坐像 및 腹藏遺物)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 조계종 청량사
- 소재지 :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북곡리 247 청량사
- 수 량 : 불상 1구, 복장유물 일괄(33건 223점)
- 규 격 : 상 높이 90cm, 불두 높이 35.6cm, 어깨 폭 54.2cm, 무릎 폭 72.5cm
- 재 질 : 건칠
- 제작연대 : 고려 전기(1560년 중수, 1715년 중수)
- 제작자 : 초창 미상(初創 未詳)
중수화원(1560년) : 성연(省衍), 세준(世峻)
중수화원(1715년) : 혜주(慧珠), 원책(圓策), 삼해(三海), 정행(淨行)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비록 상의 정확한 제작 연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상의 양식으로 보아 통일신라의 전통을 이어주는 신라 말 고려 초의 철불 조성에 이어 고려 전반기 언젠가 건칠로 불상을 제작하기 시작한 것을 추정할 수 있어 건칠상 조성의 상한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상이다. 상에서 나온 복장물 중의 기록을 보면 여러 번의 재복장이 이루어진 듯 1560년의 결원문(結願文)이 있고 이 후 1715년에 중수한 기록이 있다. 복장물 중에 고려의 시종 최종준이 1239년에 납시(納施)한 다라니가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연대추정에는 어려움이 있다. 현재 이 건칠상을 지지하는 층이 파손되고 있어 상 내부에서 목조로 보강하고 있으므로 국가보물로 지정하여 보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지정 가치 있음)

청량사 건칠여래좌상은 고려 13세기에 중수된 상으로 재료인 건칠과 수정을 이용한 눈동자 감장기법 등 고려 시대에 등장하는 특징을 지닌 작품이다. 또한 눈, 코, 입의 생경한 표정이라든지 긴장한 어깨에 비해 허리가 짧고 무릎이 낮은 점도 특징으로 고려 전기의 영천 선원동 철불, 충주 지역의 철불들과 비교된다. 이들 불상들과의 양식적 공통성은 충주에서 소백산맥으로 이어지는 육로라든지 남한강과 낙동강 수로와 연결되는 지역적 특징과도 연결되어 양식적인 유파를 형성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 건칠여래좌상은 조형성이 뛰어나고 고려 전기 불상의 지역성 연구에 중요한 자료인 점 그리고 건칠불상 가운데 초기 작품에 해당하는 상징성을 참고해 볼 때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이 불상은 정확한 조성 시기는 밝혀져 있지 않으나,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을 통해 고려 후기와 조선 전기(1560년), 그리고 조선 후기에 걸쳐 중층적으로 중수된 사실을 전하고 있어 불상의 중수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이 불상은 얼굴, 팔이나 어깨, 손 등 부분적으로 어색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후대의 후보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되며, 양식적 특징상 통일신라 전성기 양식을 모델로 해서 고려 전기에 제작한 불상으로 추정된다. 비록 후보된 부분이 있지만, 그 범위가 미미하고 고려 전기 건칠기법으로 제작된 불상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작례 중 하나로 주목된다.

이 불상은 건칠불상 연구에 있어서 선구적인 예일 뿐만 아니라 고려 전기에

유행한 복고양식 불상 연구에도 귀중한 사례로 평가되므로, 함께 발견된 복장유물과 함께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 (지정 가치 있음)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불의 복장전적은 불경류와 다라니류이다. 시기는 고려 후기부터 조선 후기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불경류는 대부분 고려 후기 및 조선 전기 또는 후기의 인본 내지는 필사본으로 단간(斷簡) 또는 낙장(落張)이 많아 온전한 것이 거의 없다. 다라니류는 복장의식의 사상적 의미로서도 표현되고 복장품의 후령통을 싣다거나 충전용이라 양(量)도 상당히 많다. 따라서 복장전적은 불량답시주목록 2책과 다라니류 4종만을 복장유물과 함께 일괄로 하여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보물로 지정 예고함.
 - 복장유물은 19건 208점만 지정함.

조사보고서



○ 내용 및 특징

이 상은 높이 90cm 이고 무릎 폭이 72.5cm인 항마촉지인 불좌상으로 약함을 왼손에 들고 있어 약사불로 알려져 있다. 상의 비례에서 어깨의 폭이나 결가부좌의 무릎 폭이 비교적 넓은 편이다. 상의 재질은 건칠로 조성되었으며 상이 일부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속으로 목재로 받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건칠상들은 대부분 고려시대 말기의 예들이 많이 알려져 있으나 해인사의 회랑조사상이 건칠로 된 것을 고려한다면 아마도 고려 초부터 건칠의 상들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상의 양식을 보면, 통일신라시대에서 고려 초 까지 유행한 항마촉지의 수인이나 얼굴의 눈꼬리가 길고 옆으로 올라간 모습은 고려시대 초기의 특징으로 특히 충주의 단호사와 대원사에 있는 두 구의 철불좌상과 양식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얼굴 표정과 상 전체의 비례로 보면 보물 제513호의 영천 선원동 철불 좌상과도 유

사하다.



○ 내용 및 특징

청량사 유리보전 내에 있는 건칠여래좌상은 항마촉지의 수인에 오른발을 위로 한 결가부좌로 앉아 있으며 넓은 어깨에 건장한 불신이 특징이다. 얼굴은 비교적 큰 편이지만 탄력 있는 모습에 위로 치켜 올려진 눈과 뚜렷한 코와 입이 중앙으로 몰려 생경한 분위기를 보인다. 머리의 작고 촘촘한 나발은 불상의 재료인 건칠과는 다른 재료로 판명되는데 엑스레이 촬영 결과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 주목된다. 기법적인 면에서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넓고 건장한 어깨와 불룩 솟은 가슴, 편단우견의 대의, 두 무릎 사이로 흘러 내린 부채꼴의 옷자락, 간결한 옷주름 등은 항마촉지인과 더불어 통일신라 이후부터 유행한 석굴암 불상 형식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얼굴의 표현이라든가 넓은 어깨에 비해 짧은 허리, 넓은 무릎 너비에 비해 매우 낮은 무릎 등 비례면에서 큰 변화를 보인다.

이 여래좌상은 내부 조사와 엑스레이 촬영 결과 눈에는 수정으로 눈동자를 감입하였으며 7~8겹의 삼베를 이용한 건칠상임이 밝혀졌다. 그리고 백호 주위와 오른손, 목 부위에 수리한 흔적이 있으며 오른쪽 어깨 내부에는 나무로 보강을 해 놓은 상태이다. 또한 오른쪽 팔 역시 나무를 넣어 원형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외형상으로도 머리 부분이 앞으로 나온 듯하며 오른쪽 어깨는 안에 나무로 보강하였지만 심하게 내려 앉은 상태로 이에 따라 양 무릎의 높이도 차이를 보인다.

이 여래상은 고려시대 철불인 영천 선원동 철불좌상(보물 제513호)과 건장한 어깨라든지 편단우견의 착의법과 육계의 표현 그리고 위로 올라간 눈꼬리와 입 가장자리를 판 모습까지도 닮았다. 같은 얼굴 모습은 충주 지역의 대원사나 단호사 철불에서도 보이는 특징이다.

이 불상 안에서는 개금중수기(改金重修記)와 다라니 등 복장물이 발견되었다. 복장에는 시중(侍中) 최종준(崔宗峻)이 인시(印施)한 만다라에 나타난 기해년(己亥年, 1239년) 간지(干支) 라든지 1560년(명종 15) 순묵(淳默)이 중심이 된 개금중수시의 천인동발원문(千人同發願文)에 적힌 지원 5년(至元 5年, 1268년) 등이 있어 제작연대 추정에 참고가 된다.



○ 내용 및 특징

1) 건칠약사여래좌상

현재 청량사 유리보전(琉璃寶殿)의 주불(主佛)로 봉안되어 있는 이 불상은 X-ray 조사결과 칠(漆)과 포(布), 회(灰) 등을 이용하여 제작한 건칠불상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기법으로 제작한 불상은 중국의 남북조시대부터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확히 언제부터 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지금까지 알려진 건칠상 가운데 가장 시기가 앞선 것은 고려 전기에 제작된 합천 해인사 희랑대사상(希朗大師像, 보물 제999호)이다.

이 불상은 엄숙한 상호, 당당하면서도 육감적인 양감, 균형 잡힌 신체 모습, 탄력과 절제 넘치는 선 등에서 분명 통일신라 전성기의 양식적 특징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칠기법의 기원을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불상의 복장에서는 불상의 초창과 관련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불상의 복장에서는 법사리(法舍利) 겹 충전용(充填用)으로 납입된 경전과 다르니, 그리고 중수와 관련된 원문 2점이 발견되었다. 중수 관련 원문은 「천인동발원문(千人同發願文)」과 「결원문(結願文)」이다. 이 2점의 중수원문(重修願文)은 가정(嘉靖) 39년(명종 15, 1560) 불상을 중수 할 때 참여한 사부대중의 목록을 적은 것이다. 특히 중수원문 중 하나인 「천인동발원문」에는 이전의 중수상황도 소략하게 기록하고 있어 이 불상의 제작시기 추정에 일말의 단서를 제공한다. 즉 이 기록에서 초창은 알 수 없으나 약사여래상(藥師如來像)이 파색(破色)되었기에 지원(至元) 5년 10월에 개금하고, 그로부터 245년 후 화사(化士) 순묵(淳默)이 파색(破色)된 것을 다시 중수하고 좌우보처(左右補處)인 일광보살(日光菩薩)과 월광보살(月光菩薩), 그리고 화광(火光) 등을 가정(嘉靖) 39년 10월에 만들기 시작하여 12월에 완성하였다고 한다. 처음 중수가 있었던 지원(至元) 5년은 원대(元代)에 2번 사용된 연호이다. 즉 지원 5년은 1268년과 1339년에 해당하지만, 발원문에 간지(干支)가 없으므로 어느 해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더욱이 1268년의 245년 후는 1513년이요, 1339년의 245년 후는 1584년이므로 두 가지 모두 중수발원문이 쓰여진 1560년과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다만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복장에서 함께 발견된 「일체여래전신사리보협진언(一切如來全身舍利寶篋眞言)」이다.

이 진언의 오른쪽 모퉁이에는 세로로 ‘기해시월일 시중 최종준 인시(己亥十月日侍中 崔宗峻 印施)’라는 간기(刊記)가 찍혀 있는데, 이 진언을 인시(印施)한 시중(侍中) 최종준(崔宗峻, ?~1249)은 최유청(崔惟淸, 1095~1174)의 손자로 신종(神宗) 3년(1201)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이부상서(吏部尙書)를 거쳐 대몽항쟁 기간이었던 고종 재위 시에 15년 간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역임한 인물이다. 따라서

이곳에 등장하는 기해년(己亥年)은 1239년에 해당한다. 이 진언으로 정확한 중수 연대는 가늠할 수는 없지만, 불상의 중수 시 불상의 중수 시점과 가까운 시대의 전적이나 다라니 등이 납입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1239년과 가까운 지원 5년에 중수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후 1715년에도 약사여래와 좌우 보처에 대한 중수가 있었다. 대좌는 1734년에 새로 조성한 것이며, 조성에 관한 목서가 남아 있다.

우선 약사불상의 현상과 양식적 특징을 살펴보면, 머리에는 높고 큼직한 육계가 표현되었으며, 작고 동글동글한 나발은 별도로 만들어 촘촘히 부착하였다. 큼직한 육계에서 지발부(地髮部)로 이어지는 헤어라인은 부드럽고 완만하다. 이마는 좁고 면이 다소 거칠며, 양미간에는 어색할 만큼 큼직한 백호가 박혀 있는데 후보된 것이다. 반개한 눈꺼풀은 물결치듯 표현하였고 긴 눈초리를 치켜 올려 사바세계를 굽어보듯 처리한 시선은 다소 강인해 보인다. 이러한 눈매는 통일신라시대 중엽 경에 조성된 불상들에서 볼 수 있는 눈매와 달리 고려 전기로 추정되는 부석사 소조여래좌상이나 고려 전기의 단호사, 대원사 등 충주 지방의 철조여래좌상의 강인한 눈매 등과도 비교된다. 가름하게 정돈된 얼굴은 양감이 팽창하여 탄력적이며, 광대뼈는 도드라졌고 입술 아래쪽을 깊이 눌러 엄숙한 미소를 만들어 내었다. 턱 아래로는 자연스럽게 군살 턱이 자리 잡았다. 귀는 어깨 부근까지 길게 늘어졌으며, 귓볼은 물방울 모양으로 크게 구멍을 뚫었다. 상하각의 표현은 불분명하며 이공(耳孔)의 형태는 1274년에 중수된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의 그것과 유사하다.

굵기와 길이가 알맞은 목에는 삼도의 표현이 뚜렷하다. 팽팽한 근육이 자리 잡은 가슴은 넓고 당당하며 허리는 잘록하다. 무릎은 낮고 넓은 편이며, 오행은 깊다. 불신에는 대의(大衣)를 편단우견으로 걸쳤는데, 주름은 절제미가 돋보이는 가운데 육감적인 불신에 착 감기듯 얇게 밀착되어 이상적인 불신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팽팽하게 걸친 대의자락 위로 도드라지게 드러난 왼쪽 젓가슴이나 가슴 아래로 흘러내린 두 가닥의 짧은 주름, 그리고 겨드랑이와 양 발목을 향해 팽팽하게 감겨 들어가고 있는 요철이 있는 입체적인 주름과 무릎 앞으로 자리 잡은 부채꼴형 주름, 팔자형(八字形)으로 처리한 등 주름 등은 석굴암 본존불상이나 경주 남산 냉골 석조여래좌상, 그리고 경주 안계리 석조여래좌상 등 8세기 중엽 경의 전성기 불상을 연상시키지만, 이들 보다 과장된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

수인(手印)은 오른손은 무릎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려 축지인을 취하였고, 왼손은 복부 앞에서 선정인(禪定印)을 취하고 구슬 모양의 약기(藥器)를 올려놓아 약사불상의 도상적 특징을 보이지만, 제작 당시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1560년에 작성된 발원문에 약사불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약사불상으로 조성,

불안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하겠으며, 1560년 중수 개금 때 새로 조성된 협시보살은 현재 남아 있지 않다.

이 상에서 보이는 볼륨감 넘치는 불신의 표현, 긴장감 넘치는 선, 균형 잡힌 몸매, 간결함 속에 긴장감이 돋보이는 옷 주름 등은 석굴암 본존불이나 경주 남산 냉골 석조여래좌상, 그리고 경주 안계리 석조여래좌상 등 8세기 중·후반 경에 조성된 불상들과 양식적 친연성이 엿보인다. 하지만 작고 촌촌한 나발, 물결치듯 표현한 강인한 눈매, 다소 과장된 근육의 표현, 귀의 형태나 옷 주름 등의 세부표현에서 영천 선원동 철조여래좌상이나 광주 하사창동 철조여래좌상, 부석사 소조여래좌상 등 고려 전기에 제작된 복고풍 불상 양식 계통과의 유사점이 확인된다. 이 불상 역시 고려 전기 통일신라 전성기 불상을 모본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2) 복장유물

후령통은 종이로 만든 것으로 표면에는 옷칠하였다. 후신(喉身)에는 사방주(四方呪)를 묵서하였고, 후개(喉蓋)는 팔엽개(八葉蓋)의 형태로 팔엽대홍련지도(八葉大紅蓮之圖)를 나타내었다. 후령통 내에는 종이로 만든 원통형의 오보병(五寶瓶)을 납입하였다. 오보병은 오방색을 띠며, 표면에는 묵서로 방위에 따라 범자를 적었다. 밑면에는 비단으로 만든 오륜(五輪)을 부착하였으나 청(靑), 백(白), 흑색(黑色) 보병(寶瓶)에만 남아 있고 황색은 따로 떨어져 있다. 보병 내에는 오곡(五穀), 오보(五寶), 오향(五香), 오황(五黃), 오약(五藥), 오개(五芥), 오보제수엽(五菩提樹葉) 등을 한지로 싸서 넣고 양면에 물품명과 봉자(封字)를 묵서하였고<표 2 참조>, 이외 비단으로 만든 오산개(五傘蓋), 저(杵) 등을 납입하였다. 동(東) 마노병(瑪瑙瓶)에는 대맥(大麥), 대황(大黃), 나청(蘿靑), 화(花), 청백저(靑帛杵), 청개(靑蓋), 반월형(半月形) 조각, 묵서가 없는 한지 4첩 등을 납입하였고, 서(西) 산호보병(珊瑚寶瓶)에는 도(稻), 소황(小黃), 곽향(藿香), 계피(桂皮), 백개자(白芥子), 화(花), 야합수엽(夜合樹葉), 백백저(白帛杵), 백개(白蓋), 삼각형(三角形) 비단 조각, 묵서가 없는 한지 2첩 등을 납입하였다. 남(南) 마니보병(摩尼寶瓶)에는 진주(珍珠), 감초(甘草), 정향(丁香), 웅황(雄黃), 자개자(紫芥子), 화(花), 추엽(楸葉), 홍백저(紅帛杵), 홍개(紅蓋), 묵서가 없는 한지 2첩, 적색 비단 조각 1점 등을 납입하였고, 북(北) 유리보병(琉璃寶瓶)에는 청녹두(靑菉頭), 유리(琉璃)(?), 아리(阿利), 침향(沈香), 자황(紫黃), 만청(蔓靑), 흑개자(黑芥子), 화(花), 흑개(黑蓋), 흑백저(黑帛杵), 반월형 비단 1점, 묵서가 없는 한지 2첩 등을 납입하였다. 중(中) 수정보병(水晶寶瓶)에는 마자(麻子), 우황(牛黃), 황개자(黃芥子), 성루엽(聖樓葉), 화(花), 황개(黃蓋), 묵서가 없는 한지 1첩 등을 납입하였다.

이외 다라니, 전적류, 황초폭자, 제보향(諸寶香)이라는 묵서가 있는 한지 뭉치 1

점, 한지로 만든 오보병 2점, 시주자명이 있는 삼베편, 비단편 등이 발견되었다.

후령통의 형태나 납입방식 등은 문경 봉암사 목조아미타여래상(1586년 작)의 복장 납입 방식과 유사한 점이 있어 1560년 중수 때 납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문헌]

○ 천인동발원문 千人同發願文(1560년)

1.

性海」釋空」戒峯」性一」正堅」能了」智蟾」雪仁」玉連」處澄」智安」雪熙」思允」信雄」玉澄」道文」儀淳」信道」行淳」善弘」雪旭」性天」雪還」

2.

學敬」敬熙」智空」道文」海連」熙祖」處敏」能印」信澗」法澄」靈隱」智湖」釋熙」玄牛」佛行」靈機」印贊」學敬」能印」志優」學靈」

3.

正衍」智安」惠弘」惠澄」雪岑」覺淳」元旭」雪雲」信峻」性玉」智雲」雲熙」克湖」元悟」性峯」一宗」戒澗」熙尙」靈秀」道軒」法根」信峻」覺月」

4.

信敬」印草」智還」天寶」永貞」法淳」法修」法源」崇印」崧悅」贊崇瓊」崇鮮」崇彥」惠雄」僅文」靈默」玄則」熙晟」性修」處林」天雲」尙澄」印祖」學淳」祖玄」僅敬」

5.

天一」性連」敬仁」僅敬」性熙」雙雲」雙明」熙允」熙牛」雙勳」崇坦」自澄」學敏」惠澄」惠林」宗敬」印玉」竹林」法修」贊靈贊」戒林」淡行」祖仁」省雲」宗印」智宥」

6.

小童秩」漢元」鳳壽」眞伊」億從」鶴壽」壽量」宓伊」鶴守」連守」雲鶴」連壽」億良」億良」靈贊」

7.

東方藥師如來造成卽不知年數年久破色改金則」至元五年十月日畢造其後計數二百四十五年 又於化土淳默」破色重修」

左右補處日光++(=菩)++(=薩)月光++(=菩)++(=薩) 及火光等造成 嘉靖三」十九年十月爲始十二月日 畢造」

證明 釋空」持殿 惠峻」禪宗維那 祖澄」法堂持寺大化主 雪旭」

畫員 省衍」世峻」供養主 信問」戒幢」

書寫 寶鏡」

嘉靖三十九年庚申仲冬日目錄」

○ 결원문 結願文(1560년)

1.

大施主 白裴山兩主」大施主 李莫同兩主」大施主 張挨貞兩主」大施主 崔世元兩主」大施主 李屎仇知兩主」大施主 崔莫松兩主」大施主 盧銀孫兩主」大施主 金永孫兩主」大施主 永眞兩主」孔內隱孫兩主」琴元補兩位」琴仰尙兩位」琴億兩位」琴守億兩位」

2.

琴文淳兩位」權繼林兩位」權繼根兩主」崔貴男兩主」崔元補兩主」崔武金兩主」崔莫同兩主」今德兩主」禹莫孫兩主」劉苐叱之兩主」鄭苐叱同兩主」林武金兩主」林順山兩主」李銀孫兩主」金忠男兩主」

3.

金千兩主」金大山兩主」全龍金兩主」李亨兩主」林碩金兩主」姜玉連兩主」全自孫兩主」金內ㄱ同兩主」必非保体」千德保体」朴元兩主」林無作只兩主」林承良兩主」林每邑孫兩主」林孫兩主」黃延孫兩主」

4.

金萬碩兩主」裴守貞兩主」金世長兩主」崔碩兩主」金今孫兩主」林成武兩主」朴長孫兩主」金有永兩主」金罕兩主」朴命孫兩主」

畫員 省衍」惠峻」證明 釋空」持殿 惠峻」法堂持寺 雪旭」禪宗維那 祖澄」

5.

供養主」信星比丘」戒幢比丘」化主」淳默比丘」

6.

嘉靖三十九年庚申十二月初一日蓮臺寺 藥師三世如來改金重修記錄」

○ 발원문 發願文(1715년)

聞夫發願者造成者現增福壽當生淨刹是以有善君子同願發心各出珍財重修補」滿月教主藥師如來與左右補處日光月光兩大菩薩尊像安于清涼山蓮臺寺共結良」緣同願發心各各施主與緣化各各比丘大化士等同往西方極樂國土見佛接引親見彌陀佛」

蒙授記同證菩提之願者茲記后祿」

1.

施主秩」

黃金大施主李氏良春」黃金供養兼大施主金士奉兩主」黃金大施主比丘竺灵」

烏金大施主金石松兩主」黃金施主嘉善大夫鄭善兩主」黃金大施主崔己哲兩主」
供養大施主全貴奉兩主」黃金施主鄭戒玄兩主」布施大施主鄭氏禮梅兩主」布施供養
大施主朴一先兩主」供養施主盧應積兩主」供養施主尹勝積兩主」供養施主崔仁發兩
主」供養施主趙男兩主」黃金施主李億孫兩主」黃金施主戒琳靈駕」黃燭施主趙禮山
兩主」施主朴伯萬兩主」施主崔己先兩主」施主羅一先兩主」施主李億萬兩主」施主
比丘禪鑒」施主比丘德祐」施主比丘密順」施主權宗京兩主」施主比丘處默」施主比
丘宝明」施主比丘緇侃」施主比丘就晉」施主金戒弘兩主」

2.

施主文悟奉兩主」施主劉氏心禮兩主」施主朴業龍兩主」施主比丘彩日」施主崔一龍
兩主」施主金氏召史兩主」施主金奉 兩主」施主鄭戒先兩主」施主金氏三禮」
緣化秩」證師 比丘圓澤」持殿 比丘法察」善手良工」比丘慧珠」比丘圓策」比丘三
海」比丘淨行」別座」比丘密瓊」供養主」比丘覺明」比丘禪月」負木」朴一先」居
士得行」大化士」剋念」

3.

山中大德」比丘片雲」和尚」比丘密謙」三剛」比丘大欽」山中老德比丘清學」比丘
應梅」比丘竺海」比丘敏惠」比丘德祐」比丘圓鑑」比丘法勝」比丘呂閑」

4.

康熙五十四年乙未六月日清涼山蓮臺寺」
藥師如來與左右補處塗金重修記」

○ 대좌목록서(1734년)

雍正十二甲寅秋七月～龍席(?)造成記」

釘鐵施主姜龍男兩主」

山中老德 比丘竺靈」

持殿 廣訥」

三綱」三宝 ○倫」

書記 日淵」

和尚 碩梅」

造工比丘 三印」

化主比丘 覺清」

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

我等与衆生」皆共成佛道」

○ 참고문헌

崔聖銀, 「13世紀 高麗 木造阿彌陀佛像과 腹藏墨書銘」, 『韓國史學報』 30, 고려사학회, 2008

林南壽, 「淸涼寺 傳藥師如來坐像考」, 『民族文化論叢』 43, 嶺南大學校, 2009

□

○ 내용 및 특징

건칠약사여래좌상 복장유물 가운데 인쇄자료는 백지묵서 사경편과 인본 및 필사 다라니류로서 16종 203점이다. 조사된 목록은 다음과 같다.

순번	명칭	수량	연대	규격 (세로×가로cm)	특징
1	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39	1장	고려 후기	29×93	筆寫本, 앞부분이 결락되어 권말 부분인 41행만 남아 있음
2	[이교약일체지지청]	1장	고려 후기	22×28	목판본. 破本으로 2張만 있음.
3	[법계규식초]	1첩	고려 후기	24.3×54.3	목판본. 破本으로 3장(제12~14장)만 있음. 판심제로 서명으로 하였음.
4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9	1첩	16세기	33.3×14	木版本. 절첩본으로 5행씩 절첩함. 破本으로 4장만 남아 있음.
5	금강반야바라밀경 언해	1책	16세기	31×20.5	목판본, 간경도감판 임
6	묘법연화경 권5~7	1책	16세기	32×21.3	목판본. 권5: 1~38장 권6: 1~15, 27~29, 31~54장 권7: 1~23, 34~45장이다. 낱장형태임.
7	묘법연화경 권5~6	1책	16세기	32×21.3	목판본. 권5: 20~58장, 권6: 1~11, 35~54장이다. 낱장형태임.
8	묘법연화경 권1~3, 5~7	1책	1561	28×15.4	목판본. 권7말: 嘉靖四十辛酉(1561)正月日慶尙道豊基地叱方寺開板
9	불량답시주목록	1책	1698	37.5×32.5	寫本. 蓮臺寺시주기
10	불량답시주목록	1책	1713	36.5×30.5	寫本. 蓮臺寺시주기
11	별칭	1책	조선 후기	30.8×21	寫本
12	총림사찰사명일영훈규	1책	조선 후기	38×33	寫本
13	삼십칠존종자만다라팔엽일륜	1매	16세기	66×54.5	목판본, 己亥十月日侍中崔宗峻印施.
14	금강계만다라	166매	조선 후기	37×38	목판본. 낱장임
15	범자다라니	3매	조선 후기	51×57	목판본. 낱장임
16	주사범자다라니	21매	조선 후기	42×48	주색으로 필사한 다라니. 낱장

1. 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39(白紙墨書大方廣佛華嚴經 貞元本 卷39) 般若(印度) 譯

寫本. [고려 후기]

1장. 93×29 cm.

대방광불화엄경 가운데 반야(印度)가 한역한 40권본의 권39에 해당된다. 권수 제 앞부분이 결락되어 권말 부분인 41행만 남아 있다. 권말제는 ‘大方廣佛花嚴經卷第三十九’이며, 권자본 형태이나 파손되어 말미만 있다.

2. 이고약일체지지청정[以故若一切智智淸淨]

木板本. [고려 후기]

1張. 上下單邊. 上下間 22cm. 무게, 28×22cm.

권수와 권말 부분이 없는 破本이며 書名을 알 수 없어 시작부분으로 가칭한다.

3. 법계규식초[法界規式抄]

木板本. [고려 후기]

1帖(3張), 상하단변, 無界, 27행 20자, 折本. 24.3×54.3cm.

권수와 권말 부분이 없는 破本과본이며 남은 장차는 12~14장만 남았다. 書名을 알 수 없어 시작 부분으로 가칭한다.

4.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9(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卷9)

諸大法師(梁) 集撰.

木版本. [16세기].

1帖(4折) : 上下單邊. 無界, 半葉 25.5×14cm. 25행 13자, 33.3×14cm.

연접처(連接處) 판수에는 참구(懺九)에 이어 장차(張次)가 있고 5행씩 절집(折摺)하였다. 장차는 12장, 13장, 15장, 18장이며 파손본이다. 내용은 발회향(發廻向), 제 3일 부분이다.

5. 금강반야바라밀경 언해(金剛般若波羅蜜經 諺解)

鳩摩羅什(印) 譯.

木版本. [16세기].

1책(47張), 四周雙邊. 半葉 21.2×14.7cm. 有界. 8行19字.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31×20.5cm.

諺解本으로 △ ◊ 一 ◊ · 이 있다. 간경도감판의 후쇄본이다. 잔존인면(殘存印面)은 서문 11장, 本文 36장이며 완전본이 아니며 표지가 없고 선장본을 해체하여 복잡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6. 묘법연화경 권5~7(妙法蓮華經 卷5~7)

戒還(宋) 解.

木版本. [16세기]

1책(115張) 四周雙邊. 半葉 22.5×15.8cm. 有界. 8行13字. 黑口, 內向黑魚尾.
32×21.3cm

낱장 형태로 잔존인면(殘存印面)은 권5 : 1~38장, 권6 : 1~15, 27~29, 31~54장, 권7 : 1~23, 34~45장이다.

7. 묘법연화경 권5~6(妙法蓮華經 卷5~6)

戒還(宋) 解.

木版本. [16세기]

1책(70張) 四周雙邊. 半葉匡廓 : 22.5×15.8cm. 有界. 8行13字.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32×21.3cm.

낱장 형태이며 잔존인면(殘存印面)은 권5 : 20~58장, 권6 : 1~11, 35~54장이다.

8. 묘법연화경 권1~3, 5~7(妙法蓮華經 권1~3, 5~7)

戒還(宋) 解.

木版本. 明宗 16(1561).

1책(312張) : 四周單邊. 半葉 20×12.5cm. 無界. 10行20字.
28×15.4cm.

序文 : 成化十三年丁酉(1477)·…成達生.

刊記 : 嘉靖四十辛酉(1561)正月日慶尙道豐基地叱方寺開板.

이 법화경은 요진시대 구마라습이 번역한 것에 송나라 계환(戒環)이 주해한 저본으로 명종 16년(1561) 경상도 풍기 칠방사(叱方寺)에서 간행한 판본이다. 북장시 장정하지 않고 낱장 형태로 납입되었다. 남아있는 잔존판(殘存板)은 권1 : 1~61장, 권2 : 1~68장, 권3 : 2~58장, 권5 : 2~56장, 권6 : 1~11장 51~56장, 권7 : 1~52장, 말 : 1장, 간기 : 1장이다.

9. 불량답시주목록(佛糧畚施主目錄)

蓮臺寺 編.

寫本. [肅宗 24(1698)] 1冊(5張). 37.5×32.5cm.

年紀 : 康熙三十七年(1698)年戊寅三月初七日始入.

첫머리에 '연대사(蓮臺寺)'라 표기하고 행을 바꾸어 집강(執綱) 의철(義哲), 지전(持殿) 해선(海善), 삼강(三綱) 극념(克念), 산중노덕(山中老德) 종흡(宗洽), 삼익(三

益) 등 10인의 명단이 있다. 이어서 ‘불량답시주목록(佛糧畚施主目錄)’이라 쓰고 시주자 직함, 이름순으로 필사하였으며 작성 시기는 숙종 24년(1698)으로 추정된다.

10. 불량답시주목록(佛糧畚施主目錄)

蓮臺寺 編.

寫本. [肅宗 39(1713)]. 1冊(8張). 36.5×30.5cm.

年紀 : 康熙伍拾貳年(1713)年癸巳七月日蓮臺寺佛糧畚施主唱魂冊重錄一件以置於山中滿月庵.

첫머리에 ‘연대사(蓮臺寺)’라 표기하고 행을 바꾸어 집강(執綱) 여심(呂諶), 지전(持殿) 취책(就策), 삼강(三綱) 인봉(印鵬), 산중노덕(山中老德) 편운(片雲) 등 7인의 명단이 있다. 이어서 불량답시주자(佛糧畚施主者) 명단을 시주자 직함, 이름순으로 필사하였으며 작성 시기는 숙종 39년(1713)으로 추정된다.

11. 총림사찰사명일영혼규(叢林寺刹四名日迎魂規)

寫本. 1冊(3張), 38×33cm.

파지옥진언(破地獄眞言), 멸악취진언(滅惡趣眞言), 보소청진언(普召請眞言) 등의 진언이 수록되어 있다. 앞 뒤 표지가 없고 장정이 해제되어 낱장 형태이며 얼룩이 있다.

12. 별칭(別請)

寫本. [年紀未詳], 1張. 30.8×21cm. 낱장

원문(願文) 형식임.

13. 삼십칠존종자만다라팔엽일륜(三十七尊種字曼陀羅八葉一輪)

木板本. [고려 후기]

1매 : 圖. 13.3×16.5cm. 전체크기 66×54.5cm.

刊記 : 己亥(1239)十月日侍中崔宗峻印施.

목판본 다라니로 상단 첫단은 삼십칠존종자만다라팔엽일륜(三十七尊種字曼陀羅八葉一輪) 4판을 연결하여 인쇄하였는데 1판은 결락되었다. 둘째 단에는 ‘일체여래전신사리보협’이라 쓰고, 왼쪽에 ‘己亥(1239)十月日侍中崔宗峻印施’ 라는 시주자명이 있는 다라니를 2단으로 하여 4판을 연결하여 인쇄하였고 동심원이 아닌, 안쪽부터 바깥으로 7겹을 풀어 나오면서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

일체여래전신사리보협진언은 시중(侍中) 최종준(崔宗峻)이 시주하여 판각된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 고려 문종 때 설치된 중서문하성의 최고 관직(종1품)이며, 유

일한 종1품 실직으로서 명실상부한 수상직이었다. 최종준(崔宗峻)은 고종 연간에 시중을 지냈으므로 여기서의 기해년은 고종 26년(1239)으로 추정된다.

14. 금강계만다라(金剛界曼陀羅)

木版本.

166매. 사주단변 34×37.5cm.

만다라를 둘러싼 광곽은 사주단변이고 왼쪽에 ‘일체여래전신사리보협진언(一切如來全身舍利寶篋眞言)’, ‘오른쪽에 팔엽심연자삼십칠존만다라(八葉心蓮子三十七尊曼陀羅)’라 적고 네모서리의 사방을 범자로 표시하였다.

이 만다라와 관련된 아무런 기록이 없어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복장시 대량으로 인출하여 납입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5. 범자다라니(梵字陀羅尼)

목판본. 3매, 四周單邊. 匡廓 45.6×23.1cm. 전체 크기 50×57cm.

다라니를 둘러싼 광곽은 45.6×23.1cm이며, 상단에 연화대좌가 있고 하단에는 3행의 범자가 있다. 아미타삼존 다라니로 추정된다.

16. 주사범자다라니(朱寫梵字陀羅尼)

寫本. 21매, 42×48cm.

주색으로 필사한 5행의 범자 다라니이다.

<표1> 복장유물 목록

구분	명칭	재질	수량	연대	크기(cm)	비고	
발원문	1	結願文	종이	1	1560년	65.6×41.8	*嘉靖三十九年庚申十二月初一日蓮臺寺 藥師三世如來改金重修記錄.
	2	千人同發願文	종이	1	1560년	66.0×41.5	*嘉靖三十九年庚申仲冬日目.
	3	發願文	종이	1	1713년	36.5×30.5	*康熙五十四年乙未六月日清涼山蓮臺寺 藥師如來與左右補處塗金重修記.
	4	願文	종이	1	조선시대	27.3×28.4	*稽首歸命十方三寶慈尊特……
복장유물	5	喉鈴筒	종이	1	조선시대	높이 23.3 폭 6.8	*내부에 오보병을 납입함. 오보병 납입 물목은 <표2> 참조. *보병의 크기는 높이 18.5cm, 폭 2.5cm임.
	6	西方寶瓶	종이	1	조선시대	21.0×31.0	*표면에 西方 封, 薰香 小黃 無를 묵서함. 중수시 납입한 오보병 중 서방으로 추정됨. *내용물은 없음.
	7	南方寶瓶	종이	1	조선시대	21.0×31.0	*표면에 南方 封이라고 묵서함. 중수 시 납입한 오보병 중 남방으로 추정됨. *내용물은 없음.
	8	黃綃幅子	비단	1	조선시대	37.5×98.0	*南, 東, 言, 貴非保休兩主라는 묵서가 있음.
	9	諸寶香	종이 나무 금속	1몽치 (일팔)	조선시대	23.0×32.5	*표면에 諸寶香 封이라고 묵서함. * 금속제 후령통, 향목편 및 五方 鏡 중 三角, 半月鏡, 그리고 메달 형태의 柄鏡을 납입함.
	10	삼베	삼베	1	조선시대	35.0×68.0	* 天德, …氏保休라는 墨書가 있음.
	11	청색직물편	비단	2	조선시대	①31.5×46.5 ②11.5×13.0	
	12	백색직물편	면	1	조선시대	37.0×93.0	
	13	封緘紙片	종이	2	조선시대	①23×38.6 ②10×41	① ‘梵’字와 ‘封’字를 주서로 씌. ② ‘封’字를 주서로 씌.
	14	封緘紙	종이	1	-		*복장을 납입하고 불상 밑바닥 전체를 봉한 봉함지. *묵서로 다리니와 佛를 連書함.
15	백지	종이	1	-	42.3×79		
16	종이묶음	종이	1	-		*흰색가루를 감싼 종이.	
17	紙花(?)	종이	2	-		*흰색에 분홍색 물을 들임.	

구분	명칭	재질	수량	연대	크기 (세로×가로cm)	비고
북 장 전 적 류	18 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39	종이	1장	고려 후기	29×93	寫本, 앞부분이 결락되어 권말 부분인 41행만 남아 있음
	19 [이고약일체지지청]	"	1장	고려 후기	22×28	목판본. 破本으로 2張만 있음. 書名亡失.
	20 [법계규식초]	"	1첩	고려 후기	24.3×54.3	목판본. 1帖(3張) 破本으로 張12~14만 있음. 書名亡失.
	21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9	"	1첩 (4折)	16세기	33.3×14	木版本. 절첩본으로 5행씩 절첩함. 破本임.
	22 금강반야바라밀경 연해	"	1책	16세기	31×20.5	목판본, 四周雙邊. 有界. 8行19字.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23 묘법연화경 권5~7	"	1책	16세기	32×21.3	목판본. 날장형태
	24 묘법연화경 권5~6	"	1책	16세기	32×21.3	목판본. 四周雙邊. 有界. 8行13字. 黑口, 內向黑魚尾
	25 묘법연화경 권1~3, 5~7	"	1책	1561	28×15.4	목판본.
	26 불량답시주목록	"	1책	1698	37.5×32.5	寫本. 蓮臺寺시주기
	27 불량답시주목록	"	1책	1713	36.5×30.5	寫本. 蓮臺寺시주기
	28 별칭	"	1매	조선 후기	30.8×21	寫本
	29 총림사찰사명일영훈규	"	1매	조선 후기	38×33	寫本
	30 삼십칠존종자만다라팔엽일륜	"	1매	16세기	66×54.5	목판본, 己亥十月日侍中崔宗峻印施.
	31 금강계만다라	"	166매	조선 후기	37×38	목판본. 날장임
32 범자다라니	"	3매	조선 후기	51×57	목판본. 날장임	
33 주사범자다라니	"	21매	조선 후기	42×48	주색으로 필사한 다라니. 날장	
계	33건 223점					

<표 2> 오보병 내 납입물목

	物目	동	남	서	북	중앙	비고
오보병	五輪	靑絹暗輪		白絹鏤輪	黑絹哈輪	黃絹 坎輪	각 방위에 따른 범자오륜을 묵서
	五穀	大麥		稻	靑菴頭	麻子	
	五寶		珍珠		琉璃(?)		
	五藥		甘草	桂皮	阿利		
	五香		丁香	藿香	沈香		
	五黃	大黃	雄黃	小黃	紫黃	牛黃	
	五芥	蘿菁	紫芥子	白芥子	蔓靑 黑芥子	黃芥子	
	五色彩幡						
	五色線						
	五時花	花	花	花	花	花	
	五菩提樹葉		楸葉	夜合樹葉		聖樓葉	
	五吉祥草						
	五傘蓋	靑蓋	紅蓋	白蓋	黑蓋	黃蓋	비단
	五杵	靑帛杵	紅帛杵	白帛杵	黑帛杵		각 방위 색 비단에 '杵'字 묵서

II.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명칭 변경

안건번호 동산 2012-01-025

1. 보물 제370호 ‘울산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가. 검토사항

보물 제370호 ‘울산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의 지정 명칭 변경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보물 제370호 ‘울산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은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소재하고 있어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으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명칭 변경 하고자 명칭 변경 여부를 부의하는 사항임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명칭 변경하도록 검토되면 지정 명칭 변경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보물 제370호
- 명 칭 : 울산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蔚山 澗月寺址 石造如來坐像)
- 소유자(관리자) : 국유(울주군)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512-1번지
- 수 량 : 1구
- 규 격 : 높이 133cm, 무릎 폭 101.5cm, 대좌 108×180.5×157cm
- 재 질 : 화강석
- 제작연대 : 신라시대

라. 변경 내용

- ‘울산’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蔚山 澗月寺址 石造如來坐像) →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蔚州 澗月寺址 石造如來坐像)

마. 변경 사유

- 해당 문화재의 지정 명칭 중 소재지를 군단위로 변경

바. 참고자료

- 울산광역시 소재 지정문화재 현황

종별	지정 번호	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비고
국보	147	울주 천전리 각석	울산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산210	1973.05.04	
국보	285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울산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34-1	1995.06.23	
보물	173	울주 망해사지 승탑	울산 울주군 청량면 울리 산16	1963.01.21	
보물	369	울주 석남사 승탑	울산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산232-2 석남사	1963.01.21	
보물	370	울산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울산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512-1	1963.01.21	
보물	382	울주 청송사지 삼층석탑	울산 울주군 청량면 울리 1202, 1203-1	1963.01.21	
보물	441	울산 태화사지 십이지상 사리탑	울산 남구 두왕로 277(울산박물관 내)	1966.03.31	

사.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으로 지정명칭 변경 예고함.